

第13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7
III.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15
IV.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25
V.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31
VI.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39
VII.	부 록	
1.	의사일정안	47
2.	의사일정안	49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1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57
5.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7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69
7.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7
8.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83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95

Ⅶ. 별책부록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별책 1)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1/2(별책 2)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2/2(별책 3)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4)
- ▶ 2001. ~2002.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별책 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09시 30분

開會式順(第134回 定期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09시 30분 개식)

● 의사담당 김왕년

지금부터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까.

녹음된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 회 사

(09시 35분)

● 의장 손만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육위원회가 오늘 제134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에 민선으로 출범한 교육자치가 올해로서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최근 교육자치를 더욱 약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전국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러한 추진방향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헌법의 이념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제도가 정

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며,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중지를 결집시키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미력하나마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1세기는 우리 사회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변화와 불확실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교육력의 강화, 특히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구상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고, 21세기 지식강국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된 충북인 육성을 위하여 차질없이 수행되어질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올해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충북교육의 우수성이 거듭 확인되었고, 특히 교육정보화 부문에서는 탁월한 수준의 평가를 받아냄으로써 잘 검증되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에서 개막된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한 우리 선수단이 오늘 폐막을 앞두고 막바지 선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훈련에 임하시고, 최선의 노력으로 경기를 치르시는 충북 선수단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지에 참관하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음을 인사드립니다.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분석된 자료와 높은 식견, 그리고 경륜을 토대로 하여, 교육행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확인하시면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범적인 사항은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차원 높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안과 그 동안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렴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안하시어, 한정된 재원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얼마 전에는 국정감사를 수감하시고, 곧 이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은 충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임을 감안하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시어, 교육위원회가 대의기구로서 집행청에 대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구상하고 격정하

[제134회-개회식]

는 조화로운 관계가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충북교육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19일 간의 긴 회기 동안 각 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금번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변함없이 충북교육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50만 충북도민과,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2세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1만 6천여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16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손만재.

● 의사담당 김왕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09시 41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09시 41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1. 제13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예산안제출에 즈음한교육시책연설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3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2년도예산안제출에 즈음한교육시책연설(교육감 제출)

(09시 41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평생교육체육과장님과 초등교육과장님께서서는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제2001-11호로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10

1. 경과보고

[제134회-제1차 본회의]

월 6일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5일자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 중에는 2002년도예산안제출에 즈음한교육시책연설을 들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

(09시 45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충청북

도교육위원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19일 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감님의 교육시책연설을 들으시고, 10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11월 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11월 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각각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회기 중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11월 2일은 소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2년도예산안제출에 즈음한교육시책연설

(09시 46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
안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의건을 상정
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시책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개최된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정기회에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
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헤아리시고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며,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질의와 대
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1만 6천여
교육가족들이 힘을 모아 21세기를 충북교
육의 시대로 만들자는 기치아래, 교육자
치 정신을 존중하여 국가 교육정책의 지
방화를 특색있게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
습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21세

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
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5대 시책 구현에 매진
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부터 시
행된 제7차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교육정보화
분야에서는 이미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ICT 활용 교육을 입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만드는 데 심
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권확립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업무경감 10
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여성 교육장과 여성 교육행정사
무관을 임용함으로써 교육계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알찬 열매
를 맺어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4회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
를 이루었으며, 그와 별도로 실시된 교육
정보화 부문 평가에서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우수성과 저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본도 교육이 이룬 값진
결실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헌신적
으로 노력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그 동안 이룬 발전적인 성과와 교육력을 바탕으로 교육가족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선진교육을 향한 활기찬 교육활동을 더욱 역동적으로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인은 충북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그 규모와 편성 방침, 그리고 역점을 두어 추진할 교육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69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2% 증액한 규모입니다.

예산은 교육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용 시설 확충 등 교육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과 2단계 교단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학비지원은 물론, 특기·적성교육활동과 증식지원사업, 학교급식 확대 등에도 지속적인 배려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내용은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과 시·지역 중학교 1학년의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교과서 무상 지원,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보조원 운영 등이 되

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계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계를 지배해 왔던 교육제도와 방법을 단기간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체제의 변화와 개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중·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두고서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선생님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다섯 가지 노력 중점을 정하여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 지닌 학력을 제고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지식과 정보가 삶의 기본요소가 되며, 교육의 결과로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학력도 그 수준과 깊이에서 창조성이 내포되어야 21세기 교육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미 교육감 취임시 제시한 10대 역점 사업 가운데 창의성을 지닌 학력제고를 으뜸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우리 고장 학생들을 세계 속의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학력제고는 질 높은 교실수업에서 출발된다는 점에서 먼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여 학습부진아가 없도록 지도하며, 학습내용과 방법은 자기 주도적인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장학활동을 더욱 다양화하고,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표창 우대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교육적 금언을 새기며, 충북교육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그 동안의 양적 발전을 질적 심화로 승화시킬 때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학생중심의 교육활동과 ICT 활용 교육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도록 선생님들의 교수 능력 향상 등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 교육현장 개선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특별연구교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원연수의 다양화와 기회 확

대를 도모하며, 교원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과교육연구회와 동료장학 등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 마련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우리 교육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해 왔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인 학교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그를 위해 선택과목의 다양화에 따른

교원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직 교원의 부전공 연수 확대 실시와 신규교사 임용 등을 추진하고, 교실 등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의 하드웨어 부분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인 교육과정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휴먼웨어로서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조화를 이루어 교실수업 개선은 물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입니다.

우리 교육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른바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심내용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을 고등학교는 2002년에, 초·중학교는 2003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도에서는 우리도의 교육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단기간에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애로점은 있으나 최대한 노력하여 해결토록 하겠으며,

다만 심각하게 제기되는 당면 현안은 초등학교 교원의 수급 문제입니다.

2003년도에는 초등교원이 1,2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그 해결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도 나름으로 신규교사 자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와 법령 하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강화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단위학교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학교공동체를 이루어 책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학교 축제 행사의 활성화 등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교원의사를 존중하는 학교 경영이 되도록 하며,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가 지역사회 속의 외딴 섬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1만 6천여 교육가족은 새로운 발상과 실천으로 본도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노력 중점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학교가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펼쳐가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교육도장이 되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김영세입니다.

● 의장 손만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은 송진하 부의장님과 이기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곧 바로 청원교육청을 시작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청 관계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22일 (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7.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의장 제의)
7.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교육위원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입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오

[제134회-제2차 본회의]

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난 10월 20일까지 5일 동안 도교육청
을 비롯한 5개 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대
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청 관계관계서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
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등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 바,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셔서 이번
정기회를 알차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1. 경과보고

(11시 02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2001년 10월 1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감으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
경계획안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5.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
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11시 03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학
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
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하신 대안은 적극 참작하여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하고 있는 충북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정기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률인 근로기준법의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60일에서 90일로 8월 14일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제2항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증축으로 충주고등학교 외 1개교에 교실 1,530㎡, 계단실 315㎡와 화장실 120㎡를 각각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교시설사업 연계 차원에서 편성하다보니 단일학교 시설공사비가 5억 이상 학교가 2개교가 발생하여, 제133회 본회의에 제출 보고드린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득이 예산심의 전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34회-제2차 본회의]

- ▶ 참 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
회변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교부금 등이 다소 증액되었으나 OECD 국
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
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지방교육채상환 등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
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억제와 유사사업의
통·폐합, 그리고 교육청 단위의 사업들
을 과감히 축소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
는데 노력하였으며,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2001학년도부터 실시한
학교회계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총액 배분하여 학교실
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장 중심의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도
예산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

한 시설확충,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
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
육 확충 등의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중식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
환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주요사
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된 8,868억 9,905만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369억 2,622만원으
로 전체예산의 83%이고,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
담수입은 857억 3,794만원이며, 입학금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교육비특
별회계부담수입은 622억 2,695만원, 정보
화촉진기금 등 주민부담수입이 20억 794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174억 4,15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
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제7차 교육
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 시설사업비로

1,115억 4,836만원, 그 외에 교육정보화 사업,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저소득층 자녀 교육 및 중식비 지원, 각급학교 운영비 등 교육시책사업에 1,337억 8,169만원과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및 예비비 등에 24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646억 5,8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활기찬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후교실 개축, 여학생 탈의실 확충, 교원 편의시설 확충, 화장실 개선, 난방개선, 조도개선 사업 등에 305억 1,7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수준별·선택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충비로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증축 및 화장실 증축 등에 133억 7,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단계 H/W의 교단선진화와 연계한 제2단계 S/W 중심의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38억 800만원,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교원업무 경감과 전자문서화를 통한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30억 9,430만원,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하여 2005년까지 학생 5명당 PC 1대씩을 보급하고자 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로 29억 880만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비로 11억 7,972만원,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교수·학습정보 등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필요한 인터넷통신 지원비로 10억 5,390만원, 각급학교에 기 보급된 정보화기기 및 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기 유지보수비로 11억 6,904만원, 그 외에 교육용 S/W 보급, 전산보조원 임용,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등에 19억 5,487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 사업에 총 151억 6,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고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여 전인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비로 20억 121만원, 유아교육과 보육의 적절한 운영으로 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유아 교육활동 지원에 4억 3,939만원,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의 실천으로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무선어학실 설치비 3억 6,000만원과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비로 5억 4,580만원을

[제134회-제2차 본회의]

편성하였으며, 학교 도서관에서 각종 정보를 탐색·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지털자료실 설치비로 2억 9,960만원, 학력평가의 기회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력고사 등에 3억 9,863만원, 연차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등의 무상교과서 대금으로 42억 7,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과학관이 과학실험 및 컴퓨터 교육과 각종 연수활동, 그리고 과학교육 정보 제공 등 지역의 과학정보교육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억 6,08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산업기술 현장에 부응하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체 요구에 적응하도록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 실고 학과개편 기자재구입비, 실고생 장학금 등에 24억 4,239만원, 적정규모의 학교 유지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통·폐합 학교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초·중 통합학교 운영비, 통학버스 구입

및 교체비로 11억 6,184만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학비 및 중식비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와 저소득층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유치원 및 초·중·고 경제사정 곤란 자녀 학비 및 중식지원비로 153억 7,363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벽지·농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신실학교 급식기구 구입, 급식운반비 등 25억 7,572만원, 종목별 특기를 가진 우수지도자를 임용하여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 우수선수로 육성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코치 인건비, 선수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비, 우수성적 입상자 육성비로 19억 698만원, 학교회계제도 시행 목적인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책무성을 제고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 등에 628억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도서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학습관 및 특성화 도서관 운영비, 비정규 교육시설 지원비 등으로 9,800만원, 교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스승의 날 행사, 교사 음악회, 교사 미술작품 전시회, 교원단체 활동 지원, 교무보조원 임용, 교원안전망 구축 등에 19억 1,221만원, 그 외에 교육위원 선거경비로 1억 5,570만원,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지원금으로 5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15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어 불필요한 부분은 도려내는 등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 시행, 교원들이 처우개선,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는 계속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 시·도에 비해 영세한 교육재정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교육재정 형편을 감안하시어 200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모

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별첨 5)

(끝에 실음)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별책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1/2(별책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2/2(별책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4)

다음은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1년 1월 12일자로 청주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었고, 2001년 3월 2일자로 국립학교설치령과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이 각각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중학교 학교군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주시 흥덕구 개신2지구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성화·개신·죽림동의 행정구역이 35통에서 40통까지 신설됨에 따라 신설구역을 청주시 제3학교

[제134회-제2차 본회의]

군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에 설치된 부속중학교가 부설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이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별첨 6)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7.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1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 중에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도 역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즉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별첨 4)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별첨 5)
-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별첨 6)

※ 별 책 부 록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별책 1)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1/2(별책 2)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2/2(별책 3)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26일 (금요일) 13시 30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1. 2001. ~2004.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제1차 수정)보고의건

附議된 案件

1. 2001. ~2004.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제1차 수정)보고의건(교육감 제출)

(13시 30분 개의)

● 의장대리 송진하

금일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2일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분을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 재개 요청이 있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의 의사일정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제1차 수정분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11월 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11월 3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각각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12월 2일은 각각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번 정기회의 남은 회기는 본인이 제의한 바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2)

(끝에 실음)

1. 2001. ~2004.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제1차 수정)보고의건

(13시 34분)

● 의장대리 송진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 ~2004. 충
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제1차 수정)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4회 교육위원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기지
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
니다.

오늘 보고드릴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
정계획 수정내용은 지난 해에 수립한 중
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
여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 제1차 수정계획을 작성하게 되
었습니다.

지난 해에 수립한 우리 교육청의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교육여건 분석과 역
점 추진사업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00년도를
실적의 해로, 2001년도는 기준의 연도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향후 3년간을
발전계획으로 하여 교육재정여건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도록 수립되어 있으며,
금회 수정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
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투자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동태적으로 연결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
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
보하고, 성과지향 중심의 계획적·합리
적·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명한 집행에
기본방향을 두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
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도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창
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인성교육 및 창의성 교육 강화, 쾌
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부금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지방교육채 상환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우선권을 두고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예산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이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를 상회하는 등 교육재정의 특성상 투자가용재원의 부족과, 투자요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교육정책사업의 투자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본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내용에서는 향후 우리 도의 3년간 총 재정규모를 연평균 6% 증가한 2조 8,421억원 규모로 추계하였으며, 성과지향의 사업중심 예산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정책사업의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요 투자대상 사업으로는 국고보고금 사업을 포함한 총 42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

선을 위한 학교신설 및 학급 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 투자, 학생복지증진 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연도별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주요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3년 간의 중요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에 382억원,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18개교의 학교신설비 1,782억원, 교실중축비 288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898억원 등 학교시설 분야에 총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둘째,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비로 121억원, 정보통신기술 지원비로 25억원, 실습용컴퓨터보급비로 130억원, 교육용 S/W 보급비로 42억원,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지원비로 28억원, 교육행정 업무전산화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로 28억원, 학내전산망 및 인터넷 통신비로 32억원,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0억원 등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4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립학교 교육여건을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2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6개교에 2003년까지 학교급식시설을 완료함으로써, 도내 전체학교가 100%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42억원을,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 중식지원사업에 173억원을,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사업에 330억원, 통·폐합 학교의 학생 통학버스 제공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30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에 160억원 등 총 8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섯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132억원, 공무원 자녀 대학학자금 대여 123억원, 재해보상급여 24억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279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시설 등 재원부족에 따라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717억원,

일곱째,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 사업에 73억원,

여덟째, 세계화에 대비한 의사소통 능력향상 및 영어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운영비로 20억원과 무선어학실 설치비로 16억원,

아홉째,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지정종

목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활동지원비에 16억원, 각종 체육대회지원비 20억원, 순회코치 인건비 27억원 등 총 6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작성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세계의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충북교육이 더 한층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동 계획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3년간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였고, 연동화로 추진되는 교육시책과, 재정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등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여건 변화를 충분히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교육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그 동안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도 교육청 평가와 교육정보화사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앞서

가는 충북교육, 21세기를 주도하는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1. ~2004. 충청북도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별책 5)

● 의장대리 송진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 이어지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2)

※ 별 책 부 록

▶ 2001. ~2004.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별책 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1월 1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정 관계관 불출석 상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교육감님과 과학실업교육과장께서는 전

국 영농학생경진대회 참관 관계로, 평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감기 탁구대회
참관 관계로, 시설과장께서는 정보화교육
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충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

이번에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10월 2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계법률이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복부조례 제22조제2항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11시 06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는 직접현장을 방문하시고 현황을 살펴보신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7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4회-제4차 본회의]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5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9,256억 7,563만원보다 387억 7,658만원이 감액된 8,868억 9,905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2%가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7,369억 2,621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857억 3,794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22억 2,695만원으로 편성된바,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존수입인 국가부담수입이 83.1%이며,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 9.7%,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7%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부담수입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2,902억 9,468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13억 4,009만원, 급·복지부문에 5,512억 1,652만원, 그리고 교육행정에 199억 2,025만원,

기타경비로 241억 2,7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교원 및 일반직,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가 총 세출예산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본 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1억 9,887만 1,000원으로, 본청 청사보수를 위하여 계상된 본관 외벽 및 창호보수공사비 12억 6,050만원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다가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차후 기간을 갖고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 정원 결원 기간제 교사 인건비와 제경비로 53억 8,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전년도 기간제 교사 인건비 결산 잔액 수준과 내년도 신규채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6억 9,83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은행차입금 이자로 4억 7,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현행 은행금리를 감안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3,99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재원 8,868억 9,905만 4,000원을 확보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체제의 조기정착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등에 중점을 두어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성과급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인적 자원부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학생 시력감퇴 예방을 위한 교실조도개선 사업의 조기완료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시설 사업 집행과 교사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여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의견에 따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삭감이유 및 내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

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모든 교육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충북교육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8)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제134회-제4차 본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출예산에서 21억 9,88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세입·세출 각각 8,868억 9,905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11시 18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0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8)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1월 3일 (토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
3.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소위원회위원장 발의)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이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중학

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 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은 동일자로 집행청 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 택의건

(11시 02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 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소위원회 조일환 위원장께서는 나 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조일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을 맡은 조 일환 교육위원입니다.

감사소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른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01년도 행 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감사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동안의 감사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본 감사소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6 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0월 16일 청원교육청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17일에는 괴산교육청을, 그리고 10월 18 일에는 음성교육청을, 10월 19일에는 충 청북도교육청을, 그리고 10월 20일에는 진천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사실시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수범사항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북도교 육청은 금년도에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 가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교육정 보화 부문에서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과, 제8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0·31 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 으며, 그리고 도내 최초로 여성 교육장 임용은 물론, 일반행정직에서도 여성 공 무원을 사무관으로 임용함으로써 여성 공 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인사행 정에 획기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청원교육청은 교실사랑방을 운 영하여 아가모 운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하 였고, 폐교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임대 등 을 통하여 미활용 폐교가 하나도 없게 효 율적으로 재산관리를 잘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청은 진천교육 50년사 등을 발간·보급하고 생겨진천인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은 물론 진천의 미래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면서, 또한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은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입체적 ICT 활용을 통한 정보화교육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음성교육청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특기·적성 5품 인증제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보육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학습관 주민아카데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과 OECD 수준으로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비하여 교실확보와 교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정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육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내 중·고등학생 중 일부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적

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내 연구시범학교 운영사항으로 시범학교 수가 다소 많다고 사료되며, 또한 형식적이고 일회성 보고회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학교에서 먹는 물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4회씩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검사 횟수와 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학교의 식수관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학생교통사고 예방과 실업교육 육성, 충북지역 경부고속철도 통과에 따른 소음피해 발생 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학교 시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완공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학급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학교 시설공사를 동

절기에 시행한 바, 향후 시설공사 발주 시에는 조기에 시공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교통량의 증가로 학생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학생들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교육은 물론, 통학로 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학생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청으로는 진천·음성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중 전문성, 특수성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한 경미한 시설공사는 일선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청으로는 청원·괴산·음성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연수를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증원하는 등 다각적인 영어교육의 효율적 교육시책을 모색하여 절대적인 외국어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청으로는 괴산·음성교육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건강생활을 위해서 4개 교육청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특단의 학교 식수관리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급식소의 위생적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하면은 에어컨도 보급하여 주실 것을 타올립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3년여의 위원활동을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대책, 대안 중심의 감사에 임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쁜 감사일정 속에서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참신한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별첨 9)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곧 바로 집행청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 의견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19일 동안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다섯 기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정기회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진지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 및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견

(11시 14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견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번 정기회가 폐회되고 나면 올해 연간 50일의 회의일수 중 49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1일의 회의일수로는 2001년도 남은 기간 중에 제안되는 각종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올해 연간 회의일수를 10일간 연장하여 앞으로의 각종 안건심의에 필요한 회기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에

[제134회-제5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별첨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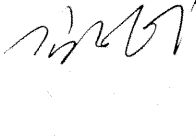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12. .

의 장 손 만 재 

부위원장 송 진 하 

위 원 이 기 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34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定期會)

2001. 10. 16. ~ 11. 03.(19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0月 16日(火) (09:3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제13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1. 10. 16. ~ 11. 03.(19 일간) 2.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監查小委員會)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0. 16(화) : 청원교육청	
10月 17日(水) ~ 10月 21日(日)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監查小委員會)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0. 17(수) : 괴산교육청 - 10. 18(목) : 음성교육청 - 10. 19(금) : 충청북도교육청 - 10. 20(토) : 진천교육청	本會議 休會
10月 22日(月) (11:00)	[第2次 本會議]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제안설명)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7. 기타안건 처리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0月 23日(火) ~ 10月 31日(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現場訪問	本會議 休會
11月 1日(木) (11:00)	[第3次 本會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5. 기타안건 처리 	
11月 2日(金)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소위원회 	本會議 休會
11月 3日(土) (11:00)	[第4次 本會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3. 기타안건 처리 <input type="checkbox"/> 閉 會	

(별첨 2)

議 事 日 程 (案)

第134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定期會)

2001. 10. 16. ~ 11. 03.(19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0月 16日(火) (09:3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제13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1. 10. 16. ~ 11. 03.(19 일간) 2.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監査小委員會)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0. 16(화) : 청원교육청	
10月 17日(水) ~ 10月 21日(日)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監査小委員會)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0. 17(수) : 괴산교육청 - 10. 18(목) : 음성교육청 - 10. 19(금) : 충청북도교육청 - 10. 20(토) : 진천교육청	本會議 休會
10月 22日(月) (11:00)	[第2次 本會議]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제안설명)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7. 기타안건 처리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0月 23日(火) ~ 10月 25日(木)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現場訪問	本會議 休會
10月 26日(金) (13:30)	[第3次 本會議] 1. 2001.~2004.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제1차 수정) 보고의 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10月 27日(土) ~ 10月 31日(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本會議 休會
11月 1日(木) (11:00)	[第4次 本會議]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감사소위원회	
11月 2日(金)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감사소위원회	本會議 休會
11月 3日(土) (11:00)	[第5次 本會議]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3. 기타안건 처리 <input type="checkbox"/> 閉 會	

(별첨 3)

의안번호	제 134-1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 .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10. 6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1
----------	-------

제출년월일 : 2001. 10.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총 무 과

개정이유

-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임신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안 제22조제2항).

개정근거

- 근로기준법 제72조(법률 제14876호 2001. 8.14).
-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연장[교육인적자원부 지교12100-681(2001. 9.27)].

개정조례안 : 불 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조표
- 관계 법령 발췌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②(출산휴가 확대 적용)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특별휴가) ①(생 략)</p> <p>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2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p> <p>② 90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 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 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 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p> <p>②(출산휴가 확대 적용)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p>

관계법령발췌서

□ 근로기준법(법률 제14876호 2001. 8. 14.)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134-4호
의 결 년 월 일	2001. 10. . (제 회)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10 . 15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34 - 4
----------	---------

제출년월일 : 2001. 10. 1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취득】

- 취득 사유 :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 취득 내역

학교명	건 물 (㎡)					추정가액 (천원)
	교 실		계단실	화장실	면적 계	
	실수	면적				
충주고	8	720	90	60	870	662,536
음성고	9	810	225	60	1,095	815,706
계	17	1,530	315	120	1,965	1,478,242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덧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설 명 자 료 : 별 책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m,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2	1,965	1,478,242	2	1,965	1,478,242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2	1,965	1,478,242	2	1,965	1,478,242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사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상영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충주고	건물	교 실	충주시 호암동 558	720	521,136	하반기	제7차 교육과정 에 따른 증축	교육감	1쪽
			계단실	"	90	58,000	"	"	"	
			화장실	"	60	83,400	"	"	"	
	소 계				870	662,536				
2	음성고	건물	교 실	음성읍 읍내리 503-7	810	587,306	하반기	제7차 교육과정 에 따른 증축	교육감	2쪽
			계단실	"	225	145,000	"	"	"	
			화장실	"	60	83,400	"	"	"	
	소 계				1,095	815,706				
계	2 교	토지								
		건물			1,965	1,478,242				
		공작물								
		합계			1,965	1,478,242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 1 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의결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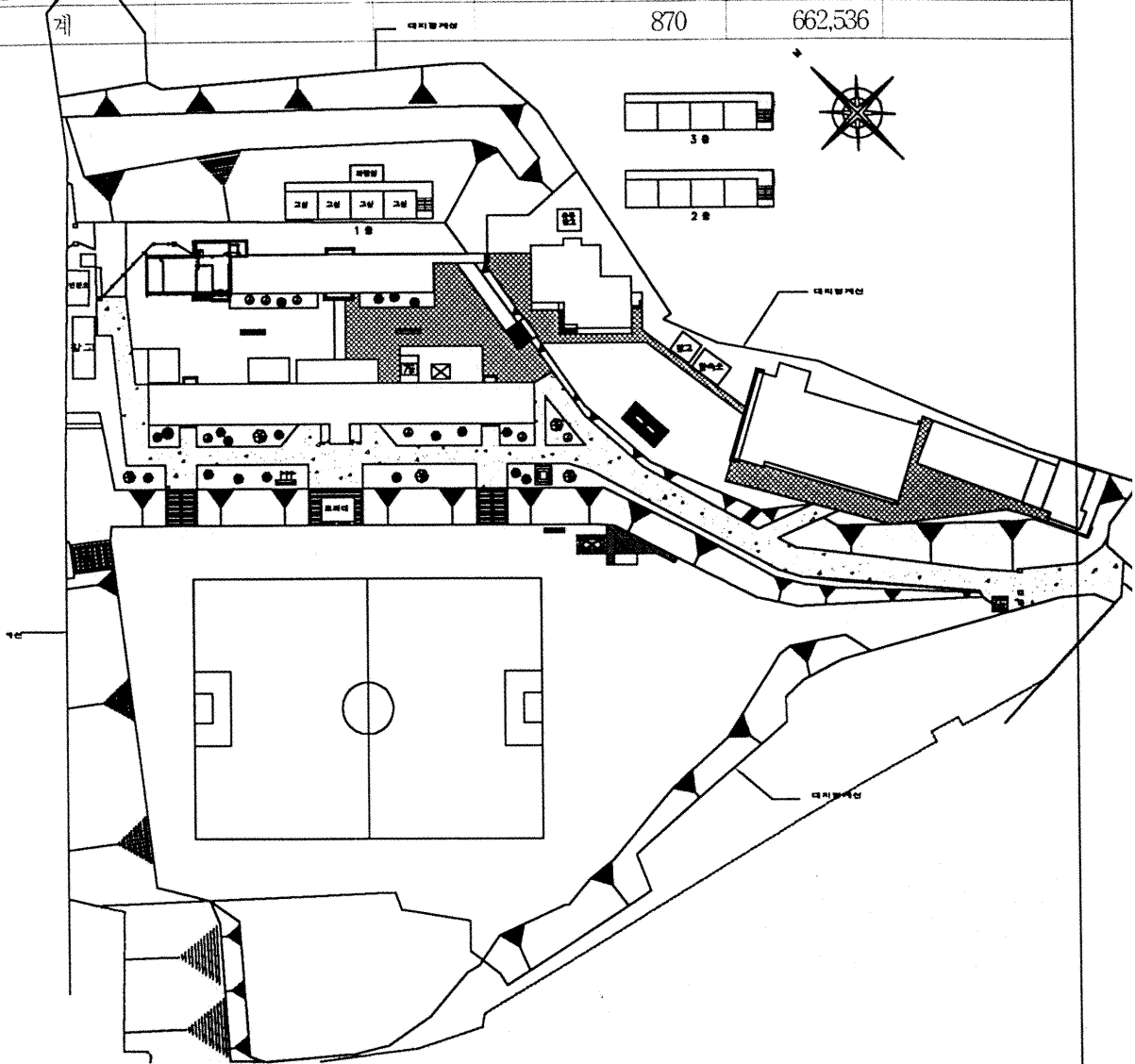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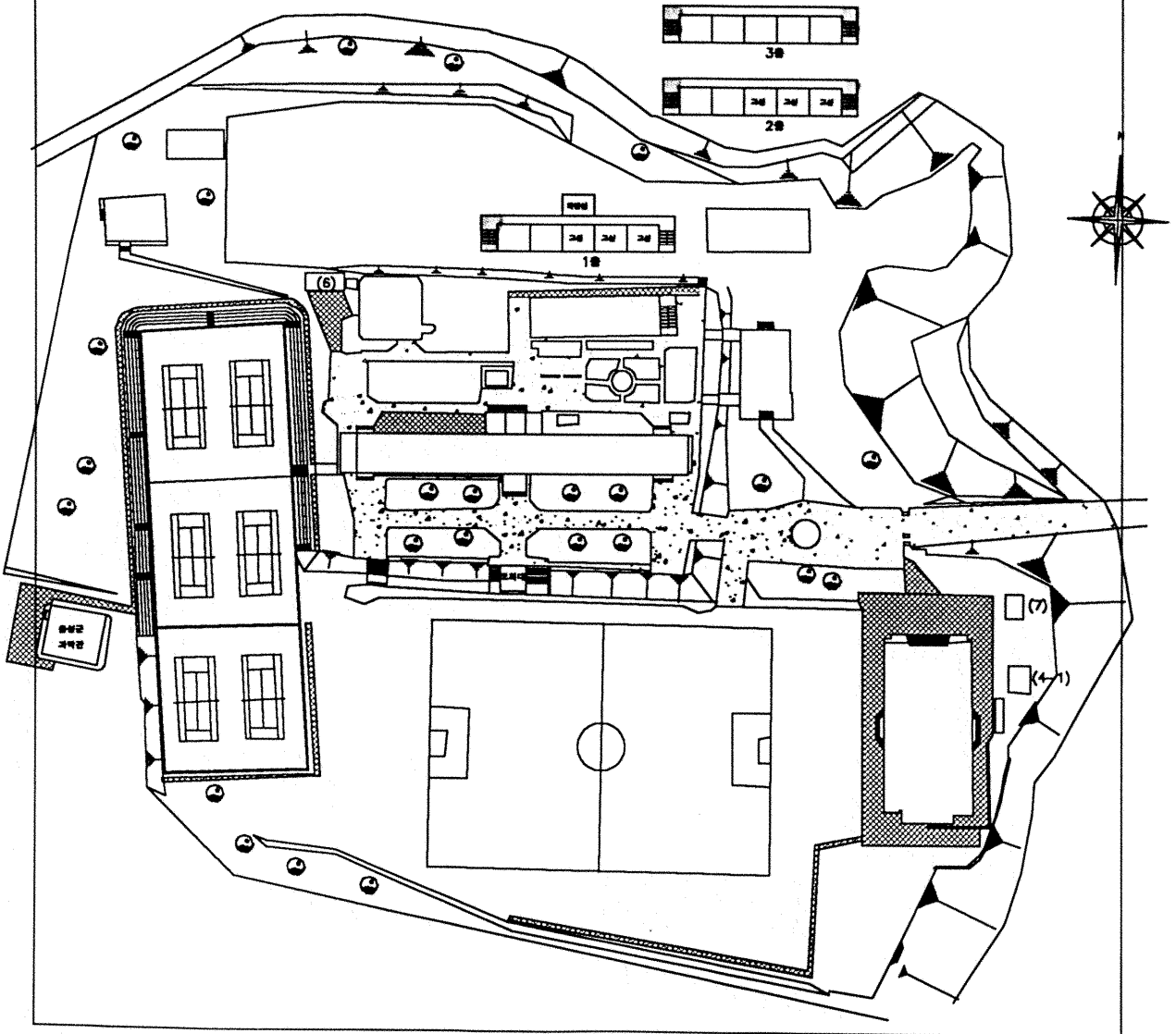
충주고등학교 건물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m ²)	취득금액 (천원)	사유
①교실	충주시 호암동	558	철·콘·슬	720	521,136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증축
②계단실			철·콘·슬	90	58,000	
③화장실			철·콘·슬	60	83,400	
계				870	662,536	



음성고등학교 건물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①교 실	음성군 음성읍	503-7	철·콘·슬	810	587,306	제7차교육과정에
②계단실	읍내리		철·콘·슬	225	145,000	따른증축
③화장실			철·콘·슬	60	83,400	
계				1,095	815,706	



(별첨 5)

의안번호	제 134-2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11. . (제 회)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10. 19.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 번호	134-2
----------	-------

제출년월일 : 2001. 10. 1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각각 8,868억 9,905만 4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7,369억 2,621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857억 3,794만 4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22억 2,695만 6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20억 7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2,902억 9,468만 1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13억 4,009만 9천원, 급여·복지 5,512억 1,652만 5천원, 교육행정 199억 2,025만 3천원, 기타경비 241억 2,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음.

예산(안) : 별책

사항별 설명서 : 별책

의안번호	제 134-3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 . (제 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10 . 6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의안 번호	124-3
----------	-------

제출년월일 : 2001 10. 6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주공아파트 2단지 신축에 따른 통 신설
- 국립대 부설학교 명칭변경에 따른 청주, 청원지역의 학교명 변경

주요골자

- 청주시통·반설치조례 개정(제2163호, 2001. 1. 12)
 - 성화·개신·죽림동 : 35-40통 신설
- 국립학교설치령 개정(대통령령 제17143호, 2001. 3. 2)
 - 개정전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개정후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개정(대통령령 제17145호, 2001. 3. 2)
 - 개정전 :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중학교
 - 개정후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개정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고시 개정안 : 덧붙임

기타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제1항 <별표1> 의 가목 중 청주시 제3학교군, 청원군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가. 학교군 및 중학구별 일람표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청주시	청 주 시 제3학교군	서 원 중 <u>충북대사범</u> <u>대학부설중</u> 가 경 중 경 덕 중 북 대 중 (5교)	청주시	강서제1동-12,26통 제외(강서,석곡,휴암,신전,현암,동막,수의,지동,서촌,비하,석소,정봉,신촌동), 북대제1동, 제2동, 가경동, <u>성화·개신·죽림동(3,5,13-17,26,27,33,35-40통)</u> , 봉명제1동(18-20, 22,24통), 봉명제2·송정동(1,2통), 사창동(7,24,29, 30,36,37통)	* 교명변경 * 성화·개신·죽림동 35-40통 신설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	
청원군	<u>한국교원대</u> <u>부설미호</u> <u>중 학 구</u>	<u>한국교원대</u> <u>부설미호중</u>	청주시	강서 제1동(12, 26통)	* 교명변경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사인리, 월곡리, 석화리, 탑연리, 부탄리, 다락리, 황탄리, 태성리, 궁현리, 산단리, 사곡리, 저산리, 월탄리	저산리:부강 중학구와 공동학구
			강외면	연제리, 만수리, 상정리, 호계리, 쌍청리, 궁평리, 공북리, 오송리, 정중리, 봉산리, 동평리, 서평리, 상봉리	정중리, 봉산리, 동평리, 서평리, 공북리, 상봉리 : 조치원 중학구와 공동학구
			옥산면	환희리(송천), 덕촌리3구	덕촌리3구 : 옥산중학구와 공동학구
			충 남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	심중리: 조치원중학구와 공동학구

신·구 대비표

현		행		비 고		면		경	
		지역명	학교군(구) 소속지역 해 당 지 역			중학교명	학교군(구)	지역명	학교군(구) 소속지역 해 당 지 역
청주시	청주시 제3학교군	서원중 충북대사범 대학부속초	강서제1동(12,26통제외(강서, 석곡, 휴암, 신진, 현암, 동막, 수의, 지동, 서촌, 비하, 석소, 정봉, 신촌동)), 북대제1, 제2동, 가경동, 성화·개신·죽림동(3,5,13-17,26,27,33), 봉명제1동(18-20,22,24통), 봉명제2·송정동(1,2통), 사창동(7,24,29,30,36,37통)	가경중 경덕중 북대중	청주시 제3학교군	서원중 충북대사범 대학부속초	청주시	강서제1동(12,26통제외(강서, 석곡, 휴암, 신진, 현암, 동막, 수의, 지동, 서촌, 비하, 석소, 정봉, 신촌동)), 북대제1, 제2동, 가경동, 성화·개신·죽림동(3,5,13-17,26,27,33), 봉명제1동(18-20,22,24통), 봉명제2·송정동(1,2통), 사창동(7,24,29,30,36,37통)	국립대 부설학교 명칭변경
청원군	청원군 청내면	연정리	연정리	연정리	청원군 청내면	연정리	청원군 청내면	연정리	국립대 부설학교 명칭변경
청원군	청원군 청내면	학천리, 사인리, 월곡리, 석화리, 탐연리, 부탄리, 다탁리, 황탄리, 태성리, 공현리, 신단리, 사곡리, 처산리, 월탄리	강서 제1동(12, 26통)	학천리, 사인리, 월곡리, 석화리, 탐연리, 부탄리, 다탁리, 황탄리, 태성리, 공현리, 신단리, 사곡리, 처산리, 월탄리	청원군 청내면	학천리, 사인리, 월곡리, 석화리, 탐연리, 부탄리, 다탁리, 황탄리, 태성리, 공현리, 신단리, 사곡리, 처산리, 월탄리	청주시 청원군 청내면	(좌 동)	국립대 부설학교 명칭변경
옥산면	옥산면	연제리, 만수리, 상정리, 호계리, 쌍청리, 구평리, 공북리, 오송리, 정중리, 봉산리, 동평리, 서평리, 장상리	연제리, 만수리, 상정리, 호계리, 쌍청리, 구평리, 공북리, 오송리, 정중리, 봉산리, 동평리, 서평리, 장상리	연제리, 만수리, 상정리, 호계리, 쌍청리, 구평리, 공북리, 오송리, 정중리, 봉산리, 동평리, 서평리, 장상리	강외면	연제리, 만수리, 상정리, 호계리, 쌍청리, 구평리, 공북리, 오송리, 정중리, 봉산리, 동평리, 서평리, 장상리	옥산면	연제리, 만수리, 상정리, 호계리, 쌍청리, 구평리, 공북리, 오송리, 정중리, 봉산리, 동평리, 서평리, 장상리	국립대 부설학교 명칭변경
충남 연기군 진동면	충남 연기군 진동면	심중리	환희리(송진), 덕촌리3구	심중리	충남 연기군 진동면	심중리	충남 연기군 진동면	심중리	국립대 부설학교 명칭변경

관계법령 발췌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142호 일부개정 2001.3.2.]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천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②추천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천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청주시동·반설치조례

[제2163호 전문개정 2001. 01. 12]

제4조(동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별표)

행정동	동	반	관할구역(지번)	비고
성화·개신·죽림동	제35통	제1반	개신동 635번지	
		제2반	개신주공아파트 201동101-2002호	
		제3반	개신주공아파트 201동103-2004호	
		제4반	개신주공아파트 201동105-1506호 단지내상가	
	제36통	제1반	개신동 635번지	
		제2반	개신주공아파트 202동101-1802호	
		제3반	개신주공아파트 202동103-1804호	
		제4반	개신주공아파트 202동105-1806호	
		제5반	개신주공아파트 203동101-1502호	
		제6반	개신주공아파트 203동103-1504호 개신주공아파트 203동105-1506호	
	제37통	제1반	개신동 635번지	
		제2반	개신주공아파트 204동101-1502호	
		제3반	개신주공아파트 204동103-1504호	
		제4반	개신주공아파트 204동105-1506호	
		제5반	개신주공아파트 205동101-1502호 개신주공아파트 205동103-1504호	
	제38통	제1반	개신동 635번지	
		제2반	개신주공아파트 206동101-2003호	
		제3반	개신주공아파트 207동101-2302호 개신주공아파트 207동103-2304호	
	제39통	제1반	개신동 635번지	
		제2반	개신주공아파트 208동101-2002호	
제3반		개신주공아파트 208동103-2004호		
제4반		개신주공아파트 208동105-1506호		
제5반		개신주공아파트 209동101-1502호		
제6반		개신주공아파트 209동103-2004호 개신주공아파트 209동105-2006호		
제40통	제1반	개신동 635번지		
	제2반	개신주공아파트 210동101-2302호		
	제3반	개신주공아파트 210동103-2304호 개신주공아파트 211동101-2003호		

국립학교설치령

[대통령령제17143호 전문개정 2001. 03. 02]

제8조 (부설학교) ①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
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별표 5]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충청북도 관련사항만 발췌)

학 교 명	부설학교명	위 치
충북대학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충청북도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대통령령제17145호 전문개정 2001. 03. 02]

제9조 (부설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별첨 7)

(제134회 정기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11.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10월 2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사유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임신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 에서 “90일” 로 연장
(안 제22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의 출산휴가 관련규정이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되어 우리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제2항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11. 1.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 충 원

간 사 조 일 환

위 원 김 광 수

송 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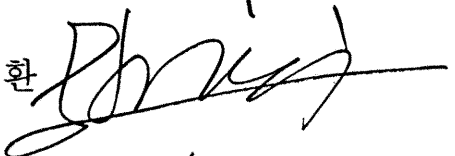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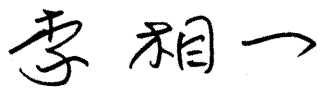
이 기 수

이 상 일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11. 1.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	충	원	
간사	조	일	환	
위원	김	광	수	
	송	진	하	
	이	기	수	
	이	상	일	

(별첨 8)

(제134회 정기회)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1. 11.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0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1년 10월 23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1년 10월 26일)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1년 10월 27일)
- 제4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1년 10월 29일)
- 제5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1년 10월 30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각각 886,899,054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736,926,21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85,737,944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2,226,9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학교교육 290,294,681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1,340,099천원, 급여·복지 551,216,525천원, 교육행정 19,920,253천원, 기타경비 24,127,496천원을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925,675,634천원보다 38,776,580천원이 감액된 886,899,054천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2% 감소됨.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886,899,054	812,223,947	925,675,634	74,675,107	9.2%	△ 38,776,580	△ 4.2%

□ 세입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 수입 736,926,218천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85,737,944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2,226,956천원으로 편성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합 계	886,899,054	100.0	925,675,634	100.0	△ 38,776,580	△ 4.2
국가부담수입	736,926,218	83.1	690,449,953	74.6	46,476,265	6.7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85,737,944	9.7	85,388,893	9.2	349,051	0.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2,226,956	7.0	116,861,788	12.6	△ 54,634,832	△ 46.8
지방교육채	0	0	32,769,000	3.6	△ 32,769,000	△ 100
주민(기관등)부담수입	2,007,936	0.2	206,000	0.0	1,801,936	874.7

※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존수입인 국가부담수입의 점유율은 총예산액의 83.1%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점유율은 7.0%로 전년도 대비 46.8% 감소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점유율은 0%로 전년도 대비 100%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학교교육 290,294,681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1,340,099천원, 급여·복지 551,216,525천원, 교육행정 19,920,253천원, 기타 경비 24,127,496천원으로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학교교육	유 치 원	3,860,427	0.4	3,125,212	0.3	735,215
	초등학교	90,978,869	10.3	112,574,930	12.2	△ 21,596,061
	중 학 교	98,689,874	11.1	76,037,444	8.2	22,652,430
	고등학교	85,597,256	9.6	120,898,708	13.1	△ 35,301,452
	특수학교	11,104,463	1.3	10,217,822	1.1	886,641
	기타학교	63,792	0.0	53,095	0.0	10,697
	소 계	290,294,681	32.7	322,907,211	34.9	△ 32,612,530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1,340,099	0.2	1,859,739	0.2	△ 519,640
	소 계	1,340,099	0.2	1,859,739	0.2	△ 519,640
급여·복지	급여관리	497,081,711	56.0	480,264,400	51.9	16,817,311
	복지·후생	54,134,814	6.1	66,930,654	7.2	△ 12,795,840
	소 계	551,216,525	62.1	547,195,054	59.1	4,021,471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333,011	0.0	337,830	0.0	△ 4,819
	선거관리	155,696	0.0	0	0.0	155,696
	교 육 청	12,064,545	1.4	7,346,941	0.8	4,717,604
	지역교육청	4,123,396	0.5	4,987,554	0.5	△ 864,158
	교육지원기관	3,243,605	0.4	7,814,668	0.9	△ 4,571,063
	소 계	19,920,253	2.3	20,486,993	2.2	△ 566,740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15,465,988	1.7	8,443,080	0.9	7,022,908
	제지출금	0	0.0	67,370	0.0	△ 67,370
	예 비 비	8,661,508	1.0	24,716,187	2.7	△ 16,054,679
	소 계	24,127,496	2.7	33,226,637	3.6	△ 9,099,141
합 계	886,899,054	100.0	925,675,634	100.0	△ 38,776,58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교직원 인건비	609,028,519천원
○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3,464,000천원
○ 신설학교 시설 및 부지매입비	64,658,000천원
○ 신설학교 집기 및 교재·교구구입비 지원	970,000천원
○ 교육환경개선비	30,517,000천원
○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13,379,791천원
○ 교단선진화 사업	3,808,000천원
○ 실습용컴퓨터 보급	2,908,800천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1,179,718천원
○ 교육행정업무전산시스템및정보화기기유지보수비지원	1,169,042천원
○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2,001,206천원
○ 직업교육확충	2,442,390천원
○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9,342,000천원
○ 학생 중식지원비	4,934,162천원
○ 급식학교 식품비 지원	2,246,123천원
○ 순회코치 임용	861,370천원
○ 공립학교운영 기본경비	60,539,652천원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운영비)	2,292,099천원
○ 교원사무보조원 배치	1,145,692천원 등임.

나. 삭감내역

□ 삭감액 : 2,198,871천원

□ 삭감내역 및 사유

○ 본청 본관의벽및창호보수공사 △1,260,500천원

본청 청사보수를 위하여 계상된 본관 외벽 및 창호보수공사비 1,260,500천원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차후 기간을 갖고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을 감액 하였음.

○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698,383천원

초등학교 정원 결원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로 5,384,314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전년도 인건비 결산 잔액수준과 내년도 신규채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698,383천원을 감액하였음.

○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특별지원비 △200,000천원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지역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종전 수준으로 조정하여 2억원을 감액하였음.

○ 은행차입금이자 △39,988천원

지방채 상환 은행차입금 이자로 계상한 470,628천원중, 현행 은행금리를 감안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3,998,8천원을 감액하였음.

다. 종합의견

위와 같이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총 재원 886,899,054천원을 확보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체제의 조기정착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 투자 등을 중점으로 하여 적정히 편성하였음.

다만, 향후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한 교원 성과급 지급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 학생시력 감퇴 예방을 위한 교실조도개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야 할 것임.
-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폐교 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임대 및 매각촉진 방안 강구 등에 힘써야 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철저한 상황 판단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7차 교육과정 시행과 OECD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시설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사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여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임.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1. 1.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차후 기간을 갖고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본청 본관의벽및창호보수공사비 전액과 지역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역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비 일부를 감액하고,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초등학교 정원결원기간제교

사 인건비 및 제경비와 지방채 상환 은행차입금 이자 일부를 감액하였음.

다. 주요골자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시설(세항)
 - 본청 본관외벽및창호보수공사 1,260,500천원 전액을 감액함.
- 급여·복지(장), 급여관리(관), 교원급여관리(세항)
 -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인건비 4,683,444천원중 607,476천원을 감액함.
 -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제경비 700,870천원중 90,907천원을 감액함.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기획관리(세항)
 - 지역교육청평가우수기관특별지원 500,000천원중 200,000천원을 감액함.
- 기타경비(장), 지방채상환(관), 지방채상환(세항)
 - 은행차입금이자 470,628천원중 39,988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8,661,508천원을 10,860,379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1년 11월 1일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차후 기간을 갖고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본청 본관외벽및창호보수공사사업비 전액과 지역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다소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시설(세항)
 - 본청 본관외벽및창호보수공사 1,260,500천원 전액을 감액함.

- 급여·복지(장), 급여관리(관), 교원급여관리(세항)
 -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인건비 4,683,444천원중 607,476천원을 감액함.
 -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제경비 700,870천원중 90,907천원을 감액함.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기획관리(세항)
 - 지역교육청평가우수기관특별지원 500,000천원중 200,000천원을 감액함.

- 기타경비(장), 지방채상환(관), 지방채상환(세항)
 - 은행차입금이자 470,628천원중 39,988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8,661,508천원을 10,860,379천원으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수정안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장)교육행정 관)교육청 항)교육청시설 세항)교육청시설

- 본청 본관외벽및창호보수공사 1,260,500천원 전액을 감액함.

장)급여·복지 관)급여관리 항)교원급여 세항)교원급여관리

-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인건비 4,683,444천원중 607,476천원을 감액한 4,075,968천원으로,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제경비 700,870천원중 90,907천원을 감액한 609,963천으로 한다.

장)교육행정 관)교육청 항)교육청운영 세항)기획관리

- 지역교육청평가우수기관특별지원 500,000천원중 200,000천원을 감액한 300,000천원으로 한다.

장)기타경비 관)지방채상환 항)지방채상환 세항)지방채상환

- 은행차입금이자 470,628천원중 39,988천원을 감액한 430,640천원으로 한다.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

- 예비비 8,661,508천원을 2,198,871천원 증액한 10,860,379천원으로 한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수정안 대비표


(단위:천원)


과 목				교육감제출 예산액	교육위원회의결		예산액	수정내용
장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3. 급여복지				551,216,525	698,383		550,518,142	
1. 급여관리				497,081,711	698,383		496,383,328	
1. 교원급여				415,052,739	698,383		414,354,356	
01.교원급여관리				415,052,739	698,383		414,354,356	o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698,383 P 249, 250 (5,384,314→4,685,931)
4. 교육행정				19,920,253	1,460,500		18,459,753	
3. 교육청				12,064,545	1,460,500		10,604,045	
1. 교육청 운영				10,349,480	200,000		10,149,480	
06. 기획관리				590,398	200,000		390,398	o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 특별지 원비 △200,000 P 274 (50,000→30,000)
2.교육청시설				1,715,065	1,260,500		454,565	
01. 교육청시설				1,715,065	1,260,500		454,565	o 본청 본관 외벽 및 창호보수공사 △1,260,500 P 212 (1,260,500→0)
5. 기타경비				24,127,496	39,988	2,198,871	26,286,379	
1. 지방채상환				15,465,988	39,988		15,426,000	
1. 지방채상환				15,465,988	39,988		15,426,000	
01. 지방채상환				15,465,988	39,988		15,426,000	o 은행차입금 이자 △39,988 P307 (470,628 → 430,640)
3. 예비비				8,661,508		2,198,871	10,860,379	
1. 예비비				8,661,508		2,198,871	10,860,379	
01. 예비비				8,661,508		2,198,871	10,860,379	o 예비비 2,198,871 P 17 (8,661,508 → 10,860,379)
합 계				886,899,054	2,198,871	2,198,871	886,899,054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11. 1.


예산·결산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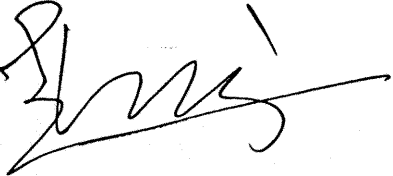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 송진하 

" 이충원 

" 조일환 

(별첨 9)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1. 11.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97
2. 감사기간	97
3. 감사실시 대상기관	97
4. 감사실시 경과	97
5. 감사실시 주요내용(기관별)	98
가. 충청북도교육청	98
나. 충청북도청원교육청	103
다. 충청북도진천교육청	106
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	108
마. 충청북도음성교육청	110
6. 감사결과 수범사항	113
가. 충청북도교육청	113
나. 충청북도청원교육청	113
다. 충청북도진천교육청	114
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	114
마. 충청북도음성교육청	114
7.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15
가. 충청북도교육청	115
나. 충청북도청원교육청	116
다. 충청북도진천교육청	117
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	118
마. 충청북도음성교육청	119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1. 10. 16. ~ 10. 20. (5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가. 충청북도교육청
- 나. 충청북도청원교육청
- 다. 충청북도진천교육청
- 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
- 마. 충청북도음성교육청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재적위원 7명중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함.

- 위원장 : 조일환
- 간 사 : 이충원
- 위 원 :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나.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0. 16(화). 10:30~17:15	청원교육청	청원교육청 회의실	
10. 17(수). 10:02~17:14	괴산교육청	괴산교육청 회의실	
10. 18(목). 10:02~17:32	음성교육청	음성교육청 회의실	
10. 19(금). 10:00~18:26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10. 20(토). 10:03~16:18	진천교육청	진천교육청 회의실	

5. 감사실시 주요내용(기관별)

가. 충청북도교육청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장 학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단위 지역의 특수학교 또는 분교장 설립 계획과 도내 특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 2. 청주시 지역 인문계 고교 무시험 전형실시에 따른 외지 출신 학생들의 시내 인문계고 지원 증가 예상 현황과 시내 중학교 출신학생들의 내신 관련 불리 여부 및 피해정도 3. 급당 인원 감축시행 시기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 여부 4.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현황과 영어실력 향상 방안 5.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과 문제점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장 학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학생의 해외연수(유학) 사전교육내용, 문제점, 대책 7. 도내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 2 외국어 교육현황 8.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대한 견해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책을 건의할 용의 여부 9. 도내 초·중·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현황과 문제점 10. 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 정원 비율과 문제점, 개선 계획 및 탈락생 구제 방안 11. 휴가기간 활용현황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 12.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원토 조성 방안 	
과학·실업 및 정보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지도 문제점 및 향후 대책 2. 실업교육 붕괴위기와 관련, 실업교육 육성대책의 필요성 및 사유, 실업계고 인문계 전환 승인시 선별여부와 기준, 실업계고 지원자 유인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변경 또는 개선 대책 	
학생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학로 미확보 현황과 대책 2. 학생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안전구조물 설치 필요 학교 현황 3. 도내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의 현황 및 대책 4.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당국을 상대로 노력한 실적 5. 흡연·음주학생의 현황과 지도 대책 6. 수학여행 등 단체 현장학습 안전 대책 	
교원 및 일반직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족교원 충원과 관련하여 교대생 및 학교당국과 대화 또는 설득한 내용 2. 파트타임 교사제 시행의 구상 여부 3.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과 OECD기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 감축 및 교사확보 계획을 연차적으로 탄력성 있게 시행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 여부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교원 및 일반직 인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1998~2001년도별 교육대학 졸업생중 본도 임용 인원수 및 졸업생대비 임용 인원수의 비율(남·여) 5. 기간제 교사 증가에 따른 공교육 부실화 방지 대책 6. 1998~2001년 과원 사립학교 교사 특채현황과 방법 7. 1998~2001년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 기소, 피소 중인 공무원의 행정조치 사항 8. 연도별 인사규정 작성, 예고 여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인사규정 작성 여부 	
평생교육·체육·보건 및 학교 급식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내 외국어교육 관련 사설학원 강사 현황 및 감독내용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현황과 정화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 내용 3. 학교급식 관련 쌀 소비 촉진 방안 4. 학교 급식소(식당) 에어컨 보급 현황 및 확보 계획 5. 학생종합야영장 등 도내 학생야영장 활성화 방안 6. 교육청 임용 순회코치 선발기준과 방법, 선수구타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실천 내용 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준 및 학교장 의견 청취 여부와 부 적정하다고 결정 된 사례 여부 8.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일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위생·안전점검의 신뢰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9. 먹는 물의 종류별 음용 현황과 수질 검사 방법, 부적합 판정 학교의 식수관리 방법, 부적합 학교내 수거식 화장실 관리현황, 1998~2001년간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식수관리 방법, 정수기 활용현황, 향후 수질검사 개선대책 10. 수안보초등학교 잔디구장 취소 사유 11. 2001년 학교 자체 임용 코치 현황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예산 운영 및 시설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당해지역 환원 용의 여부 등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 2. 시설공사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3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사유와 금액범위를 관계법령 대로 시행할 수 없는지 여부 3. 5억 미만 공사를 당해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는 방안 4. 소규모 공사 학교장 위임 시행 여부 5.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에 따른 교실 증축 소요 예산 및 연차적 추진 계획 6. 증축 공간이 부족한 청주·충주·제천의 25개교 127교실 증축에 대한 대책 7. 최근 3년 동안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내용 8. 복대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건물 건축계획 및 기 확보한 예산 내역과 이후 예산 확보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 9. 일용직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여 타 시·도 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유 10. 충북지역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피해 발생학교수 및 피해 내용과 대책 11.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총액, 이자율 및 금융기관 선정기준 12. 충주 남산초 토지소송 사건의 진행 상황 13. 교육용 토지의 지목 정리 및 합필 현황과 학교림의 관리현황, 토지 전산화 현황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예산 운영 및 시설관리	14. 건축물 대장 전산화 여부와 개축 및 보수 우선순위 작성 여부, 특별실확보(국고보조금) 계획 수립 여부 및 연차별 우선순위 작성 여부 15. 예산요구 방법, 예산배정 기준, 예산집행에 필요한 순위작성 여부,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현황 및 지원 기준	
기타 행정관리	1.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지도감사 위주로 전환할 용의여부 2.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추진 실적 및 단체협약 이행 실적 3. 현재 추진중인 조직 진단과 관련하여 본청의 직제 개편 계획과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효율성이 낮은 도서관, 야영장 등의 통·폐합 계획 4. 교육청 산하 위원회의 종류, 위원명단과 추천방법 5. 성과급여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나. 충청북도청원교육청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장 학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실사랑방 운영 사례 내용 2. 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학생 해외 연수시 사전 연수 실적과 내용, 학부모 교육 내용 및 실적 3. 원어민 강사수 감소 원인과 처우 등 운영 방안 4.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수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 수 5. 최근 3년간 교육청 관내 중학생 중도 탈락 현황과 사유 6. 연구시범학교 지정 과다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와 확일화된 연구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7.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과 연구결과의 일반화 실적 및 효과 8. 전입생과 전출생의 현황 및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전입한 학생수 현황 9. 2000학년도 초·중학교의 수업일수 현황 10.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원토 조성 방안 11.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현황 	
학생생활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노력한 내용과 결과 	
교원 및 일반직 인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부 학교에 교감보다 후배인 교장을 배치한 것에 대한 장·단점과 당해 학교 교사들의 반응 2. 60세 이상 평교사와 50세 이상 기간제 교사수, 향후 교사 충원 방안 3. 초등교사 부족 해소를 위한 중·초교사에 대한 의견 4.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교육 부실화 방지 대책 5. 능력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방안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평생교육·체육 · 보건 및 학교 급식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원교육청 관내 학생 수련장소 현황, 군청에서 건립한 수련장을 이용한 실적이 없는 사유 2. 학교급식 식단을 쌀소비 촉진을 위한 식단으로 전환할 용의 여부 3. 결식학생 현황과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현황 4. 학교급식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급식소(식당) 에어콘 보유실태, 향후 확보계획, 학교급식 위생실태 점검결과 저등급 학교 현황과 대책 5.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원인과 근절대책, 외부반입 식품의 식중독 발생현황과 개선방안, 급식시설 확충 계획과 미 급식 학생의 식사 지도 방법과 대책 6. 각급 학교 지정종목 자체 코치 임용 현황 7.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횟수와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수에 대한 개선 관리방법, 2회이상 부적합 판정받은 학교현황 	
예산 운영 및 시설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공사 수의계약 기준 및 외지업자와의 계약사유 2. 소규모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무위임 용의 여부 3.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운영예산 지원액과 타시·군 동일 규모학교 운영예산 지원액과의 비교 및 현대화학교 운영경비 과다 소요에 대한 대책 4. 학교 설립시 회사한 토지 중 미등기 토지 현황 및 후손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토지 현황 5.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 OECD기준의 교육 여건개선계획에 따른 교사 수급 계획 및 부족교실 해소 방안 6. 3천만원 이상 학교시설 공사 지연 발주 현황 7. 폐교 관리방법 8. 재산관리 전산시스템 활용 현황과 교육용 이외의 재산에 대한 관리방안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예산 운영 및 시설관리	9. 수거식 화장실 보유 현황 및 환경개선 방안 10. 관내중학교 건물중 내구년한 이전 개축한 건물현황 및 그 사유	
기타 행정관리	1.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 청원도서관이 폐관 대상이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 폐관대상 선정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 2. 통학구역 문제로 논란된 지역과 민원현황 및 조치 실태 3.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의 기준 및 위촉 방법 4. 공정한 성과급 집행 방법 5. 소규모학교의 업무경감 대책	

다. 충청북도진천교육청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장 학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로효친 교육내용 및 대책 2. 영어교육문제와 관련, 원어민교사수와 lab 설치 학교 현황 3.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실천 여부와 학생들의 타 지역 학교 진학에 따른 문제점 4. 연구시범학교 지정 과다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 및 획기적인 연구시범학교 운영 개선 방안 5.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과 연구결과의 일반화 실적 및 효과 6.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 단체별 가입현황, 청소년 단체 지도실적 및 재정지원 현황 7. 교원단체 포용에 대한 교육장의 신념과 철학, 교원 단체 가입현황, 신규자 가입현황 8. 남북 화해를 위한 특색교육 현황 9. 방학 기간의 적절한 운영 여부 10.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원토 확립을 위한 활동 내용 11. 영어로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 현황과 외국어 연수 실적 12. 지역 배출 인사(역사적 인물) 업적 교육현장 활용 현황 	
학생생활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간 학생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필요 학교수 2. 최근 3년간 교육청 관내 중학교 중도탈락 학생현황 및 사유와 탈락 방지 대책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 	
교원 및 일반직 인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능력중심의 인사제도 시행방안 및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평생교육·체육·보건 및 학교 급식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과 학교장 의견 청취여부 및 합리적 운영방안,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2. 각급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실태 점검결과 부적합 학교현황과 개선대책, 급식소(식당) 에어컨 보유실태와 확보계획 3. 학생야영장 이용자 감소 사유 및 향후 대책 4. 학교 수질검사 횟수와 검사시기, 부적합 판정을 2회이상 받은 기관 현황 및 판정이후 조치사항 	
예산 운영 및 시설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지학교 매각계획 및 매각에 따른 재정 지원 계획 2. 농촌현대화 시범학교와 관련, 동일규모의 타 시·군 학교 대비 과다 지원 사유 및 지원기준 3.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방법과 조성된 기금의 지출내역 및 효과적인 조성방안 4. 학교 시설공사 조기 발주방안 및 동절기 전 완공방안 5. 학교발전기금의 적극적 조성을 위한 홍보방법과 조성된 기금의 지출내역 및 효과적 조성 방안 	
기타 행정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현황과 분교장 격하 예정 학교 현황 2. 감사담당공무원의 감사수행자세 전환 및 수감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우수공무원 발굴) 3. 교육장 직무 수행상 애로점 4. 상산, 삼수초등학교의 이전계획 	

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장 학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괴산인의 자긍심 갖기」 운동 추진내용과 방향 2. 학생 해외연수시 사전 교육내용 3.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과 처우 등 개선방안 4. 연구시범학교 지정 현황과 수업결손 등 해소방안, 연구결과의 일반화 실적 및 의견 5. 방학기간 등 (70여일)에 대한 운영 방안 6.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원품도 확립 방안 7.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초·중교사 현황 8. 지역사회와의 교육적 협력 수범사례 현황 9. 유치원 교육자료 개발 수범사례 및 유아교육연구회 운영 현황 10.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교육적이고 내실있는 인물 자서전 편찬 계획 	
학생생활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내 학교중 통학로가 없는 학교현황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 2. 관내 중학교 중도탈락 학생 현황 및 대책 	
교원 및 일반직 인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교육부실화 방지 대책 2. 능력중심의 인사제도 확보 방안 	
평생교육·체육·보건 및 학교 급식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쌀 소비 촉진 방안 2. 결식아동수 및 결식아동에 대한 보조 현황과 빈곤 가정 학생에 대한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실적 3. 학교급식소(식당) 에어컨 보유현황과 확보계획 4. 학원지도감독 현황과 강사 자격증 소지여부, 허위 광고 대처 방안 5. 2000, 2001년도 수질검사 현황과 식수관리 실태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예산 운영 및 시설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공사 수의계약 기준 및 외지 업자와의 계약 사유 2.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집행업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등 학교장 중심 행정의 확대 방안 3.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실 증축시 학교용지가 부족한 학교 현황 4.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과 OECD기준의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교실확보 및 부족교사 해소 방안 5. 3천만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 발주 현황 6. 과학보조, 급식보조 등 일용직 인건비 단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인상 계획 7.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부진항목에 대한 대책 8. 토지 지목 정비현황과, 유휴 교육재산(폐교포함) 관리현황, 임야 등 학교림 관리 현황 	
기타 행정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장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현황 2. 일선 학교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라. 충청북도음성교육청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장 학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어민강사 현황, 강사 감축 사유, 강사의 처우 실태 2.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 현황과 외국어 연수 실적 3. 학생 해외연수시 사전 교육내용 4. 상치 영어교사 현황과 영어교사를 위한 연찬 프로그램 현황 및 외국어 연수 실적 5. 연구시범학교 지정 부서별 현황과 수업결손 해소 방안, 연구결과의 일반화 현황 및 의견 6. 타 시·군과 차별화된 교육계획(사회교육활동 등) 7. 방학운영과 관련, 연간 70여일에 대한 활용 내역 8.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원토 확립 조성 방안 9. 지역과의 교육협력 사례 및 계획 	
학생생활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내 학교중 통학로가 없는 학교현황 및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 2. 최근 3년간 중학교 중도탈락 학생의 현황 및 대책 3. 1998~2000년도까지의 학생 교통사고 현황 	
교원 및 일반직 인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내 학교중 교감이 교장보다 선배인 학교 현황과 역할 수행에 따른 장·단점 및 교사 반응 2. 초등교원 신규임용 현황 및 부족교사 확보방안 3.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공교육의 부실화 방지 대책 4. 능력중심의 인사제도 시행 방안 5. 관내 여교사의 비율, 여교사의 주임비율, , 여교감의 비율, 여교장의 비율, 전문직 비율, 여교사의 전문직 진출 방안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평생교육·체육 ·보건 및 학교 급식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쌀 소비 촉진방안 2. 결식(중식)아동수 및 결식아동에 대한 보조 실시 현황과 빈곤 가정아동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현황 3. 학교급식소(식당) 에어컨 보유현황과 확보계획 4. 체육 지정종목외 개인종목 선수에 대한 훈련비 지원 방안 5. 수질검사 회수와 검사시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 받은 기관 현황 및 조치사항 6. 수거식 화장실 (2개소) 처리 대책 	
예산 운영 및 시설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지목정리 및 합필현황 및 학교림 관리 현황 2. 외지업자와의 수의계약 사유,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등 학교장 중심 행정 확대방안 3.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실 증축시 학교용지가 부족한 학교 현황과 부족교실 해소 방안, 2002년부터 향후 3년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모집정원 대비 유휴교실 발생 여부 4. 학교설립시 회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과 유휴 교육재산 활용 현황 5. 시설공사 조기발주, 적기완공을 위한 지도·감독 내용 6. 학교설립시 시설기준 (초등 6학급, 중학교 3학급 기준) 7.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결과 부진항목에 대한 현황과 대책 8. 토지지목 정비현황과 유휴 교육재산(폐교포함) 관리현황, 임야 등 학교림 관리 현황 	

분 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사 항	비 고
기타 행정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선 학교 노조가입 교사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노조탄압 등의 주장에 대한 견해와 교원단체 활동 관련 복무처리 대책 2. 감사담당공무원의 감사 수행자세 전환 및 수감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우수공무원 발굴 등) 3. 학교장 중심의 민주적 학교행정 구현을 위한 학교장 권한 확대계획 	

6. 감사결과 수범사항

가. 충청북도교육청

(1)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지난 7월 실시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시 10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4회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55억 9천여만원을 지원 받게 된 것은 도내 1만6천여 교육가족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고 사료됨.

(2) 교육정보화 부문 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2001년도 시·도교육청의 정보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평가에서 교육정보화 추진계획, 교원정보능력배양 등 교육정보화 부문 평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6억원을 지원 받게 된 것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과 함께 명실공히 우리 충북이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입증한 것임.

(3)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의 우수성적 거양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부문 4위의 성적과, 제30회 및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연속 5위로 상위입상을 한 것은, 도내 1만6천여 교육가족과 선수가 하나가 되어 이룬 땀과 노력의 결실로 충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것임.

(4)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 인사행정

도내 최초로 2001. 9월 충청북도여성교육청 교육장에 여성장학관을 임용한 것과, 2001. 4월 여성공무원을 교육행정사무관에 승진 임용한 사례는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높이 진작 시킨 인사 행정이었음.

나. 충청북도청원교육청

(1) 아가모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실 사랑방」 운영

교원 아가모 운동의 일환으로 「교실 사랑방」을 개설하여 교육도서실로 운영하면서, 후배사랑 교육전문도서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문도서를 확충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킴은 물론, 가정과 학교·사회에 사장되었던 교육학 도서를 재활용토록 하여, 양질의 교육도서 물려주기 운동을 사회로 확산시켜, 지역사회와 학교의 유대를 강화하였음.

(2)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원교육청 관내 16개의 폐교를 관리하면서 2교는 자체활용, 8교는 매각,

나머지 6교는 모두 임대하여, 미활용 폐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폐교제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다. 충청북도진천교육청

(1) 「진천교육 50년사」 발간 보급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생겨진천인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 진천교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진천의 미래 교육을 설계할 밑거름이 되도록 「진천교육 50년사」 700부를 제작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포 활용하도록 하였음.

(2) 인성함양 교육자료 발간·보급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성보감」 600부를 발간·보급하였고, 진천학생상 실천 덕목 지도 강화를 위하여 「바른생각 바른행동」 감성록 1,800부를 제작,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참된 「생겨 진천인」을 육성 지도하도록 각 학교에 보급하였음

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

(1)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 학교교육활동을 소개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축제행사에 지역인사의 동참을 유도·활용함은 물론, 괴산군청의 아동교통 안전교육시설지원, 괴산수력발전소의 교육경비지원 등 지역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있음.

(2) 입체적 ICT 활용 교육여건 조성

ICT 활용 교육 시범 교육청으로 원격연수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ICT자료를 학교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시스템을 시설하였고, 컴퓨터 동호회 운영, 교원 정보화 연수 실시, 군지정 중심학교(증평여중)운영 등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정 ICT활용 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S/W자료로 활용할 프로그램을 제작 일반화하여 교육정보자료의 공유, 확산을 통한 교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마. 충청북도음성교육청

(1) 특기·적성 5품 인증제 실시

특기·적성 신장 및 소질계발을 통한 학생들의 성취의식 고취를 위하여 특기·적성 5품 인증제(컴퓨터 기능·외국어 능력·독서교육·한자학습·예·

체능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 밖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함은 물론, 저가 양질의 보충·심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2) 평생교육 학습관 이용 주민아카데미 활동 전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음성, 금왕지역 학부모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문화수준 제고에 기여하였음.

7.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가. 충청북도교육청

(1) 교실확보 및 교사수급 대책 강구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과 OECD 수준으로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정책에 대하여 연차적인 시행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거나, 부득이 정부 방침대로 시행하여야 될 경우에는 부족한 교사수급과 교실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정비 대책 강구

각급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정비대상업소(총 1742개소중 36개소)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정비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 도내 중·고등학교학생 중도탈락 예방대책 강구

경제위축으로 인한 가정사정,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검정고시 응시, 해외 이민 등으로 1999년에는 775명이, 2000년에는 910명이, 2001년 상반기에는 421명이 중도에 탈락한 바,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4) 도내 초·중·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도내에 연구시범학교 지정교는 모두 94개교로, 다소 과다하다고 사료되며, 획일화되고 형식적인 일회성보고회로 운영되거나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5) 학생 교통사고 예방 철저

OECD국가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위라는 불명예에 처한 현실에서, 1999년도 49건, 2000년도 114건, 2001년도 상반기에 62건의 학생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학생들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 예방교육은 물론,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실업교육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최근 지식기반사회 도래, 산업구조 고도화, 직업세계의 변화 등으로 산업체와 학생·학부모로부터 실업교육이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수요자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실업계고 육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7) 충북지역 경부고속철도 통과에 따른 소음피해 발생 대책 강구

우리도내 옥천, 영동지역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인접한 학교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8) 먹는 물 관리 대책 강구

학교에서 먹는 물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각급학교에서 4회씩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갈수기 및 우수기 등에는 검사 회수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식수관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나. 충청북도청원교육청

(1) 동일교에 교감보다 후배인 교장 인사발령에 대한 개선

교원 정기인사에서 관내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우 교감보다 후배인 교장을 발령한 것은 정상적인 학교운영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교원 정기인사에서는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합리적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 학교 시설공사 조기 발주토록 노력

학교 시설공사는 조기에 발주하여 완공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학

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강초 지붕방수공사와 오수정화조 시설공사 등 일부 공사를 동절기에 시행 한 바, 향후 시설공사 발주시에는 조기에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3) 학생 중도탈락 예방대책 강구

경제위축으로 인한 가정사정,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검정고시 응시, 해외 이민 등으로 19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25명의 학생이 중도에 탈락한 바,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4) 소규모 시설공사는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공사중 전문성, 특수성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한 경미한 시설공사는 일선 학교장에게 위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5) 먹는 물 관리 대책 강구

학교에서 먹는 물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각급학교에서 4회씩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갈수기 및 우수기 등에는 검사 회수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식수관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충청북도진천교육청

(1) 학생 교통사고 예방 철저

OECD국가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위라는 불명예에 처한 현실에서, 3년간 7건의 학생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학생들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 예방교육은 물론,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학생 중도탈락 예방대책 강구

경제위축으로 인한 가정사정,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검정고시 응시, 해외 이민 등으로 19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42명이 중도에 탈락한 바,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 먹는 물 관리 대책 강구

학교에서 먹는 물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각급학교에서 4회씩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갈수기 및 우수기 등에는 검사 회수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식수관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4) 학교 급식소(식당)에 에어컨 보급 대책 강구

전체 급식학교중 초 1교, 중 1교만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무더운 하절기에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인성교육의 지속적 실천 추진

급속한 경제발전과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물질 만능 풍조속에 개인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의 혼돈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가 요구되는 바,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지속적인 인성교육 실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

(1) 적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운영 대책 강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운영 시 1999년 11건중 9건을, 2000년에는 12건중 11건을 해지함으로써, 대다수가 금지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의된 바,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화구역내 위해업소 정비 등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 학생 중도탈락 예방대책 강구

경제위축으로 인한 가정사정,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검정고시 응시, 해외 이민 등으로 1999년에는 33명이, 2000년에는 14명이, 2001년에는 22명이 중도에 탈락한 바,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3) 소규모 시설공사는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공사중 전문성, 특수성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한 경미한 시설공사는 일선 학교장에게 위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4) 먹는 물 관리 대책 강구

학교에서 먹는 물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각급학교에서 4회씩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갈수기 및 우수기 등에는 검사 회수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식수관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5)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관내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는 8.6%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 바, 원어민 보조교사 증원, 영어회화 자율연수의 확대 시행 등 여러 방안을 강구, 효율적인 영어지도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마. 충청북도음성교육청

(1) 학생 중도탈락 예방대책 강구

경제위축으로 인한 가정사정,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검정고시 응시, 해외 이민 등으로 1999년에는 4명이, 2000년에는 16명이, 2001년에는 18명이 중도에 탈락한 바,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2) 먹는 물 관리 대책 강구

학교에서 먹는 물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각급학교에서 4회씩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갈수기 및 우수기 등에는 검사 회수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식수관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관내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는 초등9.4%로, 중학교20%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 바, 원어민 보조교사의 증원, 영어회화 자율연수의 확대 시행 등 여러 방안을 강구, 효율적인 영어지도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4) 소규모 시설공사는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공사중 전문성, 특수성을 요하는 공사를 제외한 경미한 시설공사는 일선 학교장에게 위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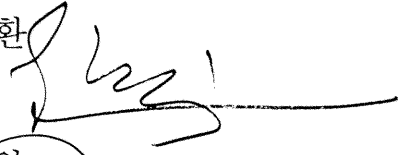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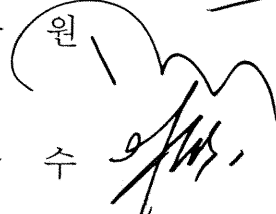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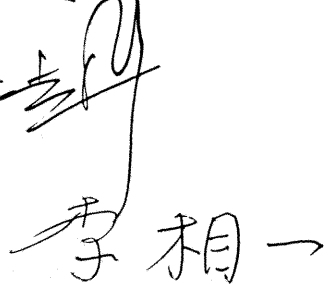
(5) 학생 교통사고 예방 철저

OECD국가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위라는 불명예에 처한 현실에서, 3년간 15명의 학생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학생들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 예방교육은 물론,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1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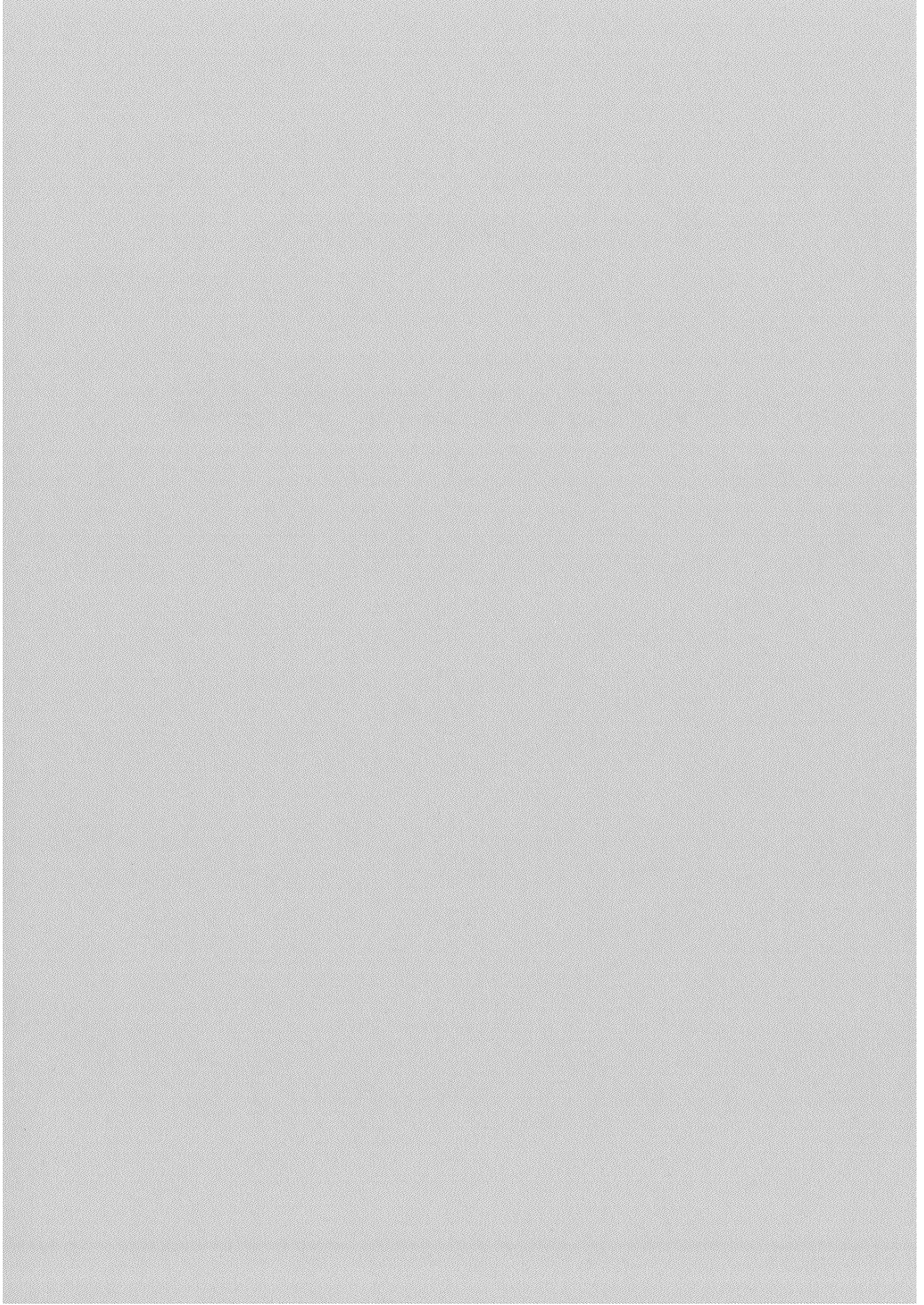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조 일 환	
간사	이 충 원	
위원	김 광 수	
	송 진 하	
	이 기 수	
	이 상 일	

第13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定期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27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135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23일 (화요일) 11시 03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1차 조례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충원

사실은 조례는 여러번 제가 했습니다.

소위원회 조금 전문가가 돼서 제가 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05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인 제가 선출되는 방

식으로 하면 어떨까, 동의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를 자원하시든 추천하시든 둘 중에.....

● 조일환 위원

지금 보니까 송진하 위원님도 한번도 안하시고 김광수 위원님도 한번도 안하시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뭐 우리 이상일 위원님이 제일 많으시네, 이기수 위원님 일곱 번,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도 제가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동의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충원

역시 물꼬는 제가 튼 것 같습니다, 자원을 하시고.

간사님 그러면 인사말씀 하시죠.

● 간사 조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조일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고, 인사말씀까지 끝났습니다.

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06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참으시겠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 위원장 이충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총무과장님 지금 불 일이 있

어 나가셨기 때문에, 국장님, 대신해 주시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이충원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모자보건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60일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적용은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본회의(별첨 3)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충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 위원님.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상일 위원님.

● 이상일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조일환 위원님.

● 간사 조일환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쭙볼게요. 출산은 11월 1이죠, 출산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간사 조일환

휴가는 11월 이전에 휴가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90일 적용을 못받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부칙 제2항에 의해서 그것이 시비의 여지가 있어서.....

● 간사 조일환

휴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출산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11월 1일부터 법률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안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월 30일날 애기를 낳고 휴가를 60일 얻었어요. 휴가를 딱 60일 얻었는데 이 법 공포할 때 벌써 법이 개정됐으니까 나는 59일이 남았지만 30일을 더 플러스 해다고,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안되기 위해서 2항을 만들었습니다.

● 간사 조일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여교사들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간사 조일환

그러니까 학교에 미리 공문을 보내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편법이더라고 말어요, 막말로. 뭘니까, 절개해서 낳는 수도 있고, 되도록 이 안이 1일부터 실시된다는 것을

학교에서 미리 알아야지, 우리가 공포된 다음에 돌리면은 자칫하면은 오늘이 20 며칠이니까 이거 뭐 3,4일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수도 있을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 재수... 하루 때문에 30일을 못받아, 이런 게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청이 수고스럽지만 전원 통신을 해서 우리 위원회 다 통과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이다, 되도록 11월 1일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휴가를 이것을 활용해라, 그러면 알아서들 하겠지. 그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이 법을 통과해 주시면은 이제 또 도의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 간사 조일환

예고를 해서 많이 적극 활용하도록, 이상입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잠깐만.....

● 위원장 이충원

예,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방학이 만약 그 90일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방학이나 휴일이냐는 막론하고 이것은 난 날로부터 이제 90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이 중간에 끼었던 안 끼었던 그것은 관계를 안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있다면 두달쯤 있다 방학이, 그러면 방학을 휴가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의 입력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간의 계산은 입력에 의해서 날짜가 지나가면 그만이지 꼭 90일을 찾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방학이 되면은 달력 날짜가 지나가면 자기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만 딱 주는 겁니다.

방학이 끝나고 2월달부터 다시 못 찾아먹은 것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에 의한 90일로 보시면 되십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방학 때 난 분들이 방학 이후에 난 걸로 진단서를 떼어갖고 오시고 그랬죠.

● 이기수 위원

아니 90일인데 이게 방학 끝나면서 끝나면서 바로 낳다면 방학동안 있지 90일 있지 하면 거의 반 이상 노는 얘기가 되

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을 저기해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휴직을 또 남자직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90일은 최소한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휴가로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휴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 위원장 이충원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조일환,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본회의(별첨 3)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12. .

위원장 이충원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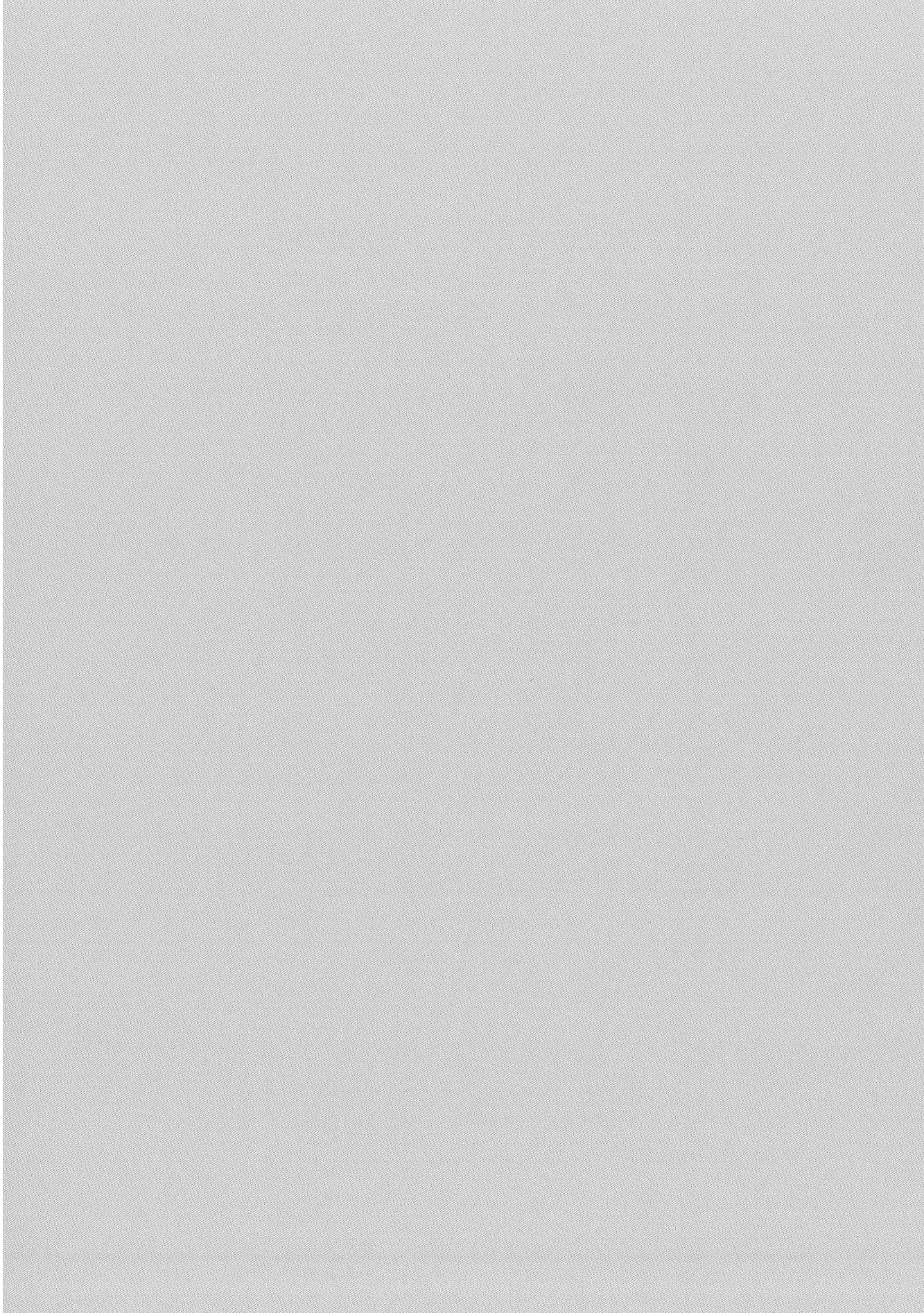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0.23. (화) 11 : 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소위 종료후 예결소위 개회

第13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定期會)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141
II.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145
III.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1
IV.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소위원회237
V.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소위원회333
V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379
2.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보고381
3.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447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23일 (화요일) 11시 16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6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본 소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보니까 조례도 많이 하신 분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매끄럽게 잘하시는데, 예산도 이상일 위원님이 두 번 했는데 저는 이상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쪽에 보니까 나머지 한 분은 감사소위원장, 한 분은 조례소위원장, 한 분은 예산소위원장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소위원장을 이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이상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불문해서 회의를 잘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따뜻하게 격려해 주

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0분)

●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간사 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간사는 이기수 위원님이 전문이시네, 이기수 위원님이 하세요, 전문이니까 한번 더 하세요.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지금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1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여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날짜별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한 뒤 산회하고, 2차 소위원회는 10월 26일 14시에 개최하여 다음날인 10월 27일까지 세입예산안과 도교육청의 세출예산안을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29일 10시 제4차 소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청 예산안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10시 제5차 소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뒤에 10월 31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6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제134회-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26일 (금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을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교육국을 심사한 후, 내일은 기획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직접 예산안 작성에 참여한 기획관리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 자료-본회의(별책 4)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기획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 순환하여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질의 없어요.

● 위원장 이상일

질의 없으시면 다음 송진하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 간사 이기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 조일환 위원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 예산을 조금 들여다 보면서 전체적으로, 각 항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질의를 할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대신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 책을 보니까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학교 중심 재정운영체제 조기 정착 하고서 거기 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세 번째, 교육이 직접 이루어지는 학교현장, 즉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총액배분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배정했다 이거죠, 예산편성 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 내용은 학교회계가 금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액배분으로 저희들이 해 주면 별도로 학교회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회계가 대등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그 뒤항, 뒤항에 보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책무성 제고 하고, 그 두 번째 작은 항에 보면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거하고 통하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여기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하고 그러겠죠? 이거 어떻게 일반 학부모에게 공개를 합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학부모 회의가 또 있어요.

● 조일환 위원

별도로요?

● 교육국장 조봉래

학부모 회의.

● 조일환 위원

그 예산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줍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예, 예산을 설명하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 학교 홈페이지 올라가면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인데, 물론 홈페이지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학부모 수준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이거지, 지침대로. 실시하고 있다.....

● 교육국장 조봉래

학부모 회의에서 예산을 대강을 보고를 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3쪽에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사업주체내용 운영방식 집행체제의 타당성 검증후 예산집행, 그래 가지고 그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있죠. 책임운영기관의 입하 가능성, 그래서 사업 운영방식의 효율성, 이 아웃소싱같은 이런 민간위탁,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요즘의 행정에 보통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방교육, 저희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에서 주로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이게 저는 이번에, 아까 기획과장님인가 국장님인가, 저는 본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서, 그런데 이것을 1차 수정이란 말이죠. 그럼 원본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원본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이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요. 제안설명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이것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보고를 한 걸로 지금.....

● 조일환 위원

제가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수정이죠, 그때도 본

회의에서 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본회의에서요.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죠.

24페이지 보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체제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 장기적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시설사업 및 정보화사업 등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주민,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한다, 그러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누가 여기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충청북도 저희들 장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참석을 하시고,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 한 분이 참석하시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분 참석하시고, 또 나머지는 이제 청주시의 관리국장하고 일선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 저희 본부의 국장급 이상하고 주요 과장님들로 이루어졌습니

● 조일환 위원

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두 분을 모셨다, 그러면 이 모시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의장에게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마 그때에 저희들이 임명을 할 때에는 그런 절차는 안한 것 같습니다.

● 조일환 위원

왜 그러나 하면, 왜 그러나 하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추천을 해 달랬느냐, 안해 달랬느냐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죠, 아니죠. 글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위촉을 교육감님이 하시고, 저희들도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의장님한테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했는지, 아니면 직접 위촉했는지 그것은 기억은 없는데 그것은 교육감님이 위촉하기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 조일환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건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요.

● 조일환 위원

저는 앞으로, 이걸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교육위원회 공히, 교육예산을 다뤄보는 이 사람들을 여기에 몇 명이라는 것은 저는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넣을 때는 교육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위촉을 받았으면, 아, 내가 위촉을 받았는데 이러한 장기규모 투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공인이니까 가는 거죠, 앞으로 저는 이런 걸 할 때는 교사면은 그 교직원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또 학부모 하면, 그런 쪽으로 저는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들이 장기투자계획을 세울 때에는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100% 들으면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부의 지침은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교육위원이나 지방의회 등 주민을 대표하거나 주민들을 우선해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라는 뜻으로 여기 지침이 돼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이 뭐.....

● 조일환 위원

예, 됐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제 뭐 공청회도 거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뭐 계획 세워가지고 검토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글썄 저도 충북교육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이고, 뒤에서 뒷 말들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여러분들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또 제가 감사하면서 향후 이런 일시적인 저거나 이걸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위원명단을 내라, 제 개인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많다 이거죠. 막말로 끼리끼리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왜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예산을 하면서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정말 이 심의위원같은 것은 객관성 있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맞죠?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객관성이라는 게 뭐 객관성 있으면 가장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그것을 교육위원님들을 모신다고 그래서 꼭 교육위원회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또 이쪽 집행부에서 판단했

을 때에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 위촉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상입니다, 이걸.

● 조일환 위원

예, 방법상의 문제인데 예산의 정말 투명성이나 객관성 이것을 위해서 이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기본지침을 만들 때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증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여 전체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 자, 서울특별시 30억 이상, 광역시는 20억원 이상, 그 다음에 소요 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는 투자 심사 전에 전문기관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간에, 했습니까? 했으면은 그 실적을 죄송합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실적을 좀 저한테 내일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있다면 있으면 좀 주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자꾸 저거할 것도 아닌 거고, 이 목적은 분명하게 여기 있습니다. 중복 과잉투자를, 뭐 저희끼리니까 관계없습니다만은 400억짜리 사업이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왔다 이것이 금세 되돌아가는 이러한 광경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이런 여기에 말하는 중복 과잉 이런 게 방지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좀 보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400억 교육문화단지는.....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답변요구를 안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러면 안됩니다, 무질서합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 답변을 들으셔야죠.

● 조일환 위원

아, 제가 답변을 달래지 않았잖아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다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다른 말씀을.....

예산심사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안이 올라왔잖아요, 안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직 안올라 왔죠.

● 위원장 이상일

아니 그러면 지금 조일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그냥 답변요구를 안하고 질문만하시는 거예요?

● 조일환 위원

아니 난 그걸 내 뭐.....
아니 그러면 제가 받은 의안은 왜 제가 받았습니까? 400억 학생회관에 대한 거는 그럼 제가 어디가서 훔쳐왔습니까? 과장님.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산심사를 올렸단 말씀입니까?

● 조일환 위원

아니 예산심사나 저거 관리변경을 해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 그 부분은요, 법이 개정된 것을 저희들이 미처 관보로 온 것을 못봤기 때문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관보가 와서 저희들이 철회를 한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글썽 철회를 해도 좋은데 그러한 사업도 이렇게 참 아주 이런 면회를 하고 여기에 규정에 맞게 사전에 정말 전문가들을 해서 했더라면은 교육청에서 의안을 심사해 달래놓고 철회를 하겠다, 이 잘 몰랐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 잘 모른 것이 아니고 9월 15일자로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들은 이미.....

● 조일환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답변을 드려야죠.

● 위원장 이상일

아니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 조일환 위원

아니 집행청에서 이렇게 발언권 없이 막 얘기해도 돼요?

● 위원장 이상일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기만 하고 답변을 안들으실 거예요?

● 조일환 위원

내가 답변을 달라는 건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 위원장 이상일

아니 그런데 일문일답인데 그 질문하시는 거 답변 안하고 듣고만 있어요, 어떻게.....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필요한 것은 달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도 내가 말씀드리는데 도중에 김 과장님이 답변을 나서면은.....

● 위원장 이상일

예, 그러면 과장님, 조 위원님 질문하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다구, 이렇게 하세요.

● 조일환 위원

이게 우리가 무슨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예요. 저도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아, 제도가 좋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이런 거를 제가 잘 알지 못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것이 투명하게 안돼서인지 몰라도,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 의안을 받아보고, 400억을 투자하겠다, 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설왕래 했습니다. 3일간이나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서 이것이 규정을 잘 모르고 이러한 사업을 했다 말여, 그러면은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가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위원이 깜짝 놀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희롱 당하는 거 아니예요. 공문이 붙어서 그래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 의안이 제출되었다가 이게 철회를 했다 말여, 이것은 앞으로 이 투자나 큰 거 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

고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이해가 안가시니까 설명을 드려야
죠.

● 위원장 이상일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일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
따가 그 관련부분, 설명부분이 나오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해 주시
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꼭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고 하든지 하면 저한테 답변요청을 해서
제가 승인하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저기 위원장님, 그런 것은 일문일답 형
식이니까, 과장님이 “위원장님, 내가 꼭 답
변드릴 게 있습니다, 답변해도 좋습니

까?”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니까, 저하고 일문일답이니까, 그렇
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꼭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 중
간에 끊고 나와서.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시니까 제가 이
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의무
도 있고, 또 저희들이 법을 몰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을 설
명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이 학생교육문화단지에 대한 과잉
투자냐, 필요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그것은 추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왜냐하
면 저희들이 한 600여 명의 여론조사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
표를 안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실무를 맡
아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저희들이 9
월 10일자에 이미 그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을 9월 10일자에 교육위원회에 넘겼고,
또 투자심사위원회에도 소집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 15일

자로 관보에, 토요일자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자로 관보에 50억이 넘는 것은 전문가의 의사를 들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된 것이 9월 15일자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교육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보가 비로소 저희들한테 도착이 돼서 그것을 알은 겁니다. 저희들이 관계규정이나 모든 것을 다 살펴봤지만 개정될 뒤의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9월 15일자 개정된 것은 뒤늦게 저희들이 관보가 늦게, 9월 15일자 관보에 났습니다, 또, 9월 15일자 공포되면서, 그것이 늦게 도착이 됐어요, 저희들한테 관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투자심사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와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사를 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잉투자냐 아니냐, 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얘기가 사실 저희들로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왜 그것이 과잉투자이며, 청주가 교육 문화도시라고 지금 일컬어 오면서 솔직히 애들이 유해시설에 계속 노출돼 가지고 눈만 뜨면 인터넷방이나 들어가서 음란사이트나 들어가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시

설 하나 없는, 전혀 타 도시와 특색화, 차별화 되지 않는 이런 도시가 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국고로 한 200억씩 따다가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언론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만들어야 된다고 채찍질은 못할망정 이것이 아니다 기다 하는 어떤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질타를 해 대니까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는 참말 들을 때마다 지금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을 해보겠다는 거지 무슨 이거 망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자,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질타가 아닙니다, 질타가.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쪽으로 돼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쪽이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400억이라는, 그건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보는 가치관하고, 또 학부모나 위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이 의안이 합당하다, 보는 관점은 상대적이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억의 사업을 하는데 모든 규정이나 법률이라는 것은 입법예고도 있고, 입법예고도 있고, 예를 들으면

은 우리 어제께 90일 산후 그거 심의했
 죠, 제가 일선 학교의 어느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 그 학교 혹시말여
 10월 말쯤에 가서 애 낳을 사람 있으면
 11월달부터 낳으면 이런 게 있어.” “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행정
 은 공개적입니다. 관보에 올라올 때까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국가에
 서 법률을, 또는 법을 할 때는 반드시 예
 고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그걸 몰랐다
 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는가, 그러
 면 과장님이 보는 관점은 그럴 수도 있어
 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답답하단 말여,
 이게 어느 교실 하나 짓는 것도 1년 전부
 터 기획에 들어가는데 400억짜리를 이걸
 말여,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
 들 의견이 대다수여,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기채를 하는 형편인데 말여, 교실이
 모라라서 지금 이러는 형편인데 그게 더
 급한가 말여, 이런 생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기준으로 이
 렇게 말씀하시면 이 의안심의 하나마나예
 요. 그렇잖아요, 어떤 걸 말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중요한 이런 것은 정말 신중
 을 기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예
 산을 할 때 이런 과정을 잘 밟아졌느냐,
 이런 쪽의 제가 질의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이상일

위원님, 발언 끝나셨어요?

● 조일환 위원

예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세입에 관해서 이충원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 이충원 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
 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알고, 시작한 지
 1시간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
 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세출예산
 안 할텐데 한 10분 쉬었다가 속개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
 씬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2년도 충청북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자기 의견이 안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들하시고 각자 위원님들이나 집행청 간부들께서나 상호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어휘도 좀 잘 선택하셔서 서로의 감정이 자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는 질의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답변해 달라고, 아니면 이것은 서류로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 전에 몇가지 좀 질문을 해 보겠어요.

그 교육예산을 GNP 몇 %, 이렇게 많이

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 그 예산이 전국 예산은 몇 %이며, GNP의, 우리 도의 예산은 몇 %가 됩니까.

답변하시기가 뭣 하면 다음에 해 주셔도 좋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교육환경 OECD를 국가수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OECD 국가수준이 어느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어느정도냐. 그것도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유인물로 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어느정도를 가지고 OECD 수준이라고 하느냐, 세목별로. 나중에 해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에다 일괄해서 주는 거죠. 그 산출근거를 알려 주시는데, 교육부의 지침이라 할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 도는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 똑같이 했는가 아니면 조금 다르게 했는가. 우리 도의 산출내역,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건데 50페이지, 예산서 50페이지, 거기 보

면 국내외 최신 교육관련 기사수신료가 있습니다. 이 3,600만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수신료를.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것은 연합뉴스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월 300씩 이것을 국고로 줍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은 하지만 국고로 다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신료입니다. 연합통신에서 그것을 통신에 올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그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아 통신회사야 받아가지고 다 주게 돼 있는 거지 뭐, 연합통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교육보도에 대해서만 주는 거 아니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이터나 AP나 이런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연합통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육성대책도 있고 기자실에 이것을 설치해 놔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관련만 보지만 기자들은 이제 전체 뉴스를 다 보면서 자기들이 기사화할 것은 하고 하는, 연합을 받아야 되니까, 연합하고 제휴가 된 데는, 그래서 국가에서 국고로 이걸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연합통신 모니터가 각 시·도교육청마다 한대씩 있어가지고 교육부에서 종전까지 월 300만원씩, 3,600만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V 수신료처럼 연합통신에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일어나는 통신을 통해서 뉴스를 속보로 보내주고 그것을 수신하는 기자들은 주로 이제 지방기자들이나 중앙기자들이나 전부 다 현지를 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자기들 회사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좀 더 집중취재를 한다든가 해서 신속화하기 위한 매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중앙에서도 지방지를 위한 지방교육을 위한 통신을 수신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에 가면 지방비로 미루라는 얘기고, 교육부 쪽에서는 지방교육자치가 어차피 교육비특별회계로써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심의회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것이 지금 확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중앙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그 이듬해에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오든 안오든 우리가 수
신료는 줘야 됩니다, 연합통신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지방비로 세우고 또 세입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세입으로 추
경에 올리게 될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국가예산이고 아니고 간에 연합통
신의 임무는 뉴스를 수신해 가지고 보급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그 연합통신이 국가 계 아니고요
개인 겁니다. 개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수료를 받아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통신을 제공하는 것만큼 수신
료를 받는데 그게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하나의 모니터당 월 300만원
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출입기자 월
례간담회 1,200만원이고, 교육홍보활동
1,200만원이고, 그 간담회는 뭐고 홍보활
동은 뭐요. 그 구분이 있습니까? 간담회
는 뭐하는 거고 홍보활동은 또 뭐하는 거
예요. 그게 그거 아니예요? 간담회 할 때
홍보활동 하는 거고, 홍보활동할 때 간담
회 하는 거고 그렇지, 그게 구분이 어떻
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저희들이 명쾌하게 뭐 사업별로
이것이 홍보다, 간담회가 사업별로 나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가 흔히 용어해설을 한다면은 간담회 정
도 하면은 간략하게 어떤 교육홍보를 하
기 위해서 기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든
가,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되면 장소
를 옮겨서 식사시간 되면 식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활동비 같은 것은 그것이 언론사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또 순수한 우리 출입
기자들 외에 언론사 간부들이나 이런 분
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
하고 공적인 장소에 가서, 수안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대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로 구분이 되었는데 명쾌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 송진하 위원

홍보도 해야 하고 간담회도 해야 합니
다.

그러나 그걸 구태여 뭐, 간담회 때 홍
보도 되는 거고, 또 홍보한다는 게 간담
회도 되는 거고, 그렇게 나뉘어서 했기 때
문에 우리가 볼 때는 뭐 구태여 나눌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뭐
액수가 많다 적다 그것보다도 자꾸 늘어
놓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뭐 답변하실 게 있으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까 송진하 위원님께서 저희들 GNP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교육비가 어느정도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국회에 올라간 것을 보면 22조 3,400억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2001년도 GNP 대비 4.75%였었는데 2002년도는 5% 내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은 GDP 수준은 전망이 한 6%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속에서 우리가 지금 2002년도에는 GNP 대비 5% 정도의 선이 22조 3,400억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우리 본도가 본예산에 준 게 이제 8,869억, 그것이 약 4% 정도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정부의 GNP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2002년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추정치 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은 GNP의 약 4%.....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4.75, 2001년도. 2002년도는 5%. 그리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ECD 수준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OECD

에서 35개국의 대개 평균이 이제 책자로 나온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어도 내용, 교육교과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외형상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그 나라의 교육의 외형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본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수준, 또 초·중·고등학교 수준을 학급당 35명 정도로 하면 OECD 국가의 평균 학생수는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정한 인원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그것을 시차를 2004년까지 35명으로 다운시키려고 그러는 것을 고등학교는 2002년,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그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것이 명쾌하게 국가에서 7차 교육과정 수준에서 1학급당 교실을 몇 칸을 차지하고 선생은 몇 명 두라는 것이 명쾌하게 떨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교육개발원에서 연구물로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에서 각자 수준에 맞게, 예산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라,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그 지표의 약 한 65%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7차 교육과정에 교실이나 특별교실이나 생활실이나 편의실을 배정을 해 오다가, 요 근래에 교육부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각 시·도가 너무 산발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래서 지침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자료(별첨 3)

(끝에 실음)

● 송진하 위원

예, 뭐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 그것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든 면에서 OECD기준,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을 모르겠단 말여.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할 범위는 교육국이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생교육체육과까지, 평생교육체육과까지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저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일

예, 거기까지 남으셨죠?

● 송진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65페이지, 거기 보면 목적사업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은 그 600만원씩 하는데 영어만은 더 배정을 했어요. 그 영어를 더 주는 뭐가 있나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영어회화대회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 송진하 위원

회화대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외국어대회.

● 송진하 위원

대회 경비가 포함됐다 이거죠.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예.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73페이지 거기 보시면 “새로운세기의교장과장학”이 있는데, 그게 책자죠?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책자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럼 그게 인사와 관계된 책자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송진하는 교장선생님들.

● 송진하 위원

아, 송진하는 교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 송진하 위원

나는 인사업무추진에 그게 들었길래 인사에 관한 건가 싶어서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송진하는 교장선생님에게 교육감님께서 책 한 권씩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어떻게 인사업무에 들어가 있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정보화과인데 155페이지요, 거기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월별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건 뭐 그렇게 달달이 정기적으로 딱딱 유지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그 유지비는 저희들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인데요, 지금 저희들 본청에도 상당한 서버와 그것이 있고, 또 각 교육청, 11개 교육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그 통신비 사용료도 있고요, 그 기계의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래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 송진하 위원

이게 관서운영비인데... 아니 그래서 달달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매달 통신료 및 유지보수비가 나갑니다. 그 통신 속도에 따라서 41만원 내는 데도 있고 이런 차등있는, 그것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무슨 산출근거야 12개월이니까 12개월로 해서 하지만 이 총액으로 여기 나타나야지, 월별로 딱 쪼개서, 산출근거야 월별로 나오겠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게 본청에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게 장비금액의 몇 %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지비를 내는 것이.

● 송진하 위원

그럼 총액으로 쓰면 되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 종류별로, 프라임, 토탈, 스펙크 해서 이 종류별로 죽 나온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종류별로 나누는데 12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돼 있네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죠. 매달 얼마씩 주도록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기기의 원가

의 얼마, 이렇게 해서.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159페이지,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 시스템구축 했는데, 거기 158페이지의 전국단위,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용역비이고 여기는 뭐 관서운영비인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목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계.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과목별로 죽 나눠 놓은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과목별로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송진하 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하나는 용역비고 하나는 관서운영비고 그런데,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전국 시스템,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들을 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교재비, 재료비는 관서운영비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공공요금 따로 내놓고, 급량비 따로 내놓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별로 전산화 시키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산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줘야 할 부분은 용역비에 들어가 있고 해서 목별로 죽 나눠 놓은 겁니다. 그 토탈로 들어가는 돈은요,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 임차료,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하는데 임차료, 컴퓨터를 리스를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있잖아요. 왜 리스를 하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저희들이 1,946대를 지난 해에 보급하면서 이 돈을 한번에 주지 못하고요 삼성카드에서 3년간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갚도록, 이게 리스료입니다.

● 송진하 위원

왜 리스를 하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데.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부 지침에서 그것을 함께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3년간에 나누어서 갚도록, 삼성카드에서.

● 송진하 위원

리스라는 건 몇 년 간 두고두고 갚는 건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통령께서 전국민 컴퓨터 쓰기 담화를 발표하신 이후에,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컴퓨터에 접할 시기가 일반 부유층 학생들보다 적다고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갑작스레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사줄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리스를 사용해서 주고, 리스사용료와 그 통신지원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마, 다만 그 리스료는 3년 거치로 해서 분할상환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저희들이 작년 추경엔가 거기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1,949대를 리스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아마 1차년도가 작년도 지났고 지금 2차년도 리스료를 여기 지금 계상한 걸로 이렇게.....

● 송진하 위원

그 리스료 얘기는 들어본 적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예산에 편성돼 있었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게.

● 송진하 위원

기억이 전혀 안나는데.....

● 조일환 위원

송 위원님, 저도 여기 이게 있어서 이따가 중복을 안하려고 저도 추가해서 물어볼까요, 같이?

● 송진하 위원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답변을 마저 드리고요.

리스료는 국고로 갚아주고, 전액 국고입니다, 74억을 다 국고로 3년차 7억 4,000을 전액 매년 3년치 리스료를 다 주는 겁니다, 국고에서. 다 주고, 인터넷 통신비는 5대 5 사업으로 국고에서 5, 우리가 5를 해서 그것을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그런 리스를 한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난.

● 조일환 위원

그게 저는 대통령께서,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좀 여쭙볼게요.

이 7억 4,000이란 말이예요, 그죠? 아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거치 3년 상환이예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3년 상환입니다.

● 조일환 위원

몇 년 거치?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거치 없이.

● 조일환 위원

거치 없이 분할상환?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 조일환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1,900대, 2,000대를 보자, 2000대, 그럼 3년이면은 7억 4,000씩 21억 얼마죠, 그죠? 그런데 컴퓨터가 한 대당 얼마입니까? 우리가 조달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124만원입니다.

● 조일환 위원

124만원이면 2,000대면 얼마예요, 24억 인가요, 얼마예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죠.

● 조일환 위원

24억이 맞아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맞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말이야, 아, 이 기채를 해가며, 그러면 이자는 국고에서 전부 온 겁니까, 예산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네, 국가에서 전액이 왔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곁들여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육부에 있을 텐데 그때 갑작스레 대통령 각하께서 전국민 컴퓨터 보급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 도는 다행히 1,946대이지만 전국적으로 합칠 때는 이게 상당한 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국회에 내놓을 재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최소한의 재원을 염출해서 일단 리스로 사용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래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946대가 그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경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듯이 과목에,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눈에 그때 위원님들이 안 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 171페이지, 거기 보면 학생중식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년도보다 지원대상은 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다 감이 됐는데, 이쪽 173페이지

이지 보면 중학교가 있고, 177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있고, 178페이지 보면 특수학교가 있는데 유독 사학만은 증액을 했어요. 사학만 증액을 하고 전부 감이 됐다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올렸는데요, 이것은 국고 분하고 자체자원분만 계상이 되고 시·도하고 시·군에서 나오는 게 16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3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사학만 어떻게 증액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전부 감이 됐어요. 일률적으로 감하고 해야지 나중에 배정할 적에 좋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6억 정도는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의 저기를 막기 위해서 시·도, 시·군 그래서 좀, 그리고 영동은 영동, 옥천에서 이것을 받아들려고 하는데 2억 6,000 들어와 가지고 14억을 더 받아들일 예산을 해서 삭감이 된 거고요, 지난번에 이것이 중식지원대

상자들이 담임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고 자치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들어오는데 사립학교가 금년도에 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그쪽은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하는데 금년도에 늘 것을 좀 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억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려고요.

● 송진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액이 8,800억에서 인건비가 2,67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신설, 몇 개 신설하는 게 656억 한다면 거의 6,800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사실 2,000억 정도 가지고서 뭐 학교환경개선이다 뭐다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수입부분을 아까 잠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만 묻고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더 묻고서 세출부분을.....

그 입학금같은 거 보니까 학생 1인당

금액에다가 학생수 곱해 가지고서 인문학교는 90을 0.9를 곱해 가지고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0.74, 이렇게 곱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에 그렇게 잡으라고 해갖고 이렇게 수입을 잡는 겁니다, 어떻게 수업료 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세입부분에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출의 예산을 짜기에는 조금 세입보다는 솔직히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세출은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세입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수 곱하기 수업료 빼기 면제자 수를 해서 이것을 만들으면 가장 명쾌하게 이게 나오는데 지금 학생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매년 그 수업료 납입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납률하고를 판단해 봤을 때에 인문학교가 그래도 실업학교보다는 수업료가 징수률이 좋고, 실업학교가 징수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 퇴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학교를 떠나는 수가 또 인문보다는 실업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과거부터 우리가 세입을, 그러니까 납입금을 받아들이 수 있는 율이 가장 적정선, 이것을 산출하다보니까 인문학교하고 실업학

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이것은 경험에 따라서 곱해져 갖고 산출방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교육부 지침에 인문학교 몇 %, 실업학교 몇 %, 이렇게 해 갖고 세입을 잡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감면자 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임의로 여기서 3년치나 아니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렇게 된다면 자꾸 유동적일 수도 있겠네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아마 마지막 추경까지 그것이 세입이 어느정도 잡히느냐에 따라서 가감이, 마지막 추경이 나는 데까지는 거의 그걸로 맞추고요, 그 이후에 조금 차가 나는 것까지는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간사 이기수

우리 이게 결국 따진다면 이제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수업료를 거의 걷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치의 접근하지만은 이 산법이 어떻게 정확히 따지느냐에 따라서 세입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에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32페이지에 청원야영장 이용료와 옥천 야영장 이용료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이외에 또 여기서 빠져나가는 세출, 야영장을 운영함으로써 이용료에서 순수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부수적으로 여기 세출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에는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다 잡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또 세출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추경할 때에는 수입 전체를 가상해서 잡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있는 세입으로써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있는데 그 세입으로 들어와 있죠? 어디 계약을 해서 변상을 받은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게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 간사 이기수

어느 기관하고 뭐 그래서 변상을 시켰든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변상은 주로 감사 나가 가지고 공금의 손실이나 망실이나 이런 걸 본인한테 변상을 시키고, 위약금은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못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이 주로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이게 매년 있습니까, 없을 때도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매년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다소 얼마큼이라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세출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죽 보다보니까 세출에서도 어느 항목이 초등학교, 또는 공립 중·고등학교, 또는 사립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합산해야지만이 만약 원어민이라든지 또는 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를 이렇게 보려면 전부 합산을 해야 도출해야만

전체가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저희가 5개 교육청을 저희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문제가 세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이제 조도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문제, 그 다음 원어민 문제, 이 세가지 문제를 우리가 각 교육청에서 좀 지적이라고 할까, 의정제시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원어민을 보면은 지난해까지 보니까 여섯 명밖에 없어갔고, 금년에 여덟명 이래 갖고 지금 열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의 금년 예산이 아파트까지 보면 대략 5억 4,000 정도 이렇게 원어민 해 갖고서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데, 금년 같으면 여섯 명 중에서 대개 이제 단재교육원이나 또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을 제외놓고는 괴산에 한 분, 그럼 괴산에 한 분이면 괴산 읍내에 북중하고 괴산중학교하고 어디하고 세 학교만 원어민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전혀 원어민에 대한 혜택을 못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육청은, 여섯 개의 교육청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지금 세계화, 정보화 교육을 중시한다고 해서 사실 외국어에 대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학부형들도 비싼 학원비를 내 갖고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또 외국

같은 데 학생들 연찬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사교육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애기인데, 영어교육에서는 랩 시설이나 그런 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지만은 그 생활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어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원어민들 대우가 160만원 정도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0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대우가 열악하니까 있던 원어민도 자꾸 떠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쪽에 좀더 많이 원어민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원어민 한 사람이 세 학교씩 순회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52개 학교밖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학교 하나 덜 짓더라도 이쪽에 더욱더 예산을 투입을 해 갖고서 그 원어민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만 이게 되는 얘기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하는데 기본단가가 A급 200만원, B급 180, C급 160으로 전체 국가 수준을 맞추

기 위해서 변동할 수 없다. 건의를 하고 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사실 원어민이 안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은 최소한도 14명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여기저기 화장실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체의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화장실 개수, 해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을 전부 플러스 시켜야 몇 개 학교 화장실 개수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겠는데, 전체 화장실 개수는 재래식 화장실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상일

그것은 시설과는 관리국 소관이라 내일 질의를 해 주세요.

● 간사 이기수

내일 그것 좀.....

조도문제도 시설과 소속이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간사 이기수

51페이지 부조리 근절 특별감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시는 감사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예,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입니다.

● 간사 이기수

51페이지 부조리 근절 특별감사.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저희가 부조리 근절 특별감사는 연말연시나 추석 전후, 기타 상황이 어려울 때 1조 3명씩 편성을 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 58페이지 말입니다, 58페이지에 교원급여관리, 행정급여관리,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예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런 항목이? 급여관리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송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서, 전부 예산서가 저희들 도만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어떤 재경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전국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여기 61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지원 해 갖고서 600만원 1개교에 주는 것은 어느 학교에 준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유아교육연구회 회장이 있는 학교, 거기에 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초등교육과에 66페이지에 말입니다, 제 7차 교육과정용 CD자료개발 보급 해 가지고 단가는 어떤 근거로 한 편에 얼마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나요? 여기는 뭐냐면 350만원 있는데, CD, 한 편에 350만원씩.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이 CD가 한 편에 기본이 500만원인데 좀 감을 해서 350만원씩 두 편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간사 이기수

현실 가격이 이렇게 해 갖고서.....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현실 가격이 500만원.

● 간사 이기수

500만원?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67페이지에 해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수교재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자꾸 무슨 교육환경이 바뀔에 따라서 한번 제작해 놓은 것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 하나가 연속적으로 올해 쓴 거 내년에도 써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40부, 20

부 이렇게 발간함으로써 전체 단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니까, 올해 내용하고 내년 내용하고 같고 이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함께 몰아 갖고서 한번에 많이 제작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여건이 변경이 되고 해서 한번에 다 박아놓으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수정 보완해야 할 자료가 생겨서, 그래서 해마다 연수 시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매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 간사 이기수

그리고 68페이지에 교육공무원 명퇴수당인데 초등에 4명, 중등에도 죽 있는데 이 명퇴에 대한 것은 몇 명 이렇게 해 갖고서 6,000 몇 만원인가 해 갖고서 4명, 4명, 이렇게 해 갖고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니까, 명퇴자에 대한 희망을 받아 갖고서 소요판단을 해 갖고서 이거 예산을 해 놓은 건가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명퇴수당은 원래 법이 규정한 연령에 따라서 명퇴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퇴수당 희망자에 대해

서 명퇴를 전부 시키다보면은 초등학교원 같은 데는 수급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지만 한 명도 명퇴를 시키지 못했고, 다만 중등은 전원 희망자를 갖다가 명퇴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교원수급문제가 있어서 대폭 줄여서 기본만 세워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본인은 신청을 했는데, 중등같은 경우야 명퇴를 받아 주겠지만은 초등은 이제 수급계획상 못받을 수 있다?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수급계획상 못받았습니다.

● 간사 이기수

법적인 문제가 안 됩니까? 그렇게 돼 있을 때, 나는 나가야 되겠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한다든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명퇴수당은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가시게 해서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원면직을 하시거나 그러는데, 이제 그때의 수급상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래서 교원들을 좀 연세 많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 순으로 좀 나가는 것을 유도하기 위

해서 명퇴제도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초등학교원 수급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올해에는 거의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4명만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그때의 수급에 따라서 그 4명도 집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을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간사 이기수

4명 산출근거에서 말입니다, 중등도 있고 초등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고 이렇더라구, 즉 이렇게 보다보니까, 그래서 그 예상인원들이 도교육청에서 내년에 명퇴할 사람들, 희망자를 내라 해 갖고서 소요판단을 해 갖고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건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아닙니다.

● 간사 이기수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 갖고서 이렇게 묶으신 거고, 또 이에 만약 또 한가지 중등에 명퇴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전원 명퇴시킬 수 있는데, 초등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원 부족하기 때문에

명퇴를 못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 항의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초등같은 경우는 거의 수급문제를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겠죠, 수당문제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중등교육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3페이지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95% 내지 97%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대충 한 6% 정도,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재정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전체 입장에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학교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여기

서 도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사학재정결함보조가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학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 운영비의 부족되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든 운영비를 다 공립학교 수준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는 공립하고 마찬가지로 그때그때의 필요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어느 학교라고 여기 그것은 해당 학기에 분기별로 그 학교의 총 소요액 중에서 부족분, 이걸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그때 그때 학교마다 주기 때문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적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은 지금 명퇴수당에 관한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립학교 40명, 사립학교 10명, 50명의 명퇴수당을 책정해 봤는데 내년에는 공립교사 30명, 사립교사 5명, 그 5명에 대한 명퇴수당보조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91페이지에 목적사업비 중에서 말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해 갖고서 위에는 53교에 공립인 것 같고,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에 특기·적성교육활동은 21교.....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것은 사립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러면 위에 53교, 밑에 21교 하면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빠지는 거 없이?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 간사 이기수

일률적으로?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 간사 이기수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일부만 지원된다면 어떤 학교는 빠져야 되고, 어떤 학교는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궁금해서.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 93페이지요. 해외연수경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치코대학하고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교사는 280만원씩 해 갖고 35명, 학생은 350명에 30명,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뒤에 보니까 항공기 150만원씩 보조하고 하니까 교사일 경우도 430만원 되겠고, 학생은 5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솔교사도 뭍니까, 학생을 인솔하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금년까지만 해도 교사 30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초등 10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그래서 30명의 학생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연수하도록, 그래서 학생인솔대표, 또 선생님들 전체 인솔대표, 또 인솔단장, 그래서 3명을 그렇게 해 났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사나 학생선발.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위임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학생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시험성적이라든지 엄밀하게 공평하게끔 이렇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규정이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아직 내년도 실시가 안돼서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그 심사규정을 만들려고 그러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런 것은 공정해야만 되지, 이게 500명씩 최소한도 430만원씩 거액을 받아갖고 가서 연수를 하는데 이게 선발 방법을 아주 공정하게 선발하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서 선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이렇게 됐을 경우는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만약에 연수했을 때, 우리가 280만원을 보조하고 본인이 또 얼마,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선물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풍물에 젖으니까 음식을 먹는다든지 개인 잡비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개인 잡비를 제외한 전액을.....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 뭘니까, 94페이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미국현지어학연수 업무추진해 갖고 이걸 뭘니까,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7명이라는 것은 뭘 업무추진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어학연수 사전 사후 협의회 비용으로 2만 5,000원, 가기 전에도 협의하고 현지에서도 하고 그 내용입니다.

저,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 한가지 잘못 드렸어요, 항공료는 본인 부담으로.

● **간사 이기수**

항공료는 본인 부담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학생에 관해서.....

● **간사 이기수**

학생에 대해서?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것을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 다음 중등교육과 97페이지에 학교 시험보는데 의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의사들 와서 신체검사 하는 수당인가, 어떻게 의사가 다 수당을 받으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신체검사 그래서 (청취불능) 있는가 없는가, 신체적 결함이 없는가, 허약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의사가 시험 당일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교육정보화과요. 142페이지에 학부모정
보화교육비 지원에서 214만원씩 이걸 지
원하는데요, 이걸 학부형들을 뭍니까, 컴
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애깁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것은 국고사업으로 저희들이 하
는 건데요, 39개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214만원씩 운영비를 주어서 학부형 교육
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155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향온향습기
유지보수, 이게 컴퓨터실에 있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9만원 해 갖고 12월 해서 한
개를,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있으려고
들면 여러군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향
온향습기.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이것은 전산실에 있는 향온향습기를 유
지 보수업체와 체결을 해서 지급하는 액
수가 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한달에 9만원만 주면 1년 내내
모든 컴퓨터에 향온향습을 전부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이거 전산실마다 이게
있어야 될텐데.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본청 분만 되겠습니

다.

● 간사 이기수

본청 분만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고장 안났을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거
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늘 점검을 해 줍니다.

● 간사 이기수

173페이지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말입
니다, 여기 산출근거도 2,000원에 1,925
명에 130일에 0.9라는 산출근거는 어떻습
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맞아 떨어지나 왜
0.9씩 곱해갖고서 0.1%를 낮추는 이유는
뭍니까? 0.9를 곱한 이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계장님이
급식학교 시범학교를 가가지고, 급식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얼떠요, 제가.

(웃음 소리)

● 간사 이기수

다음에.....

그리고 176페이지에 순회코치 말입니
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도
뭐 16만 5,000원 2명 해서 1년이라든지,
6만 6,000원 해서 12명에 1년이라든지 하
면 16만 5,000원이나 6만 6,000원이라는

얘기는 한달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그것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177페이지에 방학 중에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2억 3,248만원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근거도 없이 그렇게 딱 가격만 써 놔는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것은 결산아의 1인당 방학 중에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곱해 갖고 나온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리보조원들이 보면 보통 66만원 해서 178만원에 2명을 3년간 (청취 불능) 이렇게 가고 퇴직을 함으로써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0여년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개인 사정으로 2년 하거나 퇴직금도, 그 퇴직금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따진다면 연도를 곱하기 때문에 몇 사람 줄 거 한 사람

을 주는 돈하고 액수는 비슷한 산출적 근거는 나오지만 어떻게 해 갖고서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임을 시키는 건지,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매년 나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만 두고 자기 자신이 원해서 의원면직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1년을 근무하고 나갔으면 한달치, 2년을 근무하고 나갔으면.....

● 간사 이기수

글쎄 그것은 그렇게 산출근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작년 예산서도 보면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되더라구요. 2년 내지 3년 이렇게 조리보조원이라든지 그래 갖고 이것은 어떻게 연속적으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연속적으로 적립해 놓기 위해서요.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 분들은 처음에 계약할 때 2년 단위 계약이라든지 3년 단위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1년, 1년.....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연 단위입니다.

● 간사 이기수

연단위?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전체 우리가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한 사람이 오래 해 갖고서 10년 했으면 한 사람의 하나 근무에다가 10년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나, 그것은 다섯 명이 2년마다 해 갖고서 나오는 토탈 금액은 결국은 같아져요. 같아지는데, 이게 보면 자주 바뀔으로써 아무래도 밥 하는 거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결합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한번 계약을 한다면 계약 연도를 5년짜이러도 해 갖고서 속달된 솜씨로 해 갖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은데, 매년 예산서를 보면 보통 2년 해 갖고, 3년 해 갖고 이런 정도만 해 놔서 이거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무리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밥 하는 것이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그런데 매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바뀌는 게 아니고

내내 그 사람들이 계속 연속적으로다가 하고 있어요.

● 간사 이기수

예,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회의를 속개한 지 한 70분 됐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실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좀 쉬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2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이충원 위원님 순서인데 조일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조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표현방법이 나빠서 괜히 우리 집행청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도 책망같이

들으시고, 혹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언짢게 들으시는 경향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제 본지는 절대로 그것도 아닌 거고 나름대로 우리 충북교육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에 탐을 내서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예산을 맡여, 제가 이번 예산을 볼 때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도 제가 좀 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단가입찰 실적이 굉장이 미약하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는 게 잘 하는 건지 안하는 게 잘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현격하게 아주 실적이,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수의계약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도 교육청에서 집행한 예가 많더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어차피 좀 액수에 따라서 물론 잘 아시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학교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우리 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는데 뭐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아주 일부 더러

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나 지역인사에 의해서 어떤 사업의 선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우리 교권이, 교권이 말이 아닙니다. 조언이나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은 뭐 위원장이라든지 지역인사가, 아, 우리 이것 좀 해 주시오, 또 어떤 일선에서는 아마 직접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대신 그런 애로, 이런 것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스스로 우리 교직사회를 아주 형편없게 만드는, 그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바라는 게 정말 적정 예산을 참 야물게 써달라, 야물게 써달라. 그리고 요청하는 방법이나 집행하는 방법이 이 교육현장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과급에 대해서 이제 일선에서 좀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요전에 뭐 교원노조에서 몇 억을 가져왔다는데 아, 저같으면 그걸 아, 왜 가져왔느냐, 우리는 국가에 반... 그러나, 그러면 내 나라, 저는 그것 같으면 호송을 해서 보기 좋게 교육인적자원부로 반환했었으면 어떻겠느냐, 싫다는 걸 뭘 굳이 주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제도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교육을 1년 근무해 보고 평가하겠느냐, 사람의 능력

을 어느 잣대로 평가했는가, 이것은 쉬운 말로 눈도장 잘 찍고 이런 사람들 주는 건데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다, 그런 쪽의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교사들한테 성과급 제도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쪽으로 해서 이 성과급 문제도 국장님, 어떤 기회라도 우리 실정도 보고를 하고 우리 교육청의 여론이 있으면 해서 우리 인적 자원부 같은 데 기획 있으면 말입니다 한번쯤은 개선을 좀 해 달라는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세출에서 조금 의문나는 거고, 51페이지에 보니까 감사가 꽤 여러번 있어요, 감사가. 그런데 정기감사는 3,700만원 돼 있고, 횟수나 이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감사라는 게 교육위원회 감사하죠, 국정도 있죠, 이렇게 많은데 11개 기관, 11개 기관 총 9회 하고 후에 정기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내용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학교는 몇 년마다 한다든가, 또 문제가 있었을 때 한다든가 이걸로 봐서 11개 기관 3회, 부조리가 꼭 3회이고, 또 기강이 4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행정감사 규정에 보시면 시·도교육청 이하까지는 정기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기강감사하고 특별감사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도단위 교육청 같으면 감사원이나 도에서 보통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감사 가능한 횟수를 안받은 학교순, 오래된 순으로 해 가지고 일정하게 정해서 하는 감사를 보통 우리가 정기감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계통감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결상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몇 학급 샘플을, 그 책결상을 집행한 경우만 본다면, 아니면 과외교습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우리 지시사항하고 잘 안맞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래서 어떠한 사업의 많은 사업 중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볼 때 이제 부분감사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고, 기강감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 지기 쉬운 그 기간에 감사원으로부터,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특히 명절때나 아니면 연말 연시가 많이 됩니다만은 그때에 하는 감사를 기강감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근절 특별감사라든가 이건 부조리가 예상되는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세금누락에 대해서 하라든가, 아니면 뭐 첩판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무슨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거론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산출기초에서 보통 2회, 3회, 4회, 아니면 11기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기감사는 저희들이 연간 감사일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1개월에 한 4개 학교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면 한 50개 기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헛수를 정확히 대기는 조금 어렵고 산출기초를 좀 내 놔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감사야, 정기감사인데 더군다나, 정기감사는 어디어디 대상기관 금년에는 몇 회 하고, 이게 명료하게 돼 있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여쭙겠습니다.

좌우간 감사를 하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좀 잘 하는 쪽의 그런 것도 많이, 그래야지, 감사받으면, 아이구, 모두가 그런 쪽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맡겨 이것은 늘어나는 얘기인데 4번에 말이에요, 201-01에 죽 내려가서 4번인데 국내외최신교육 관련기사수신료예요, 이게 보면 매년 한 달에 300만원씩 하는데, 글썄 이게 형식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교육예산을, 이게 필요한 건가, 정말 우리가 수신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담당관 어디 가셨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지금 기자님들이 찾아서 지금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 되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아까 송진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 조일환 위원

하셨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연합뉴스, 그거 관계입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글썄 됐는데, 연합뉴스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봐줘야 되느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매달 교육정보를 그렇게 많이 가져오길래, 참 사용료도 어마어마 하지 않느냐, 어마어마, 기자실 운영의 3분의 1이 차지하도록 말입니다, 이거저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 조일환 위원

국고에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지금 국고에서 나오는데 국고가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자체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역청이 교육감님이 대화할 때 105만원씩 써요, 그렇죠? 지역청에. 지역청에서 물론 하시겠습니까만은 지방주재, 지방주재, 그래서 이것은 지역청의 예산으로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어린이날 이건데, 이 어린이날 행사가 각 교육청별로 있죠?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이것이 작년에

했고 금년에 이제 두 번째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지역교육청 실정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지역교육청에 실시를 하지 않고,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청 주최로 하다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청주 중심으로 되게 마련이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역청에도 하도록 예산을 배정을 했었으면 어떨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제가 이것을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벽지학교 어린이.....

● 조일환 위원

아, 벽지학교예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초청해서 하는 거.

● 조일환 위원

초청해서?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 조일환 위원

이 예산서를 봐서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 어린이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린이날에 벽지학교 아이들을 부른다?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 조일환 위원

청주가 아니고?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예.

● 조일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 알아가지고, 예산 설명이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다른 데도 보니까 어찌 집행청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요, 액수가, 그죠? 31만 5,000원, 그래요?

● 교육국장 조봉래

맞아요, 똑같아요.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은 업무에 추진할 게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국장들이 연

간 한 500만원입니다. 그 사용원이 보통 저희들이 관리국장.....

● 조일환 위원

직책, 직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도 아마 중앙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 조일환 위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직급이 서기관으로 같습니다,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만 차이.

● 조일환 위원

아, 서기관이기 때문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장학관도 같고, 직급이 같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조일환 위원

글쎄요, 저희들은 위원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똑같은 위원이라도 다른데 말여, 이거 좀 제가 볼 때 그렇더라구요. 아무래도 국장님이 챙기실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저기 86페이지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

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부전공 201- 관서운영비 중에서 201-01 부전공자격연수가 공립학교가 100명이고 사립학교가 20명이에요,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공립은 53개교가 되고 사립은 21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 **조일환 위원**

중학교 하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아니 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 **조일환 위원**

고등학교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래서 뭐 중학교까지 따지면 더 많고.

● **조일환 위원**

중등학교, 여기는 1만 3,000권 중학교 인데.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중등, 그래서 계산방법을 따지면은 사학이 공립보다 한 4분의 1정도 적기 때문에 전체 교원을 공립대 사립, 100명, 20명, 그렇게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사립은 정말 재단에 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은 채용을 하고, 지금 공립학교도 충주고등학교를 봤을 때에 불어나 독어선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은 어렵다, 학생들이 억지로 배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 부전공을 특히 중등학교에서 정말 평소에 자원을 많이 길러와야지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다, 가사같은 것도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교련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공립학교의 숫자가 좀 적다는 생각 안하세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지난해 기술·가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80명의 가정 기술 선생이 부전공자격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년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수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예를 들어서 상고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변환하는 저쪽의 매곡 고등학교라든지 충주상고,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전공자격연수를 신청

한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정말 과목이 평준화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부전공을 건설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까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기왕에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추경이라도 과장님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아까 원어민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민 강사수당이 3만원을 받고 한다는 거, 지금 아까도 예산상의 문제가 됐는데 이런 수당은, 그러니까 일반 보편은 이제 수당이 직급에 따라서 여러 차등이 있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뭐 5만원짜리도 있고 여럿인데, 원어민을 시간당 데려다 쓰고 “3만원에 너 해

봐라” 애로 많으시지 않아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기본급이 A급 원어민 교사는 월정급으로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또 B등급은 180만원, C등급은 16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편성은 원어민 교사 A급으로다가 14명이 상담교사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원어민 수당은 충북대학교라든지 교원대학교의 그 외국인 교사를 시간당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초빙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젠가는 현실화 해 가지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알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제대로 된 이것을 써야지 될 것 같아서.....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감사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편은 소프트, 맨 나중에 308-02 맨 마지막에 보편은 목적 사업비에 9,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거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정말 인색해서
는 안됩니다. 저도 사실은 참 복제한 거
쓰고 있습니다, 여러날, 꽤 많이 쓰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이 예산 가지고
과장님, 어떡세요? 뭐 솔직히 우리 털어
놓고 말씀하시면.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정품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면
은 뒤쪽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
다. 두가지로 나누는데 원칙상의 명칭을
전부 정품이라고 해야 하는데 교육부로부
터 앞에는 정품소프트웨어는 업무용이고
요, 뒤에 있는 민간개발 소프트웨어는 교
육용입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두가지가 이론으로서는 그렇게 나눠서
저희들 예산이 7억이 되는데 합치면은 앞
뒤가 7억 예산이 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9,800만 봐가지고 이
거는 (청취불능)거지 이거 가지고는 안되
겠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앞쪽은 편의상 업무용 소프트웨어이고
요, 뒤쪽에는 수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있겠네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7억이 되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일어서신 김에 제가 부
탁을 하나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 나라의
정보화 기구가 애프터서비스 문제 때문에
어디를 못믿겠다, 그런 시대는 갔다고 저
는 봅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네,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수백억, 이 기자
재 구입할 때 절대로 객관성있게 잘 하시
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걸 단가입찰을,
삼성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종을, 물
론 뭐 조달청 그러니다만은 조달청 물건
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쉽
게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체육과 김 과
장님,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수거식 개선 예산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
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시설과에.

● 조일환 위원

시설과에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식수관리 예산인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꼭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식수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는 별반 별도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저 학교운영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학교운영경비에 포함이 됐죠?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정말 예산 가지고 우리 과원들이 정말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없어, 여기 보니까. 지역청은 제가 아직 안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추경이라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수거식을 안버리는 이유가 운동장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학생들도 실제 운동장에서 체육하다가 언제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은 운동장의 것도 이것을 개선해 주든가 아니면 운동장에도 있어야 된다고

박요. 충주여고같은 데 가 보면 운동장 저쪽에서 하다가 애들이 화장실 간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편의시설로 과장님 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항상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게 그 순회코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물론 그 수요 다 못합니다, 수요 다. 그리고 순회코치의 평균 인건비 보니까 한 100여 만원 가깝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그래가지고 우수지도자 확보가 됩니까? 그래 뭘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학부모들이 이거를 참 안됐다고 해서 뭘 견어줘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체육성과물, 선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교육 예산이 1조가 되고 얼마나 늘었는데 이런 쪽은 죄송하지만 덜 된 것 같어, 저 정보 화과 과장님 섭섭하겠지만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쪽으로도 문제

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관리국장님 잘 좀 알아들으시고.....

(웃음 소리)

● 조일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 이 소년체전의 단복하고 전국체전의 단복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가격이 틀립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여기도 5만원이든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 그게 이번에 인원수가 적게 책정 돼서 그렇지 가는 인원이 배 이상이 돼가지고 실제로 하면 반으로 줄죠, 그게.

● 조일환 위원

아니 입는 복은 5만원씩 해서 인원수 곱하기 해 놨던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올해는 조금 올렸어요.

● 조일환 위원

올렸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글쎄 그게 좀 그렇더라구요.

우리 위원님들 선생님들 봐도 좀 그러니까 잘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작년에 임원이 100명이 서었는데 실제로는 임원이 300명이 가가지고 다들 해입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 조일환 위원

어려우시지요, 뭐.

그리고 심판수당이 2만원이 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충북소년체전할 때 각 경기 지역별로다가 나눠준 액수인데 최소한도로 점심값하고 여관비하고 한 5만원 줘야 하는데, 이게 그 전에 책정된 예산인데 더 이상은 올려주지 못했는데 이것도 올려야 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과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신세진 거 일일이 뭘로 갚으세요. 그래서 저는 2만원자리, 지금 축구협회 심판 가보면은 15만원 받습니다, 나이스 맨이 10만원, 또 프로같은 것은 30만원 줍니다. 뭐 그런거 하고 다릅니까만은 이 분들이 한게임만 오면 하루종일 수고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하루종일 2만원이 뭐냐,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자존심이 있지 2만원 가지고 당신 축구심판 다섯 게임을 바라, 세 게임을 바라, 그래 어떻게 90분을 세 번 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이것은 현실화 돼야지, 이게 뭐 2만원이예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까막눈이고 그러니까, 세출의 예비비가 적정히 됐다, 작년에도 행정질의 했는데 이게 아마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제가 질의보다도 조금 의문나는 거 조금씩 물어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 분야입니다.

교원인사가 초등교육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58쪽입니다.

아시다시피 KBS보도 보니까요 내년도 내 초등교원 부족이 약 400명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초등임용고시 선발기준 발표를 보니까 지

방출신 지원자에게 대단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다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충북출신의 상당수가 명년에 서울로 빠져갈 게 아니냐, 과장님, 그러시죠?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예.

● 이충원 위원

이런 이유로 제가 보니까 초등교원이 내년에 한 6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보느냐 하면은 저는 예산서에 5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보니까 예산서인데 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해 놓고 모집인원 해 놓고 괄호 해 놓고 미정,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개략적이라도 여기서 표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조금 제가 의문이 되고.....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답변드릴까요, 지금?

● 이충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 작성할 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한 600명 정도.....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알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현재 교대생들이 임용고시 거부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장기화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칫 하면 내년에 임용고시를 여러번 치르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가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 금년 교원공채 관련 예산액 보다도 내년 예산을 줄여놨어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공고료도 여러번 나갈 것 같은데 줄여놓으셨고, 반으로 줄였네요 공고료도.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서에 전체가 내년이 한 900 수십억원 줄여놨어요. 명년도에 꽤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여놨나.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이것은 당초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추경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걱정 판정을 해서 그래도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 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뭐 부족교원 확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걸 제가 여쭙봤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2페이지 보면 특기·적성 교육활동입

니다.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소질, 적성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취미. 이것이 제대로 돼야 사교육비가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강사비 지원율이 내년에 대폭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얼마나 줄었느냐, 내년에 1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얼마이고 하니 22억 정도,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줄이셨나, 이거 한 2억 5,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금년부터 이제 국고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받을 주다가 이제 내년서부터 없어지고 후년부터는 지역교육청의 특기·적성 교육을 완전히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특기·적성 교육이 국고지원이 적은 것만큼 저희가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저는 국·과장님,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라고 그러면 공교육에서 흡수를 못해서 그렇게

दन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옳습니다.

● **이충원 위원**

이제 강사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강사수당 적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니 강사수당이 주는 게 아니라 과목종류를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과목종류를 토달해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국고가 줄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큰 돈도 아닌데 여기다가 자부담까지 갖다 하면은 사교육비가 든다고 야단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네요 자부담 한다고 그러지만요 문제가 뭐고 하면은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자부담 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은 도시중심이지. 이것은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거दन요,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데서 뭘 좀 해서 보태줄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책 없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연구 검토해서 지금 안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강사비 지원금은 아마 다른 면에서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알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사교육비 때문에 분명히 며칠 있다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우리 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학 지금 뭐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반 과장님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중등교육과를 봐 주세요.

중등교육과 어디를 보냐면요 78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뭐고 하면은 교원단체방 운영입니다.

사업세부내역표를 보면요 맨 마지막에 교원단체 운영에 관해서 교재발간 및 여론수렴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 **이충원 위원**

금년, 내년에 각각 얼마이고 하면은 1,268만원 있어요,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우선 금년은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두달밖에 안남았으니까, 여기서 무슨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금년도에, 이제 다 갔으니까, 금년도에 혹시 여론수렴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자료(별첨 2)**

(끝에 실음)

● **이충원 위원**

그러나 또 혹은 여론수렴은 안하고 전부 교재발간이나 다른 용도로 혹시 그냥 전형해서 쓰신 건지.....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노동관계법 연수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발간하고, 나머지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그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여론수렴 했어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한달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중등교육과 반 과장님 끝났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9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4페이지 하고 95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95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거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인터넷 보십시오. 별 욕이 다 올라옵니다. 이게 보니까. 그리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고 하면요, 돈이 없어서 안주는 게 아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침이니 뭐뭐 이렇게 해서 못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가 있는데 지난주 본청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보조 일당은 제가 우리 충북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우리보다 더 적게 주는 시·도가 있는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5년만에,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5년만에 겨우 1,0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선생님은 이거 약올리는 거다, 이거. 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침이 그래서 못 올리는 건지 예산이 전적으로 없어서 못 올리는 건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학실업교육과에서 국장님, 얼마나 요구를 하셨나, 요구하신 게 있으면, 과학실업교육과에서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그것이 저희 도내는 과학실험보조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산보조원도 있고 또 평생체육과에 조리, 그 일용직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 금액이 전부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에서도 전체로 각 직종에 그걸 통일을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하시고 하면은 과학실업교육과에서 여기에다 총괄했을 때에 얼마를 더 요구했나.....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저희도 각 시·도별로 그 지급되는 것을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 이충원 위원

제일 적어요. 여기에 보태서 급식보조도 같습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거 똑같습니다, 전산보조원까지 예산 파트에서 그것을 맞추느라고 그게.....

● 이충원 위원

인터넷 보시면 아시지만은요 그 아주머니들이 올린 것이 욕 지국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가능하면 큰 수가 아니라면 좀, 제가 달라면 드릴테니까 그 욕한 것을. 너무 심할 정도로 욕을 하는데 여자들한테 욕 먹으면 오래 못살아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실업교육과장님 죄 없고요, 저희들 과에서 지침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답변올린 대로 학교 자체로 쓰는 조리보조원, 학부형들이 돈 내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주면은 일면은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일면은 또 학부형님들의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물론 충북의 교육재정도 열악합니다, 타 도에 비해서 제일 조그만 도이니깐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총체적으로 이게 얼마를 가지면 조금 타 도하고 균등하게 하겠어요? 대체적으로 뭉통거려 가지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타 도하고 차이라는 것이 불과 일당 1,2천원, 한 5,6만원 차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도 아니고.....

● 이충원 위원

제가 보기에요는 타 도의 중간쯤이라도 갖다 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교육행정 사이트같은 인터넷에 충북 과학보조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분야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충북이

유명세 타는 게 바로 이거다. 거기도 그렇게밖에 안주느냐, 이게 제가 나중에 사이트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테니까, 아주 심하게 나와요. 이번에는 좀 오르겠지 했는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여.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올리긴 올렸습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1,000원 올렸습니다, 금년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이것이 1,2천원 차이기 때문에 1,000원이라는 돈이.....

● 이충원 위원

글쎄, 큰 돈도 아닌데.

그 다음에 104페이지를 봐 주시는데, 이것은 어디 소관이고 하면 정보화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행정업무전산화에 쓴 예산내역을 보니까 많아요. 행정업무전산화에만 사용한 예산이 7억입니다.

● 교육정보화과 박상환

예

● 이충원 위원

몇 달 전 신문보도를 보니까요 전자결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본청 직원도 한두 사람에게 제가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기들 과에서는 한 번도 이거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순전히 시·도교육

청 평가항목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만 들어 놓은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귀 열어 놓으셔야 합니다.

문서유통주전산기 교체만 9,000만원 이상이 들었네요, 그렇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1억 가까운 예산이 들었다고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나 전자결재가 시행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건지.

과장님, 이것은 실제 얘기니까 알아보세요, 자기네 과는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이럽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많이 돈 들인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행정체계상 조금 빠르다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서툴러서 그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도청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여보, 그거 흥

보용여”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다른 관청에 전부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이거 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지 않나 이런데, 많이 하겠다 라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듣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 문서유통 말씀하셨는데요, 주전산기를 바꾸는 것은 행망용으로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청, 학교단위까지 전부 공문을 보내는 것을 문서유통이라고 하고요, 전자결재는 저희들 본청에서 과 단위까지 합니다. 주요업무는 대면결재를 하지만 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요, 예산을 들인 것은 전자결재를 위한 것은 일부이고요, 도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까지의 문서유통 단계에서 쓰이는 기계를 산 것이 9,000만원, 그 예산입니다.

● **이충원 위원**

주전산기 교체하는데?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전체고, 그 주전산기 내에서 전자결재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전자결재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봐도 아직은 좀 이해가 덜 가고 이런 면도 있고, 또 지적해 주신 평가에서 1점이라는 점수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로나, 1점을 주느냐 이런데, 저희들도 그 점수를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 현재는 과 단위로 일지라든가, 또 소모품 사용이라든가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여하간 저는 어떻게 생긴건지 구경도 못하고 또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용하게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4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에 보시면 학생증식지원인데 지난번에 행정질문이나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많았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는 지원대상이 한 30%가 늘어나서, 그렇죠? 한 30% 늘어났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충원 위원**

145쪽에 보시면 지원인원이 금년에 9,557명, 내년에 9,600명, 금년 수준의 인원을 맞췄는데, 다음 장 146쪽에 보시

면요, 소요액의 40%는 시·군에 지원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충원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총 소요액의 60%만 계상한 것인지,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국고예산하고 본예산에 책정이 되고, 약 16억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도, 시·군에서 액수를 중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16억을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릴 계획인데, 2억 6,000은 이미 받았고요, 나머지 14억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맞춰가지고 전원 다 이 예산대로 아무 지장없이 애들한테 중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충원 위원

실제로 중식지원한다는 게 제가 보면 음성군이면 음성군의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교육청만 부담할 게 아니라, 군수 너도 내라,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하간 그 액수를 받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만약 이게 차질이 나면요 저는 대단히 어렵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요새 아이들이 시골에 가

보면 한 학급에 10% 정도는 점심값이 없어서 대준다고 그러니까. 이북은 이렇게 대주면서 애들부터 대주고 남아야 대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어렵고, 또 보면은 큰 돈은 아니지만은 학부형회에서 이것을 견치느라고 이런저런 잡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 라고 하면 다 대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바깥에 “아,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점심 때문에 어렵다.” 라고 하는 말은 안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나올 적마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서로 다 해야 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1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국소년체전 예산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의, 내가 잘못봤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것같이 나왔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들쭉날쭉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년체전 때 평생교육체육과장 회의에서 작년 지원하던 예산은 꼭 짚야 한다, 4억,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2억

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3억 1,000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국가예산을.

● 이충원 위원

작년에 7억인데 올해는 3억 8,000이거든요,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충원 위원

맞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이것이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와야 하는데 이거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이 안돼서 전체 예산이 줄은 겁니다.

● 이충원 위원

참 걱정이 되는데요, 과장님. 훈련에 우선 차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이것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운영수당, 운영수당에 거기 특별강사하고, 기타강사, 일반강사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특별강사 10만원 주는 사람은 누구고, 일반강사하고 기타강사는.....

69쪽입니다, 초등교육과.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특별강사라는 것은 외태강사 중에서 교수급 강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강사들은 자체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자체.....

● 위원장 이상일

기타강사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거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강사는 장·차관, 총·학장이고, 일반강사는 교수, 4급 상당에 준하는 자, 기타강사는 기타 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스승의 날 친목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만원씩 10개 학교, 그리고 20만원씩 5개 학교, 이러면은 초·중에는 15개 학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뭐 회장 학교만 해 주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것은 스승의 날 사실 전 학교를 다니면서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학교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교육감님 대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에 15개 주면은 내년도는 그 학교를 피해서 15개 학교를 가고,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저희 교육위원들한테는 삭감의 권한은 있고 증액의 권한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건데, 사실은 요 근래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라도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교육감님이 일선 스승의 날, 1년에 한 번인데 좀 학교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격려해 주셨으면 해서 다음에라도, 아직 내년 스승의 날이 내년 5월 달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좀 모든 학교가 다 책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조금 자신은 안

서는데 한가지 상의할 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는데, 물론 초등하고 중등하고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교육학 같은 것은 같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중초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중등자격증 가진 사람 초등에 있고, 또 초등에 있다가 중등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거 같으면 통합해서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를 바꾸더라도 좀 지도할 때도 순회지도가 되지 않겠나, 중등은 다 중등, 초등은 초등,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중등교사하고 초등교사하고는 그 교육과정 자체가 틀려서 동일 자격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분리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틀려서요.

● 위원장 이상일

검토를 앞으로 한번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98쪽에 있는 중등교육과에 그 학교교육비에 한국교육개발원운영비부담금 6,974

만원이 있습니다.

98쪽에 학교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운영 부담금, 그거 부담근거는 뭔지.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그 교재개발, 이런 것을 교육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그 개발비에 대한 일정액을 저희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다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 다음에 103쪽, 103쪽에 그 교원단체 활동 운영에 “마”에 한국교원노동조합 임차수수료,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뭔지.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저희가 1억을 대고 사무실을 얻어주고, 그리고 연간 그 보증보험금이 9%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그 다음에 104쪽에 그 한국교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가 이게 1억이 올라와 있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것은 지금 교원노조, 한교조, 한교조가 새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교조가 발족될 때 똑같이 교원단체의 사무실을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임대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제일 먼저 전교조 1억 주고, 그 다음에 교총도 1억 주고, 또 마지막에 한교조.....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럼 한교조는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이상일**

현재 2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한 20일쯤에 발족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300명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됐다고 그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교총은 회원수가 많은 데도 1억이고, 또 그거보다 조금 적기는 하지만 숫자가 더 많은 전교조도 1억이고, 여기 한 200명 하는 데도 1억이고, 이게 조금.....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러니까 사무실 기본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돼서 똑같이 차등을 주지 말고 같은 평수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중등교육과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600만원씩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무선어학실 설치 900만원씩 7개교, 그 다음에 어학실, 디지털 자료실이 초등 20개, 중학교 13, 고등학교 7개인데 그거 어느 학교인지 학교를.....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학교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 위원장 이상일

그럼 이거 다 내용은 없는 거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리고 이것은 시설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학생 탈의실 개조하는 것도 아직 학교는 몇 개 학교만 하겠다는 거지 선정된 것은 아니죠, 그럼.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여학생 탈의실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린 그 시설현황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학교가 나와 있어요? 어느어느 학교 한 학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못봐 가지고, 그럼 그것은 제가 직접 보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교육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안 및 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기획관리국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제134회-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 부 록

- ▶ 서면답변자료(별첨 3)

※ 별 책 부 록

-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본회의(별책 1)
-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1/2-본회의(별책 2)
-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2/2-본회의(별책 3)
-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본회의(별책 4)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27일 (토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오늘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세출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 간사 이기수

준비가 안됐는데요.

● 위원장 이상일

준비가 안됐어요?

● 간사 이기수

예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다음에 이충원 위원님 먼저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업중에서 안보현장견학에 관

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거 있죠, 지금 현재나 통일이 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하지 않다가 안보현장견학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니까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남북대화의 화해분위기 조성이나 교류확대 같은 차원에서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한다고 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가.

노파심에서 제가 부탁 하는 것인데 만의 하나라도 혹시 외부에서 조금 뼈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부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를 들어서 과거 한때 극기훈련이라는 게 유행병처럼 번졌었는데, 저희도 했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야유회나 바람취려 가는 위로행사 비슷하게 발전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걱정이 돼서 이것을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보시면 171페이지 하단에 안보현장견학 숙박, 간식, 매식비, 이래서 48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이상일

지금 이충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 171쪽입니다.

● 총무과장 신준우

말씀을 드릴까요?

● 이충원 위원

예, 480만원.

● 총무과장 신준우

총무과장 신준우입니다.

안보현장견학은 금년도에 처음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 동안 각급 기관에서 비상대비업무, 보안업무, 또 이런 유공자에 대하여 안보현장을 견학시킴으로써 그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기간은 1박 2일 정도로 했고, 상하반기로 2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현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대체로 판문점 및 땅굴이 포함된 휴전선 인근을 접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이용을 고려해서 1회 45명씩 2회 90명을 계획하고 있고, 세부 예산 내역은 숙박비가 120만원, 이게 90명 분입니다, 매식비가 270만원, 간식비가 90만원 등 총 480만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견학 차량은 본청 버스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이것은 행정직원 말이죠?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이충원 위원

90명, 본청?

● 총무과장 신춘우

예, 본청하고 시·군교육청에 업무를 담당하는 유공자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예산내역을 보니까 본청 아스콘 포장에 5,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신춘우

예

● 이충원 위원

아직 집행을 안한 건지, 아니면 벌써 다른 용도로 쓰인 건지, 본청 내 하셨다고 하면 어디고, 제가 보니까 포장한 데가 한군데도 없는데.

● 총무과장 신춘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전면 바닥에 대한 아스콘 포장공사의 필요성과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셔서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제1회 추경에 1억 1,2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도의회 교사위에서 6,000만원이 삭감된 5,200만 세워주셨어

요. 그러나 이 5,200만원은 전면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성할 수가 없고, 또 사업성질상 부분공사도 어려워서 우선 시급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용벽이 있고 그것이 자꾸 침하가 돼서 점차 건물이 내려앉습니다. 그 공사비로다가 한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돈은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해서 진입로부터 본관 앞부분, 뒷부분, 마당을 포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조금 여쭙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또 잘은 못봤지만은 그렇게 많이 한 데는 없거든요, 여기 조금 뜯고 하는 정도지.

● 총무과장 신춘우

예, 안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글쎄, 그런데 올해 이게 새로 또 올라왔으니까.....

● 총무과장 신춘우

작년에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저도 뭐 걱정입니다.

작년하고 제작년하고 제가 반대했던 사 람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끄러 울 때 본청 껍데기를 전부 싸 놓으면 또 무슨 말이 붙을지 저도 걱정스러워서 천 천히 합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 실은 한꺼번에 하면 참 깨끗하고 참 좋습 니다. 작년에 보니까 제가 지켜왔거든요, 즉. 그런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 금줄 매 놓고 서...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왔기에 작년 것은 어떻하고 금년에 이게 또 올라왔나,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총무과 것을 제가 다 여쭙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기획관리과 쪽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과도 제가 보니까 별로, 제 눈 으로는 별로 띄는 게 없고, 시설과 쪽 은.....

위원장님, 직속기관은 내일이죠?

● 위원장 이상일

예

● 이충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준비되었어요?

● 간사 이기수

예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복 지후생 쪽에는 감했고, 교육행정 쪽에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지후생 쪽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쪽 은 전년 예산보다도 줄고 오히려 행정비 쪽으로 증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 해야 되나요?

총괄에, 세출예산 총괄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연금부담보존금이 5%에서 1.94%로 줄었 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이 6.04% 에서 3.28%로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 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이 결국은 연금 쪽이나 또는 이런 쪽에 부담을 적게 줌으 로써 결국은 복지 쪽에 더욱 소홀한 애기 가 되겠고, 그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내야 되는 부담금만 줄었을 뿐이고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전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 간사 이기수

국가로서 부담을 한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간사 이기수

덜 부담하는 얘기 아냐,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줄고.....

● 간사 이기수

아니 개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거 합쳐서 연금이나 이런 쪽에 후생이 될텐데, 이제 여기 예산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인별로는 결국은 복지후생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 총무과장 신춘우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이 복지후생비 쪽에서는 주로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복지후생은 줄고 교육행정비는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행정은 늘은 이유가 19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교육위원회 교

육위원님들 선거 때문에 거기서 1억 한 8,000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청사시설에서 말입니다, 아까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청사를 갖다가 17억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시설비. 그래서 복지후생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우리 교육청 운영비는 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지금 전체적인 총괄로 봤을 때는 복지후생 쪽은 줄은 얘기가 됐죠, 그렇죠?

● 총무과장 신춘우

예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어딘가 공무원을 위한 복지후생이 작년보다는 덜 됐다고 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복지후생 쪽을 일부 줄인 것인지, 그리고 이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후생 예산이 약 127억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 줄은 걸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후생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인당 어떠한 후생이 적게 들어가

는 것 보다는 예산의 규모를 127억을 저희들이 적게 편성한 걸로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금부담보존금을 작년도에 우리가 전체 예산의, 인건비 예산의 5%를 세웠던 것을 2002년도에 1.948%로 하는 바람에 약 한 3% 정도를 적게 세워있고, 또 퇴직수당부담금도 2001년도에 6%, 봉급의 6%를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3.289%로 해서 약 한 2% 정도로 낮추어서 편성을 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나 일반 건강보험부담금은 이제 전년도하고 같은 수치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 편성을 왜 그러면 작년도 2001년도에는 연금부담금과 보존금을 5%로 했고, 또 올해는 1.948%로 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년 동안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연금부담보존금을 5%로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걸로 결과가 나타나서 올해는 현실화 시키느라고 1.948%로 내렸고, 또 퇴직수당부담금도 당초에 6%로 편성돼 있던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실제로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3.289%로 내리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워낙에 예산덩어리가 크다보니까 거기서 한 127억 정도가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

후생복지가 개개인한테 지급되거나 개개인을 위해서 쓰는 그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마냥 줄어들지 않고 예산규모만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 이기수

그러면 작년에 이제 2. 몇 % 정도를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너무 높게 편성됐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 정도 규모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갖고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맞습니다.

● 감사 이기수

그 적성선 한 것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 기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감사 이기수

개인적인 복지후생비에서 덜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감사 이기수

그래서 작년 결산에서 이게 얼마 남았습니까, 이쪽 부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에.

작년도에 5% 편성했다든지 그 두가지 항목에서 말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쪽, 공단 측에서 자기들이 연간 그것을 각 기관에서 다 들어오니까 그 돈을 보존금을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것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내려보내 준 것이고.....

● 간사 이기수

과장님, 이따가 끝나시고서 작년 이제 5% 편성했고, 또 6% 편성했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고 보니까, 금년 예산 집행을 하고 보니까 얼마 정도 차액이 남아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내서 한번 쭉 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기준을 3%로 잡아라, 5%로 잡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의 몇 %를 이 부담금으로 잡아라 라고 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옵니다, 공문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분기별로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연말이 지나가고 나면은 정산이 됩니다. 총 당신네들이 인건비가 쓴 것이 총 얼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해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이나 아니면은 총무처, 행자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아직 안됐고.....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그럼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했을 때 저쪽에서 얼마 편성하라고 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나옵니다.

● 간사 이기수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문으로 보수의 몇 %를 잡아서 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은 몇 %, 또 퇴직부담금은 몇 %,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제대로 모르고 과다하게 프로테이지를 해라, 이렇게 돼 갖고서 우리가 예산을 과잉 편성하게끔 해서 우리가 사장시키는 그 결과밖에 안되죠, 그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과로는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왜 그런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은 저희가 추측컨대는 당초에 공무원들 보수가 연초에 보수에 편성이 100% 다 되지 않고 일정한 비율을 예비비에 물어놨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에 물어 놓은 것을 분기가 지나면서 추경댄가 그때 저희들이 보수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보수인상률이 명쾌하게 그때 예산편성 전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연금부담금이나 퇴직부담금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대 책정했던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예, 알았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직 명예퇴직에 20명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마냥 명예희망자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까, 그냥 추측해 가지고 20명으로 해 갖고서 편성된 겁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이번 산출한 것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작년도하고요. 작년도에도 20명을 했고 내년에도 20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신청을 받아

서,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받아서, 두 번 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명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20명을 세운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작년 예산에 20명으로 판단해 갖고서 세운 예산이 적정 수준까지 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 기능직 하고 일반직이 소수가 들어왔습니다만, 특히 일반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원수급상 상반기에 못하고서 하반기에 일체 주기로 하고서 말입니다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바로 11월달에 공문을 시행해서 시달하면은 해당 명퇴를 하고 싶은 인원이 다수 신청할 걸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심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이제 좀 정확하게 하려면 대개 희망을 받아갖고 편성한다면 공히 그 가까운 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미리 그러니까 내년도 명예희망자를 인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거기서 오차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략 금년 20명이니까 내년 20명, 이렇게 조금 막연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예산이 앞으로 집

행할 거와 거의 근접하게끔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신춘우**

다음부터는 연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7,8월달에 금년 하반기 초에 시행해서 예비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200페이지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그제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죽었을 경우에 이제 10명, 이렇게 하고, 또 배우자의 경우는 345명까지 해서 30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이런 공식으로 돼 있어 갖고서 되는 겁니까?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

● **총무과장 신춘우**

과거에는 재해보상금이 크게 공무상요양비하고 사망조의금으로 나눠졌습니다. 금년도서부터 그 공무상요양비는 앞에 인건비 속에 부담금이 들어가고, 사망조의금만 연금지급법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사망조의금이 관계는 연금법하고 시행령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에는 월 보수액의 3배,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 한달치 만이죠, 그것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것도 명수가 어떻게 본인은 10명이고, 배우자, 직계존속일 경우 이제 부모님까지 들어가니까 범위가 345명이라고 많이.....

● **총무과장 신춘우**

부모님하고 자녀들 있고 말이죠, 하여튼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급한 실적을 감안해서 인원을 편성한 겁니다.

● **간사 이기수**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7페이지에 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이제 한국형 방독면을 7만원씩 해 갖고서 20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청에서 뭐 훈련할 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춘우**

지금 여러 가지 세계가 화생방전같은 위험이 닥쳐서 그전부터 이 방독면을 갖다가 1인당 하나씩 전부 확보하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확보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확보한 것은 지금 못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집행청에서 쓰는.....

● 총무과장 신준우

예, 저희가 쓰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들이 방독면을 본래 기준으로 하면은 공무원 1인당 하나씩을 반드시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것은 형도 틀리고, 또 부패도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208페이지에 고급간부과정 지방4급 교육훈련경비인데 3만 5,000원씩 1명 43주 5일이고, 중간에 또 밑에 다 있고 뭐 또 제일 밑에도 있는 애인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상에서. 전부 다 다른 겁니까, 그것은?

● 총무과장 신준우

일반직 공무원 중 고급간부과정 장기교육관계는요,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우리 조계환 서기관이 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

지 항목이 있는데 먼저 훈련비가 국내 여비도 있고, 해외시찰도 있습니다, 해외교육여비도 있고, 또 교육훈련기간에 납부하는 그런 부담금도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분 한 분에 대해서 부담금, 항목별로 즉 편성한 거죠?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간사 이기수

예, 한 분에 대해서?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간사 이기수

그래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세군데가 돼 있어서.

● 총무과장 신준우

과목을 맞추다보니까요 여기저기 상존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 알겠어요.

210페이지에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세워놓고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얘기죠? 10회로 해 갖고서 255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210페이지에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 이렇게 된 거요. 고문변호사 자문비는 매달 지불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소송업무추진비 50만원에서 2회 했다는지, 그것은 일단 세워놓고서 그런 소송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집행하는 거고, 없으면 집행 안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 총무과장 신준우

그렇죠. 이제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하는데요, 금년같은 예를 들으니까요 하도 이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지난 2회 추경 때도 우리가 추가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돈이 다 나가고 거의 다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 간사 이기수

212페이지에 천장텍스 및 전등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뭘니까, 조도가 지금 미달된 데가 얼마나 있고, 전체적으로 총무과 뿐만 아니고 시설과에서 금년에 조도개선비용으로서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조도개선문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1,269.5실에 40억 279만 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전체 조도개선이 100% 완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도개선.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이게 이제 86%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 본예산의 2002년도까지 하면 94%까지.....

● 간사 이기수

몇 년까지요?

● 시설과장 오형균

2002년 본예산에 포함된 것이 94%까지 지금 올라갑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내년에 조도개선 한다면 6% 미만이라는 얘기죠?

● 시설과장 오형균

그렇죠, 남는 것이 6%죠.

● 간사 이기수

그것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그것은 2003년도에,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죠.

● 간사 이기수

그것은 완성 연도를 언제로 보는 겁니까, 그것을?

●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환특 나오는 것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도는 일체 끝내려고 합니다.

● 간사 이기수

아니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지 조도가, 물론 320룩스, 지금 과장님, 320룩스죠?

● 시설과장 오형균

300룩스입니다.

● 간사 이기수

300룩스, 300룩스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제일 미달인 데가 보통 몇 룩스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시설과장 오형균

제가 저번에 150룩스를 올려놨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300룩스로 됐기 때문에 다시 보강해 나가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아니, 글썽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6%라는 얘기, 예산 소요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모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조도문제를 사실 100%나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저학년들은 낮에만 쓰거든요, 밤에 밝혀지는 조도란 말이예요, 조도가요. 그래서 저학년도 오전만 수업하고 가는데, 그런 교실까지 전부 이게 300룩스 이상 해야 되느냐, 이제 구름 좀 끼고 하며 낮에 좀 키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은 낭비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전체를 다 해 주면 좋긴 좋은데 그게 꼭 100%를 해

야 되느냐.....

● 간사 이기수

아니 제 경험으로 보면 학교에서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보면 교실이 어둡습니다. 그래갖고서 이 조도문제는 학생들 시력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학생 조도문제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거예요, 그게. 보면 애들 요새 TV나 이런 걸 봐 가지고서 시력이 나쁜데다 지금 안경 쓴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보다도 교실의 조도문제는 기준조도에 미달되게는 하지 말고 충족시켜줘야만 되지, 애들 건강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한해 얼만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금년이든지 명년이든지 만일 이게 94%까지 상황이 돼 있다면은 6%에 대한 예산, 소요예산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거 뭐 다른 데 덜 쓰고서 하루에 완성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그러면 일찍되는 데하고 늦게 되는 데하고 차이가.....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한 1,100실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그래서 34억 정도 지금 더 추가되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1,100실?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전체 우리 교실수가 몇 개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

● 시설과장 오형균

저희들 현재 1만 6,280실입니다.

● 간사 이기수

1만 6천이면 이게 1,100이면 94% 완성했다고 볼 수 없죠, 이렇게 된다.

1만 6천에서 어째 1,100실이 안됐다면 어떻게 이게 94%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 될텐데. 지금 1만 6천에서 1,100이면 이게 몇 %입니까, 이게.

● 시설과장 오형균

아니 총 숫자가 1만 6,280실이고, 지금 완료가 1만 5,150실 정도 됩니다, 지금.

● 간사 이기수

그렇게 되면 이게 94%가 안돼요. 1,100이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들어가면은 94%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는 80 몇 % 되고.....

● 간사 이기수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실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1,269실입니다.

● 간사 이기수

1,269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연간 교육환경개선비 투자액이 국고가 주로 100% 투자되는데, 약 한 305억 정도 연간 투자되거든요. 그런데 그 305억 가지고 노후교실이라든가 교원편의실, 난방실, 화장실, 조도개선, 여학생 탈의실, 그 다음에 책걸상, 사물함 정도를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고, 그 교육환경개선비가 딱 쓰고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고 다시 교육환경개선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중기계획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세워 있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아마 95%, 96% 정도는 저희들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개축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교실수 중에서도 조금 학생들이 수업을 직접 칠판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쉽게 말하면 조도의 시급성이 없는 별도의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필요성이 조금 지연되는 거, 재투자의 필요성이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제외놓고는 거의 학생들이 수업하는 보통교실은 하도록, 아마 2004년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 조도문제는 오래전서부터 애

기해 오는 거니까, 또 학생들 시력에 관계되는 문제고 해서, 물론 내년에 철거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학생들이 자꾸 줄어가는 교실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실에 대해서는 조도는 100% 기준조도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산편성에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이게 시설과 소속이 되겠지만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이 어느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하는 데는 지금 그것도 국가가 주는 국고로 약 105실 정도를 지금 개선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105실. 그리고 화장실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제 특히 조일환 위원님께서도 운동장에 있는 그 화장실의 개선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그 사용하는 그 화장실은 과거와 같이 전부 본관이 라든가 교실에 별관에 본 공사에 포함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지어놓은 것 중에서 일부가 지금 수거식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기는 한 한달 전 정도에 11월 15일까지 전면 다 없애버리고 불요불급한 것은 그것을 어제 조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세식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 그랬는데 실상 운동장에 있는 그것이 수세식으로 바꾸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물 끌어다 써서 하수구 빼고 오물처리장까지 하수시설 빼기가 상당히 투자액이 많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철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시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장선생님들 주민들 편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과연 그러면 시골학교만 주민편의나, 도시학교는 다 없는데도 관계없다, 그런데 도시학교일수록 재래식이 있으면 주민들 성화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바로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해 놓고는 그것을 철거 내지는 수세식으로 하고 대신에 그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비레라든가, 아니면은 오래된 본관에 돼 있는

화장실 시설이 낡은 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다 개수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수거식이 남아 있는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지금 현재 재래식이 남아 있는 것이 6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재래식이 60개 화장실?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런데 이게 11월 중으로 거의 다 철거가 되고, 지금 한 9동 정도가 남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지금 58개를 철거를 하고서.....

● 시설과장 오형균

그것도 전부 철거 지시를 내렸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2개 정도만 남는다, 이 두 개는 왜 남겨요?

● 시설과장 오형균

아홉 개 정도, 아홉 개.

● 간사 이기수

아홉 개?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아홉 개는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

의 분교에, 폐교대상 학교에 하나 남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다 철거한다는 얘기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철거합니다, 9개 정도 빼고.

● 간사 이기수

만약 그러면 51개를 철거하는데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용변 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 시설과장 오형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들이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다 잠가놓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열어주는 걸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일환 위원님께서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예산 투자해 갖고서 올바로 고쳐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그러면 금년에도 현재 재래식 화장실 개선비가 30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교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해볼까요?

● 교육국장 조봉래

예

● 조일환 위원

저희들이 임용고시, 내년도의 임용고시가 고시됐습니까? 요강이.

● 교육국장 조봉래

예

● 조일환 위원

그것좀 하나 주세요.

● 교육국장 조봉래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지금 화장실 말씀, 우리 이기수 위원님이 나오시길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래식 외부 화장실을 없애는 대신 학교의 화장실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뭐 들은 걸로, 들은 걸로 해서 어느 학교든지 간에 대개 아침에 지역사회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강당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분들이 혹 제가 이래 보면 상식적으로 그냥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학생들을 지원해 줘라 하는 쪽으로, 어디는 좀 올려달라는 쪽도 교장선생님이 아마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화장실에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거 불평을 많이 한다, 그 분들이 조기축구니 뭐 이래 하다가 아침에 문을 잠겼지,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지역사회에 오픈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 아니다, 저는.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파손하거나 어지럽히지 않는다. 다만 아침에 경비가 없다든가,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지역에 봉사도 해야 또 우리 교육이 지역과 화합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제가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아까 명퇴관계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이래 보면은 이게 옷에다가 아이 맞추는 격이야,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격이란 말이지, 아까도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 질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나가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았더니 우리가 1순위를 짜르면 예산이 얼마가 필

요하고, 3순위까지 얼마가 필요하고, 내년도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쪽에 동감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이 사항별 설명서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만만한 게 이 대역장학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올해도 38억 9,000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소요를 판단을 해 보셨는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신춘우

이 관계의 예산편성 방법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장부에서 말입니다 전년도 대역실적, 당년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공문이 내년도에는 총 96억 정도를 편성하라고 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보니까 38억 9,000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편성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덧붙여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들은 이

제 주로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보면 왜 전부 부담금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거기 행자부에서 우리 공무원들 보수를 관리를 하면서 그 대역 장학금이 이제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금 자금이 적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금관리공단으로 내 주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걸로 이제 또 그 공무원들한테 대역을 해 주고, 나중에 또 회수를 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주고,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우선 쓰되,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자금의 출처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그것은 행자부에서 각 시·도마다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미리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기 보다는 중앙부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 건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 조일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 38억 9,900은 저희 충북 교육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몰라도 현재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한 20억만 납부를 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직접 부닥쳐보지 않았는데 충북 교육청 관할 대여자장학금이 비례별로 그만큼 적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저 과장님, 공문이 왔다니까 저한테 공문을 주시고요,

▶ 참 조 : 서면답변자료(별첨 3)

(끝에 실음)

그 다음에 206페이지 이것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206페이지 407에 01-1항, 먼저번에 우리 부교육감님 차가 저희들 보기도 그래서 작년엔가요 한번 구입을 합시다, 업무 저절로다, 했는데, 2,800만원이면 기관에서 사면 상당히 고급승용차 같은데 이 두 대의 이 용도는 됩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이 관계는 교육위원회 의장님 차하고, 교육감님 차가 내년도에 내용연수가 도래됩니다.

● 조일환 위원

아, 벌써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6년 됐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게 됐네요. 박재현 의장님 계시고, 또 먼저 교육감님.

● 총무과장 신준우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충원 위원님께서도, 2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교육청 43200에 교육청시설, 401-02인데 이게 저희들도 한번 올라왔던 것을 도청이라든지, 이 교육청은 견딜만큼 견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환경개선, 또는 7차 교육과정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유보화 돼서 일단 이게 부결 한번 했었던 사항이죠?

● 총무과장 신준우

청산시설비요?

● 조일환 위원

예

● 총무과장 신준우

일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본예산에 말입니다 14억 5,000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IMF가 발생해서 저희가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시 15억 1,800만원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절반만 해당하는 7억만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시 교사위 가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전 상당히 이게 조심스럽지 않느냐, 우리 내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삭감해서 올렸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은 아직, 그래서 이것을 또 추경에 작년 올렸는데 1년도 안돼서 또 올려놓으니까 제가 보기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견딜만큼 견뎠다, 더 이제는 갈 데가 없다, 그런 쪽이나, 이것은 뭐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시겠습니까만은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말씀드리려면 좀 어려운데.....

● 총무과장 신춘우

3,4년 전부터 대수선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예산도 확보했다가 자진 취소를 했고,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도 위험한 상태이고, 내부는 더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맨위에 “다”번 전국대회, 지방대회, 전국대회인솔, 출전에 대해서 거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대회는 2만 6,000원 240명이 계상이 돼 있고, 지방대회는 1만 4,000원, 또 전국대회인솔은 5만 5,000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학생으로 보면 됩니까? 아래 것은 인솔자를 말합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똑같은 전국대회인데 2만 6,000원, 하나는 5만 5,000원, 그래서 위에 숫자로 봐서는 학생인 것 같고 밑에는 12명 인솔교사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223페이지에 전국대회 출전하고 어느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방대회요?

● 조일환 위원

지방대회는 1만 4,000원, 보니까 이게 체육고등학교라고 써 있던 말이에요, 체육고등학교 예산이에요,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예산에서 위에는 학생이고 아래는 교사를 말하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둘 다 학생인데요, 전국대회와 지방대회의 여비가 차이가 나죠.

● 조일환 위원

위에도 전국대회, 3도 전국대회란 말
여. 인술이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조일환 위원

교사와 학생.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 저희 위원회하고 관계
가 있어서 제가 여쭙보는 건데 저희들이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고 그러니까
204-0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업무추
진비 40만원×20 해서 800만원이 서 있어
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
것은 누구의 뭐, 일반사무경비입니까, 아
니면 담당관의 업무추진비인가? 다른 것
은 다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40만원×20
회 해서 800만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기획관리과 내에 의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대의
회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 거기에 왔다갔다 하

면서 뭐 좀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년 필요한 돈,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
게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글썄 똑같은데 하여간 이게 잘못하
면은 위원들 뭐 밥 사주는 거 아닌가 하
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명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
는 건지,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써 주셨
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학교운영지원과
네요, 202-01 토지측량, 교육재산관리,
제가 이 항에 와서 조금 멈추는 이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아직 본청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산
관리가 상당히 정리에 상당한 인력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
자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국장님, 이
예산이 뭐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
는데 내년이라도 말입니다 정말 한시적으
로 몇 억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청의
수십 조원의 재산을, 수십 조원의 재산을
몇 억만 들여도 충주 남산초등학교같은
꼴은 안 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억을 들이면 300억의 재산, 저
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 우리 좀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한
시적으로 두 사람을 하든, 세 사람을 하

든 특별히 지금 운영지원과의 직원들 가
지고는 안되죠, 지금 당장 떨어진 일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장기적인 그런 계
획을 세워서 좀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
고 정말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
떠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타당
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재산관리 면
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누락 재산
이나 미등기 재산, 혹시 합필이 안된 거
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
해서 그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
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한테 줄라바
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무슨 국
가에서도 특별조치법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번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309-01 보
면은 지방채 및 차관이자입니다. 재특용
자차입금 이자는 5.5%이고, 은행차입금
이자는 7.65%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서 4억 7,000 얼마를 부담을 한다, 물론
국가에서 내는 거니까 얼마가 됐든지 관
계가 없습니다만은 먼저번에 행정질의 때
이충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때 이게 7%라고 그랬

단 말이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7.65로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 조일환 위원

아니죠, 7%라고 그랬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7.65로 답변드렸을 것 같은데요.

● 조일환 위원

아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죠.

● 조일환 위원

제가 답변 저거 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7.65%라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사업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합니다. 은행에서 신용
이 좋고 하면은 6.7%까지도 줍니다, 6.7%.
저는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가
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주는 재산을 7.65,
저는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7%로
받았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드릴까요?

● 조일환 위원

가만 있어봐요, 조금 이따가요.

그래 요전에도 먼저번에 기채 승인할
때도 국장님께 이것은 앞으로 점점 내려
갈 가능성도 있고 은행마다 돈 예금보다
는 대출이 더 반가워 세일하는 시대 아니

나. 이것을 우리 물품구입 하듯이 단가입찰하면 얼마든지 싸질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요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10 몇 %일 때도 8. 몇 %로 해 줬고, 농협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7%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다면 다시 한번 자료를 볼텐데, 7.65%라면 이것은 절대로 현행 시중은행에서 국가에서 빌려다 쓰는 돈, 우리 지방재 국가대행 아닙니까? 그런데 7.65%라면 이것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 예산편성 초기에는 7.65%였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5일자로 7%로 인하가 됐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필요없는 거죠? 집행하는 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7%입니다. 7%로 집행하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먼저 보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7%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7%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기획관리국장 회의 때 이 얘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감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대참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공히 관리국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지출하자는 그런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낮추자, 그래서 교육부에 7%선까지 앞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밑으로 다운시켜서 얻자,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하고 그래서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도 현실 시중금리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앙부처 단위에서 앞으로 기채를 할 때에는 시중에서 대출금리에 상응하는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는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항상 조금 사업 쪽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아무리 예산을 잘 세웠더라도 정말 이것을 잘 세우면은, 잘 세우면은 물론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집행,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거기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주는 전출금이죠?

● 총무과장 신준우

예, 맞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경비산출근거를 대충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죠.

● 총무과장 신준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산출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 기준으로다가 지방의회 선거하는 기준으로다가 경비를 산출해서 저희한테 납부해 달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 항목도 이렇게 해 가지고?

● 총무과장 신준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납부하고서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저희한테 반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군요.

● 총무과장 신준우

그대로 그냥 그리로 가야 됩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도 한번은 알아야 봐야죠. 예를 들어 준비경비면 어떤 때 쓰는 거고 어떻게 이게 나왔느냐 알고서 줘야지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달라는 대로 썩 주면 안되죠.

● 총무과장 신준우

그런데 저기 사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다가 4,600만원, 실시하는 경비로다가 9,600만원, 또 소청소송경비로다가 900만원, 자료정비로다가 130만원, 예비로 150만원, 이렇게 항목으로 해 왔는데 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네 선거에 관한 경비 산출기초에서 말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포함한 건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알아보세요,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207페이지, 이기수 위원님께서도 짚어보신 문제인데 그럼 현재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몇 개나 되요?

● 총무과장 신준우

쓰는 건 다 쓰는 거죠, 다 쓸 수 있는데 다만 옛날 10여년 전에 구입한 것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발전하는데 맞추지 못해서 이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교환해 나가십니다, 지금.

● 송진하 위원

지금 백색공포니, 뭐 탄저공포니 해 가지고 야단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백색가루가 와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쓸 수 있는 것을 숫자도 파악 못한다면 안되죠. 그럼 여기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당장.

● 총무과장 신준우

아니 전 직원용을 250개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 송진하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빼놓고?

(웃음 소리)

● 총무과장 신준우

아니 250명 하면 교육위원회도 다 들어 갑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 총무과장 신준우

사용은 전부 가능합니다만 옛날에 산 것은 성능이 떨어진단다.....

● 송진하 위원

성능이 떨어지면 있느냐 마나죠 뭐.

● 총무과장 신준우

아니 다소 떨어진단다, 그런 얘기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만일 300개가 필요한데 20개밖에 없다, 그러면 급할 때 누가 먼저 쓰느냐, 우선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

람부터 쓰도록 해요.

(웃음 소리)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야죠.

● 총무과장 신준우

알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지금 세계가 백색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데,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은 이 업체에서 이것을 만들기가 무섭게 팔린다고 그러는데 참말로 이것은 사람 목숨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 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신준우

예, 알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뭐 20개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이거 했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승용차 두 대 조일환 위원님이 짚어보신 건데, 그러면 교육감님 차를 바꾸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신준우

의장님 차하고 두 대를 바꿉니다, 2500cc 이하로도가.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 2호차 그 1500cc 조그만 차 있잖아, 아반떼, 이거 타고 어디 타 도에, 도내에는 괜찮은데 타 도 타

고 가니까 창피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부의장이라고 해서 가보면 다른 도는 그 랜저, 뭐 엄청난 것을 타고 오는데 어디 뭐 기능직 공무원이 타고온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것을 바꿔줄 수 없어요?

● 총무과장 신준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정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부 기관마다 아주 차량규모서부터 크기서부터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타 시·도 회의 가실 때 조금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의장님이 뭐 용무가 없으면 의장님 차를 이용하셔야 돼요. 다 의장님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2호차를 타고 왔다면은 전부 다 1500cc 이하입니다.

● 송진하 위원

저기, 저는 좋습니다. 이것도 만족한데 제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의장님 차를 빌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둘다 좋은 걸로 사야죠, 혹시 좋은 걸로 바뀌어 주실 수 있으면 바꾸어 주셔도 좋겠고 뭔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충북에, 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충북의 뭐라 할까, 어딘가 마땅치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좀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제일 밑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번번히 보편은 신설학교 토지매입, 이렇게 즉 나오는데 그러면 그 소요예산이 82억 7,400만원인데 그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초등학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주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인데요 조성원가에 초등학교는 70%에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고, 중·고는 조성원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평수를 얼마를 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하기 나름인데, 즉 고등학교의 경우는 3,500평 정도밖에는, 교육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도가.

● 송진하 위원

한 교가 3,500평?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한 교, 1개 교가.

● 송진하 위원

1개 교의 부지의 넓이 한도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자체자원을 투자해

서 그래도 4,000명, 4,500명까지 사주기도 하고 5,000명까지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설전에 올렸던 용암고나 저쪽 가경고 쪽은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4,000명 정도만, 500명 정도만 더 샀습니다. 그런 면적을 가지고 그냥 꾸려가려고 하고, 여기 말씀하신 내용은 중·고는 조성원가로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조성원가라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죠,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자기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쪽대로 감사를 받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준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우리가 필요한 평수만큼?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넣어 달라고 협의를 합니다.

초등학교 부지는 몇 개, 고등학교 부지

는 몇 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평수는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는데 조성원가로, 주는 것은 조성원가로, 초등학교는 이제 70% 해 주고, 금년도 초부터 2001년 1월 13일부터인가 언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된 곳은 50%만 내면 됩니다. 50%는 도에서 입주자들한테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럼 이 82억이라는 부지대금이 설립, 신축비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82억이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평, 부지같으면 3,500평 교실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만 주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자체자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북대고등학교 관계인데, 그럼 그 시설비 부담도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시설비는 지금 53억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82억인데 더 들어가는 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시설비도 한 90억 정도, 향후 더 들어

갈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요는 51억 정도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신축하는 데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이 토지공사, 공사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 국가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 실비로 하는 쪽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 자기들이 산출한 조성원가, 토지 사들이면서 뭐 원 지주한테 주고, 정지하는데 들어가고 한 원가 산출한 것만 저희가 초등은 70%, 중등은 조성원가를, 조성원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는 이것이 바뀌는 것이 감정가로 바뀝니다. 감정가로 바뀌면서 50%만 저희들이 내고 50%는 도청에서 입주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건물짓고 입주하는 그 과정에서 돈을, 상가고 뭐고 돈을 일정액을 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를 만

들어서 그 돈을 입금을 잡았다가 저희들한테 50%를 채워줍니다.

● 송진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다음에는 276페이지 거기 보면 행정서비스현장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200만원 해서 다섯 분야를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뭐 한다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에서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막연하고 어떤 주민들한테 하는 행정서비스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친절하게 하면 친절하게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 행자부에서 취하는 액션들이 뭐냐하면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현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달성을 안해 줬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 주민들이요, 이런 제도로 바뀌는 것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행정서비스현장을 다 민원별로 이미 제정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향후 더 제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잘 됐다고 표창까지 받았습니 다만은,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자체적인 우리가 그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자, 조사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시키는 환류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더 개선해 보자 하는 뜻에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송진하 위원

자체사업이에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송진하 위원

그 5개 분야는 어디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정하길 민원행정서비스, 교원인사행정서비스, 중등교육행정서비스, 계약행정서비스, 시설행정서비스 현장,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현장 다섯 개 부분에 관해서만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주된 민원입니다, 저희들 본청에 주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뭐 행정을 하면 서비스를 해야죠, 서비

스를 하는데, 그럼 예년에 하던 것인가요, 금년만 하는 건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신규사업입니다.

● 송진하 위원

신규사업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니 까 과연 그것이 그 서비스 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했던 상대가 올바르게 선택됐는지도 모르고, 또 객관적인 객관도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딱 주고, 너희가 한번 스스로 우리들 만족도를 보자, 이래서 용역으로 줄 예정입니다.

● 송진하 위원

용역으로 줘야죠. 자체가 뭐라 할까, 만족도를 스스로 이렇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79페이지 제일 밑에 투자교

육지원사업비, 6억 2,000인데 지원사업비라는 게 뭐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라고 우리가 흔히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이 아마 총 예산의 0.1% 정도를 편성을 해서 이 0.1%는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총 예산의 0.1% 정도를 편성을 해서 교육감이 각 학교에 불요불급한 그 투자가 필요할 때에 지원해 줘라, 그런데 그 0.1% 중에서 그 0.1%를 이제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사업비하고 3대 7 정도로 나눠서 편성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를 경상교육지원비 쪽으로 편성을 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쪽으로 70%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하고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투자성 경비하고를 3대 7로 해서 투자교육비 쪽으로 7, 운영비 쪽으로 3,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든 형편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투자 쪽으로 많이 뒀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것은 그럼 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게 이제 지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교육비에 의해서 각 학교에 거의 돈을 지금 100%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도가 각 학교에 줄 수 있는 돈을 교육부 기준대로 100% 주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좀 비율이 높으면은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감님이 숙원사업 얘기하면 들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준대로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교육감님이 그래도 조금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필요한 데 적절히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06페이지 학교안전공제회기금보조인데 아직도 안전공제회 자립이 안 되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전에 몇 년 만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현재 안전공제회 현재 총 자본금이 23억 한 7,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억 1,1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또 저희 도교육청에서 2억 3,000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3억 4,000을 지원해 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억 1,100만원을 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기금을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내가 알기에는 뭐 여기 도교육청에서 몇 년 간만, 3년인가 지원해 주면은 기금이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안전공제회는 필요한 거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원해 주는 건가, 뭐 기금이 안됐으면 해 줘야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지금 자금이 많을수록 안전하게 교원들의 안전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와 가지고 학교당 한도액도 높아졌고, 그 건별로 한 것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지급범위도 좀 저희들이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원들이, 물론 그 안전망에 의해서 자금을 안 탈 수 있는 사고가 안 발생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히다 보니까 준비금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들

이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도 방향이 교원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고가 일부를 부담할테니까 지방비에서 좀 편성을 해서 그것을 견고히 해 달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 송진하 위원

학생들이 회비는 지금도 내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회비도 부모 부담으로 내는 것은 거의 없고요, 폐품수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모으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 조일환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건데 거기 지금 작년 예산보다도 한 70억을 더 많이 상환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교육청 빛이 국가의 빛이죠, 그러면 이렇게 작년보다도 70억이나 많은 돈을 상환을 하는데 예산에 영향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원을 좀 해 준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김진성

기획관리국장 김진성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지방채 및 차관이자 전액 다 국고로 내려와 있고, 통화금융기관

원금상환분은 확정 교부 시에 국고로 줄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국고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만기가 돼서 주는 거고.

● 기획관리국장 김진성

예

● 송진하 위원

거기서 지원해 준다고?

● 기획관리국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거까지에는, 올 현재까지는 거치기간이었기 때문에 원금상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상환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고, 또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원금상환기간이 도래되자마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 약속대로 돈을 주겠다고 공문이 온 상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송진하 위원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여기 보면은 중앙도서관 보일러 설비보수 해서 5억

3,000 정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요? 보일러 보존하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중앙도서관 보일러가 '88년도에 개관 시부터 지금 보수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현재 기름보일러 시스템을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냉난방 시설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이게 참 보일러가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상당히 심해서 이것이 언제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킬지 모를 정도로 아마 남아 있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6억여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그 세부내역은 도서관의 자료를 입수해서 개별로 말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00쪽에 대여장학금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2002년도 대여장학금부담금 예산 편성지침에 96억 7,000만원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절반만, 절반만 빼서 38억 9,900여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절반만 세워도 관계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납부한 실적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집행은 해 보고서 만일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본래 이것을 대출해 줄 때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 받은 후에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신준우

예, 갚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제가 접대 보도에 보니까 요근래 대학졸업 말고 취업이 잘 안돼 가지고 이것을 상환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이 잘 안된다고 그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되면은 그 보호자, 선생님이 어떻게 봉급에서 그것을 뺏니까,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신준우

급여에서 말이죠 그 연수가 도래하면 말입니다 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 대출을 받으면 말이죠 어떤 가정에서 학생 세 명이 있다, 2,000만원을 총

받았다.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말입니다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얼마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통보가 가면 그 해당 선생님 봉급에서 공제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차량 두 대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거기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선 교육청에 감사로, 행정감사를 갔더니 교육장님들 차가, 괴산교육장 차만 하나 교체가 됐고 음성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소나타II가 굉장히 낡은 것 같은데 그 교육장님들 차의 교체 연한은 몇 년입니까?

● 총무과장 신춘우

교육장님이나 우리 본청 차나 말이죠 그 소형, 중형으로 따지기 때문에 같습니다. 대개 5년이면 내용연수가 도래하는데 6년이 돼야 갈아 줄 수 있습니다. 또 더 탈 수 있으면 더 탑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교육계에서 누가 보면 교육장이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느냐 하는 거지만, 선생님들 사기를 위해서도 자치단체장들은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초라하게 하고 다니니까 이게 보기에 안좋은 면이 있는데, 제

가 보기에는 분명 차가 수명이 지났을 겁니다. 5년 타가지고 요새 그렇게 안 낡아, 한번 점검하셔서 좀 가능한이면 제연도되면 바로 교체해 줄 수는 없는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음성은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충주는 안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연도별로 끊었습니다. 예를 들으면 '95년도에 산 차량인지, 이렇게 해서 그 이후 것은 전량 다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304쪽에 그 민간경상보조, 거기 이제 지역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도단위 뭐 500만원 해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지역단위는 교육청 11에 교육청별 200만원, 이렇게 딱 잘라졌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그런 것을 취급할 때 학교수 이런 것을 감안을 하는데 이것은 감안이 자꾸 안되는 것 같아요. 청주, 충주, 제천, 괴산마냥 학생, 학교수가 많은 데, 충주는 학교수가 67개입니다, 거기도 200만원, 여기 단양이나 진천 계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섭섭할지 모르지만 거기 22개밖에

안되는 학교도 200만원, 앞으로 학교운영
위원수가 대규모 학교는 15명에서 20명으
로 늘어나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회의를 하든
지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차
등 지원해 주실 수 없는지, 그렇다고 해
서 200만원을 받는 지역을 깎으라는 소리
가 아니고, 수요가 많은 쪽을 좀 상향조
정해 주실 수 없는지,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저희들이 이거 지역단위는 이제 두
지역 정도는 각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 대표 한 분,
시·군 대표 한 분씩이고, 지역단위가 지
금 학교별로 인원수만큼 편성돼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대표들만 지금 모여서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 위원장 이상일

제가 그것은 잘 아는데, 이제 그 회의
를 할 때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를 해도 어
느 교육청은 22명이면 되는데 충주같은
68명이 모여, 그러니까 경비를 똑같이
200만원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그것은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
니다.

● 위원장 이상일

추경에 청주, 충주, 제천, 괴산, 괴산
은 왜 그러나 하면 증평하고 괴산하고 행
정구역이 두 개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여기는 좀 차등 지원
해 주셨으면, 다음 추경에 좀 반영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시설과입니다.

거기에 목적사업비에 교원편의시설이
나와 있죠, 교원편의실 개조, 그 여학생
탈의실 개조, 아주 바람직하게 좋은 건
데, 제가 이것은 개조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특히 남녀 휴게실을 별
도로 해 주시는 건지, 과장님, 어떠십니
까?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제가 남녀 편의실을 따
로따로 나눠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가 지금 남녀
편의실을 어느 데는 같이 쓰는 데가 있
고, 어느 데는 좀 넉넉한 학교같은 데는
나눠쓰는 데가 있는데, 그 남녀 편의실을
각각으로 분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

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유를 먹이지 않는 프로테이지가 우리 나라가 1위랍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더라도 어린이를 우유를 얼마나 먹이느냐에 따라서 질병이라든지 아이큐라든지 대단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면서도 출산을 한 그 여교사나 그 직원이 몇 달을 수유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젖을 만나오게 하느냐, 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여교사 편의시설을 할 때는 수유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 안되면은 젖이라도 짜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 가져가서 먹일 수 있도록이라도,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새 젊은 여성들이 시집을 잘 안간다고 그래요, 왜 안가느냐 했더니 직장생활 해야지, 애기 키워야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하제한 문제도 옛날에 셋도 많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아마 이 정책 머지 않아서 출산장려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행히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바뀌어 저서 펍 다행스러운데 기왕이면 우리 여선생님들이 아 이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원편의

시설을 하는데 여선생님 방을 가능한이면 따로 해 주시고, 냉장고라도 좀 하나 사 주셔서 수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배려를 해 주실 수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상 이것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획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내일하나요?

● 위원장 이상일

30일날 합니다.

● 조일환 위원

30일?

● 위원장 이상일

예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

[제134회-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0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월 29일 오전 10입니다, 10시에 지역교육청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 충주, 제천, 단양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과 음성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청에서는 이 점 착오없이주시기를 바라며, 제 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충원, 조일환.

○ 출석공무원 : 6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서면답변자료(별첨 3)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29일 (월요일) 10시 04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
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오늘은 본 소위원회 4일차로 지역교육
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 충주, 제천, 단양교육
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오후에는 청
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순서대로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은 교육청별로 특색사업
등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안과
관련,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
변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순서
는 오전에는 이충원 위원님부터, 오후에
는 조일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지역교육청 관계관계서는
회의 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

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친 교육장님과 관계관계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주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안과 관련,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안녕하십니까,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 항상 저희들 충청북도 교육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셔서 충청북도 교육이 이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교육청 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히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보고(별첨 2)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히 설명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청주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충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청주시뿐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다 질의를 안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장님도 한번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교육청 455페이지인데요. 이거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그 시설비에서 난방개선에 관해서 돼 있습니다. 여름철 교실 냉방은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지, 제가 왜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 처음에 교실내부 환경기준은 조도 300룩스 이상, 소음 55데시벨 이하, 온도 겨울철 18℃ 이상 이렇게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암만 올라가도 40℃가 올라가도 어떤 규정이 없어요, 제가보니까 생활수준 향상으로 한 여름철 대부분 학생 가정에서는 냉방을 하지만 학교 교실 폭대기 층은 실내온도가 체온까지 더해져서 최고 30℃까지 육박하는 정도가 현실입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직접 온도 측정한 결과 한

층 올라갈 적마다 교실온도가 2℃씩 상승 하더라고요. 그러나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은 참 민망스럽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관리실은 냉방을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좀 부러워하거든요, 학부모들도. 현재 청주시내 대부분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추진중인데 전국에서도 우리 충북만 유독 역점사업으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배전반 심야난방사업에 대하여 일선 실무자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이것을 누가 하긴 해야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문제점으로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심야전기 사용 권장으로 이 심야전력난이 대두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야 전기로의 점진적인 인상이 제가 보기에는 예견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가면은 전기료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야난방 방식으로는 시내 대규모 학급의 경우 여름철 냉방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왜 피크 타임이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시설하고 있는 그 시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방할 경우 전력사용이 계약 전력을 사용해서 이제 막 시설한 수배전반시설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규모

학급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용량의 별도 발전시설설치 및 유자격자가 채용되지 않으면 안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용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현재 일부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버 방식의 냉·난방 겸용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요전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만은 청주 남성초등학교에 관리실에만 실험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오직 난방만 되는 심야전기 방식은 여름철 교실 냉방을 하기 위해선 이중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보니까 여기 전부 난방, 제가 경기도 쪽에 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이걸 보고 거기는 뭐 심야 하기는 하는데 전부다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금 저 두가지가 있다는데 (청취불능) 박스로 해 놓은 것하고 세우는 것하고 무용지물 될 거라는 거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162실을 지금 청주시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이충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전부 하지 말고 실험적으로나마 조금 줄이시더라도 냉·온방을 겸용하는 이런 시

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중적으로 이
것이 투자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
거는 현실적으로 현 직장에 있는 기사들
이 굉장히 걱정해요. 아마 교육장님 들어
보시면 불려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애
기한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럼 왜 얘기를 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 이거여, 이렇게 조
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청
주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 162실이면 어느 정
도 지금 완료가 됩니까? 지금 7억 정도
드는 건데요, 당년도에 그 개선만. 지금
수변전설비가 지금 2억 5,000정도 드는
거고, 전기개량용이 지금 뭔가 하면은 한
3,000만원 정도 들고 저 몇 %나 지금, 교
육장님.....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청취불능)

● **이충원 위원**

여기 혹시 전기담당 기사님 참여 안 하
셨습니까, 전기담당 하시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시설기획계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말씀 좀 해보시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충원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여기 교육장 하면서

그걸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이거 충수도
그렇고 난방용이면 여름에 뜨겁기 때문에
그 선풍기 몇 개씩 달아줘서 해결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것도 냉방하는
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우리 청주에서도 이제 시설쪽에
서 일부 신설학교는 지역난방을 넣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을 넣는 것은 앞
으로 냉방시설을 할 수 있을 때 별도시설
을 안해도 그걸로 그 기계만 조금만 고쳐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역난방
을 넣는 학교는 냉방까지 예정을 하고 신
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남성초등학교 인터버방식 냉난,
그 시설 하나의 청주에서 시범학교를 한
군데 그것도 한 교실만 설치했습니다. 두
칸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올해 작년 겨
울에도 제가 좀 가봤고요. 또 여름에는
냉기가 어떤가 하고 가 봤더니 상당히 소
음도 적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 **이충원 위원**

다만 단점이 있다고 그러대요. 뜨신 바
람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해서 나쁘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
고 그러느냐면, 저 이쪽분야 잘 모르잖아
요. 저는 집에서 퓨즈도 하나 못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의를 나
갔더니 경기도 관리청 하던 분이 그러는

데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를 해요. 요새는 전부가 이 전기 이걸 하는데 앞으로 몇 년 가면 걱정이라고 왜 이렇게 생각을 안하나, 그래서 제가 좀 물어 봤습니다, 모르니까. 역시 여기도 걱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육장님 실지 담당하시는 기사님들에게 여쭙봐서 솔직히 얘기해 보라,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저 개인 생각 같으면은 올해는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당년에 다 못하더라도 조금씩 이 분야에 생각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걸 뭐 청주시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전부 있는데 밑에 기사님들에게 한번 여쭙 보세요. 솔직히 얘기할테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예.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건 다른 분들이 여쭙볼 거니까.....

가경초등학교, 울랑초등학교, 새터초등학교, 수곡초등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가경초등학교 하고 울랑초등학교는 '91년에 신축되게 했지요? 맞나 모르겠네요, 이 가경하고. 새터하고 수곡초등학교는 '94년에 신축 개교한 걸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창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보니까, 이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장님?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예.

● 이충원 위원

후면창이 단창이라서 플라스틱 창호를 곁에서 이중창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이충원 위원

이거 되게 걱정스러운 건데요. 당초 신설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아예 이중창으로 했어야 할 텐데 이게 아주 옛날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냥 4,5년 5,6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어느 기술 이쪽 분야에 물어 봤더니 당시에는 후면쪽에는 복도가 있어서 단층으로 해도 교실이 좁거나 않는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중창을 못하고 단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공내역서는 창호가 차지하는 재료비가 대략 절반을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당초부터 이중창으로 해서 절약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을 못했나, 지금 현재 교육장님 소관도 아니고

그런데, 신설되는 그 학교들은 모두 이중창으로 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이충원 위원

뭐 교육인적자원부 방침도 두 가지는 전적으로 해야겠다는 거죠, 화장실 개량하고 이중창은. 시골에 가보면 화장실 같은 거는 생명을 걸고 앉아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게, 아주 교육적으로 기본 방침입니다.

현재, 시설과장님 어디 가셨나, 계시나 모르겠네. 시설과장님 계세요? 아니 본청 시설과장님. 됐어요. 본청에서 근무하셨을텐데 그때도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때도 본청에 근무하셨어요. 본청에서 설게 검토가 돼서 이런 예산 낭비 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막아야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본청 시설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면 물을 필요 없지요. 이 얘기 뭔가 하면은 앞으로는 조금은 투자하는데 조금은 생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금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곡초에 정화조 이전 설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요 제가 조금 한 것이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거를 이전 설치하십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학교 교실은 거의 붙어 현재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 교실을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교실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다른 데로 교실 한 두 칸을 별도로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옮겨지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좀 예정보다 본관 건물하고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 이충원 위원

당초부터 그 위치 선정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는가, 신중을 기했다라면.....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교실을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이 되는 겁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런 게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청주시뿐 아니라. 재 작년에 투자하고 금년에 없애버리고서 거기다가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수곡초등학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예견이 됐던건데 도심지에 학급 증가가 된다는 거는 뭐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 늘어나갈 거다, 왜 이렇게 했나,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정초등학교, 흥덕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교실 증축하는데 교실 증축하는 이유, 35명 주는 것 때문에 그런니까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그 35명 주는 것하고 또한 이제 7차교육과정이 운영하기엔 교실 확보, 이런 차원에서.....

● 이충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까닭은 작년에 금년에 이거 예산이 됐을 텐데 왜 지난 추경 때 부족교실 증축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서 제외했는지, 이미 예견 됐으면 추경에 돈이 없었지 않았어요,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 왔던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7차 교육과정 시 자체계획은 추경 후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 늦어졌습니다.

● 이충원 위원

여하간 필요하니까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예측 돼서가 아니냐, 얘기는 뭐 제가 길게 끌지 않는데 지방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라면, 지방채를 좀 덜 얻어도 되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청주교육청에 대한 질의는 제가 질의하는 것 보다 조금 의문이 나서 여쭙본 겁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교육청에 사업내역별 이러한 질의는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요전에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충북대학교 모 문학평론가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엘빈토플러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물리적인 권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권력, 그러니까 경제가 지배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식 산업, 정보, 지식, 그런데 여기다가 더 붙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은 그 감동적인 권력, 감동을 시키는 권력,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황폐화되고 교사가 그 어린이의 교육현장을 박차고 심야에 주민의 수면에 지장을 줘 가지고 교육의 결손을 마다하지 않고,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 우리가 과연 교육수요자들에게 감동을 줬느냐, 감동, 이런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감사기간 내내 그런 오늘날의 이 불법적인 교육현실 교육개혁이 시설이 완비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교원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 교육개혁의 현실이 역으로 진

행을 하고 있다, 역으로. 2년만 참아도 될 이 35명 기준 때문에 또 저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이 이렇게 뿐이 갈 수가 없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주 그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육계 몸담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교육청에 저는 앞으로 11개 교육청 공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의식의 문제다, 의식. 아무리 예산을, 지금 솔직히 지역청에서 청주교육장님 이번에 얼마 예산요구 하셨어요? 예산 요구한 거 몇 %나 배정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경색경비 하지 말고 인건비는 그만 두고 시설예산이나 그래도 교육장님이 쓰실 수 있는 이렇게 얼마나, 요청하셨는데 얼마나 배정 받으셨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관계는 예산 재배정을 저희들이 받아 갖고 하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금 몇 %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조일환 위원**

대개 이제 100%로는 못 받으셨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100%는 못 받았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육청은 약 70%를 받고 어느 교육청은 필요하다고 돈 달라는 예산에 50%를 받고 과거에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자라는 예산을 어떻게 쓰시겠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의식을, 제도나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문제, 저 같으면은 지금 저 증평에 모, 미원에 모, 지금 현대식 농촌으로 했죠. 그 특별히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밀폐된 창 속에서 여름에 수업을 못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얼마든지 의식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열식 심야냉방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 개발돼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청주에 먼저 번에 그 학교에 급식소, 그러니까 식당에 에어컨을 넣는다고 요청하셨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조일환 위원**

그 삭감된 것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여, 그 한시간 때문에 그 한 대의 에어컨 가지고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보다 시급한데 다섯, 여섯시간 아이들이 머무는 교실이 더 우선이나, 이런 쪽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서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알뜰히 잘 쓰시고 효율적으로 잘 쓰시면 제가 이번 사무행정감사에서 지하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거론해 봤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 문제만 해도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다 말이에요. 수도물이 내 입에 들어가고 요리를 하는 급식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원수에서 물을 빼 가지고 이 물을 검사하는데 헛수고다 이거여, 얼마든지 이 시설에 들어오는 과정에 객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오염된 물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 청주에 교동초등학교의 자료를 보니까 교무실 급식소에서 원수를 채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값지게 쓰고 있다, 헛돈 안쓰고. 또 식수를 44종, 8종을 이렇게 1년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1년 내내 44종을 했어요, 내내. 그런데 어느 학교는 4회 중에 한 해를 44종 나머지는 8종인데 44종도 6월달이나 9월달이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중간에. 어차피 돈을 더 주니까, 82,950원 더 주니까. 그렇다면 맨 먼저 당겨서 처음 공사할 때 써야 그 돈이 82,950원의 효과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돈을 좀더 제가 바라건대 겨울 갈수기 때 학생들이 아직 수업이 시작 안되고 새학기를 준비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껏 먹다가 이 물이 좋으나, 또 1년에 네번 하니까 3월, 6월, 9월, 11월에 했던 말이에요. 식수를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언제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까, 여름철 겨울철입니다. 저 같으면 여름철에 두번, 세번 하겠어요. 장마가 저도 한번 해야 되고, 가뭄이 들어 물이 제대로 안나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대부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이나 일선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느냐, 행정을 집행하는 예산을 집행하느냐, 편하기는 선생님들 다 나오고 직원들 나온 3월달, 5월달, 9월달 하면은 제일 좋지요. 그런데 정말로 학생을 위한 이 예산을 제대로 쓴다면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난방도 이걸 냉방도 정말 애어컨, 틀림없이 이 얘기 나오니다. 난방 못지 않게 중요한 시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난방심야를 할 때 충열식을 겸해서 해 놓으면은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제가 업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열식 냉방식으로 바꾸려니까 1억 8,000이 들어가요, 그러면 애초에 내가 집 지을 때 쓰면 5,000만원 된다 이거여.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제발 돈이 적든 많은 간에 우리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현장

에서 너무 객관성 있게 특히 이번에 송진하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수의계약 문제는 우리 일반에 업자들 얘기가 공개 입찰은 막말로 까지고 수의계약은 이거는 뭐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공개 입찰은 해서 남는 게 없다는 거요. 수의계약이 제일 짹짹하다 이거여, 짹짹하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수의계약이 왜 일선에서 학교장 중심, 중심하면서 어찌 중간에서 하느냐 이 말이죠, 중간에서.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지고 말뿐인 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공히 교육청 우리 일선에서 아시는 또 집행청도 마찬가지로 되도록 그 수의계약은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도를 하셔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짹짹한 수의계약은 어디서 하고, 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겁니다. 오늘이 얘기만 끝나면 11개 시·군 할 때 한 마디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직에 교권을 확대해야 됩니다. 예산하고 다분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모 지역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아, 그 예산은 우는 사람 젖 줍니다, 그 학교장도 안 되는걸 내가 갔더니, 아 이렇게 예산을 따서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저는 우리 교직의 교권을 짓밟는 거

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회의에 갔다가, 물론 인사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뭐 어디에 잘 갔다 오는 교장은 예산을 잘 따온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여. 그런 얘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개적으로 객관성있게 예산을 하는 그런 의식이 문제다, 의식이. 그래서 모든 예산은 학교장 중심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우선 반드시 뭐하더라도 그쪽을 통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 스스로의 교권을 지켜야 된다. 학생들 여론조사 해서 9세에서부터 17세까지 아시아 17개국에 여론조사 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존경하는 직업이 교권 아냐, 교직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물었을 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사는 빵점이며, 제일 맨 꼴지다. 이걸 정말 이윤배반여, 직장은 좋은데 선생님들 존경할게 없다, 바로 이런데서 문제가 있다, 이런 데서. 직장이 좋으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아시아 17개국 중에 빵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이번에 어디 본 예산은 160 몇만원 올라와 있죠, 국장님? 그런데 일선에서 는 얼마씩 줍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저 기간제 교사들 월 급여 말씀하십니까?

● 조일환 위원

예, 일정하게 주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아닐 겁니다. 저기 6개월 미만이면 정확한 액수는 120.....

● 조일환 위원

138만원하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담임인 경우 138만원, 한 140만원.....

● 조일환 위원

담임수당까지, 국장님, 우리 예산 세우는데 160 얼마로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본 예산에, 맞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10호봉 기준으로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호봉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기본 호봉을 10호봉을 해 주고 있어요.

● 조일환 위원

일정한 게 아니고 더 많이 주고 적게 줍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일정하게 10호봉 기준으로 줍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160 몇만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지, 원어민입니까? 기간제 교사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지요. 글쎄 그러니까 저는 기간제 교사도 일단 교직원장에 불러들인 이상 그 사람들의 사기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교육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퇴직금이나 의료보험이나 기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조일환 위원

저는 이 운영에 대해서도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아, 나는 얼마 받는데.....” 이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아니 연금을 받는데 받아도 그분들이 그 생각합니까? 뭘 만나와도 받는거여. 그분들의 생각은 다분히 아이구 필요해서 오라 해 놓고 그

래서 저는 정말로 교육장님께서 돈으로 못 주더라도 교장선생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니 둔 것만도 못하다. 교육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퇴직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기간제 교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집행청이나 우리교육청에서 이래 멀리 오셨는데 제가 좋은 말씀 못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요 말만은 꼭 하고 다른 건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불손하게 들으셨다면은 이해를 하시고 제 충정은 내 돈같이, 내 사업같이, 내 자식같이, 한번 해 보자는 게 저의 본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조일환 위원**

예, 괜찮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지금 조일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깊이 명심하고 제가 지역 행정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지하수 관계는 다른 수도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말씀 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수질검사 관계는 조 위원님이 핵심을 잘 집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관계 과에서 그런쪽으로 학교 수질검사 방향을 좀 바꾸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그렇게 하고, 저희 청주에는 순수한 지하수 있는 학교가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원군에서 편입된 4개 저기 서촌, 내곡, 북일, 운동, 그리고 현양원에 저희 분교장이 있습니다. 거기 다섯 학교 초등학교 있고, 세광중·고등학교가 상수원이 있는데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교는 특히 더 수질검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관계도 저희들이 한 1억 5,000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거는 아마 조 위원님 짧은 식사시간의 활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에서 식당이 갖추어진 학교는 그것이 저는 학교가면 그 얘기 꼭 합니다. 식당을 단순히 점심에 밥 먹는 시설만 활용하지 말고 그 밥 먹는 시간 이외에 다목적 교실로 학생들이 좀 집단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아니면 오후에 독서실의 장소로도 좀 활용해 달라 해서 그런 쪽까지 저희들

이 계획을 하고 냉방기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활용 관계는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권확대를 위한 예산집행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주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면 학교에다 필요한 것을 전부 학교 자체 학교장으로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거의 저는 그 현장을 가봐요. 가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 거냐 안한 거냐, 그리고 예산을 혹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배부해 주더라도 먼저 준 학교, 다음 준 학교하고 표를 가지고 한 학교에 집중이 안 되도록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의구심이 있다면 앞으로 더 시정을 뭐 교장이 교육청 왔다 가시고 해서, 위원장이 왔다 가셔서 거기에다 더 집행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아주 행정을 좀 더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사실은 청주시내에서 기간제 교사 쓰는 것은 그래도 행복한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기타나 먼 단위 학교에서 결원이 생겨서 기간제를 쓴다면, 또 청주시내에서도 그래요, 교장 선생님들이 기간제 한 분 모시려면 다는 몰라도 부분적으로는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니까요. 그 자격 소지자를 요청을 해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다가 먼 단위로 가면 더 많이 가서 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근무하시는 동안에도 학교장이 최선의 배려를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정식 선생님들보다 기간제 교사 학교 가서 만나면 참 수고하신다고 한마디 할거 두 한마디씩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간제교사 관리에 더 좀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제가요, 나는 이런 답변을 기다리는건 아닌데 청주교육장님께서 답변 겸 실정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청주교육청에는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수 문제를 자료를 받으면 청주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식중독 사건도 청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상수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수도 요금 때문에 지하수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럼 행정을 위한 학교운영이나, 학생에 보건위생을 위한 그런 쪽이나, 어째서 제일 환경도 좋고 한 청주에서 어째서 그런 사고가 제일 많으나,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이 11개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이 얘기로 끝나겠다. 또 주마가편 격으로 잘 아시는데도 그런 말씀이 있고 제

가 말씀 드리는 것이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보다는 의식을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지역교육의 책임을 지신 교육장님 또 관리행정을 담당하신 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교육청 2001년도 예산심의를 끝났고 오늘부터 지역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데 앞서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시설예산 집행시 시설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시설업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적정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좋은 시설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건축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도 시설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로 2001년도 시설예산 단가를 인상하였다면 몇 %나 인상하여야 했는가 하는 거 하고.

교실 1실당 예산 단가 및 인상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시설 단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염려를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부족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질이 수준이 떨어지는 예산으로 질 좋은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면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까지는 시설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예산단가에 포함이 적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98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시설예산단가가 대폭으로 축소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에 약간의 예산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염려하시는 대로 만족할 만한 예산은 못돼서 전국적으로 좀 저희들이 상당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

설여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7차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35명으로 학생수를 줄이는 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올 시설 단가는 2002년도에 올 예산의 2.63%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63%의 근거는 저희들이 불가인상률을 감안한 비율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잡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건설업계에서는 제잡비율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불가인상분만 2.63% 인상을 했고 제잡비율은 인상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인상한 프로테이지는 2.63%로 해서 교실 1실당 단가는 5,8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5,660만원보다 그것이 140만원 정도 예산이 좀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송진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도 저희들이 그 많은 예산을 인상을 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한 애로점도 계시겠는데 앞으로 감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는 지역교육청 전체 예산의 당초 예산에 39%가 청주시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추경예산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지역교육청 전체예산의 50%는 청주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장으로서 인력면이나 아니면 신설교에 따르는 개교에 따르는 문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 송진하 위원

그 인력, 인력이라든가, 시설담당 인력, 또는 신설학교 개교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없어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인력관계는 정확한 수치로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시설과에서도 그렇고 공사 감리를 나가는데도요 사실 매일 현장에 가서 뛰어도 부족한 현상이에요, 현재.

● 송진하 위원

그렇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그래서 시설과 직원들이 저희들이 보통 밤 11시까지를 특근을 해야 됩니다. 내부 거를 하려면 특근을 해야 되고요, 낮에는 가서 공사 감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사업예산과 인력관리, 관리, 그 부분에서도 따라서 고려가 돼야지 그런 그 여러 가지 고려 없는 행정은 안되는 거죠. 돈 많이 주고 뭐 할거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교육청과 상의하셔 가지고 착출을 받든가 해서 그러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특색사업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육장님의 특색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지금 저희들 특색사업 하는 건 요구하는 것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 송진하 위원

반영이 됐어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북에 11개 지역교육청에서 특색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그게 모여서 충북의 특색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청에서는 가끔적 교육장이 요구하는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다 배정, 고려가 되도록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 세출예산안 거기에 보면은 434페이지 거기 관서운영비에 개인선수경기장사용료가 40만원 있는데 무슨 사용료요, 이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저희들 청주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훈련하고 사용하려면 1회 사용하는데 10만원씩 시에다가 납부해야 됩니다. 평상시 거기 이제 연간 훈련은 학교운동장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뭐 종합적으로 훈련한다고 그러든가, 교육장기 초·중육상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 운동장 사용료를 시 조례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이게 그래 청주시에서는 각종 행사하면은 애들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입장료 받고, 또 자기들이 경영하는 수영장에 학생들 사용하는 것 또 돈 받고, 무슨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차원도 있고 또 주고 받는 것도 있는 것 아니, 자기들 행사에 학생들 입장하고 입장료 주고 했는데 그래 뭐 그거 조금 사용한다고 교육적으

로 쓰는 거를 돈 탁탁 받고 그런 문제는 뭔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예, 그 다음에 443페이지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책결상 11,310조를 사는데 그거 1인용입니까, 2인용입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중학교기 때문에 전부 1인용입니다.

● **송진하 위원**

1인용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송진하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물론 학생수가 늘기 때문에 그런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물론 학생수 늘는 것도 있고 또 책상이 좀 초등학교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만 낡은 책상들이 많고요, 또 원인이 학생들이 신장 때문에 과거 8호, 9호, 10호 하던 책상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5,6학년에 실당 몇 명씩은 책상하고 그게 안 맞아서 그걸 학교운영비에서 좀 바꿔주도록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거기 보면은 440페이지 보면은 상판 교체가 있는데 2,000개, 그런데 이것은 책상 위를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위에만 덧쇠우기를 해 주는 거예요.

● **송진하 위원**

그럼 여기 만약에 상판이 낡아서 못쓰고 이러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판교체를 더 좀 많이 해서 충당할 필요는 없나요? 내버리지 말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상판교체 가능한건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추가로 소요되는 것, 또는 책상 크기를 높여주는 것, 이런 거는 상판교체로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상판교체해서 쓰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상판만 바꾸면 새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거기 보면은 304 민간경상이전 해 가지고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교외생활지도 위원장 교에다 이걸 줘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 송진하 위원

위원장교에 주는 거예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그래서 이제.....

● 송진하 위원

민간인인데, 민간.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이게 이제 대개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는 고등학교에서 돌아가면서 담당이데요. 이제 저희교육청에서 줄 때는 고등학교는 저희 지역들이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중·고등학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송진하 위원

민간경상이전이라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1,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교구만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게 교외생활지도 하면은 교사들도 거기 나갈 건데 교사들에게도 충분한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서 하더라도.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송진하 위원

일반인들, 경찰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주고, 자기들 교사에 대해서는 자기들 일이라고 안주면 안되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교사들한테도.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여기서 적은 건 여름방학때 캠프하고 저녁에는 교외생활지도하고 하는데 경찰의 협조를 받습니다만 그쪽에는 출장비를 안줍니다, 선생님들한테만 출장비가 나가고.....

● 송진하 위원

출장비도 주고 줘야지요. 뭐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애쓰는데 그런 걸 적절히 해주어야지 효과를 올리는 거지, 그거 뭐 대우도 안해 주고 잘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도록.....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453페이지 거기 제일 위에 보면은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책상 상판교체가 6,000원씩 해서 1,000개를 했는데 이 초등은 1만 1,000원씩 했더라구요. 44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초등은 1만 1,000원에 했고.....

● 청주시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초등은 2인용 책상입니다. 2인용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더 높고요, 중학교는 1인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 밑으로 감니

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463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 위쪽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로울러 경기장 순회코치용 해 가지고 인건비가 365인데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지금 저희들이 현암 로울러경기장을 개관을 작년에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순회코치를 배치해서 거기 시설관리를 현재는 시설관리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기 정식 직원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까지도 시키고 아이들 지도를 거의 1년이면 다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1명이 한사람이 여기 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일요일도 시키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실 때는 주차, 월차 일임을 주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65일 다 가져야 주차, 월차 그 쉬는 기간에 임금도 줄 수 있는.....

● 송진하 위원

글쎄 한 사람이 365일 1년 내내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킨다, 어째 그 뭐 예산을 적절히 몇사람으로 해서 교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한 사람이 365일 계속하는 걸로 돼 있던 말

이에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그런데 코치 자체를 저희들이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시청 로울러장에, 시청코치도 여기 와서 같이 근무를 해 주고 그래요.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46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교육행정홍보수수료가 160만원 두 번 주는 데 어디로 주는 거예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필요할 때 1년에 두 번 정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광고.

● 송진하 위원

관리행정 하는데 광고비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송진하 위원

신문사 이런 데 주는 광고비?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이게 어떤 지역에서 학교하고 연합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하고 같이 하더라도 학교에다 부담을 안주고 여기서 그냥.....

● 송진하 위원

그게 각 학교에 죽 조금씩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통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청주시내는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초·중·고하면 95개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의 제기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다 부담을 안주는 걸로.....

● **송진하 위원**

뭐 교육행정 하다보면 언론기관의 각처에서 뭐 광고비라고 해 가지고 요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적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시설 먼저 시설계획을 내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여학생 탈의실 개조를 중학교에 6개교에 집중적으로 하는 예산을 세웠어요. 청주동중, 서원중, 봉명중, 청중, 가경중, 남성중, 여학생 탈의실 해야지요, 절대 필요합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중, 여고에는 다 있는데 교육장님, 초등은 6학년 애들 여학생들 뭐 다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등. 안해도 되요, 초등은?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초등도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는 거는 남녀공학

하는 학교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초등인 경우에 이 중학교가 남녀공학인 학교를 먼저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게 초등학교도 지금 5,6학년 애들 탈의실 해 줘야 합니다. 탈의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원편의실, 휴게실, 그게 초등학교에 지금 다 있죠? 휴게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초등학교에.....

● **송진하 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초등교원들이 질투할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교실에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 가서 쉴 수가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에도 휴게실이 필요해요. 해야합니다. 건강이 조금 나쁜 선생님은 휴게실에 가서 쉬셔야죠. 그래서 휴게실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큰 휴게실, 교실 두 개, 세 개 필요하지 않고 초등학교는 하나정도 하고 오히려 여학생 탈의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대의 실정에 맞게, 지금 초등학교 여학생 애들도, 몰라요, 그 뭐 성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부끄러운 것 다 알고 하는데 그 짓곳은 애들 장난치고 하는데 어디다 체육시간 어디서 벗어요. 앞으로

할게 아니라 당장 해야 해요. 당장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는 도시 청주에서 시법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여러 가지 또 적절하게 짜여졌고 앞으로 또 잘 해 보시려고 하는데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참고되시는 쪽으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모든 교육청이 다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니까 도교육청이나 또는 그 산출근거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5세아에 무상교육 지원하는 데에 그건 유치원 애들 같은데요, 학교 들어오기 전에. 거기 그 몇 명에서 액수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곱해 가지고 산출 해냈는데 그 산출근거들은 어떻게 따집니까. 몇 년 몇 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곱

해 가지고 진짜 예산을 잡아 놔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나요. 교육청마다 다 그런 항목이 들어 있던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만5세아 취학예정자 그걸 뽑아서요 지금기준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영세자니 뭐니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 협조를 받아서 숫자 계산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니까 5세 이하의 학력 아동을 그 시하고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액수를 곱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산출해 내는 근거입니까, 그건?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저소득층 자녀가 거의 시에서 다 통계가 나와요.

● 간사 이기수

저소득층 자녀는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간사 이기수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대개 다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만큼 선정은 돼 있는 겁니까? 어느 유치원에 지원하는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인가, 그게 규격이 맞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공립유치원만 골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내년도 2월 중에 보사부장관이 그 저소득층 자녀만 주는 거거든요, 일단. 그 소득층 자녀가 어느 선이다 하는 걸 발표를 할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면 공·사립 어디에 다 취학을 했든 다 주는겁니다. 사립은 1인당 만원, 공립일 경우엔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예산이 짜여 있는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각 교육청별로 인원수는 대략 그 시·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서 그 인원예 대한 파악은 미리 추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사립유치원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사립 유치원은 몇 개씩 되는 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전 사립유치원 다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만 5세아는 다 되게 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아니 만 5세아도 있지만은 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또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사립유치원에서 이제 각 교육청 보면 사립유치원에 얼마 해 가지고서 몇

유치원 해 가지고서 나왔는데 그게 사립유치원 다는 아닌 것 같고 그 선정은 어떻게 과연 어떻게 하느냐,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사립유치원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저희들이 지금 청주 같으면은 병설유치원이 39개원입니다, 지금 38개였는데 병설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57개원 있습니다. 그래 57개원에다 학급당 학교운영 예산 및 기본은 다 주는 거예요.

● 간사 이기수

다 주는 거예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중등 지원하는데 유치원당 70만원을 주고 4,5학급 규모는 유치원당 23만원, 6내지 10학급 규모는 유치원당 25만원, 그래서 법인운영 유치원은 유치원당 28만원 해서 국고 및 자체에서 전 유치원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 만5세아까지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 대상자 중에서 모든 아동들을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급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이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좀 더 보사부 쪽하고 협의 중에 나올 거고,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의무교육이 100% 무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은 지금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학교로 등록된 거는 전부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렇지만 저기 그거 저도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 지원 규모를 차 후에 유인물로 하나 해서 하나씩 자료를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거는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이고, 뒤에 말씀하신 거는 유치원당 교재·교구 구입비를 말씀 드린 겁니

다.

● 간사 이기수

두 건인데, 이게 비단 청주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개 교육청이 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곱해 가지고 만들고 인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이 돼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일

자료를 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 다음에 이제 청주교육청에 비단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이제 농촌지역의 교육청들일텐데요, 문달은 학교 관리를 위해 갖고서 보통 12만원에 한 개교 12개월 해 가지고서 곱하니 한 학교 해 갖고서 1년에 144만원을 관리비로 지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촌 폐교학교들이 이제 임대해 가지고서 임대수입으로서 오히려 임대수입 없는 학교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제 관리비를 지불하는 학교들이 얼마나 되며 말여, 이게 충청북도 전체를 따진다면 한달에 1년에 144만원씩을 참 지불하는 거니까 관리비로 말입니다, 그럼 건물 노후되지 144만원씩 관리비로 내지 이게 이제 만약 10개 학교라면

1,440만원 아닙니까, 이게 10개학교 충청북도 전체를 다 한다면 대단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을 자료를 말입니다. 한 번 일년에 관리비로서 지불하는 충청북도 학교에 재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 번 있다 가라도 한번 해 주시고 만약 이렇다면 이런 학교는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서가지고서 말입니다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에 보면 조도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공해도 기구를 사서, 측정기를 한 대에 150만원 주고 샀던 구만요.

그래서 저희들 300룩스를 기준조도로 보고서 하는데 이렇게 금년에 개선한다면 조도가 미달인 학교가 어느 정도 되며, 지금도 청주 같은데는 도시지역이니까, 소음공해가 지금 55데시벨로 뵈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60데시벨이니까, 지금 소음이.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55데시벨

● 간사 이기수

55데시벨, 그래서 금년에 조도미달 사업과 소음 해소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금년 예산집행하고 난다면 조도 미달인 학교가 얼마며, 소음공해를 지금 받는 학

교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저희들이 조도개선 사업은 금년 하면 거의 100% 가깝게 다 조도개선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음측정기를 고가인데 구입을 하려고 한 건 학교가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기구가 없어서 그 측정하는데 이리저리 자꾸 조사할 수도 없고 해서 그걸 한 대 사서 저희들 해당 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학교 소음 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55데시벨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시청이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소음을 낮춘다든가, 어떤 방지벽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소음측정기 예산을 넣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지금 현재 55데시벨 이상인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그건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거 공항쪽으로 북부쪽으로 이제 좀 하는데 정확한 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측정기구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예, 그래서 고거를 농촌지역이야 대개 소음공해는 한적한 데에 학교가 위치하기

때문에 없지만 청주같이 도시지역은 자동차나 비행기로부터 공해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소음공해 방지시설은 해야 될 겁니다. 방음벽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측정을 바로, 이제 기계까지 사시니까 하셔가지고 소음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게끔, 또 이제 비행기 같은 공해는 그건 또 뭐 하늘에다가 방음막을 설치할 수 없고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걸 잘 이 중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전체 한번 측정해 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교육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중에서 그 답변 중에 연도별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주시에서 말입니다, 인구팽창율과 또 연도별 학교설립계획은 몇 년 정도 앞을 보고서 구상중입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지금 그 계획은 인구동향 파악을 2006년도까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5개년 계획이 되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사실 아까 뭐 이충원 위원님 말씀도 나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OECD 수준이라는 게 실상 지난해 7월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에 다시 갑작스럽게 그게 바뀐 겁니다. 작년에 OECD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초·중학교는 2004년까지 35명으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40명을 그냥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에 와서 1년만에 와서 갑작스럽게 고등학교는 40명으로 그냥 갔던 것을 2002년으로 내년 3월 1일로 앞당기고 초·중은 1년을 앞당기고 2003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설계획은 대충 그런 데 기초를 해서 초·중 같은 것은 학구 내에 부지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대학교 부지구입 정도 또 교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2005년도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간사 이기수

저 교육장님이나 또 도교육청에서 청주시에 앞으로 인구 팽창률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 잘 감안하겠지만은 그런거 했을 때 어떤 계획이 말입니다 청주시의 시 행정하고 거리가 멀은 그런 계획은 어려울 겁니다. 만약 청주시는 A지구에다가 얼마만큼 아파트를 몇 년 내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은 청주시 교육행정은 말입니다. 어떤 B지구에 계획도 없는데아가 학교설립에 대한 예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될테니까, 제 생각 같으면은 청주

시 행정과 우리의 청주교육청의 교육행정과 완전히 결부시킬 수 있게끔 기관 간에 서로 간의 계획을 주고받아 갖고서 앞으로는 그학교설립계획이라든지 또는 인구팽창률이라든지, 청주시의 인구팽창률이 있잖습니까만, 지금 뭐 통계학자들이 청주시 인구변동 같은 거는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받을 때 말입니다 지금 저 우리가 지금 40명에서 35명선으로 학생수를 줄이는 것 해 갖고서 소요되는 교실을 증축했을 때 거의 말입니다 청주시에 21개 정도가 학교내 부지안에 교실을 신축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 청주교육장 교육장 이창연

예

● 간사 이기수

그래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물론 5개년 계획을 앞으로 예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수립해야지만이 나중에 계획상에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없지, 그 운영계획이 전혀 실제하고 거리가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구증가를 문제는 통계학 하는 분들이라

든지, 뭐 충북대학이라든지, 청주대학교, 대학교 기관에서 그거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시하고의 면밀한 접촉을 해 갖고 거기에 실제와 거의 같게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에서도 물론 10년 정도의 인구 추계가 나와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학생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에 저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이고 우리 국장님, 도 도시계획 위원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회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 소요량 같은 것이 파악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마지막에 하나 부탁말씀 올리까 합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로 이제 조도문제나 그에 난방문제는 기준이 있지만은 나머지 냉방문제는 없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님 그 미국 같은데 대학에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성초등학교에 한 개 교실을 실험으로 하시고 있는 모양

인데 외국에 대학들 보면 밖에 건물은 아주 노후해 보이고 고색창연하지만은 내부 가면 아주 쾌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보면 냉방과 난방 공유돼 있어요. 그래서 냉방이 그치면 바로 난방 들어가 있고, 난방이 그치면 바로 냉방되어 있고 이게 사계절을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연결돼 갖고서 항시 같은 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끔 쾌적하게 돼 갖고 학생들이 참 공부하기가 편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시설은 벌써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거니까 한번 실험해 갖고서 과감하게 그건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저 이기수 위원님께서 아까 만5세 유아교육지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의무교육이라는 말은 무상교육으로 잘못 답변 드렸고, 등록이라는 말을 설립으로 잘못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 간사 이기수

예,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30분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용변도 있고 그래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주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더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청주교육장 교육장 이창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진행방법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단양교육청 세분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 대한 그 주요사업, 또 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곧바로 질문

을 하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 참 조 :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보고(별첨 2)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한 교육청에 국한해서 질문 안하셔도 되고 세 교육청에 공히 질문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이충원 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청 앞으로 청사 안 지으실 예정입니다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저기 얘기가 좀 길어질는지 모릅니다만 청사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 교육청 교육가족들은 학생회관이 지금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두달 전에 교육감님한테 한번 구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금년에 또 보수비 7,755만원, 작년에도 여기 보수비 들어가 있어요, 그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예

● 이충원 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짤뚫뚫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한 3,4년 가면 몇억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포기하셨나, 이전 하실 거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1년이고 2년이고 후에 그런 계획이 계시다고 하면 이 짤뚫뚫한 예산은 그냥 당장 어려운 점만 하시고 다음으로 넘기시는게 어떤가 해서, 그러네요, 아니 그건 번듯하게 하나 짓긴 지어야겠대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예, 맞습니다.

● 이충원 위원

청사 지붕방수비, 회의실 천장보수 그래서 들어 있거든요. 당장 새니까 어떻게 뭐 하기가 어려우시겠지요. 어려우시겠는데 크게는 제가 그거 하나 여쭙보고 다른 데는 별로 잘 저기 하는걸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교육장님. 495페이지 보면은 방송시설 교체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교체하시는 거예요? 2개교 들어있는데, 495 페이지에.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대상 교는 지난 해에 우리가 3개교를 했고 신학년도에는 이제 기초조사를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기초조사를 해서 2개교

를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는 선정 안됐군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예, 예.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돈에다가 이걸 맞추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저희들이 예산을 저 ICT활용 보급 위주 확장됨으로써 저희들한테 허용된 예산이 2개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 이충원 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학교는 선정해 놓아야겠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예, 작년도에도 그런 식이 됐었어요. 연차적으로 몇 학교씩 이렇게 나가려고.....

● 이충원 위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서관 운영비가 금년에 많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교육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서관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511페이지 보면 죽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줄었어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예, 저기 관리과장님이 설명을.....

● 이충원 위원

예, 유과장님, 왜 이렇게 도서관 늘어야 할 분야인데.....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유근영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유근영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그 사업비가 줄게 된 것은 표준관리시스템이 2,700실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 2002년도 사업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런데 각 분야 조금 다 줄었어, 그래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단양교육장 채수병입니다.

그거는 다른 군도 똑 같습니다.

● 이충원 위원

똑같죠? 다른 시·군은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24페이지 이거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충주쪽에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수학교인데 공립특수학교 없거든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초등반 말씀이십니까?

● 이충원 위원

아니, 특수학교,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공립.....

● 이충원 위원

예, 사립은 뭐 저 천주교에서 하는 게 두 개 있는데 그 계획 없으세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 이충원 위원

이번에도 올렸는데 그게 짝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서부터 안 올리셨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학교 신설요?

● 이충원 위원

예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 이충원 위원

그거 제천으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사립, 거기 중등반이 사립에 있습니다. 있고.....

● 이충원 위원

글쎄 사립은 있는데 공립이 없어 가지

고 청주만 지금 몰려 있다고 그래서 아우성이거든요, 충주쪽 가보면은.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그러하고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 직영으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이제 지금은 고등부까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소관업무라고 해야될텐데 사실상 학교설립, 특수학교 설립은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 이충원 위원

충주쪽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충주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그 장애자들로 학교가 설립이 되거든요. 정서장애, 지체부자유자 뭐 이런 식으로 맹·농,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에 어떤 학교를 세운다 할 때에 맹·농, 어느 맹아가, 그 학교를 설립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학급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되어 있는 학교를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특수학교에 도 정원이 안차서 타 도에서도 대부분들

이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와서 취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엔 인구 비례에 비해서 특수학교 교육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대고 특수학교는 돈을 조금 더 달라, 이런 요구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저 알았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본청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지역교육청에 교육수장은 교육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설득을 하시는데, 민원 그 문서로도 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납득을 시키도록 아마 노력을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없어서 혹시 그게 계획이 없나 해서 여쭙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단양군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거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다 적어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국장님, 차 연도가지고 따지시지 마시고 그 노후정도 가지고 좀 (청취불능)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러서서 교육장님들 차량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몇 개 지역은 아마 교체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긴 다 빠졌네 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차량을 저희들이 5년이 내용연수로 돼 있고, 또 요새 한 1년을 더 타기 운동을 해서 1년이 경과되면 되는데 많은 지역교육장님들이 1년 이상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보은, 옥천, 영동하고 음성교육청 교육장님들 차만 교체해주는 걸로 예산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육장님들이 오래 타서 가지고 차량을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영상 그것을 일시에 모든 교육장도 다 바꿔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개 교육청 했으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좀더 연차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충족되도록 점차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사실은 똑같은 연수라도 청주하고 단양하고 다르거든요. 단양, 제천은 멀고 그래서 이거는 연도만 따지지 마시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아마 추경이라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예, 이상 다른 지역은 제가 여쭙볼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일환 위원

예, 지금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저는 질의 방법이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 참석하셔서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여하튼 저희 교육계만이라도 예산이나 시설이 이미 예고가 돼서 교실이 하나 예산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 컴퓨터를 바꾼다고 그러면 어디, 뭐 자동차를 바꾼다면 어느 차 이렇게 해서 투명한 그러한 예고제가 되는 그러한 재정운영이 되어 되겠다는 것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가서 사정해 볼 필요도 없고 서열이 짝 나와서 그렇게 공정하게 모든 교육청 예산이 집행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좀 확인하겠는데 몰라서 지금 기간제 교사가 일반기간제와 기간제가 정원기간제 따로 있습니까? 채수병 교육장님, 어떻게 돼 있는 거요, 일선에. 기간제가 그냥 기간제 그러면 기간제지 일반기간제, 정원결원기간제 이렇게 돼 있습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기간제 교원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에서

필요한 시기에 임용을 하는데 예고된 게 1년짜리들이 있습니다. 1년이 돼도 충원 못할 경우 그런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장기, 단기지 저는 예산서를 지역청이 아니라 본청에 예산을 두고서 일반기간제, 정원기간제, 그럼 뭐 급료나 이것도 똑같은데 무슨 구분이 있는가.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에서 차이가 오는 겁니다. T/O는 있는데 자원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3월 1일자 발령있는데.....

● 조일환 위원

그게 이제 정원기간제겠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일반기간제는 이제 뭐 산휴라든가, 이런 거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그래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는 대개 담임을 하죠, 기간제도.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그렇죠.

● 조일환 위원

그렇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전담제만 담임을 합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담임을 합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중·고등학교도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정원기간제, 그런데 중·고등학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정원이 T/O가 있는데 못 주는 경우는 없어요.

● 조일환 위원

없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자원이 있기 때문에.

● 조일환 위원

글쎄.....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그런데 산휴같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산휴 들어갔으면 후임 기간제가 두달이고 교장이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안시키는 경우도 있고.....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기간제 교사의 임기가 대충 근무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어떻게 돼요, 형태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그게 6개월 단위, 대개 1년 단위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를 모실 때 1년 있든, 2년 있든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계

속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계약이 있을 게 아니에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1년 단위입니다, 그거는.

● 조일환 위원

1년단위로.....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정원 그거는 1년이고, 산휴 이거는 이제 그 기간만.....

● 조일환 위원

그 기간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그 기간만입니다.

● 조일환 위원

1년을 계약할 때 거기에 무슨 퇴직금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산휴라든지 그런 게 다 계약이 돼 있나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게 다 되어 있습니까? 공히 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얼마주죠, 지금? 담임을 안 할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가 다 똑같죠?

● 중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단일호봉제니까 같다고 보는데 자세한 액수는 지금.....

● 조일환 위원

그런데 130 얼마죠?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136만원이고 지금까지 준거는, 금년엔 어떻게 세웠는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내년도 2002년도에는 163만 3,000원입니다.

● 조일환 위원

인상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10호봉 기준으로 163만 3,000원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하는 거지, 금년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되죠.

● 조일환 위원

인상을 한다, 그런데 10호봉 기준인데 10호봉이 더 되는 분도 무조건 10호봉, 덜되는 분도 10호봉.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아니 덜 되는 건 덜 주죠.

● 조일환 위원

덜 주지 않아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10호봉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산은 그렇게 세워나도.

● 조일환 위원

10호봉이면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데는 10호봉 미달이 더 많을 텐데.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아니 초임 호봉이 9호봉이에요.

● 조일환 위원

그럼 대개 10호봉 넘겠네요, 오히려 그지?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국장님 인상을 하는 거죠? 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나 이거 인상한다는 소리를 못들었다 말이지.

● 위원장 이상일

아니 그거는 집행청에서 저기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를 지금 일반 교사들의 호봉이 이제 인상되면은 일반 교원들도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기간제도 인상되는 것이지 그것만 별도로 인상하는 건 없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그럼 인상폭이 상당히 크잖아, 우리가 일반 교원들 7%입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아니 호봉이.....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봉급인상분이 7%인가 얼마죠? 인상분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전번에 알고 있기로는 한 단일 호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10호봉이면 10호봉 이렇게 주는 줄 알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조금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핵심원은 최고 14호봉까지가 14호봉 넘는 사람은 더 이상 안주고 14호봉만 주고, 그 다음 그 이하는 본인의 호봉, 그러니까 교직생활에서 호봉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진 것은 10호를 기준으로 그 금액의 일정한 인원을 정해 놓고서 실 지금은 자신의 호봉으로 하되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아마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나중에 예산 저거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까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 유치원·초·

중·고가 전부 다 단일호봉이죠, 유치원도?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질의 마치셨습니까?

● 조일환 위원

예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충주교육청 예산서에 486페이지 이 연 구시범학교 운영에서 평생교육중심학교 하고 평생교육선도학교 하고는 어떻게, 선도하고 중심하고 각각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중심학교는 이제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선도학교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러니까 충주에는 북부지역, 동부지역.....

● 송진하 위원

요 한 학교인데, 선도학교도 한 학교인데 1교.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한 교를 선

정을 합니다. 선도학교를. 그러니까 추천이 들어오면은 북부지역에서 들어온 학교, 남부지역에서 들어온 학교 중에서 선도학교를 주는데 중심학교 보다는 뭐 강도랄까, 추진 그게 조금은 알지요. 중심학교가 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학교입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뭐 나뉘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도 큰 예산도 아니고 합해서 좀 한 학교에 두 학교에 주는 예산 한 학교에 쥐가지고 좀 심도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중심학교는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보면 시설이 좋은 학교, 또 교직원 조적이 좋은 학교, 이런데서 이제 중심학교를, 선도학교는 그렇지 않은 외곽에 소규모학교 그런 데를 한 학교를 합니다.

● 송진하 위원

예, 교육장님 방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저희가 아니라 도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도 전체가 다 그래요, 다른 시·군도 다 그래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그런데 이 중심학교는 도 교육청 지정 학교를 중심학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범학교는 시·군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선도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도 지정 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교육청 별로 예산 배분할 때 도 지정은 예를 들어서 여기 평생교육 같으면은 지역교육청별로 한 개씩 한다면은 그 예산만 미리 다 쪼개주고 학교의 선정은 3월 1일 이후에 이제 대상 그 전에 하든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학교 선정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평생교육중심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한개씩 하고 선도학교는 도내 전체에 한 두 개만 따로 별도로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드리고 평생체육과에서 아마 이걸 지정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여기 저 평생체육과에서 나온 회계설명 자료에 잠깐 요걸 읽어드리면은.....

● 송진하 위원

아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하고 선도하고 그것도 애매하고 또 물론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여기 이리니칸 예산이 200만원, 150만원인데 너무 적으니까 그만 두 학교 하는 거를 한 학교에서 쓰면은 예산도 좀 넉넉히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교육장님이 그런 뜻이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충주교육청이죠, 거기 보면은 민간경상이전인데 그 무선봉사대지원 30만원은 뭐니까? 무선봉사대에 뭘 지원하는 거예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이게 인제 우리 충주에는 해병전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축이 돼 갖고서 민간인들이 야간에 우리 학교하고는 별도로 선생님들하고는 별도로 교외지도를 합니다. 무선봉사대라고 아주 있어요. 그래 거기에 저희들이 3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 송진하 위원

저기 국장님, 그 각 시·군에 해병전우회가 있거든요.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충주에서는 이런 거는 적절한 지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야간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조금 도와주면은 학생선도활동도 할거란 말이여, 그

런데 다른 시·군도 조금씩 도와 주어가지고 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며칠 있다 대학 수능고사가 있을 때는 한 3,4일 전후 3,4일 그 사람들이 아주 철야해 줘요.

● 송진하 위원

그 사람들이 기동력도 있어요. 기동력도 있고 해 가지고 군내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생활, 밤새도록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도와줘서 얼마나 효과를 얻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교외생활지도선도위원회 지원에 이 충주에서는 그 고등학교로 준다고 이렇게 얘길했는데 충주에는 1,000만원 얼마를 세웠는데 여기는 120만원 나왔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예, 저희들은 우선 지역이 충주만 못하고 그런데 충주하고 비교할 것 없이 우리 충주만 얘길하는데 이게 지역교육청은 초·중을 관할하는데 돈은 고등학교로 가더라도 혜택은 초·중학교 아이들이 더 봅니다, 교외생활지도에. 고등학교 애들은 자기 방어능력도 있고 별로 피해를 안 보는데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서는 월 10만원 단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외생활지도 나가는 사람들은 중학교 선생님들도 나가거든요.

● 송진하 위원

청주하고 충주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 송진하 위원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1,000만원 이런데 120만원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준다면은.....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런 문제도 비등하게 어느 정도 비등하게 줘야하고, 특히 무선봉사대 지원 문제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 자기들끼리 시·군별로 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다 알거란 말이요. 충주에서는 이렇게 우리 지원해 준다, 그런데 다른 데선 안해준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거란 말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천, 560페이지 학교회계전 출금인데 제일 위예요. 화학공업모형연구 운영이 됩니?, 라면, 거기 100만원 줘가지고 화학공업모형연구운영.

● 제천교육청 교육장 홍훈표

요거는 저희들 제천에는 학생과학관이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시·군에 다 있지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홍훈표

예, 그 학생과학관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 송진하 위원

과학관요, 그럼 화학공업모형은 뭐예요? 화학공업모형이.

● 제천교육청 교육장 홍훈표

화학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작한다든지 무선하는 것.

● 송진하 위원

연구, 연구운영, 글썽 지역에서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이죠, 단양교육청은 거기 964페이지 단양교육청 거기 저 관서운영비에 문단은 학교 시설관리용품 해 가지고 140만원하고 그 뒷장에 보면 또 문단은 학교 건물 철거해 가지고 581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문단은 학교가 폐교학교죠?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예

● 송진하 위원

거기 그래 뭐를 관리용품이 뭐가 있어요, 줘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예,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관리를 하

기 위한 것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폐교 중의 일부가 도개될 우려가 있는 것 그걸 철거하는 겁니다. 학교를 대면 도담초등학교입니다.

● 송진하 위원

도담초등학교.....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예, 뒤에 관리를.....

● 송진하 위원

그 이게 문제여, 팔아먹어야지, 안 팔아먹고 가지고 있으면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고 관리비 줘야 하고, 그러니까 안 팔아먹고 놔두면은 앞으로 이게 문제라고, 교육예산 얼마나 잡아먹습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예, 단양교육청 채수병입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총 16개교가 지금 폐교된 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각을 뭐 열심히 권유하고 해서 저희들 지금 2개 학교는 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임대도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 학교만 임대가 안되고 나머지 전부 임대시켰습니다. 그게 도담초등학교, 적성초등학교, 뭐 그 3개가 있는데 요거는 그 중에서 그 임대 안된 학교 중에서 관리사가 무너지면서.....

● 송진하 위원

저기요, 요번 행정감사에서 분교장 매각문제를 내가 거론을 했는데 안 팔리는 문제는 교육장님이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팔려고 그러냐, 그 팔아봐야 돈 매도금이 자기 지역으로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면 뭐 팔아먹고 돈도 어찌 한푼도 안 들어오느냐, 옛날에 우리가 기부했는데 왜 뭐 못하느냐, 언성이 많으니까 언성 안 들으려고 안 팔려고 그러, 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할거여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과감히 팔고 아마 도에서도 폐교 매도금이 몇 %로는 지역교육청으로 할애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팔아서 더 투자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교육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금년도 시설비 집행잔액 가지고 아마 사업계획을 계획하시는데 한 5억 정도 집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 적절히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전부 교육청에서 입찰 해가지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할 것인가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집행잔액을 쓰다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 송진하 위원

그 남아서 잘 하는거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차금**

저희들은 묶어서 동일 사업이면은 이 학교, 이 학교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 3,000만원, 이쪽에 4,000만원이면 합쳐서 7,000만원 해서 그걸 공개 입찰을 하는데.....

● **송진하 위원**

포장을 A라는 학교도 하고, B라는 학교도 하고 하면은 포장을 하는 것 묶어 가지고 이쪽에도 한다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차금**

예, 노은초등학교 하고 충일중학교를 요번에 묶어서 공개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런데 사업상 그렇게 묶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 수의계약을 하는데 교육장님이 다 하실려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차금**

이제 그렇게 학교에다가 돈을 줘서 학교에서 이제 집행을 하게 합니다.

● **송진하 위원**

아주 주세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차금**

그럼 소액은 전부 학교에서 합니다.

● **송진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교육장님이 수의계약 다 했어요. 100만원자리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장 중심 학교경영,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래 교장한테 하나도 사업도 안주고 이걸 충주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내 전체요. 그래 무슨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이 되겠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지금 예산 집행해 가지고 남은 것 충주교육청에는 아주 필요한 데 잘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했다면은 집행하는 것도 꼭 기술분야의 문제라든가, 꼭 교육장님이 해야만 그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런 거를 빼놓고는 과감하게 교장한테 줘 가지고 교장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교육장님은 그래 내가 이렇게 적절히 봤는데 이게 잘 집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지도·감독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차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아주 과감히 주세요. 그래야 교장도 일할 맛도 나는 거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이 우리 학교에 이런 거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학교 운영위원들 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우리 학교 누가 그런 업자가 있는데 그거 뭐 염가로 해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염가로 할 수 있는거고, 이게 교육의 활성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주 충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내 전체가 수의계약 교육장님 하지 마세요, 왜 해, 학교로 주지, 학교로 딱 쥐가지고 좀 하도록 하고 잘잘못은 따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릴까요?

학교회계가 생기고 나서 사실상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청으로 배정된 금액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상경비라고 해서 그건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되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는 지금 도교육비 특별회계가 동등한 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에 대한 출납원이거든요. 그래서 일상경비는 일단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교육장님 책임하에 쓸 수 있는 돈이고, 학교회계는 학교장 책임하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계가 구분 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애초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어넣어서 학교회계에서 예산이 짜여져 갖고 학교회계 내에서 성립도 되고 집행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명년도에도 저희들이 학교전출금 편성 항목별로 나열해서 그런 것들 일단 학교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학교회계하고 어떤 목적사업비로 여러 가지 하는게 있는데 그 목적사업비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 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1,000만원 이하는 교장한테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환해서 학교회계에 들어가서 예산이 짜여진 부분만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게 되겠고.....

● 송진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학교회계로 집어 넣어야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학교장 중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동감을 했고 과거도 그렇게 됐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학교회계라는 것은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지금은 지역교육장님 가화시켜 줘야 될 그런 처지가 됐습

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학교기본경비는 뭐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학교장이 하는 거지만, 그외에 그 당해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조금씩 주는 것 소액은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의문나는 점만 질의 드릴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497페이지에 시설부대비라고 1,622백 22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비.

●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예, 거기에 예산서에 보시면 이제 각종 시설사업을 하시면 당초에 예기치 못한 부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남산학교 강당을 짓는데 12억짜리 강당을 지었는데 그걸 짐으로써 그 근처에 있던 기존의 포장돼 있는 요인트로킹 같은 게 파손된다든가 다시 씌

워야 되는거 예기치 않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시설부대비 세웠다가 그걸로다가 충당을 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예비비 성격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거기 시설부대비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시설부대비 나오기 전 시설비가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밑으로 정해진 건데 그위에 시설을 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출장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위에서 예상되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죠.

● 간사 이기수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규모나 이런 것은 전체예산에 본예산에 온 규모라든지 그게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시설비에 일정한 비율로 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렇게 돼 있죠? 만약 몇억짜리는 얼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몇 % 이렇게 정해서 쓸 수 있도록.....

● **간사 이기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덩그러니 그것만 나와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를 알기 위해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위에 공사에 대한 얘기에 교원 사무보조원 인건비는 학교규모가 조그만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 이제 그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보조하는 겁니까? 교원사무 506페이지.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사무보조원은 예가 이런 겁니다, 과학 선생님들 실험할 때 보조해 주는 실험보조원 그런 성격입니다.

● **간사 이기수**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원사무보조원 인건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게 명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교육청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40% 향후에 30퍼센트씩 3년간 걸쳐서 완성하는 겁니다.

2002년도 40%, 2003년도에 30%, 2004년도에 30%, 이래서 100% 전학교에 사무보조원을 배치하는데 교무실에 배치해서 선생님들 잡무를 경감시켜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전액 다 자체 자원입니다, 저희들 자체자원이고, 내년도에는 2002년도에 초등학교 17학급 이하, 중학교는 3학급 이하 교무보조원을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거 작은 학교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행정실이 없는 학교인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이게 저기 큰 학교들은 대개 다들 육성회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 다 포함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그 일용잡급을 써 가지고 교무실보조를 쓰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한 것은 소규모학교 쪽으로 갔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교원사무보조원에 대한 자격요건 같은 것도 규정하지 않고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기능직들하고 구별이 잘 안될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대우가 어떻습니까? 666만 1,000원인가, 그럼 한달에 66만원 되는 것 같은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이것도 일당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당 적다고 이충원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같습니다. 하루에 2만 2,000원씩 해서 284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바쁘시니까 뭐 심지어 기안까지도 도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임용하는 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사람을 두기 위한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사람을 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쓸까 하는 것은 교무보조를 할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되겠죠. 그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임용을 하실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학교에서 임용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쪽에서 도나 이런쪽에서 아마 지침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이기수

기간이라든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간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격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내려줄 그런.....

● 간사 이기수

그 어떻게 잘못 보면 말입니다 기능직하고 업무가 오바로핑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이제 대학에 조교 비슷하게 교수, 그러니까 외부활동이나 교수활동을 도와주는 조교수 성격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능직 학교의 기능직하고 그래서, 이거 구분을 잘해 갖고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교무실 보조입니다, 교무실 보조.

● 간사 이기수

그리고 교육장님, 특색사업 설명에서 말입니다. 여기 저 충주교육청 교과특별 교실운영 이렇게 돼 가지고서 외국어교실은 초등에 2과목, 중등에 4과목 운영하고 컴퓨터교실도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이게 특별교실이라고 해 가지고서 잘못된다든지 하면은 학생들한테 우열반 편성해 갖고서 저 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열등반이다, 그게 잘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겠고 해 갖고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특별교

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그거는 매 학교마다 주는 게 아니고 가
야금 같은 경우는 탄금초등학교에 이제
특별교실을 운영하고.....

● **간사 이기수**

예, 예. 아니 영어에 2과목이 초등의 2
과목하고, 중등의 4과목하고, 컴퓨터도
뭐 초·중학교 40명 70시간이하 2회 운영
한다든지, 특색사업 중에 들어 있는 것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컴퓨터교실은 우리 과학관에다가
두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
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어 특별교실도
충주중학교에 두어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
고 있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그 학교에서 이제 희망자들, 희망자들
받아 가지고 방과후에.....

● **간사 이기수**

그러면 특기·적성교육하고 무슨 구별
이 있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영재교육 차원입니다, 이거는. 각 학교
마다 그런 시설이 다 안되어 있으니까.

● **간사 이기수**

그래 이제 뭘니까, 결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약간의 무슨 뭐 소모성 경비
이런 거는 이제 수익자 부담이 될 수 있
겠죠. 예산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 그럼 제천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
다.

549페이지 말입니다, 요즈음 이제 7차
교육과정 교재·교구 구입비라고 해 가지
고서 말입니다 220만원씩 22개교를 했는
데 7차 교육과정교재교구는 어찌 특별히
주는 겁니까, 제천교육청에,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요거는 관리과장한테 답변을 대신하겠
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 예.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입니다.
7차 교육과정 교재·교구는 소프트웨어
하고 교구가 있습니다. 요거 실물화상기
교재·교구로다가 제작돼 있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그 지금 6차 교육과정하고 7차
교육과정하고 같은 7차 교육과정은 실물

화상기라든지, 이런 교재·교구 이것이 6차하고, 7차하고 구별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그건 아니구요,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달은, 7차 교육과정 교재·교구고 요새 초등학교는 열린교육 위주로다가 교육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재료로다가 구입을 해드리고 또.....

● 간사 이기수

아니 그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열린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까지도 열린교육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또 열린교육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열린교육 하지 말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용어까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7차 교육과정이 지금.....

● 간사 이기수

글쎄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단양교육장 채수병입니다.

그 저희들 군에도 잡혀있습니다만은 지금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는 7차 교육과정이 작업해서 들어가서 그 교재·교구가 전부 구입돼 있습니다. 보급되는데, 요거

는 5,6학년도 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실지로 6차에서 쓰는 거나 7차에서 쓰는 거나 같은 얘기죠, 이게.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예, 대체적으로 그 뭐 하드웨어쪽은 같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하드웨어쪽은 물론 그거 이용해서 하는데 소프트웨어쪽입니다, 거의.

● 간사 이기수

소프트웨어 쪽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예

● 간사 이기수

550페이지에 문답은 학교 위탁관리 해서 6학교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64만원 정도 이렇게 해 났는데 제천교육청에서는 문답은 학교 관리를 다임대되고 여섯 학교밖에 안 남은 겁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홍훈표

제천교육장입니다.

15개 학교가 폐교가 돼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학교는 임대 내지 매각이 9개 학교고요, 지금 학교관리로 위탁돼 있는 6개 학교입니다.

● 간사 이기수

이거는 그러면 지금 매각하려는 시도는

안 해봤습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 간사 이기수

되도록 매각해 가지고서.....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교통이 좋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주 오지고 교통이 불편해서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554페이지에 그 일반운영비에서 원어민수업운영이라고 해서 교재하고 용품이 있습니다. 교재는 만원씩 해 갖고서 300부 해 가지고서 이제 3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용품은 이게 뭐 30만원씩해서 1회인데 이건 뭐 무슨 얘기고, 여기서 원어민 수업을 하는데 무슨 용품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지금 저희 교육청에 원어민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포가 한사람 와 있습니다. 지금 제천여중에 그 지정학교를 하고 제천중학교하고 같이 공동제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원어민의 사무용품비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 간사 이기수

30만원?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예

● 간사 이기수

무얼 구입하는 것이 30만원이 됐죠?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우리 일선 선생님들 이동하시면은 뭐 사무용품 이제.....

● 간사 이기수

책상이니 의자니 뭐 이런 거 주는 거?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예, 그 기본경비가 금액은 나왔습니다. 이 원어민 수업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발간 자료를 300부 만드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300부는 책인데 이제 어떻게 사무용품이 원어민이 쓰는가.....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예,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게 뭐 랩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 들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텐데 그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후레쉬카드나 (청취불능)카드나 이런 거 일회용으로 쓰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별도로다

예산 확보를 한 걸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원어민 수업운영에서 교재는 이게 그야 뭐 원어민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만든 교재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영어교육은 뭐여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뭐니까, 교재 만드는데 수없는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회화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말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온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KBS라든지 이런 데서 그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것들이 이분들이 혼자 와 가지고서 교재를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서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수익자 부담 해서 학생들이 사야 될 문제일텐데 교재, 교재도 그러면 해서 주느냐.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그 중심학교에서 관리를 하고요, 중심학교에서 같이 공동 제작을 해서 작년에는 이제 이 원어민 수업 운영에 대한 것이 없던 것이 금년에 요건 세워졌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곧 교수-학습자료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관내 학교에 이제 보급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562페이지 한번 다시 봅시다.

학교회계인건비부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공립학교입니까? 이게 세 학교가 돼 있어요, 400명씩 세 학교 줬는데.....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학교 관내에 소규모 중학교가 있습니다. 한송중학교, 덕산중학교, 수산중학교. 거기 이제 큰 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할 수 없는 학교 벽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세 학교에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 **간사 이기수**

세 학교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예, 한송중학교, 수산중학교, 덕산중학교입니다.

● **간사 이기수**

글쎄 이게 지금 조그만 학교일수록 이게 더 쥐 갖고서 제대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도 부족해 갖고서 이게 세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큰 학교에서요, 큰 학교는 선생님들이 학교운영지원회계에서 5만 5,000원씩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교원

연구비로. 그런데 지금 작은 학교는 운영비 같은 거 지금 한송중학교 같은 데는 안 받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 보조를 해서 교원연구비로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단양교육장 채수병입니다.

그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 개 학교 그렇게 주는데 그 거뒀 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과거에 육성회수당을 주던 게 있습니다. 그 육성회 수당, 육성회비를 다 걷어도 그 수당을 못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육성회비가 부족해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간사 이기수

특별하게 주는 거죠, 학생수가 부족해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것이 학교에 흡수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이 부족한 학교 자금을 따져서 부족한 학교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알았어요.

그 566페이지 장서를 만원씩 해서 2,000권을 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도서관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도서확보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도서확보율, 제천도서관.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저희들이 지금 22만 권이 있습니다, 학생회관에. 그런데 그 경비는 지금 파손되는 것, 그런 다음에 신간도서 구입 이런 것으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 간사 이기수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의 책을 산다면 도서 확보율이 100%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확보율은 거의 100%입니다.

● 간사 이기수

579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만 4,000원 해서 9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도 같으면 과 단위, 지역교육청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직원들 한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이걸 책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저 뭘니까, 후생 쪽으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1인당 뭐 1년에 두당 한사람당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정해서 아마 한 사람당 단가가 인원수에 따라 조금 틀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직원수에 따라서 말씀드린 단가 대로 책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결국은 그 분들한테 이게 준다든지 하계끔 9명만 있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대략 직원체육을 한다든지, 어디 직원소품을 간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복지후생비로다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사기양양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 간사 이기수

아니고, 예, 예.

단양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이상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교육장님 941페이지에 식품비에서

농촌형은 200원을 가지고서 학생수로 220일을 곱하고 벽지형은 단가 600원으로 해서 곱해서 산출했거든요. 식품비, 이게 저 뭘니까, 급식에 대한 그 비용을 농촌하고 벽지하고 구분한 겁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단양교육장 채수병입니다.

그거는 식품비 보조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보조해 주도록.

● 간사 이기수

대개 그건 농촌하고 벽지는 단양교육청 같은데든지 또는 농촌 같은 경우 대부분 구분이 돼 있습니까, 벽지 있고, 농촌 있고?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다 돼 있죠.

● 간사 이기수

어느 학교, 어느 학교는 벽지형이고, 어느 학교, 어느 학교는 농촌형이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965페이지에 기강감사라고 해 갖고서 이게 뭘니까, 군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감사를 보내시는 분들에 대한 여부입니까, 그건?

●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청, 지금 도내에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가 3개 있습니다. 청원에 하나 있고, 진천에 하나 있고, 충주에 앙성이 있죠. 그런데 그 규정이 대개 9학급 미만은 기본경비를 표준교육비에 80%만 지급하게 돼 있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예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대개 구형 학교는 그거 가지고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는 시설규모가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유지가 되는지, 유지가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지원금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 **충주교육청 교육장 엄창흠**

저희들이 사실은 그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거에 대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은 지금 하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런 대책

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저희 수준에서.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저기 본청에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농촌형 시범학교에 대하여 돈을 더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

● **위원장 이상일**

예, 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가로 더 지원해 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원인이 사실은 무슨 교과지도 하고 그런 데 대한 부족이 아니라 학교 시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상일**

시설 유지관리.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냉난방 집중 냉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1,500만원씩 더 농촌시범학교 더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저기 세 개 학교는 별도로 1,500만원씩 추가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위원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폐교관리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왔는데 뭐 지금 3개 교육청 외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매각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고 그런 데는 이제 폐교를 유지관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 그건 거기다 보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된 모양인데 글썽 사람이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하고 이상하게 관리를 안하면 쉽게 무너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낙엽 같은 게 쌓여서 배수가 안되게 썩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폐교한 학교라도 약간의 건물유지보수비를 들여서 그 건물을 유지하면은 나중에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임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쓸만한 건물이 2,3년 방치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폐교학교 관리에 새로운 어떤 지침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가 임대가 되지 않고 순수하게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6개 학교가 있는데 참 이것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

니다.

저희들 각 시·군 교육장님들이 계속 관보에 매각하려고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매각 공고를 계속 나가는데도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지에 있거나 아니면 시설의 필요성이 상당히 그 열악하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또 임대도 안되고 그래서 부득이 1개 학교당 월 12만원 정도에 관리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겨우 현상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리인을 하나 두어 가지고 막말로 그 기구를 부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건물이라는 것이 사용을 안하면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흉물스럽고 또 노후도가 강하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상 폐교재산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본 건물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우선 땀방이라도 우선 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또 한가지 이걸 일선 교육청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치원도 앞으로 공교육화 할 계획으로 있죠, 정부에서. 그런데 그 일반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부설 유치원이 운동장도 넓고 자기 형이나 누나들 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데 사립유치원처럼 스쿨버스, 그게 없어서 참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공립 유치원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그 유치원에 원아용 버스를 도입하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참 잘 지어놓고 그것만 이게 해결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현재 저희 5세 미만의 유아 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그 지원을 해 줄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대상수가 많고 또 그 학생들이 사학의 의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학의 경우 같으면은 이제 완전 수익자 부담으로 현재 해 왔기 때문에 그 버스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가중되더라도 그것이 일반화 돼 있었는데 사실 공교육 쪽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 유치원학생들에 대

해서는, 유치원 학생들만 볼 때는 그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보다 통근버스 대책 같은 게 미비하고, 또 본교에 있는 것을 거의 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본교에 버스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버스가 없으면 거의 사용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 사정상 공립유치원의 학생들을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를 단독으로 구입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국장 회의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있게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 권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주, 제천, 단양교육청 교육장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 제천, 단양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지역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지역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한 후 진천, 괴산, 음성교육청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보고(별첨 2)

(끝에 실음)

답변하시는 교육청 관계관계서는 회의 기록을 위하여 답변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청에서 제가 잠깐 여쭙 봤는데요, 청원교육청 이 두꺼운 거 이거 여기 6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지금 액수가 그 난방개선비 있죠? 교육장님. 지금 73개 실이죠, 73실인데, 청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못 여쭙 봤어요, 총체적으로 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제가 여쭙보는 건데 지금 현장에 제가 방문했고 또 이 분야의 분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지금 난방만이거든요. 그렇죠? 난방인데, 앞으로 냉방도 함께 하여야 할 시기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냉난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은 훨씬 경비가 덜 들텐데 곧 올 건데 이걸 우선 뭐 여러 학교를 해 주려니까 우선 난방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한전 쪽으로 물어보니까요 곧 각 학교에서 한 난방 있잖아요, 그게 용량 초과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뜯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 처음에 이거를 본청 요구하실 때에 난방만 한다고 그래서 73실을 넣은게 아닌가, 그렇지 아니면 냉난방 다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요것만 넣은 건가. 지금 교육장님 아시다시피 이쪽 분야에 우리 교육청 산하에 기술분야에 있으신 분 봐도 기왕 하려면 냉난방 다 해야 하는데 말야 우리는 그럴 수 없고 윗 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위에다가 말씀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물어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거

나 그랬더니 다 뜯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건 그래서 어느 쪽에서 지금 청원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위에서 금년은 난방만 해서 얼마만큼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예, 저희들 청원교육청 자체에서 난방 시설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우선 난방만 요구를 했다. 예, 제가 경기도 지역에 이 분야 학교 계통에다가 물어 보니까 경기도는 이런 난방만 안 하는데, 조금씩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난방만 하느냐, 그래서 충청북도 는 지금 보니까 제일과제라고, 저는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데 타 시·도는 잘 알 대요, 전부 이 난방 제일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는건지. 그러면 제가 알았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난방 때문에 그러신가요?

● 이충원 위원

아니 난방만 요구한거냐, 냉난방 다 요구했는데 요것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요전에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하다 말았는데요. 사실 냉방까지는 지금 거의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지난 해에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당시 교육부로였던가,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냉방도 해야 된다고, 그것이 그 피부에 와 닿는 교육현장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냐 이래서, 회의 때 일부 비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냉방시설에 시설비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름 한철이 내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선풍기를 천장에다 몇 개씩 학교에다 달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냉방까지는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지금 보은 여기 안계시죠?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께 직영을 넘기려고 그러는데 우선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보은교육청에 보면은 662페이지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662페이지, 이 돈을 가지고서 확실히 살 수 있는거죠, 요거.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 이충원 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작년에 진천보니까, 작년인가, 제가 그 결산검사 할 때 보면 진천농고에 토지 산다고 그래 놓고 이월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나 한번 여쭙보는 거예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자투리땅이에요.

● 이충원 위원

자투리땅이죠, 크질 않은 거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이게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결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전 뭐 다른 교육청 거는 그렇게 저기한 게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조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전 아까 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녹음을 하나 해 놓으면 편한데 똑같은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새로 오신 분은 처음 듣는 건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잘 못하고 계신다 이거보다는 주마가편이라고 그러니까, 금상첨화라고 그러니까, 보

다 좀 나은 지금 난방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교육이 정말 백년대계 대계하면서도 교육현장의 모든 행정이나 또는 시설이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먹고 나오는데 송진하 위원님께서 뒤에 골목 좁은데 얼마나 좁아요. 차가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선이 사범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이렇게 넓어서 뭐에 쓸거냐고 모두들 반대했는데 거예요. 근데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어쩌냐 이 말이죠. 저는 그때 청원교육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설, 저기 저쪽에 이제 새로 무슨 단지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학교를 짓느라고 제가 한번 가서 그때 여자 시설계장인가, 그 분이 안내해서 가보니까, 그 건물에는 램이 깔리고 앞으로에 더 깔릴 것, 또는 난방이 다시 들어올 것, 냉방이 들어올 것, 이걸 해 가지고 그 옆으로 닥터를 죽 해 놔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그전에 전기불 없었던 전기를 놓으니 벽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천장에 노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미리 준비했더라고 미리. 그래 지금 10년 후에 20년 후에 학교에 시설의 구조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 지금 난방 문제도 상당히 문제지만 냉방이 그 못지 않은 게 뭘니까, 10년전보다도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평균기온이 우리 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왔다. 다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에서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넘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육청 예산만이라도 시설, 특히 예산이 필요로 하는 시설, 이런 문제는 서열이 짝 되어 있어가지고 청원교육청에 교실이 10칸 배당해 왔어 무슨 시설이 다목적이 왔어 하면 그 예고가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선정할 필요도 없어요. 탁탁 이렇게 나가면은 얼마나 투명하고 좋아요. 실컷 돈 들여 해 놓고서도 뒤에 구설수 나오고, 우리가 공개행정, 투명행정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제도가 정착이 안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가능하면은 3년이 안되면 1년이라도 내가 교육장으로 이걸 해 봤더니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자 난방을 개선하면 여기부터야 여기부터, 서열을 매긴다든가, 대단히 어렵죠. 해서 그런 열린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사 어느 학운위 위원장이 내가 가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시설 얼마 따왔어 이런 얘기는 곧 뭘 말합니까, 우리 교권이 그야말로 그 순간 수세미가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 올렸습니지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설문 조사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학생들한테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생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부럽고 제일 희망하

는 직업이 교직이다 이거여, 교사. 그런데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교사는 빵점이다, 꼴지어, 꼴지. 이게 바로 왜 그러느냐 우리 교육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존경을 못 받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작게는 요런 거에서도 문제가 안되겠느냐, 교장 선생님이 교장회의하고 학교에 바로 못가시고 여기저기 가서 뭐래도 좀 부탁이나 해 보실까, 그런 일은 없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직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사가 교실을 박차고 철야농성을 하고 교실을 비워? 이거는 도저히 교사 스스로 권위를 짓밟는 거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 같습니다 다만은 저는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는 언제든지 감동, 앨빈토플러가 말한 대로 권력의 이동을 물리적인 권력에서 경제적인 권력으로 경제적인 권력에서 소위 신지식 사회의 권력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갈 거는 감동의 권력으로 감동을 해서 상대방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다, 충북대학 교수가 쓴 논설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교육제도 그렇게 돼야지, 억지로 성과금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정말로 아파트 주민 잠 못자게 하면서 그런 농성을 하는 이러한 교육의 현실을 저는 대단히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비탄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행정 하신 일선의 정말 교육장님들의 그 중책이 막대하다, 막대하다. 정말 허리띠 아십니까, 정말 등뼈 아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 교육청을 전체를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때에도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수의계약.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실리도 없습니다. 만은 아직도 수의계약 문제가 학교장 중심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개입찰한 거는 상인들 말이 깨지고 수의계약이 어수룩해여,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공정하게 교장 선생님 알아서 해 보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은 장기적이어야 되겠다. 지금 심야전기를 난방에만 신경을 쓴다, 우리 과장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을 만들고 닥터를 만들어 놓으면 충열식 냉방을 하면 일반 냉방에 3분의 1도 운영비가 안 들어요. 시설도 애초에 그런 구조로만 만들면

나중에 뭐 하더라도 시설비가 3분의 1밖에 안 듭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제가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충열식 냉방이 좋다고 해보려고 했더니 보통 그냥 있으면 한 4,000만원이면 될 걸 1억 5,000 들어간다 이거요. 그 래 미리 준비를 해 뒀으면 그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시설이나 이런 것도 50년 앞을 내다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의 효율성 있게 이걸 집행해야 된다.

먼저 번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나 한다, 수질검사를. 4회만 해라, A나, B나, C나, 다 4회입니다. 이게 위생검사나 수질검사 불량률 C지역이 더 많아 C지역이, 수질검사 해요, 어, 44종하면 되고 8종하면 되여, 그 중에 하나 44종 하고 3회 8종 하면 되지. 똑같이 하더라도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수질 검사 왜 합니까, 아이들 더러운 물먹지 말고 위생, 식중독 하지 말고 전염병 방지, 그런데 어느 학교에 물어봐도 어디서 물을 뺐느냐, 물 나오는데 가서 물을 조르듯 떠 가지고 소독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 이거여. 그런데 그 학교서 왜 식중독 사고가 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이 상수도관을 통해서 급수대나 급식소까지 교

무실에 들어오는데는 이미 오염 됐을 거다. 작은 일을 8만 2,950원을 들여서 44종을 하더라도 여기 먹는데 물을 갖다가 최소한의, 이거 정말로 제대로 된거다, 저기서 한 것 잘 못하면 헛돈 내보낸다. 작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검사하는 시기도 3월, 6월, 9월, 11월, 어디나 똑같아요. 농촌이 다를 것이고, 시기도 다르죠. 장마가 많이 쏟아지는 지역 다르고 가뭄이 많이 있던 지역이 달라야 됩니다. 아이들이 3월 이후에 오니까 실컷 먹여놓고 3월달에 가서 중순쯤 가서 3월 15일, 25일 이때 가서, 이미 그럼 아이들이 그때 가서 불량식수 이미 나쁜 물을 먹었다 이거여. 기왕에 돈을 들이려면 겨울 갈수기 아이들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검사해서, 응 입학식 있지, 아이들 검사 끝나고 오지, 아, 물 먹는 거 깨끗해, 괜찮어 확인했어 하는 것보다도 먹인 다음에 확인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냐. 또 44종과 8종은 뭘니까, 이거는 약식이고 이거는 세밀 검사입니다. 정밀검사를 맨 먼저 앞에 해야 되는데 한 참 먹이다 봐서 정밀검사를 해서 문제가 돼, 이것도 8만 2,950원을 언제 투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냐. 제가 정말 이번에 식수만은 4개 교육청 본청에서도 확답을 받았습시다. 4회 이상이면 꼭 그래 4회냐, A도 4회고, B도 4회다 말여, 결단 난 데만 또 이걸 할 거

냐. 보은지역에 이번에 홍수가 왔어 다른 데 보다 거긴 바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 한다. 똑같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우리가 행정편의 입장에서 집행을 하느냐, 학생들 교육을 주로 하느냐, 이런건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잘못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많습시다만은 작게 늘 교육을 하시면서도 거기까지 생각 안하시는 그런 교육자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또 서울시에서, 아 낄 일이 따로 있지 청주 시내에서 식중독 사고나 전염병도 제일 많다. 그 수천 명이 있는 학교에 보면은 지하수 쓰고 상수도를 쓴다, 이거여. 아 낄 일이 따로 있죠. 그 학교에 가보면은 상수도도 손 씻는 거고 지하수도 손씻는 거고 먹는 물만 이게 오염을 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면서도 학생교육의 위주로 우리는 해야겠다. 귀찮아도 방학때 나와서 해라, 이런 쪽으로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뭐 이 예산하고 다소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기간제 교사가 요즈음 같으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아이, 나 좀 없으면 불러주십시오, 그랬

죠? 요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정말 와서 다시 교단에 서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일선에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정말 우대해 줘야 된다 이거죠, 돈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보니까 130, 몇만원씩 주는데 예산에 166만원 나오고 거기 보니까 산재금, 연금 다 들어 있어요. 퇴직 뭐 다 들어있는데 여하튼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의 부실화를 막겠다면 기간제 교사가 상당한 문제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건 관심을 좀 써 주십시오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은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어떤 시설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교원을 개혁을 하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말입니다, 지금 시설을 지금 엉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35명이 꼭 그게 교육의 효과에 뭐에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OECD도 유럽 다르고 미국 다르고 우리 나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3년이나 당기는 바람에 이게 시설 없이 7차 교육과정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시설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급작히 막 하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지요. 정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메어 못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달, 네 달 늦더라도 제대로 공사해서 또 무슨 방수다 뭐다 이렇게 않게 정말 우리 집을 짓는다는, 시설문제에 요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고 이거를 하실 때에 저는 어느 정도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는 6개교실을 뜯어서 다시 짓는데 이만큼 주고 어디는 6개 교실을 00요만큼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선 안됩니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7차원이고, 어디는 8차원입니까. 똑같이 7차 교육과정을 하는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간에 그래도 기준은 맞춰주어야 한다, 기준은 그러면은 어디 지역은 많이 주니까 거긴 힘이 있어서 그런가봐 누가 있어서 그런가봐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 예산을 신청하실 때도 집행하실 때도 그런 투자의 형평성, 이런 걸 해 주시고, 교육청에선 예산을 일일이 왜 안 건드리느냐, 이 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럭저럭 몇 년 해 보니까 달라는 예산 다 못 주잖아요. 그렇죠? 다 못 받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편성을 하는걸 거기다 뭘 줄여라 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부 시행에 대해선 일체 말씀 안 드릴테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저 공감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충북 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지역교육장님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교육가족이 많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고, 또 학교에는 많이 해 주고 싶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데도 한정된 예산이라 다 못해주니까 마음 아프시고 또 지역행사도 엄청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 데 다 참석하시라 애쓰십니다. 그러나 의욕을 가지시고 일선학교를 좀 감싸줘서 교육에 활기를 띠도록 이렇게 좀 교육행정을 해 주시고, 교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감싸줘서 교권을 세우도록 최전방 소대장과 같은 위치에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질의를 해보겠습

니다.

604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학교회계전 출금인데 교원편의시설비품비가 1,000만원 있는데 그 비품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비품이 어떤 비품이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교원편의실을 두 칸을 마련하는 거예요. 교원들이 맘놓고 편의실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을 해 주려고요.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쉴 수 있는데 뭐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침대?

● 위원장 이상일

저기 답변하시는 관계관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그 여러 가지 교사들이 휴게 업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인데요, 요거는 학교장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비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시를.....

● 송진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교장이 선정을 해서 학교 교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 송진하 위원

예, 내 왜 이거를 질문하느냐 하면 중·고등학교는 교사들의 휴게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교과 담임이니까, 자기 교과수업 끝나면 어디로 가요, 휴게실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나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달라서 뭐 고학년이 되든 저학년이 되든 아침부터 생활을 선생하고 학생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쉬는 시간도 같이 해야하고, 수업시간도 같이 해야하고, 하루 종일 그 초등학교 어린이들 하고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 해야 해요. 쉬는 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애들은 교실에다 놔두고 휴게실에 와서 드러누워 있는 다는 거는 중학교에서는 좋지 않지만은 초등학교에서는 다시 생각할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라고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도 휴게실은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도 컨디션이 나쁘거나 하면 가서 드러누워 있어야 하고 또 어디 참 귀중하게 얘기할 상담할 손님이 오시면은 휴게실에 가서 두루 차도 나누면서 얘기도 해야 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라고 휴게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에 편의실 비품하고 중학교 비품하

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고등학교 같으면은 뭐 침대도 해 놓고 퇴근하면 드러누워 있는 것도 좋고 초등학교도 필요하지요. 해놓고 이 초등학교는 뭐 잠깐 가서 신다면은 어디 따끈한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고 뭐가 그 실정에 맞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교장이 알아서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건데 이게 지금 중학교는 탈의실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탈의실을 하고 있어요. 어디 청원군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는 탈의실 다 있어요? 여학생 탈의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여학생 탈의실, 학생용 탈의실은 다 되어있어요.

● 송진하 위원

다 있죠?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예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도 큰 애들은요 어디 나가면 숙녀 같아요. 초등학생으로 안 봅니다. 지금 그렇게 그 영양섭취를 잘 하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처녀같아요. 개네들이 어디 가서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교육장님께서 행정도 당국

에 건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도 해야 한다는 거를. 해야지, 더군다나 귀찮스러운 놈들 교실에서 여학생들 옷 벗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교보다도 초등학교가 더 여학생 탈의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교원 휴게실 두 개 있는 학교는 하나는 여학생 탈의실 해 가지고 5,6학년 여학생들 거가서 벗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 건 제고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현실에 맞는 그런한 시책 쪽으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선진국에서는 아마 초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탈의실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예, 공간이 많으니까요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 송진하 위원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거여, 다 컸는데 애들, 그건 고려해 주시고.....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초등학교 편의실.....

● 송진하 위원

탈의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아니 먼저 말씀하신 것, 그 비품관계는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교육장님이 잘 생각하시는거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뭐 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학교 실정에 맞게끔 자유롭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장이 필요한 거를 하도록, 그리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은교육청 647페이지 거기 보면은 제일 밑에 체육활동지원 해 가지고 체육관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달달이 20만원씩 12월달, 공공요금을 지원해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동광초등학교예요, 우리 교육청에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동광초등학교로 해서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을 거기서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2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가능합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오전에는 그 시·군에서 하는 체육 시설에다가 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 래 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역행사

가 학생 동원해 가지고 입장료 다 받으면
서 학생들 뭐 체육하는데도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학교끼리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교육장님들께서
우리가 지역에 주고 줬으면 지역으로부터
우리가 혜택받을 거는 강력히 해야 해당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그 뭔가 소
신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뭐 지역
행사 하면은 애들 동원해 가지고 뭐 말이
좋아 참석이지 동원이지 뭐 해 가지고 청
중이 모자라면 충원하고 돈이 모자라면
입장료 받고 하면서 그래 기초자치단체에
서 만든 그 시설에 애들 좀 이용한다고
이용료 받는다, 그러면 애길 해요. 왜 애
들은 지역주민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건
주지 말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셨
어요, 그건.

그 다음에 부지 매입한 것은 아까 말씀
을 하셔서 생략을 하고.

보은교육청 667페이지요, 거기 저 관서
운영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있는데
그 행정자료실에 구비할 도서인가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내 행정자
료실.

● 송진하 위원

그럼 대상은 누가 보는 거예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평생교육체육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도서관에다가 사주면 안돼요? 도서
관, 학교 뒤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
관을 사주면은 다른 사람도 보고 또 우리
도 가서 보고 서로 이용 가치가 있지 않
느냐. 행정자료실에 있는 거는 일반인은
못 보는데 도서관에다 주면은 거기도 보
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각 기관에 있는 행정자료실은 행정 수
행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참고자료집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
희들도 있습니다, 여기 행정자료실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필요한 도서가 있지만은 행정
자료실은 행정수행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모르는 것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
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 이건 뭐 그 사석에서
도 얘기가 됐던 건데 교육장님들 차를 바
꾸는 것 같은데 보은도 바꾸고 옥천도 바
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몇 CC짜리요, 이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2,000CC 급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

다.

● 송진하 위원

2000CC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또 지금 차량정수나 차량 배기량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교육장님들은 2000CC급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1,6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요것이 아마 배기량이 중형차 정도 해당되는 그 단가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이걸 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몇CC 이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지역 군 단위에 가면은 법원이나 검찰청이 없는 데는 3대 기관장이라 해 가지고 군수, 교육장, 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권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장님을 우대한다는 거를 떠나서 교육에 전체 교원의 사기를 보든지 그 수준이 비슷하게는 사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뭐 교육장님이 이거 사주시오, 얘기는 못하겠고 뭐 국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도 뿐만 아니라 모든 도가 그래 정부에서도 교원 우대정책을 써라, 교원 우대해라, 뭐 선생님 존중해라,

뭐 스승의날 뭐 합니까, 그거 말로만 그러면 뭐 하는 거. 그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장님 차가 그건 뭐 그런 그 1800CC니 이런 중형 소형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교원우대를 한다는 걸 실천으로 보여줘야 해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 사주는 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거를 집행청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운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좀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사실 그랜저 급이 지금 군수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 조사를 해 봤더니 16개 시·도 중에서 두 군데가 그랜저를 사준 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대다수가 다 소나타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회의가 있으면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옥천교육청 재산관리비에서 201-01,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 경계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매각하려고 그러는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몇 페이지요?

● 송진하 위원

720페이지

● 옥천교육청 교육장 정무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예요, 재산 필지가 불분명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 송진하 위원

예, 난 이거 아주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땅을 침범하면 침범하지, 이게 학교 땅이 좁아지면 좁아지지 넓어지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측량을 해서 분명히 우리 교육재산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역교육장님께서 과감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오랜 세월 흘러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옆집에서 침범해 가지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영동군수 관사는 시내에 있는데 관사를 나중에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무려 3.40평이 옆집에서 파고 들어왔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합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내 이

거 보고서, 아하 이거 필요하구나, 이게 모든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뺏긴다면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뭐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충분치 않은 예산가지고서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교육청은 보면 달리는 사랑의정보 교실운영 해 가지고서 특색사업 중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100만원 뭐 교재 제작비 150만원, 전산소모품구입비 250만원, 차량경비 100만원, 버스운영비 1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사랑의정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참 좋은 특색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인데 다른 교육청도 이거와 같은 특색사업들을 한번 해

붙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요즘도 뭐 정보화교육하는데 학생들 뭘니까, 컴퓨터실에 와 가지고서 연습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기동력 있게 움직여 갖고서 정보화교육을 더 틀리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5페이지에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던 사업 같은데 예쁜글씨자랑대회, 요새 그 학생들은 컴퓨터를 워드로 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글씨를 안 쓸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쓰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옛날에 신서판이라고 해서 글을 잘 쓰는 물론 글이라고 해가지고 글은 뭐 글씨를 예쁘게 쓰는 서예가도 있고, 문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글쪽으로 볼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 저 어렸을 때 글씨 같은 걸 잘 써버릇하고 서예라든지, 예쁜 글씨를 써버릇하면 평생 이익인데, 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내용 좀 잠깐 설명을 해 보시지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오래 전부터 한글 바로 쓰기라고 하는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발맞춰서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이 한글 창조 555주년이 되는 그런 해고, 또한 요즈음 많이 얘기되고 있는 사

이버 공간에서의 한글이 희박할 정도로 파괴 내지는 오염이 돼 있고 그래서 비문 비어와 같은 것이 난무하고 그래서 한글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군내 4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예쁜글씨대회를 하고 그 중에서 학교에서 우수하다고 뽑힌 학생들 저희 교육청에서 모아서 한 열흘 전에 이런 대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라 그럴까, 또 올바른 그 한글문화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 주기 위해서 시도를 한 그런 일이에요.

● 간사 이기수

아주 좋은 행사인데 앞으로 애국심도 고취하고 또 우리글을, 우리말을 사랑하게끔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고서 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인데 어떻습니까, 청원교육청은 조도문제는 어느 정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이번에 금년도에 빠진 학교는 전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조도개선, 학교별로다 예산책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중등은 81%가 개선이 됐고요, 초등은 약 70%로 돼 있는데 금년도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은교육청 648페이지에 교과용 도서무상지급 해 갖고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교과용 무상지급.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간사 이기수

전체?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 간사 이기수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한 개교에 50만원인데 재택지도자료 제작인데 이거 특수학교입니까, 몸이 아픈 애들입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그렇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서.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저 선생님이 가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불구라든지.....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기동을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 간사 이기수

여러 학생입니까? 그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지금 4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초·중학생입니다.

● 간사 이기수

초, 중학교 학생, 653페이지에 토지매입비인데요. 학교 지을려고 토지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653페이지.....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아곡분교하고 원남중학교 자투리땅 아까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땅이 95㎡하고 175㎡가 정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사가지고서 우리 학교 부지로 확정을 하도록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655페이지에 그 화장실 개선·보수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보은교육청 산하에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현재는 재래식 화장실은 하나도 없이 전부 개선이 다 됐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이 보수한다는 건 수세식인데도 뭔가 하자가 있는데 보수하는 거겠지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인데 7차 교육과정 지도자료라든지, 7차 교육과정 지도자료 원고료라든지, 또는 6차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예년에 교육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0부, 200부, 이렇게 죽 이렇게 돼가지고 원고도 다시 원고료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전체 교육청에서 물론 각 교육청마다 정서교육자료라든가, 이런건 전부 책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같은 교육자료 만약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671페이지에 있어요. 이 안에 보은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11개 교육청을 취합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부수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원고 1장 써 갖고서 대량 제작을 해 갖고서 보급을 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요거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7차 교육과정 중에서 시·군별이 아니면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분야가 좀 나옵니다. 그런 분야를 지금 현재 도 중에서도 예를 들면 도 단위 하면, 도 단위로 별도로 책이 도서가 나올 수 있고, 또 시·군 단위나 아니면 그거 보다 또 소규모적인 것 아니면 학교단위로다가 어떠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거는 아마 시·군 교육청에서 공동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국장님, 대개 이제 시·군별로 특색이 있는 것은 대개 이제 정서교육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교과과정이란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 같아가지 될거지, 이거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과정으로 나갈겁니다. 이거 뭐 7차 교육과정이란 얘기는 뭘 특정한 정서개발 교재를 개발하는게 아니고 뭐냐하면 7차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청취불능)을 때 정도에 따라가지고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대개 비슷한 과정이고 아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군별 특수한 정서교육자료 이것도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거 만약 청원교육의 특성에

대한 정서교육자료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이런 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원래 좀 이게 대개 비슷한 과정으로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그 7차 교육과정 지도자료 원고료라든가, 자료비는 도단위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도에서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드리는데 그 외에 빠지는 순수한 지역교육청 소관 내고장 알기를 위해서 배우는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그 자료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일정한 과목에 따라서는 도별로 틀릴뿐더러 또 소단위에 가서는 지역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 다음에는 옥천교육청요.

이제 여기도 100부씩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천교육청에는 그 뭘니까, 조도개선하고 소음방지 시설을 하고 난다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조도 미달학교 하고 소음에 문제되는 학교가 발생합니까, 금년예산에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정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교육청에서는 심야전기 난방은 64%가 돼 있고, 조도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도개선은 지금 금년에 삼양

초등학교에서 17실을 했고 중약초등학교 14.5실, 그리고 안내중학교 14실 해서 93%가 완료되고 나머지 7%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 간사 이기수

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금년 예산에...

...

● 옥천교육청 교육장 정무

금년에 한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금년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지요, 좀?

● 옥천교육청 교육장 정무

이게 금년까지 한 거고 나머지 7%가 내년도 예산입니다.

● 간사 이기수

내년도 예산이에요.

713페이지에 옥천도서관에 장서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1,000권을 사는데 10만원씩 해 갖고서.

● 옥천교육청 교육장 정무

우리 옥천도서관에 그 법정규정으로 장서수가 3만 6,000권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거는 2만 8,779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자라는 게 7,221권이 모자랍니다. %수로 따지면은 20.1%가 모자라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약 1,500권 이상을 지금 확보할 계획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15만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1,000원으로 돼 있어요, 내년에는. 기증 받고, 장서수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 도서관에는 생명이 책이니까 많이 좀 책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지방공무원정보화교육, 돈은 몇푼 안되지만은 이것도 5,000원씩 106명에 4부, 그러니까, 4부씩 이걸 한다는 얘기가지요, 4부라고 하면, 721페이지.

● 옥천교육청 교육장 정무

관내에 지방공무원들 정보화 교육을 해서요,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 간사 이기수

이상 옥천교육청은 질의를 마치고, 영동교육청 잠깐.....

754페이지에 특수학급 방학책이란 얘기는 요거 학생들을 위해서 754페이지 특수학급 방학책 6,000원 해서 15부 2회, 그건 어떤 학생들, 학습지진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방학책 얘기하는 겁니까?

● 영동교육청 교육장 최재경

영동교육청 최재경입니다.

특수학급의 만들어지는 방학책은 현재 황간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11명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방학 때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773페이지 문단은 학교 지붕방수에서 530만원씩 4교실을 하는데.....

● 영동교육청 교육장 최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단은학교 지붕공사는 지금 영동초에 지금 읍소재지 학교가 영동교육청에 30교입니다. 그 중에 지금 몇 개가 매각이 되냐면 13개가 매각이 되고 현재 임대할 수 있는 것이 17개인데 그 중에서 내년엔 하나가 없어지면은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가 10개가 됐고, 되지 아니한 것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학교에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게 쓰러져 빨리 지금 뭐 파괴가 되는 요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비 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초등학교에 있는 그 관계되는 화곡초등학교라고 좀 떨어진 조만한 학교입니다. 그 0.5실을 빨리 해야만이 옆에까지 관계가 없겠어요. 이게 문제고, 미봉초등학교에 소속이 돼 있는 구강분교에 상당히 큰 학교였습니다. 여기 2.5실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 건축한 벽돌 스라브조로 돼 있는데 부식이 굉장히 심해 질 것 같아요. 여기 임대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구룡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용산초등학교라고 원래는 구룡초가 아니고 중심이 용산초인데

면단위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구룡초가 되고 용산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임대를 줬습니다. 요거는 77년도 건축한 아식조슬라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우리가 더 보존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교육장님 그 보니까, 4실 해 갖고 530만원씩 해 가지고 2,12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오전에 이제 그 예산심의할 때 집행청에서 관리국장 답변이 65개 교실에 66개교가 지금 임대도 안되고 한달에 12만원씩 해 가지고 일년에 144만원 지불하는 걸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게 9,050만원이 1년에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냥 놔 놓고서 한달에 관리인 12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관리인 144만원 해서 66개하면 9,050만원 플러스 이와 같이 이제 노후된 건물에다가 쫓아붙는 돈, 이런 돈이 충북 교육예산에 상당한 참 손실을 보고 있는 얘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학교를 그냥 보존시켜 가지고서 학생수가 다시 늘어나 가지고서 다시 이제 개교할 수 있는 학교인가 아닌가를 소요 판단을 해서 가지고서 임대도 안되는 학교 같으면 바로바로 이걸 우리가 매각을 시켜 가지고 다시 교육예산으로

로 재투자 시키신다든지, 이런 거를 교육장님들이 좀 애쓰서 갖고 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교육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 **영동교육청 교육장 최재경**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잘 보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 가지고서 안 된다면 매각쪽으로 해 갖고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교육청 공동적인 것인데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591쪽 청원교육청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180일로 돼 있는데 그 180일로 산정하게 되는 근거는 뭔지, 1년 365일 중에서 거의 다른 교육청도 다 그래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유치원 수업일수가 180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상일**

180일 입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학교 출석 안하는 날 급식비는 어떡합니까,

가정으로 줘니까? 요거 180일은 학교 나 오는 날만 하고, 나오지 않는 날은.....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등교하지 않는 날은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는 지원하고 있죠, 방학중에도.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3쪽에 요것도 청원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청주교육청에서 좀 질문을 하다가 자세히 제가 질문을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맨 위에 보면은 29명을 지원해 주는데 948만 4,000원죠?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예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그거를 29명으로 제가 나누어 보니까 1인당 32만 7,000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사학지원비가 되는데 똑같은 5세 무상교육지원비 57명에 6,840

만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환산해 보니까 120만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사립하고 우리 공교육하고 차이를 그렇게 두는 법적인 근거가 뭔지, 왜 그런지 그걸 제가 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공립 유치원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엔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은 입학 및 수업료를 주는데 사립보다 훨씬 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은 10만원 이내로 주는데 지금 10만원으로 아마 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사립은 모든 게 다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국·공립은 좀 아까 계산하신 그 내용이 주로 그 수업료 및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에 들어간 어린이나 사립에 들어간 만5세아 유치원 아이나 전액 다 지원이 되는데, 다만 받는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지 받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아,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취지에서 이런 차이를 두는지 모르는데 이러니까질이 사립유치원이 낫다고 해서 거기를 선호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립유치원

을 할 때는 본인이 그 육영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본인도 좀 부담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지금 거의 그 웬만한 데는 이것도 이익사업이지 봉사사업 아닙니다. 분명히 학원을 경영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 말여, 그런데 거기는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32만 7,000원, 그러니까 거기는 스쿨버스를 유치원 버스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한단 말여, 국가가 글썄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건의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조금 이 아니라 대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이한 건데, 사실 공립유치원도 내 전체에 다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내에도 큰 학교도 유치원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립유치원에 의존을 해야 될 아직은 유아교육이 그런 처지에 있고, 여기 이제 인원수로 이렇게 나눠 났습니다만 두가지만 보 사부서 제시하는 수준이 농촌 쪽은 많아도 아마 도시 쪽은 적을 것 같습니다. 아직 첫 해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리고 4개 교육청 공동으로 그 사택이 없는 교장, 주로 교장 사택이 없는 학교

가 있습니까? 청원은 어떻습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사택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있죠?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예

● 위원장 이상일

저기 보은은 어떻습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보은은 사택이 없는 학교가 없고 다 있습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정무

옥천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영동은?

● 영동교육청 교육장 최재경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이게 사택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연고를 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이 계시면 그 사택을 안쓰니까 선생님 또는 기능직이 쓰다가 다른 학교에 사택이 없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외지 분이 오면은 관리전환을 해 주면 괜찮겠는데 이게 연고권 땀에 그런지 이걸 우리 학교에 배정된 사택이라 저쪽 학교에 교장사택이 없어도 못 준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관리전

환을 해 주려고 일선교육청에서 그러면은 교장선생님들이 노발대발하신다고 그러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그게 잘 관리 전환이 되면은 국가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쪽에는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나 기능직이 살면서 어느 한쪽에는 교장선생님 사택이 없어도 방을 개인적으로 얻어서 해야 되고, 교육청에다가 “교장사택 좀 해 다오” 그러면 “여기 숫자상으로 남는데 무슨 사택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어떤 해결책은 뭐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사택 관리가 지금 저희들 재정형편만 좋다면 1교마다 사택이 하나씩 있어서 기관장님들이 편안히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거의 사택을 많이 지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그 연고지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잠시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이사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 맥에서 그냥 있고 관사 임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부 직원들이 임대료를 내고 기관장님들은 면제가 됩니다만은 우리 지방 조례에 의해

서 일부 직원들이 들어갈 때는 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부 이제 관사가 없는 학교에 외지에서 교장선생님이 오실 경우에는 또 집에서 원거리시면은 집을 별도로 얻거나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일반 교사들이나 이런 경우는 공동사택도 짓는 방안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좀 그 관사도 많이 지어서 교장선생님들의 후생대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존에 있는 학교의 관사를 그 학교 간에 이전시키는 문제는 교장선생님들 간에 아니면 학교 간에 학부형들간에 또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학부모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대개 교통이 편하니까 선생님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5시 지금은 6시 퇴근이지만 시간만 딱 되면 선생님들 다 가시고 심지어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다 떠나니까 공동화된다고 그래서 뜻있는 교장선생님들은 가능하

면은 거기에 상주하시려고 이사를 오시는 분도 있는데 사택이 없어서 곤란을 받는 교장선생님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재정상 뭐 5,000만원이나 8,000만원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그저 한 3,000만원이나 얼마 전세라도 얻는 비용을 좀 책정해 주셔서 교장선생님들이 사실 객지에 떠나 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편하신데 숙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교육장님과 관계관계서는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시간이 벌써 1시간 15분 지나서 한 15분 쉬고 4시부터 다음 일정을 시작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 괴산, 음성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교육청 관계관계서는 회의 기록을 위하여 답변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일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오늘은 맨 마지막인데 세 교육장님 모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그런 교육청이네요, 그렇죠? 세 군데가 공교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간의 감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충분한 그 자료라든지 수감 중에도 참 진지하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뭐 이 지역청에 대해서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먼저번에 청주, 제천, 충주, 단양이었을 때 또 요전에 한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저

주마가편 격으로 금상첨화 격으로 잘하시고 계시지만은 좀 더 잘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조심스러운 게 성격도 상당히 급하고 표현방법도 나빠서 제 본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듣는 분한테 상당히 오해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전에 충북대학 여자교수 문학평론가께서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을 제가 읽었을 때 감명이 깊고 과연 우리 교육계에 그렇게 되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분은 엘빈토플러의 권력의 이동에 대해서 인용을 하시면서 썼습니다. 제3의 물결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토플러가 저서를 남겼지요. 거기에 보면 저도 조금 그 책을 읽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물리적인 권력이 이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물리적인 권력. 군사 독재라든지,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떤 권력이 이 사회를 지배할 것인가, 경제적인 권력이다. 돈이 지배한다, 돈이. 그 다음에 그런 사회는 이미 지나갔다, 지식사회다. 지식의 권리, 아는 사람이 힘을 쓰는 시대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지, 앞

으로 어떤 사회로 가느냐, 감동의 권력시대다, 감동.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주변이나 그 해당되는 사람이 감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감동. 지금 우리 교육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스승, 교사에게 감동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의 그 행정에 행정력에 감동하고 저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우리 교육계에 적절한 표현이다. 전 이런 생각을 들어서 모두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나열을 해 봅니다.

저는 그 교육청에 감사하면서 상당히 역설적으로 제가 강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위생환경 조성, 그 다음에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이것이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어떤 균등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원칙적으로 이것이 공개되고 예고돼서 우리 학교의 교실이 부족한 또는 개수해야 될 것이 우리 학교에 조도라든가, 이런 시설을 바꿀 것이 음성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세운 것 보니까 몇 번째 들어 있더라, 몇 번째. 진천교육청에서 기획한 것이 내가 예산이 본청에서부터 나온다면은 아, 우리학교는 다목적교실이 몇 번째야, 이렇도록 공개 또는 객관성

있는 공정한 그러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우리는 앞으로 이 제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의식이 문제다, 의식이 문제다. 집행하는 또는 그 기획하는 이 분들이 순수하게 정말로 교육수요자중심, 학생중심의 행정을 펴느냐, 안펴느냐, 이것은 저는 제도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의식의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수 하나를 검사하더라도 언제 검사하느냐, 몇 번을 검사하느냐,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어디에서 채수를 하느냐, 이런 것이 다 정말로 효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갈수기면 횡수에 제한없이 홍수기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식수 행정이 되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올렸고,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정말 교육을 본지로 해야지, 행정을 편하도록 해선 안 된다.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심야전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쪽 모니터에서부터 이것이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시설이 확장될 때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지 않고서도 다시 가설할 수 있고, 철삭할 수 있는 터미

널과 닥터가 필요하다.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점심 먹고 나오다가 우리 송진하 위원님께서 서원에서 골목이 좁은 데서 나오면서 차는 비좁은데 “아, 이 길이 내가 사범학교 다닐 때 50년 전에는 저렇게 넓은 길을 무얼 할 건가” 하고 한 탄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좁더라 말이에요. 50년 앞을 못 내다 본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느 교육청에 잘 되어 있습니다. 램도 더 깔 수 있게 여유를 뒤놓고 난방도 앞으로 중앙 집중 될 거다, 거기에다가 닥터를 만들어 놓고, 상하 횡으로 좌우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설을 할 때에 효율성과 그리고 경제성과 그리고 아이들 중심의 교육성과 이런 쪽으로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시설문제 하나만 바꾸신다면, 균등·형편성에 맞아야 된다. A라는 학교는 교실을 개수하는데 더 예산을 많이 주고, A라는 학교는 학교를 뜯는데 더 교실수를 많이 주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거죠. 또 그렇게 다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하는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느 교육청은 아까 송위원님이 그

걸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정리하고 측량비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재산 때문에 그랬다.” 제가 행정사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수안보초등학교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상록호텔에 있는 자리가 구 수안보초등학교, 제가 봤으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 모씨가 그것을 시설해서 맨처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독지가죠. 그때 다 공부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땅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실습지로 600명 또 찾습니다, 또 찾아요. 그러니까, 필지가 두 필지인데 앞에 거는 바로 어, 이거는 뭐 감사장을 주고 등기를 다 정리했는데, 뒤에 거에는 아 준 거니까, 학생들이 써야되니까 그냥 두었었어요, 그냥. 근데 상록호텔이 교육적으로 환경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것을 팔려고 그러니까 원 지주가 자기 할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600명입니다. 상록호텔 앞에 한 평에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400만원 갑니다. 600명은 그 사람이 찾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할아버지가 학교로 있을 때 주었지, 그게 뭘 말이야,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충주 남산초등학교 소송 걸린 것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아직도 우리 교육재산에 대해서 정말로 정리하고 이럴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심야전기를 하실래도 이제는 앞으로 지금 지구온난화가 10년보다 1.5℃ 올라갔다죠, 기온이. 1.5℃ 올라가는데 바다 수면이 얼마 올라가고 우리 나라도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난방보다도 냉방이 더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올 거다. 50년 전에 그 거리가 그렇게 한산했던 거리가 지금은 좁아서 못 가듯이 10년 안 가서 그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걸 예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심야전기를 할 때도 충열식 냉방, 이거 그때에 조금만 준비를 해 두면은 조금만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한번 카운셀링이라든가, 협의를 해 보면은 엄청난 재산관리가 된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청만은 특색 있는 말입니다, 그런 걸 조금만 고려를 하셔서 예산,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올립니다.

끝으로 우리 예산을 여기서 교육장님들이 “이거는 해 주십시오.” 하고 애타게 요청을 해도 또 집행청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드렸죠, 그렇죠? 100% 다 못드립니다. 그저 주신 예산을 알뜰히 쓰시고 다 못 받은 예산을 그걸 또 머리를 써서 이걸 편성하신 걸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중 이 페이지에 대해선

일체 제 질의는 생략을 하고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시설 또 행정, 또 재산관리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은 먼저 행정감사 때 여러 면으로 가서 감사를 했는데 모범적으로 잘 행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진천교육장님한테 물어보아야겠네요. 거기 저 방독면 있습니까? 교육장님, 방독면.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진천교육장 김영학입니다.

예, 교육청에 좀 있습니다.

그 확실한 개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요즈음 그 탄저균이니 뭐니 해서 제가 좀 한번 그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개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 송진하 위원

개수도 확인하고 또 쓸 수 있는 건가도

확인하고, 그럼 학교에는 있습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학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송진하 위원

학교는 없어요? 만일 탄저균이 우리 충북지방에 투하가 됐다고 할 때 그러면 교육청 직원하고 도교육청 직원하고는 살고 애들은 다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개 교육청 하나도 방독면 산다고 얘기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계가 백색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당장 충주도 그렇고 뭐 사방에 가루가 날라오고 그래서 비상사태라고 그러는데, 그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집행청에 건의해서 방독면 씌어 가지고 애들을 살려야지 우리는 죽더라도 그 어찌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방독면을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생들까지를 지금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상. 그러나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그 탄저병이라든가, 아니면 유사시에 문제가 된다면 학교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학교

에서 휴교나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 이전에 갑작스레 또 발생하는 탄저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독면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약방문제도 안되고 어쨌든 뭔가 고려를 하셔서 귀여운 어린이들, 하객들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천교육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11개 시·군 하나도 방독면 산다는 데가 없기 말씀드려 봤습니다.

진천교육장님, 798페이지 그 자산취득비로 책결상을 1,030조를 산다고 2인용이요, 1인용이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1인용입니다.

● 송진하 위원

예?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1인용이에요.

● 송진하 위원

이게 초등학교 아납니까? 초등학교는 거의가 2인용인데 이게 초등학교의 예산 인줄 알고 있는데.....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송진하 위원

2인용이죠?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예, 2인용입니다, 초등학교.

● 송진하 위원

그러면 1,030조 하면은 2인용이면은 2,060명 학생이 있다는 건데 그럼 진천이 초등학생수가 5,000명 조금 더 되는데 그럼 그렇게 모자라서 반 정도 모자라는 거예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그게 아니고 노후된 책결상을 교체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그 새로 학교를 앞으로 증·개축하는 그쪽 그 책결상하고 합쳐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 송진하 위원

지금 저 청주시교육청이나 청원군교육청에서는 책상 상판을 가는 걸로, 상판을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학생들 책상다리는 멀쩡합니다. 위에 상판만 갈면은 뭐 새책상이나 다름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상판만 교체해서 새 것 같이 쓸 수 있다면 절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그래요, 교실을 새로 짖 지으면 헌 의자, 헌 책상을 들여놓으면 보기가 조금

나쁘지요. 나쁜데, 그렇다 해 가지고 교실 새로 지으면 책상도 다 새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교육예산이 그러한 그 시설, 시설 이런 데 그렇지 않아도 교실 OECD 수준해 가지고 교실 짓느라고 시설비가 모자라는 판인데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진학교도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은 일본같이 잘사는 나라도 그렇게 교실에 가보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일본도 가보면은. 그런거 보면은 뭐가 느낀 점이 있는데 여기 진천교육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전부가 그렇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로 학생 실력을 올리는데 쪽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더 써서 그 학교경영을 하도록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거는 고려해 볼만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괴산교육청 839페이지 여기서 예산, 거기 보면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직원 휴양소 운영이 있는데 휴양소가 있어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괴산교육장 문재열입니다.

그거는 그 쌍곡분교를 교직원 휴양소로 운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 송진하 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 중에 있는 겁니까?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하계는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운영 실적이 좋아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럼 괴산군내 교직원만.....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아닙니다, 전 도에.

● 송진하 위원

그렇게 해야죠, 해서 왜냐하면 괴산에는 명소가 많으니까 좀 투자를 하더라도 실비로 충북도 아니라 다른 도라도 교직원들이 와서 뭐 휴가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2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거 알뜰히 잘 하셔서 모든 교직원들이 와서 편히 쉬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840페이지 보면은 책결상 구입이 1,000조 가량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잘 검토해 보시고.....

849페이지 괴산교육청, 거기 학교회계 전출금이 학교회계인건비 부족 교 지원이라고 있는데 900만원 뭐가 부족했던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육성회수당이 채 안되는 육성회비를 다 걷어도 육성회수당을 못 주던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이제 학교회계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 송진하 위원

뭐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몇 달 동안 안 주었다가 지금 늦게 주는 거예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아닙니다. 부족 분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이 다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 송진하 위원

아, 교사는 그럼 지금 받은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죠, 내년도에 주는 거죠.

● 송진하 위원

내년도인데, 아니 이거 이제 2001년도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금년도 거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통 이것이 지금 저 송위원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종전에 기성회비가 학교가 정액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학생당. 그래서 학생수가 적은 데 영세한 학교는 그 학생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그 학교 회계수입 가지고는 선생님들한테 고정급으로 줄 수 있는 연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학교 세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실상 교원들이 1인당 타 가는 연구비는 모든 선생님들이 갖도록 맞춰주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들 부담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말하자면, 알아서 세웠으면 부족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그게 이제 물론 학교운영비로도 다른 예산으로 줄 수는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에서 쓰는 거보다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성질입니다.

● 송진하 위원

이게 2002년도 예산은 아니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001년도에도 물론 그랬고 2002년도에도 그렇고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2003년도에도 그럴 겁니다, 영세학교에 대해서는.

● 송진하 위원

아직도 안 줬는데 지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여기 예산을 올 예산은 예산대로 서 있고, 내년도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서 있는 거지요. 학생수가 늘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 송진하 위원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부족현상이 왜 일어나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전에 육성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 지역은 얼마, 시지역은 얼마, 농촌지역은 얼마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서 걷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그 걷은 돈 전체를 연구비라고 해서 줬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 수당으로 그 연구비를 못 주는 학교가 있어요, 돈이 조금이라. 그걸 사뭇 보조해 왔어요, 그전에도. 이제는 학교회계로 그 계 들어오면서 이 돈을 그것이 학교운영지원회계로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또 걷어, 육성회비가 없어지고 그걸로 바뀌었다가

학교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족액을 주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여하튼 부족해서 교원이 인건비를 안 받았다고 하면 안되니까 이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알았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또 괴산교육청인데 860페이지, 적외선표면온도계라는 게 뭐예요? 적외선표면온도계, 자산취득비에 뭐 사는 거인데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그 학교 급식소에서 위생점검용으로다 쓰는 기계입니다. 조리할 때 조리 온도를 재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조리할 때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 송진하 위원

다른 학교에도 모두 있는 겁니까?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다른 학교에도 거의 다 있을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어떻게 진천군에도 있어요, .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있지요, 급식소에.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없어서 두 대를 사주는 거요?
그 동안엔 뭐로 했어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이제 급식소가 새로 생기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 송진하 위원

새로 생기기 때문에?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그리고 없던 데도 또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 송진하 위원

나 또 이런 온도계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 교육청에 그 담당자들이 이게 가지고
다니는 거랍니다. 그래서 1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사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2대 사는데?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2대를 더 사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럼 지도·검사할 때 가서 보는 거에
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 송진하 위원

그럼 검사할 때만 보고 검사 안할 때를
대비해서 다 사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면 되지 꼭 검사관만 그걸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그리고 영양사들이 각 학교에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
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이제 관리를 하는데 검사할 때만
쓰고 왜 그러느냐 이거요. 이걸 학교에
비품으로 해 놓고 항상 지금 뭐 식중독이
니 뭐니 해 쌓는데 저기선 소독기인 것
같아요, 소독기. 적외선 식기 같은 것 소
독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거 뭐 26만원
인데 하나 사 가지고 학교에 비품으로 놓
고서 끼마다 이렇게 하지 뭐 하러 그거
어렵게 감사관만 가서 확인하도록 하느냐
이거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그러니까 이 영양사들이 휴대를 해서
매일 쓰는 겁니다. 쓰긴, 매일 조리 때마
다 쓰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써야죠, 알았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것으로 사서 이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괴산교육청 자꾸 괴산교육청
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864페이지, 거기
저 관서운영비에 문단은 학교 화재보험

료, 다른 시·군은 보험료 낸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화재보험료를 냅니까, 다 내는 겁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문답은 학교 저희들 경우에는 전부 임대대가 돼가지고 필요가 없는데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임대 안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66개 학교에,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은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서 들어가 되고요, 대개 임대 준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서에 그거를 그 임대주하고 임대를 받는 사람하고 그 계약내용에 그거를 건물 임대료를 분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준 교는 사용자들이 임대료를 내고 그 보험료를 그러니까 화재보험료, 그 화재보험을 안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계약할 때 보험료를 임차인이 내도록 계약이 당연히 돼야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여기는 저기 돈을 별도로 떼어놓은 거고 다른 학교는 교당 12만원씩 아까 들으셨죠, 거기에 2만원이 보험료랍니다. 그 10만원은 관리하는 사람 주고 2만원은 보험료니까, 여긴 별도로 떼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아, 떼어서 줬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 이게 참 문답은 학교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건 가슴아픈 일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참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팔아 보세요. 팔려고 좀 노력을 해서 팔아가지고 재산은 재활용해야지, 이거 사장해 가지고 이거 뭐 임대료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집행청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참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팔려고 마음을 먹어야 그걸 팔리지 마음 안 먹으면 안 팔립니다. 왜 안팔려 뒷말이 듣기 싫어서, 원성이 듣기 싫으니까. 안 팔면은 무난한데 팔아놓고 나중에 뭐 지역에서 이리쿵저리쿵 얘기하고 또 이제 잘 팔았느

나 안 팔았느냐 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저 집행청에서 생각하셔야 하는데 이 감정수수료, 예를 들어서 하나 어떤 걸 팔려고 감정수수료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가 뭐 몇 백만원 나왔 다. 그럼 팔도 안하고 있으면 이거 감정 수수료만 까먹고 이거 팔지 안하고 뭐 하느냐고 말이며, 이런 괜히 거기도 감정수 수수료까지 물게되고 이러한 그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감정 팔기 위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수수료를 물었다. 하는 거는 그 해 못하면 그 다음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꾸짖지 마시고 하여튼 적극 파는데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송진하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한테 예 전부터 주문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안팔린 학교는 팔릴 학교는 임대 가능해서 다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거는 아까 오전에 말씀 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에 특별한 특별사업이 없으면은 그걸 안 팔고 보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팔려해도 팔 수 없는 학교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팔 수 없는 걸 파는 게 그 요령이죠.

그 다음에 단양교육청은 끝났지,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세 분 불과 얼마 전에 행정감사 받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산심의 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장님, 793페이지에 제7차 교육과정 연수해서 용품이라고 돼 있어요, 용품.

연수교재는 이제 만원씩 해 가지고서 180부 이렇게 했는데 7차 교육과정 연수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개 이제 강사 선생님들 필요할 테고 교재 필요할 텐데 거기 용품이라는 얘기는 무슨 준비를 하시는데 거기 30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1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교육장 김영학입니다.

7차 교육과정 연수를 저희 교육청에서 해 보니까 이 교재만 가지고는 피부에 와 닿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그 구체물에 의한 이런 연수가 돼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7차 교육과정을 경영하는 이리한데 필요한 용품들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건. 그 구체물에 의한 연수 이걸 생각해서 그 용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용품이 날개에 대해서는 “뭐냐 그게” 이렇게 할 때에는 그건 조금 저희들이 그냥 통합해 가지고 “실습 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7차 교육과정 연수하면 대개 이제 대상들이 학생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대개 오서 가지고서 이제 교재 가지고서 강사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찬자료를 주고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7차 교육과정 해 갖고서 7차 교육과정을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연수일텐데 그런데 거기에 사실 언뜻 제가 생각하는 뜻은 과연 거기 무슨 용품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강사는 그 장학사님이든지, 도 교육청이라든지, 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와서 연찬회 할 때 그 분야에 강사로 지급하고 모든 그 설비 이런거 없지만은 거기서 학생들 연찬회 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수강자라든지,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그 해보니까 실습재료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재의 책자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체물로 종이라도 가지고 또는 거기에다가 필요한 활동을 이렇게 연수하는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져서 실습을 필요로 하는 용품, 이래서 간단하게 그냥 용품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연수를 7차 교육과정 연수라는 건 커리큘럼에 대한 연수가 아니라 교재 내용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서라든가, 그런데 대한 실험·실습에 대한 연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그 실험·실습을 위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아마 용품으로다 계산해 놓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국장님, 7차 교육과정 연수한다, 뭐 사실 저는 수학을 평생했지만은 사실 수학 같은데 이런 것 필요 없거든요. 어떨 때 실험·실습비 이과로 해서 바도나면 나중에 할 게 없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서 감사를 받으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사실 그거 받는 여기 역사학자라든지 또는 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문

사회계열은 사실 용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서 나머지 화학이라든지, 이공계통에는 시약이라든지, 또는 기구 같은 게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걸 교구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30만원밖에 안 잡은 얘기고 이래 갖고서 얼핏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초등학교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실과든지, 아니면 과학과 자연계통 그쪽에 아마 실습일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서 대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무슨 작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시약과 화합물을 만든다든지 물리적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얘기가 될 것 아니요. 그런데 글썄 그게 벌써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입장이니깐 어느 과정을 해야 된다고만 얘기하지 선생님들 실제 그 실험해 갖고 결과를 도출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갖고 언뜻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예

● 간사 이기수

진천교육청에서 조도개선 사업이 있는

데 그 조도는 어떻습니까, 금회에 계상되고 난다면 어느 정도 몇 %로 그 조도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저희들 진천군은 초·중 합쳐서 547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10실이 완료돼 가지고 93%가 완료됐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교실이 37개실이 있는데 이 37개 교실은 금년도죠. 그러니까 계획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개축대상 교실로 돼 있는 네 학교 37교실로 돼 있는데 요것은 그 내년도 예산에는 7교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교실.

● 간사 이기수

7교실, 내년예산을 집행하실 경우에는 93%가.....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조금 넘는 이러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 818페이지 연못여과조사실, 조사여과조 시설인데 연못이 어디 탁한 데가 있습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예, 저희들 교육청에 연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 됐습니다.

진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괴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835페이지요 운영수당이 라는데 보면 특수학급담당교사연수교재 연구개발수당 하는데 이게 다섯 분이 하는데 3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어떻게 3만원씩 수당을 드려 갖고서 어떻습니까, 좀 적지 않으세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괴산교육장 문재열입니다.

그거는 그 교재를 편집하는 편집수당입니다.

● 간사 이기수

편집수당입니까, 그 분 교재를 뭐 쓴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예.

그 다음 839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교육장님 그 제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죽 보든지 하면 한 학교에 문닫은 학교 관리비를 12만원을 책정해 갖고서 이제 열두 달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른 교육청도 전부 돼 있었는데 괴산교육청은 10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열둘로 돼 가지고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질의하다 보니까 거기 보험료 2만원을 이쪽은 별도 편성하는 바람에 10만원이 됐단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 간사 이기수

같은 얘기이구먼요, 결국 이쪽에다 붙었다 저쪽에다 붙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

서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아, 어떻게 계속 12만원이었었는데 여기만 1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서 내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교육청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교육청은 특색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식품의약품 식기구입을 1,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주 다른 곳에서는 못 보던 걸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농약의 농도라든지, 또 유해식품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이게 좋은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고 그 기계가 정확하다면 1,200만원이란 돈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하나 사용해 가지고서 사용해 보시다가 좋으면 음성교육청 전체에다가 확보,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다른 교육청에도 이렇게 좀 권장해 갖고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유해 농도 측정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이것이 오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주교육청에 소음측정기가 또 거기만 딱 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실에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기계면 이게 1,500만원 이런 정도면 뭐 8,900억의 예산에서 물론 교육청의 많은 예산 아니지만은 이런 기구를 우리가 소

지하고 있어 가지고 수시로 말합니다. 소음공해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신선도라든가, 농약의 오염도 같은 거 측정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것이니까, 한 번 좀 잘 이렇게 보시고,

또 여기서 기능직 공무원의 연수를 해 갖고서 기능직들의 질을 높이는 것도 특색사업 중에 좋은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 아주 두 개는 제가 한번 읽어보다가 눈에 띠어 갖고서 제가 권장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육장님, 892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그 한 필지를 매입하는데 그 어디에 어느 학교입니까?

● 음성교육청 교육장 강영희

무극초등학교인데요, 거기 들어오고 나간 데가 있어 가지고 17평하고 10평인데요, 저희가 그냥 같은 평수는 무극초등학교 운동장에 17평이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토지이고요, 학교부지가 10평이 서로 상호 엇갈려 있어 가지고 이제 10평씩은 서로 상계하고 7평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본청에다가 요기 본청 행정감사가 엇그제인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일이든 언제까지 가능하면 국장

님이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요? 서면으로.

아까 송진하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송진하 위원님은 또 소속 교육청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했는데 지금 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결국은 안 팔리는데 임대를 못 받는 데가 안 팔리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렇게 보든지 하면 임대료 12만원씩 해 가지고 한 개교에다가 열두 12를 곱하고 거기서 또 66개 학교고 그래서 산정해 본다면 9,500만원이나 9,540만원인가, 4만원 정도 참 1년에 관리비조로 나가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문닫은 학교 화장실 뺏니까, 저 수거라는 것도 있고 또 본다면 문닫은 학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지붕방수를 해서 유지해야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폐교한 학교에 이렇게 우리 교육재원이 이렇게 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문닫은 학교 화장실 수거, 또 문닫은 학교 방수, 또 이와 같이 9,504만원 1년 예산, 이렇게 해 갖고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저 폐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좀 우리가 예산심의회가 끝난 후에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한번 좀 쭉 보세요, 한번 상정을 해보게.

그래서 그것 좀 부탁 드리고, 아까 부탁드린 매각쪽으로 노력을 좀 부탁올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교육청 목적 지정사업으로 청천중학교 노후교사 전면개축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요거가 건축된 연도가 몇 년도인지 좀 아실 수 있습니까?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괴산교육장 문재열입니다.

제일 오래된 거, 교사를 매년 증축을 해 나갔지요, 옛날에.

● 위원장 이상일

붙여서 지었군요.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부분은 3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번 개축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제일 적은 것이 25년 경과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거의가 내구연한은 다 된 거죠?

●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예

● 위원장 이상일

839쪽에 보면 말이죠, 그게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가 나

와 있는데 건축설계비와 전기설계비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설계비 중에 전기설계보다는 건축설계비가 비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기설계비는 2,848만원이고 건축설계비는 273만원밖에 안 된다 말야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설계비하고, 설계비 중에서 전기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축설계비는 270만원이고 전기시설비 설계는 2,840만원 소요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 39페이지 이하 시설비 쪽에 보면은 그 뒷장까지 쪽 보면은 실질적으로 교실을 다시 짓는 거 그거는 교실 1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5,800만원은 그 다음에 2번서부터 죽 내려와 가지고 난방개선이라든가, 조도개선이라든가, 이쪽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난방 시설이 90실, 그 다음에 조도개선이 20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난방이나 조도개선에 필요한 전기의 그 설계하고, 교실 한칸의 설계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요것이 직접 그 청천중학교 교실 개축하고는 직접 관련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발주를 할 때

건축, 전기, 설비를 따로따로 발주를 하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예, 그것은 건축하고 기계는 같이 해왔고요, 나머지 소방, 전기, 이런 거는 별도로 해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별로로 분리 발주죠?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예, 예.

● 위원장 이상일

그래서 이제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것도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물품구매에도 그렇고 건축이나 전기나 모두가 3,000만원을 기준으로 낮춰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 지역에서 교실 몇 칸 정도 건축하는데도 설계 같은 것도 요새 이제 건축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건축사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그 청주 같은 데서 설계를 많이 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실 수 없겠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직접적으로 뭐 관여를 못하니

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능하면 교실 3칸, 4칸 이렇게 짓는 설계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 건축사 사무소가 있으면 거기서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그게 없다면 외지 업체들이 하더라도, 그래서 지역경기를, 뭐 송진하 위원님께서도 그걸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사회의 학교라는 게 결국 돈은 한푼을 내도 지역사람이 내는 겁니다, 학교 운영하는데. 그런데 뭐 조금 이권 있는 거 좀 남을 만한 건 전부 외지로 가면 야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세 분께서는 좀 감안하셔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음성교육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학생, 여학생 편의실, 여학생 탈의실 개조, 그 다음에 이제 교원편의실 설비 그 비품대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그 교원 편의실을 만드는데 그냥 남녀 같이 공용으로 쓰는 휴게실입니까, 아니면은 따로따로 만드십니까?

● 음성교육청 교육장 강영희

별로로요.

● 위원장 이상일

별로로, 그러면 이것은 여교사용입니까?

● 음성교육청 교육장 강영희

예, 음성여중요?

● 위원장 이상일

예

● 음성교육청 교육장 강영희

거기 지금 현재 남녀가 간이로 쓰고 있어서 요거는 지금 여교사를 우선적으로.

● 위원장 이상일

예, 세 분 교육장님께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흡연문제에 사실은 담배 피우는 분은 나도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 피우는 쪽에서 보면은 특히 여선생님들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래 이제 같이 남녀 교사가 공용으로 쓰는 휴게실은 아무래도 남자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게 마련이고, 여선생님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 있으면 여교사를 위한 전용 휴게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접때도 제가 본청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나라 여성 주부들 중에 모유를 안 먹이는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낳으면 바로 우유를 먹고 그 건강이나 아이 두뇌에 좋다는 모유를 못 먹입니다. 이게 참 가슴아픈 얘기인데 출산을 하면 애기에게 몇 개월을 젖을 먹일까가 걱정이 아니라 출근은 언제부터 해야 되

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젖을 말일 연구부터 하신답니다. 이게 먹다가 갑자기 끊 올라면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 여교사의 비율이 50%가 넘어 가는데 출산한 여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누가 뭐 남자들도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차로 싣고 와서 먹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그 옆에서 휴게실에서 먹일 수 있도록, 또 그게 정 안된다면은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젖을 짜서 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이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제 그런 걸 배려해서 여교사들이 출산에서부터 오는 고통스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음성교육청에는 여성 교육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게 조금 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일환 위원

제가 하나 조금 하나 집행청에 요구를 할게요.

● 위원장 이상일

예, 잠깐 그럼 말씀하시지요.

● 조일환 위원

예, 지금 현재 교사 보수체계표 있죠? 그러니까 9호봉서 시작하면 얼마라는거,

그것 좀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 결산서 중에서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 교사 거기에 그 급료문제, 그러니까 보수문제에 대한 작년에 2000년에 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가 남아서 이월했다든가 그렇죠? 그 거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를 이제 대개 학급당 이렇게 예정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을 하시죠, 학교운영비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배당한 기준하고, 그러니까 3학급이면 얼마를 그 학교에 운영비를 연간 7,000만원이 다 얼마 주었다는 게 있죠, 그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천, 괴산, 음성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천, 괴산, 음성, 지역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제134회-제4차 예산·결산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25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창연, 충주교육청 교육장 임창흠,
제천교육청 교육장 흥훈표,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천호,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 옥천교육청 교육장 정무
영동교육청 교육장 최재경, 진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학,
괴산교육청 교육장 문재열, 음성교육청 교육장 강영희,
단양교육청 교육장 채수병,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변종섭,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유근영,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수민,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서재문,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박경석,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장균상,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황용수,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신용건,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허세강,

※ 부 록

- ▶ 2002년도 당초 예산안 특색사업 보고(별첨 2)
- ▶ 서면답변자료(별첨 3)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10월 30일 (화요일) 10시 03분

議事日程 (제134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송진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직속기관 관계관계서는 회
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그러면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예
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오늘은 본 소위원회 5일차로 직속기관
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
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입니다.

심사방법은 기관별로 심사를 하되, 예
산안과 관련된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

저희들이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
렸습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직속기관을 위해서 일해 주시게 된 위원장님과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저희 원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이제 지난 10월 15일로 두기구가 합병해서 출범한 지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에 중점적으로 두어 가지고 학교경영의 교육활동 지원과 또 과학정보기술 교육의 강화라고 하는 두 축을 갖고 주어진 역할 기능에 저희 직원들이 미력하나마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평가자료의 개발 보급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지도와 특별연구교사 제도를 좀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학교현장의 7차 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듣기평가를 연례로 하는 그러

한 행사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기초과학 기술교육의 내실을 위한 체험학습과 현장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치밀한 이러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전시실과 천체관련실을 상설 개방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으로 제공해 주고, 또 아시다시피 금년도 47회 과학전람회에서도 저희 도가, 종합 성적제도가 없어서 그렇죠, 최우수 1점에 특상 1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2점 해 가지고 시상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역대 시상 내역을 보니까 금년의 시상실적이 충청북도과학교육관 개관 이래는 최고로 좋은 성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전람회의 취지에 맞는 이런 전람회 계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각종 과학경진대회에서도 좀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학실험실의 연중 운영과 오지학교에 대한 체험과학교실 운영에도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셋째로는 교육현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교육정보 지원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

하고 이 센터가 일선 학교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해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보급해서 일선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 시켜 운영하겠습니다.

또 각종 컴퓨터 연수를 실시하고 또 도서실의 전산화 운영, 또 각종 도서의 정보공유체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교수-학습방법 지도 보급과 진로선택 적정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로상담실을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쪽에 장소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 원으로 옮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내방객은 도서관 쪽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내방객만을 상대하는 상담실 운영보다는 사이버를 통한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상담이 된다는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할 때보다 못지 않은 이런 운영이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의 운영, 이 면도

지금 청소년의 여러 가지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저희 원이 간섭을 해 가지고 각급 학교의 자원봉사자님들을 8명 내지 1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상담활동을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자주 확인을 하는데요, 잘 되는 학교에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미진한 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진한 데는 좀더 담당자와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학생상담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 충북교육 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우리 교육가족들이 찾아서 읽어보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편집 내용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덜 읽는 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이 9억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로 약 3억 4,000 정도가 되고, 사업비가 5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의 규모를 제가 전국 교육과학원의 예산규모와 비교해 본다면은 제주도하고 저희 도하고 비슷한 정도이고요, 또 저희 도하고 비교는 안되겠습니다

만은 서울의 경우는 평가문제지를 개발하고 만드는 데만도 한 100억씩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세도 약하고 예산도 그거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돈을 들이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진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은 뭐 건축예산, 절감예산 해 가지고 넉넉하지 못한 예산 가지고 하실 일은 많은데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옛날에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관하고 합한 아주 기구가 됐고, 또 연구 하시면 우리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니겠어요, 또 과학도 지금 모든 나라들이 과학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해방 후에 교육시책에서 과학을 중요시 안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이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이 제주도하고 비슷하다 하는데 참 마음 아픈 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의 예산에서 원장님께서 뭔가 이것만은 꼭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들은 절충해 가지고 대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만은 꼭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국장님께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가 제주도 보다는 예산을 넉넉히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뒤따르는 거니까, 동시에는 못하는 거니까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공공요금의 세세가 있는데 가스사고대상 책임보험료, 협회비, 뭐 그런 예산이 69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도 똑같이 다 내는 겁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헌

예, 다른 기관도 똑같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그런데 저희들이 비교적 공과금이 많이 나가는 기관이거든요. 가스 책임보험료라든지 또 소방안전협회비라든지 전기안전, 이것은 아주 공과금입니다. 개인들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 송진하 위원

그런데 거기 도서관협회비도 있는데 도서관이 아닌데 협회비를 내는 거예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저희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마다 대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관자료실이 있거든요.

● 송진하 위원

아, 자료실.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실에도 충북교육의 뭐라고 할까, 역사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과전문도서들도 상당수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담당 직원도 두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국장님, 이런 회비같은 것은 국가기관에는 무슨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 교육과학연구원의 제세는 과학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재정보증이 나 전기안전협회,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 회의나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그 협회 내지 아니면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타 법령에 의해서 내는 분담금 내지 회비기 때문에 이것이 그 룰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그래서 감해 주고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그래서 이 교육기관하고 일반 사업자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학교에는 안내는 것 같아요.

● 송진하 위원

글쎄요, 학교는 안내고.....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학교는 안내는데 행정기관이라고 해 가지고요 행정기관은 저희들이 2분의 1보다가 부담을 전부 해 가지고, 작년엔 안낸 모양이더라구요, 안내니까 거기서 고발하겠다고 시에서 해 가지고요 절충해 가지고 행정기관은 다 그 부담금을 내는 것 같아요.

● 송진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있잖아요, 그것은 면세가 되고 그런데 사학기관에 대한 사업체는 면세가 되고, 이런 공교육은 면세가 안되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 당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사학재단에도 면세가 되는데 이런 것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뭐 많고 적고간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예산도 적은 예산 가지고서 충북 교육과학원을 위해 갖고서 전시회도 많이 하고 참 여러 가지 애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면 그 교육과학연구원 건물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말여. 무슨 학부형 교육도 하는 것 같고, 학교운영위원회도 해 갖고서 거기서 하시는 일이 과학교육발전을 위한 것도 하지만은 그 외의 것도, 참 건물이 새거라서 그런가 그 이외의 것도 회의장 소도 많이 빌려주고 이렇게 해 갖고서 참

애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항시 보면 붐비는 것 같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9억이라고 하니 건축예산을 짜야만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327페이지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같은 것은 보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 개발비를 보통 35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300만원 잡은 거 보면 50만원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322페이지라고 그러셨죠?

● 간사 이기수

아니 327페이지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복제하는데 단가,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 묻고 싶은데요 교육과학연구원이 과학교육원하고 연구원하고 합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예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좀 줄었을테고 양쪽 기관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연구원이 하던 역할도 있고 과학교육원이 하던 역할하고 그 두 기관의 역할을

사실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합쳐가지고 한 개의 기관으로 했는데 인원이 줄었을까 아닙니까, 두 기관이 하던 것을 몽땅 다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것은 어떠세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헌

그게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기구를 통합했거든요. 서로 그래서 어려움은 정보를 교류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먼저 혹시 그런 일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예산하고 하나로 지금 현재의 예산하고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헌

그거야 많이 절감이 됐죠. 인원도 많이 절감이 되고요, 예산도 절감이 됐죠. 한 기구예다가 한 20% 정도 플러스 시킨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간사 이기수

예산은 절감이 됐는데 하는 일이 안 줄었다면 통합이 잘못된 거고, 과거 두 기관이 하던 일이 위축되었다면 그게 참 염려할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인사는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시간절약상 같음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장님, 그 작은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헌

당초예산만 비교해 보면 한 3,000 늘은 겁니다, 당초예산만요. 그런데 추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과기처나 이런 데서도 예산이 나중에 1,2억씩 지원오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운영이 되겠다, 이 말씀이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헌

그렇게 잔 거죠 뭐.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쭙보는 건데 예산의 기본부서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원장님 취합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 이렇게 내도록 돼 있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헌

예

● 이충원 위원

금년에 제일 많이 삭감된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헌

정보지원예산은 중복되는 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니까 땀니까 작품전람회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작년 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예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도 보니까, 물론 추경까지 합해서 그런데 2억 정도 줄었거든요, 1억 8,000 줄었죠?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예

● 이충원 위원

왜 줄었나 봤더니 작년에는 영상캡처 비용, 그 기구 사는데 상당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줄으니까 그만큼 줄은 건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원장님, 7차 교육과정 지도 자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돼서 금년에 이렇게 줄인 겁니까? 8,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그것이 교육부에서 의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금년도에 의뢰해 온 것은.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줄은 거다?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예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저는 비교적 교육과학연구원을 비교적 자주 가는 편인데 도서구경도 하고 하는 편인데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걸 제가 느껴요, 손이 모자라는 걸, 거기 가면은 유독 손이 모자라는 구나, 즉 바뀐 얘기하면 정원이 적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기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의 업무 이외에도 대외업무,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 때문에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몇 명씩?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51명입니다.

● 이충원 위원

51명, 여기 인원은 그대로 이 정도 가지고서 운영이 되십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저희들이 이제 기사들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한 분만 일을 하니까요 그 사람이 아프면 기계가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과장님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청취불능)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 있어서 허허벌판이거든요,

사실. (청취불능) 굉장히 금년에 얼마 요구하셨는데 이건가.

금년에 안 늘었죠? 원장님.

●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125일을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 이충원 위원

올렸다, 반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꼭 좀 이것은 여쭙보고 싶은데, 국장님,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묻는다 생각하고, 일반행정직이 기관장을 하는 데 하고 장학직이 하는 데를 이것을 어떤 기준에, 물론 기준이 있어서 중앙에서 내려보냈을 겁니다. 이 장학관이나 연구관이 하는 데는 보면 36만원인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부이사관이 하는 데는 보니까 58만 5,000원인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중앙에서 그냥 이렇게 조정한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중앙에서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급별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도만.....

● 이충원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교육부 같은 데에 이게 장학관 보하는 직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기구가 많이 바뀌어서 이거하

고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는 것 하고 그 바란스가 똑같아요, 여기하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중앙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 레벨에 과장 레벨.....

● 이충원 위원

장학관을 보했거나 행정직이 하든 저는 제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관리청에서 아마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하는데 투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리자는 게 아니라 같이 올리는데 장학관도 예를 들어가시고, 교장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이 부감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36만원, 58만원, 별거 아닌데 또 같은 레벨로 좀 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시고 아마 해 주셔야 각 시·도가 똑같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한 푼도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앙에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게 불가능하면은 다른 데라도 해서 좀 할 수, 큰 돈이 아니니까, 큰 돈이

면 얘기하지 않죠, 해 봐야 20만원이야 그까짓거 200만원이면 되는 거 12달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라도 어떻게 숨겨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선생님들 사기가 올라가지 않나.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조일환 위원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조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좀 게으르다 보니까 좀, 제 시간에 참석해야 될텐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본지하고 좀 괴리감은 있습니다만은 본청 예산하고 좀 달라서 저는 그저 나름대로 살피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이 문제다,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 교육계가 텔레비전에서 비치는 화면을 보면은 그야말로 교육의

앞이 안보이는,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사설에도 나왔고 또 어제 그저께 사설에도 나왔고, 논설에도 나오고, 지금 교육계가 그야말로 수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어린 학생들이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서서 우리 교실을 비워두고 나간 저 교사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대단히 안타깝고 슬픈 사실이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또 11월 며칠이면 이제 교총마저 거리에 나가겠다고 하니깐 이런 것은 저희 정책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의식을 바꾸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합니다만은 우리 토폰러의 얘기를 저는 자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권력의 시대를 제1의 물결, 또 경제적인 그러한 권력의 시대를 제2의 물결, 또는 정보지식사회의 권력시대를 제3의 물결, 그런데 요전에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까만은 충북대학의 문학평론을 하시는 여자 교수님께서 그분의 견해로다가는 제4의 물결은 감동의 물결이 감동의 권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교육계에서 정말 그야말로 이분의 논설을 귀감 삼아야 됩니다. 교장이 교사를 감동시키고, 감동시키고, 교육감이 직원을 감동시키고, 교

사가 학생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이 보다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도 안되고 경제적인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안되고 어떤 지식정보도 한계에 달했고 이제는 감동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가 이런 쪽으로 가려면 저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저도 예산을 이렇게 직속 것도 보면은 이거 새로 한 것 같은데 개·보수가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을 일일이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서 본청에다 요청한 예산도 100% 다 받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아껴서 예산을 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도, 어떤 직속기관도 어느 부서라도 정말 그 시설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것이 투명하고 서열이 사전에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교육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느 학교에 강당이 필요하고, 어느 학교에 교실이 필요하고, 그러한 예산이 필요했을 때 두 말할 것도 없이 그저 순번대로 이게 척척 척척 이게 가는 그러한 예산, 이 예산을 배정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산다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나라도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야말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번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에다가 가장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식수관리입니다, 식수관리. 식수관리하는 데도 비효율적이고 행정위주의 식수관리하는 것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예를 들면 식수를 왜 우리는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하느냐, 아이들한테 사전에 이 물이 더러운가, 아니면 식수로 적합한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먹일 때에 먹이는 것,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3월, 6월, 9월, 11월, 어느 교육청이나 어느 학교나 어느 지역 통일해서 돼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도 9월, 가뭄이 들어도 6월, 겨울에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해도 검사 한번 하지 않고, 이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집행이다, 왜 그러느냐, 정말 아이들한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인다고 생각했으면은 아이들이 개교하기 전에 아이들이 먹기 이전에 미리 검사를 했어야 될 거 아냐, 미리. 그리고 물을 기다려야죠. 한 참 먹이다 검사하니까 부적합, 그 동안에 그 부적합한 물을 먹은 그 학생들에 대한 죄는 누가 저야 되겠느냐, 누가 책임을 저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 검사하는 데도 44종 같으면은 50%로 해서 8만 2,950원을 지불했습니다. 또 나머지 4회 중에 세 번은 8종, 이것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44종은 왜 1년에 한 번만 하느냐, 어떤 지침 같아요. 정밀, 중금속

까지, 한번쯤 해야 된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8만 2,950원을 집행해야 됩니까? 저같은데 최초에 했을 거예요, 정밀검사니까. 한참 먹이다가 9월달에 가서 한다, 그러면 똑같은 8만 2,950원도 제대로 썼느냐,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또 물은 어디에서 채수해서 검사시키느냐, 간이상수도, 또는 상수도면 그 원수에 가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소독해 가지고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먹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야죠. 급식소에 밥을 하면 그 물에 가서, 그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받아야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잡숫는 그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다. 또 하나 식수관리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느 학교가 부적합 판정났다, 대장균 하고 일 반세균이 많아서 부적합, 조치, 뭐를 냈느냐, 정수기를 냈습니다, 정수기로 대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수기 하면, 아, 그거 깨끗한 물이지, 우리 교육계에서 이렇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말로 무식한가 말여, 정수기는 세균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균 부적합 했는데 전부 정수기로 해결했다, 정수기 20만원에 사는데 헛돈 들였다, 헛돈.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똑같은

5,000원, 똑같은 500만원이라도 분명히 여기 계시는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정말로 내 돈같이, 내 사업같이, 내 자식같이 한번 써달라는 의식이 보다 중요하다, 저는. 제가 어느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깎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보다는 저는 직속기관에 또는 교육청의 교육장님께는 똑같은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도가 무슨 문제입니까, 제도가 잘못 돼서 안됩니까. 그래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마가편 격으로, 금상첨화 격으로 저의 정말 제 임기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정기 예산 마지막 심의 아닙니까. 제가 느낀 바가 바로 전체 교육위원 7년 생활 동안에 가장 느낀 게 뭐냐, 학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더라,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 교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같은 분은 식수 검사를 해도 네 번 다 44종으로 하고, 다른 데는 못쓰더라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이분은 교무실 거 따로, 급식실 거 따로 물을 채수했어요, 어떻게 틀립니까. 형식, 하라니까 하는 그러한 행정하고, 아, 우리 이거 검사 왜 하지, 어디서 해야 정확할까, 의식이다, 의식.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 타하지 마시고, 행정편의주

의적인 예산집행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효율성 있고, 효율성 있고 시기, 그 다음에 공평하게, 공평하게, 누가 봐도 공평하게,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낼 것은 우리 교권의 확보에 대해서 우리 직속기관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 지금 교권이 말이 아닙니다. 지난 중앙일보에 10월 10일자에 통계가 나오게 있습니다, 통계가. 아태니까 아시아태평양 17개국에 9세 이상 17세 미만의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직업이 무엇이나, 직업, 교사다, 선생님이다 이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뭐 대통령, 선생님, 선생님은 1등을 드려야 되죠, 희망직업이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꼴찌입니다, 페션테이지를 낼 수 없어서 제로입니다, 제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이다, 저는. 존경심 없는 선생님이 가르쳐서 무슨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다하느냐, 나라에서는 마치 촌지나 받는 교사로다가 주선을 해 가지고 교육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막 잘라 내버리고, 학부형들은 우리 교사들을 평가하겠다고 덤비고, 그래서 이러한 교권을 세우는 것, 직업도 좋고 선생님을

존경하기 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직속기관 여러분께서 힘을 합친다면은 우리 공교육이, 교육이 바로서지 않을까, 이런 말로다가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과 관계관계서는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관계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는데 가능한이면 간략하게 한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전원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전원입니다.

평소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이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움과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원의 2002년도 주요사업에 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 보고(별첨 2)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와 특색사업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총 예산 9억 4,000만원 중에서 주요사업비에 70%, 약 70%를 편성한 것 같아요.

● 단재교육원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여기 주요사업에 집중투자 하시고, 그렇다면 다른 것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관계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는 도내 교직원들이 가서 연수를 하시고 또 타 도에서도 도 더러 내방객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시설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 강사 교통비, 이거 강사는 다 주는 겁니까?

● 단재교육원장 김전원

예, 외래강사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초등1정자격연수 해 가지고 195명한테 주는건데요, 그러면 연인원이죠?

● 단재교육원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교통비가 됩니까? 거기 가끔 택시타고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 단재교육원장 김전원

그래서 이 2만원은 서울이나 먼데서 오는 것은 거기서부터 계산하지 못하고요, 도착해서 저희 원까지 올 수 있는 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한 그 이후부터를 우리가 계산해서 그 2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요, 정부 단가나 정부에서 정한 금

액은 현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려면 그래도 훌륭한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교통비라도 제대로 주고 모시고 해야지, 이 잔돈 주고 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그 위치가 시내같으면 모르는데, 국장님, 방법이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런데 본래 강사들이 외래강사로 올 경우가 있는데 강사보다 강사료를 조금 늦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지침에는 강사료를 주는 것 외에 별도로 실비의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실비의 범위가 어느정도냐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단재교육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서도 외래강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를 별도로 충족할만큼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원수원마냥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청주까지 도착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청주에서부터는 청주에 소재하시든, 아니면 더 먼데 계시든 간에 청주서부터 단재교육원수원까지 거리만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장 넘겨보세요, 366 페이지.

이게 강사의 교통비인데 거기 “차”에 보면 초등영어심화과정 직무연수 해 가지고 일반인은 이제 2만원씩이고, 원어민도 2만원 주는데, 거기 원어민강사 체제비라는 것은 뭐요? 무슨 돈이에요, 숙박비요?

● 단재교육원장 김전원

원어민강사 체제비는 원어민을 저희 연수원에서 합숙을 시켜야 되는데 합숙에 관련된 그런 체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있다보면 활동도 해야 되고, 모든 관련된 경비, 일체의 경비로 말씀드립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원어민도 단재교육원수원에서 같이?

● 단재교육원장 김전원

예, 같이 생활합니다.

● 송진하 위원

거기 소요되는 5만원이 하루에.....

● 단재교육원수원 총무과장 임진섭

단재교육원수원 총무과장 임진섭입니다.

지금 저희 원의 강사를 시·군 교육청의 원어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원어민들이 지금 괴산이나 또는 단양같은 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20일

간을 여기에서 활용하려면은 청주에서 재워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숙박비.....

● 단재교육연수원 총무과장 임진섭

예

● 송진하 위원

식사비, 밥먹는 거.

● 단재교육연수원 총무과장 임진섭

예

● 송진하 위원

그러면 그 5만원 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 단재교육연수원 총무과장 임진섭

글쎄 적은데요, 교육감 소속 원어민이라서 그렇게 그렇게 실비로 보상을 하는데 적은 편입니다.

● 송진하 위원

아니 원어민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안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외국 사람인데 교육감 소속이라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충분한 대접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원어민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국에 유학까지 가는 판인데, 어학연수, 안가고 여기 우리 자체에서 하도록 해 주려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라도 붙잡고 하려면 돈을 쥐야

죠. 체제비나 이런 것을 주고 붙잡아야지 안하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시내에서, 그래도 외국에서는 문화수준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어떻게 자고 아침먹고, 저녁먹고 5만원이면 되겠어요? 나라도 안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용을 하세요.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이걸 뭐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하간 이런 문제는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은 특별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원어민 교사들이 저희들 도내에 충분한 숫자가 있다면은 단재교육연수원에도 한 사람을 배정을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실정은 되지 못하고, 다만 원어민들이 해당 학교에서 단재교육원 출장을 올 때는 일단 출장 명령을 내고, 그 출장 수당을 타고 와서 여기서의 출장수당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좀 잠을 잘 수 있는 여비를 조금 보상적 차원에서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즉 밑으로 내려오면 중등영어심화 직무연수 해 가지고 거기는 원어민이 교통비가 없어요?

● 단재교육연구원장 김전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등영어심화 직무연수는 원어민이 출퇴근을 하면서 강의를 맡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원어민 강사 체제비에 교통비가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저희 단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 숙소에서 생활관에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합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가지고 연수받는 기간 동안에는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 송진하 위원

누구하고요, 선생님들하고요?

● 단재교육연수원 김전원

선생님들하고요. 연수받는 선생님들과 강사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게 됩니다.

● 송진하 위원

이것은 합숙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 단재교육연수원 김전원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들의 문화나 평소의 생활영어나 모든 것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금년에 여름에 그런 과정을 마쳤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낄 때는 아껴도 쓸 때는 쓰는 그런, 가정살림도 그렇고 나라살림도 그렇고 너무 궁색하게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가정에서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떤 것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할 부분 투자하고 아낄 때는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외국으로 자주 가는 마당에 불러다가 하면 얼마나 부담을 줄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예산을 뒷받침 해 가지고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면은 거기도 1,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배기량 얼마짜리예요, 이게. 1,600만원이면 얼마짜리 탈 수 있는 거예요?

● 단재교육연수원 김전원

지금 그것은 저희 연수원에 승용차가 출강오시는 분들을 교통편의를 마련한 그런 차인데 배기량이.....

● 송진하 위원

출강 강사, 강사 모시는데?

● 단재교육연수원 김전원

예, 그게 저희는 2000cc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1,600만원이면 2000cc를 살 수 있는 거
예요?

● 단재교육연수원 김전원

예, 조달청.

● 송진하 위원

아, 조달가격으로다가.

내 생각 같아서는 강사 중에는 장관하
던 분도 있고, 뭐 도지사 하던 분도 있
고, 교육감 하던 분도 있고, 이 중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좀 그랜
저 정도를 사 가지고 모실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해요. 우리 본의로
하지 말고 그쪽 본의로 해야죠. 오는 사
람 본의로 해야죠. 누구를 모시느냐, 우
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모신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모시
느냐, 상대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고려
해서 추경에 해 가지고 멋진 차를 사서
될는지 모르지만,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하
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을 쫓아서 얘기
하는 거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
닙니다. 이상입니다.

● 단재교육연수원 김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사들의 연찬, 또 일반 행정연
수, 또 학생들의 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연수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많지도 않고 이런데 그것을 잘 유
효적절하게 써 갖고서 연수에 많은 효과
를 올리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
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본청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요새 세계화·정보화
시대라고 해 갖고서 세계화를 위해서 외
국어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서, 학부모들도 사교육비 지출하는 게 영
어하기 위해서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몇
달씩 그 어린 것을 외국에 보내가지고서
연수하고 돌아오면 돈도 많이 들고, 그
어린 것을 외국에 혼자 떼어 보내는 부모
님들의 불안감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공교
육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저는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외국어 교
육도 학교교육이 정말 원만하게 잘 된다
면은 나가서 학원 다니는 일 없고 외국에
연수교육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중학
교 3학년, 고등학교하고 대학까지 한 10
여 년 하고 죽 했다고 해도 사실 의사소
통을 막힘없이 하는 경우가 한 10여년 됐
다고 해도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 결국
은 뛰냐하면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
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언어와의 우리말

과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게 제대로 안돼서 그렇단 얘기죠. 과거 영어교육 하면 문법위주 교육이지 어디 의사소통 교육은 전혀 안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원어민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번 감사 때 물으니까 우리 도에 원어민이 여섯 명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로는 단재교육원에 두 명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네 명인데 나머지 그 네 명 중에서 어떻게 괴산 같은 데는 간혹 한 명 있으면 거기에 두 학교나 세 학교 갖고서 왔다갔다 하고서 많이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영어교육은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 EBS에 의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또 KBS에 있는 굿모닝팝이라든지 이런 프로로 해 갖고, 또 CNN을 직접 들을 수 있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사실 어려우니까 사실 원어민을 많이 모셔다가 프리토킹을 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얘기인데, 단재교육원수원에 보면 이제 두분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엔 확보인원이 열네 명이나 돼요, 내년엔. 그런데 그 대우가 160만원을 주니까 원어민들이 여기에 안와 있으려고

그래요. 대개 대학의 영어영문학과 이런 데 네이티브스피커들 대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쪽을 어느정도 주며, 그래도 대학에서 잘 떠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원장님 소관보다도 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갖고서 원어민을 많이 확보를 해 갖고서 원어민을 많이 확보해 갖고 그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갖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어민 확보를 위해서 원장님이 도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 갖고서, 이렇게 해 갖고서 효율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등영어연수를 해 갖고서 같이 생활하게끔 한다든지, 사이버 연수같은 두 가지 사업은 아주 원장님, 아주 좋은 사업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하셔 갖고서 특색사업의 효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올리고, 원어민 문제도 한다면 우리 집행청에서 많이 편성하면 우리는 자꾸 더, 우리는 불릴 수는 없으니, 깎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더 해라, 이래갖고 더 해 줄 수는 없는, 우리 교육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예산이 아무리 많이 올라온다고 해도 우리는 도와드리고 일체 안깎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쪽에 노력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의문이 나

서 얘기를 하는데, 377페이지 말입니다, 건물유지비라고 해 갖고서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연수에 따라서 5년 이하는 1,099원이고, 10년은 2,050원이고, 15년은 2,671원이고 해 갖고 거기다 면적을 곱해 갖고서 이렇게 유지비를 하는 얘긴데 이것은 어떤 유지비의 공식 계산방법입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 단재교육연구원장 김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나온 세출예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합니다.

● 간사 이기수

유지비가, 그러면 이게 공식이구만요?

● 단재교육연구원장 김전원

예

● 간사 이기수

유지하는 공식,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갖고 1,060원, 2,000 얼마, 이렇게 해 갖고서 연도별로 구분해 갖고서 면적을 곱했나.....

예,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좀 생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거기 부장님이 지금 일반행정직입니까, 장학직입니까?

● 단재교육연구원장 김전원

전문직이 두 분 있고, 그리고 일반 행정직은 총무과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총무과장님은 사무관?

● 단재교육연구원장 김전원

예, 사무관이십니다.

● 이충원 위원

그리고 부장님은 교장?

● 단재교육연구원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관리국장님, 이것도 첨부해서 자꾸 건의라도 내야 할 겁니까.

교장은 제가 보기에 직책수당, 직책수당이 아마 30 몇 만원일걸, 그렇죠? 그런데 교장하다가 여기 부장 들어오면 떨어지네. 아이 내가 보니까 부장에서는 얼마인가 했더니 7만 2,000원인가, 내가 잘못 봤나?

● 단재교육연구원장 김전원

맞습니다.

● 이충원 위원

이게 나는 조금,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대학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송구

스럽습니다만은 대학에는요, “과”자, “과”자의 과장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드려 가지고서 “과”자의 과장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같으면 조교수가 과장을 하든, 전임강사가 과장을 하든, 주임교수라든지 그 예를 들어 30 몇 만원씩인가 잘 모르겠는데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우리 교육청만, 적어도 보통교육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른 분야 얘기할 수 없지만, 본인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국의 교육감 회의 때는 이것을 강력히 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보니까 똑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인데요, 원장님, 나는 이 강사료는 많이 책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고 하면은요 거기 보면 규정에는 그래요, 시간당 7만원, 5만원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총장, 학장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다음이 아무래도 사회 저명인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저명인사인데 대학처럼 그 분야의 전공분야, 전문인, 이래가지고 사실 단재교육원까지, 저는 작년에 한 번인가 불러도 갔습니다만은 잘 모릅니다, 그 전에는 나가다가 최근에는 못나가는데, 사실 거기까지 갔을 때 웬만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 바라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장님이 그거 통장에 넣을 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일 나름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부장님 오셨는데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강사료 총액이 얼마예요? 나는 암만 찾아봐도 셈이 느려가지고 잘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충요, 대충입니다, 딱 안맞아도, 부장님, 대충 얼마예요? 여기는 강사료가 제일 많이 책정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나가면은 이런 얘기 못하겠는데 다행히 이쪽 일은 안나가서 내가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데, 요새는 나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전원

전체로 계를 내 놓은 것이 없어서.....

● 이충원 위원

아니 대충, 부장님, 원장님이야 어떻게 외워.

● 조일환 위원

왜 예산서에 안나왔어요?

● 이충원 위원

예산서에 별도로 안나왔어요, 내가 암만 봐도. 그래서.....

강사료가 얼마나 하나요, 대충.

● 송진하 위원

왜, 강사료 여기 나왔는데.

● 이충원 위원

나왔는데 조항 조항 있는데 한번에 안나왔어요, 분산이 돼 가지고. 그래서.....

●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전원

해서 2억이 좀 안되는 편이에요.

● 이충원 위원

그러면 전체 비율을 따져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전원

25% 정도.....

● 이충원 위원

강사료가 좀 올라가야 되겠어서, 아니 모실 때 모시더라도, 아 그렇다고 아무나 온다고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면 요 연수 끝나고서 다 받아 보실 겁니다. 조금은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대학에서 우리는 죽 배우고 이런 사람들 이라, 일단 가가지고 갔다 왔을 때에 그래도 메인벨이라도 있고 새로운 어떤 감각을, 아까 외국박사,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 하더라고, 아, 그럴 듯 하다, 뭐 이런다 든지,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정말로 연구해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 좀 대우를 해 주시는데 그래야 아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도 좀 똑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웃지 마세요. 이게 내 비용으로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난 교육청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보면 말이에요 모실 때 장관급을 모셨을 때 그 전에 토탈 보면 교육감

차로 모시는 것 보다는 내비용은 꼭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전에 지사도 보면 내비용이 있었어요, 그전에 경찰국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어려우시겠지만은 어떤 데 가보면 요 제 차 보다는 자기가 타는 차 보다는 훨씬 더 털털거리고 나오건던, 이런 것은 급수를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위원님, 질의.....

● 조일환 위원

제가 이게 각 부서별로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의견을, 제가 참 꿈을 잘 꾸는 사람입니다. 송진하 위원님께서도 어저께 서원 갔다 오면서 서원 뒷골목이 좀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반이, 아, 내가 사범학교 다닐 때 '여기가 왜 이렇게 넓게 했느냐, 세상에 쓸모도 없는 도로를. 그런데 50년 후에 이게 이제 좀 아서 안된다, 도시계획을 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교육은 뭐냐, 적어도 그쯤 바라보고 기회를, 주춧돌 얹혀야 된다, 심야 전기 하면은 이게 냉방까지 하느니, 충열식 냉방까지 할 수 있게 말여, 건물을 지으면은 터미널이 있고 버터가 돼 있어서 랜을 증설하든 이 중앙난방식을 하든 이

것이 기초가 잘돼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단재에 제가 늘 가보면은 상당히 넓죠.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전원

4만 5,000평, 전체는 더 넓습니다만은 저희가 점유하고 쓰는 것은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 조일환 위원

좀 아깝죠.

저는 그래서 왜 이 넓은 땅을 그냥 놀리느냐, 물론 단재에서 막대한 교육효과를 거두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가끔 단재가면, 야, 여기다가 말여, 여기다가, 요새 글로벌이다, 이 과외비가 20조원이 넘는다고, 전국,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됩니까, 영어입니다, 외국어, 그렇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전원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10조원이야, 반이 넘는다니까. 그러면 충북만 해도 수천 억이 나가고 있어요. 좀 비근한 예로 요새는 어학연수 때문에 회사들이 그냥 해 가지고 다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까, 뭐 순진한 사람 다 넘어가요. 저희 지역에 면소재지죠, 면소재지, 거기도 두

집인데, 하나는 둘이, 하나는 셋이, 그런 사람이 찾아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세 아이를 24일 동안을 가는데 1,000만원 들었어요. 1,000만원. 그래 갖다와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인가요, 그런 여자아이 둘, 남자아이, 그러니까 하숙을 시키는 거야, 하숙을, 거기 가서 하숙집에 일정한 돈 주고 그 하숙집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정말 단재같은 데다가 소위 아메리칸 타운 하나 못하느냐, 지금 여기 영어로만 하는 연수, 이거 어떻게 보면 어거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통제, 여기서 영어 안쓰면 안돼, 하면 하지만은 맞들이 화장실에 가, 야 너 밥 먹었어 그러지, 뭐 영어로 하겠습니까? 어거지죠, 그죠? 부자연스럽죠, 이게. 미국사람하고 같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한 것처럼 해라 이거지, 이게 사실은 교육상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안된다, 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부터 전부 다 가르치고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어학이라는 것은 문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말로만 토박토박 이렇게 주고받아 가지고는 이것은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구에 만약에 뭐 올해 안되면 내년에 꿈을 한번 꺾보는 거, 단재같은 데다가, 이제

청주에 보편은 이제 기업체에 와 있는 사람, 교육계에 와 있는 사람, 영어면 영어로 가족이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단체, 한 7만평, 4만평이든간에 어디다 집도 짓고 그냥 살아라, 그냥. 그런데 구조를 초등학교 교실도 만들어 놓고, 중학교 교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가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거기에 미국같은 슈퍼마켓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는 어린이와 거기에서 연수를 하는 그 학생이나 교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학연수원을 말이에요 정말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 한번 거기다 하면은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벤처기업이다.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영어 안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학원에서 하는 사교육비 말고도 그밖에 어학연수 쪽으로 나가는 게, 뭐 저희 자식들도 다 나간본 겁니다. 대학에 가든, 고등학교든 다 나가봤다, 외화로도 막급하고 참 단체, 사실 우리 연수원 입장으로 그 넓이 필요없죠, 그죠? 절반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쓰기에 달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충원 위원님 골프연습장, 넉넉하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의식, 쇼니프레아가 출퇴근을 뭐로 해요, 자전거로 한다, 대형 제국의 수상이 말여. 의식의 차단을,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여 이런 것을 한번 꿈을 꾀해보면은 그럼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선생도 있고, 당신말여 우리가 이리이러한 조건 해 줄거야, 집 그냥 주고, 여기와서 살고 살아주는데 얼마를 보장해 주고, 그러면 지역사회하고도 이게 될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가능한가 아닌가는 저는 기초조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자연스러운 영어만 써라 하는 그러한 연수가 이것은 사라져야 된다, 보는 데서만 지껄이고 공식적인 얘기, 아, 말도 표준어도 있고, 방언도 있고, 어린이 쓰는 말도 있고, 어른 쓰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 단체같은 데다 말여, 경기도는 어학연수원을 만들어서 영어하는 원어민 교사가 둘인가 셋 있어 갖고 몇백 명씩 교사들 연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하다. 그런데 저는 좀 욕심을 부린다면은 학생들도, 그래놓고 수익자 부담이야, 여기와서 한 달간씩 하는데 50만원이 들어, 5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낮죠, 물론 관광성도 좋습니다만. 예를 든다면은 우리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정말 외국어 교육만은 정말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야지 미봉책으로, 지금 부모들이 초등학교에서 3학년에 몇 단어, 중학교에서 몇 단어 그러는데 학부

형들은 저만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전원

예

● 조일환 위원

자꾸만 앞선다, 그렇다고 그것을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유창하게 회화 안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원장님 말이에요, 거기 계시는 동안에 그런 것을 한번 이래 직원들 하고라도 프로젝트를 세워서, 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 보자, 아니면 더 좀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 보자, 우리 청주지역에 우리가 그렇게 주거환경을 해 주면은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기초조사도 해 보고, 대학이라든가 여기 뭐 LG라든가 무슨 이런 산업체에도 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도 돈보다도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에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바지하고, 그 자식들이나 이 사람들도 또 한국 사람들과 또 배우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 창의적으로 정말 교육계가 변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작은 예산 가지고 쓰시는데 단재같은 넓은 데서 갈 적마다, 아, 참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혹시 제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더 우리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저는 건물이 번듯하고 뭐가 좋고 뭐이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관계서는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단재교육연수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니 원장님과 관계관계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종합야영장, 세 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각 기관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세 기관을 한꺼번에 아울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내년도 예산에 도서관 운영비가 1억 6,000여 만원이 껴었는데 지장은 없겠어요?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중앙도서관장 이기수입니다.

저희들 전체로는 2억 7,000 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 속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제일 거기서 삭감된 내역은 금년도에 만든 디지털 정보 자료실을 만들 적에 필요했던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본청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을 해 주고,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반영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금액 그것은 다음 추경 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재원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송진하 위원

전체 예산에서 2억 6,200만원이나 감됐는데,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조금씩 금액이 돼 가지고.....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여기 있을 적에는 몰랐는데 나가 보니까 또 예산부서에는 예산부서의 애로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좀 야속도 했지만 이해를 하는 쪽으로다가 하기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적에도 보면 조일환 위원님께서 도서관구입비는 학교에도 별도 책정을 해 줄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실제 나가 보니까 저희 중앙도서관에 이번에 여기에 도서관구입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라는 도서관구입비는요 아마 타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파손되는 도서를 보충하기도 어려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구입에 대한 인식은 달리해야지, 물론 앞으로는 도서만이 아닌 디지털 시대가 되면 전자도서관이 되면은 이제 컴퓨터로다가 도서를 보고, 책을 보고, 학적들을 보고 이런 시대가 발전하는 거지, 시설했으니까, 이렇다 보니까 또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껴지 않았나 하고 이해가 갑니다.

다음 기회에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이기수 관장님께서 추경에 거는 기대가 크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390페이지 도서관 전용회선 사용료를 1,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도서관장 이기수입니다.

이 전용회선은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중앙도서관과 이 각 도서관이 서로 회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선사용료가 한국통신에다 저희들이 지불을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용사용료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도서관끼리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세 해 가지고 회비, 그 회비도 내는 그 회비하고 사용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회비는 별도로 내는 거고?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제세는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성격이 있는 게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나오는 거고, 사용료는 말 그대로 순수한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같은 과목에서의 성격만 조금 틀린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협회비니까 그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받

는 돈이지 뭐, 세금이 아니라.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협회비는 아까 연구원 쪽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서직이 있는 도서관이 전국 공동도서관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서관 규모 크기에 따라 가지고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회비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거하고 도서관 전용회선 사용료하고는.....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별도입니다.

● 송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충북학생회관, 회관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일반인을 상대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증액이 안된 것 같은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거기보면 관서운영비에 관보, 도보, 법령집, 이게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는 관보도 있고, 도보도 있고, 법령집도 있어야죠. 하나 본청에 있으니까 가깝게 있으면 필요하면 와서 보면 되지 꼭 이런 예산을 직속기관에서도 봐야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학생종합야영장에도 관보, 도보를 보더라구요. 거기

그래 규정이 직속기관도 보도록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예산의 절감면에서도 그렇고, 또 직속기관이 멀리 있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시내 같이 있고, 또 지금 팩스니 뭐니 발달돼 가지고 필요한 거를 본청에서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직속기관도 이런 구독료를 내야 하느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관보는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거기에 국가시책도 나오지만은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알아야 될 사항들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또 그런면에서 저희들도 실·국 단위로 도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행정기관같은 경우에는 도보를 보지않으면 상당히 행정정보를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그전에는 각 학교에서도 관보를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관보를 보는데 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정리하는 게 문제라고. 쌓여가지고 그 관보를 노상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정리하는 수고비도 엄청

나다고. 그래 지금은 그게 일선학교는 아마 큰 학교는 몰라도 작은 학교같은 데는 관보를 구독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직속기관도 안보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부하고 절충을 하셔서, 직원들이 관보 오면 그것을 뭐 전부 가감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도 없는데다가 또 예산도 없는데다가, 예산, 인력 소모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건의라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종합야영장은 안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또 안들어 보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야영장장님 수고 많으세요.

거기 411페이지 보면 승합차, 여기 4,000만원 예산이 썼는데 그러면 어떤 참니까, 이게.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콤비라는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 수송에도 활용이 되고, 직원들 출퇴근에도 아울러 활용하는데 30인승입니다. 이것이 지금 5년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2년 더 보유를 해서 7년이 지금 지났는데 많이 노후화 돼서 그 버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형버스 이상입니다, 노후화 돼서.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새로 사는 거죠, 없던 건데.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아니 있었던 건데 대체하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대체하는 거예요?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예, 7년이 넘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실질적인 면에서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있는데 학교장으로서는 그 스쿨버스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요. 그 애로점이 뭐냐 하면은 기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사가 아파도 못간단 말이에요. 또 차가 고장나도 못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레 기사가 아프거나 차가 고장나면은 애들 등학교에 당장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교장은 당황한다고. 학부형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그렇다 해 가지고 무슨 버스를 그냥 당장 그 관광버스를 불러달 수도 없고, 그러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학생야영장이나 도서관도 좋아요, 도서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와서, 좀 대형버스나 중형버스를 사놓고 학교에 그런 어려운 때 동원 가고, 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서,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두루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중

요하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은 학생종합야영장에 무슨 버스가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기동력이 없이는 이게 안된다고요, 기동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그 기동력을 유효적절하게 일선 학교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울 때, 여기 뭐 청원군 내도 스쿨버스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때는 여기서 즉각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기관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우선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방금도 설명했지만은 만원짜리 4,000권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확보율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서확보율이, 중앙도서관 도서확보율.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확보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간사 이기수

예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저희 도서관은 현재 장서보유 수가 약한 22만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60만이다 하면은 기준도서 산정할 적에 최소한의 33만권 정도는 장서보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이지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제가 외국에 가 보니까 외국에는 한 도서관이 600만권, 어디 뉴욕도서관 같은 데는 1,200만권씩 되니까 거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만은 적어도 청주 인구가 60만이다 하면은 최소한의 33만권의 장서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3분의 1이 부족하네요.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그렇죠.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도서관장을 해 봤거든요. 해봤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보면 확보율을 공수를 하더라고요. 몇 권 이상 보유를, 몇 % 이상을 보유해라, 그 수를 미만했을 때는 대학 교과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도서관도, 제가 이제 대학도서관 관장을 하다

보고서 그쪽을 한번 지금 관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지난 해나 2대 교육위원 때에 한번 가보니까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책이 보면 아주 낡은 책이고, 그래 갖고서 폐지해야 될 책들로 이루어져 갖고 아주 중앙도서관이, 물론 여기 대학의 연구기관하고는 뭐 전문서적이야 비교해서 안되는 얘기지만 그외 나머지 서적들도 상당히 빈약한 것을 내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나아졌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거든요.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지금도 뭐 22만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얼마 안됩니다.

● 간사 이기수

어떻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도서 책이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도서선정위원회나 도서운영위원회같은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정위원회에서 책 살 때 얼마만큼 사야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폐지도서를 회의해 갖고서 못쓰는 책을 폐지시켜 갖고서 그 공간을 확보해야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도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겠지만은, 못쓰는 책 폐지하고 새로 사고, 책도 뭔가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금년에도 옛날 고서, 거의 파본하고 한 거 3,000권 정도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1년 12달 가도 활용도 안되고, 그냥 폐기도서로 되기 때문에 폐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이 안되고 옛날에 된 것은 점진적으로 폐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렇게 하고 책에 대해서 방화시설이라든지 장서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서 꺼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향온향습 장치를 해 가지고 고서 책이 상하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향온향습기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방화는 어떻게?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방화 스프링클러 시설은 그 당시에 질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서고 형식밖에는 지금 안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되려면, 왜냐하면 향온향습장치 되고 방화시설 해 갖고 화재 딱 나면 횡 돌아가면서 그 부분이 꺼지게끔 이렇게 돼야지 되지 한꺼번에 일시에 소실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전자도서실 쪽에 우리 관장님 잘 보셨는데 전자도서실 최하로 한다면 1억 이상 듭니다. 이제.....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저희들이 전자도서실을 문광부에서 2억을 받고, 저희 도에서 50대 50을 해서 2억을 해서 4억 규모로 지금 중형이라고 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 **간사 이기수**

그게 그럼 앞으로 책이 이제 많이 소장하게 되든지 하면 책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도서실을 했을 경우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서 어떻습니까, 도서관에도 교통분담금을 물어요, 어떻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아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통분담금하고 저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까지는 도서관이나 과학교육원에 교통분담금을 면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청에서 이것도, 물론 법적으로는 저희도 내야 됩니다. 학교 말고는 공공기관 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작년에 이것이 와가지고 저희 직원이 시청 직원들 하고 가서 반 싸움 비슷하다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50% 타절하자 뭐

해서 절충 형식으로 해서 냈고, 금년에 예산에 제 기억으로다가 반영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 교통분담이라든지 또 환경부담금인가 그것은 계속 저쪽의 시청에서 내라고 요구가 오고 있고, 또 안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야 됩니다.

● 간사 이기수

관장님, 교통분담금 처음에 거론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뭔가 항의하는 것을 발표하자 해 갖고 우리가 한번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서 안된다. 그런데 이게 중앙도서관이라는 얘기는 청주시의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걸 우리가 학생들도 많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중앙도서관으로 본다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서예교실 운영이다, 뭐다 뭐다, 정서 교육을 위한 봉사가 대단히 많은데 그것을 갖고서 그럼 시에서 물으라는 얘기는 그럼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자기들이 받는 혜택은 어디다 치고 말입니다, 교통부담금을... 그럼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받는 돈이라면 중앙도서관같은 경우야 아까 교육과학연구원같은 경우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교통에 어떤 부담을 줘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참을 수 있는 얘기지만은 중앙도서관같은 경우에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을 해 갖고서 시에서도 받는다면 얘기는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교육 못하고 말여, 서예교실 안하고 말여 이거 전부 그만두고 학생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한번 강하게 나가야지.....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완전히 공동적인 성격이 있어서, 아, 그러면 공원 만들어 놓고 공원에 오면 공원 관리하는 시청도 교통분담금 내야 될 거고, 아마 저희 도교육청도 교통부담금인가 그것을 낼 겁니다, 여기도. 도청도 내고. 이제 이렇게 사실 기관에서 내는 것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청으로 들어가면 또 예산으로 쓰고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것이 면제가 안되고 했는지, 말씀대로다가 이거 만들 적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그것을 법을 입법하고 하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왜 그러는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행정을 하기 위한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하면 대부분 활동이 학생교육을 위해 갖고 하

는 행정이지만은 중앙도서관이야 시민들 불러 갖고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덴데 결국은 우리 중앙도서관이 하는 역할 중에서 참 학생들을 위해 갖고서 서비스 하는 일 이외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기관하고 중앙도서관은 다른 얘기예요, 여기를 갖다가 받는 얘기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한테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시청에서도 부담금을 자기들도 내고 있어요?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시청도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말 표현이 조금 속되긴 하지만 자기들이 내고 자기들이 그것을.....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그래서 학교하고 연구기관 말고는 일반 행정기관, 모든 기관 다 내는 걸로 되어요.

● 간사 이기수

연구기관보다도 우리 중앙도서관을 실제 안받아야 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장님이 한번 접촉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충북학생회관 보면 다국어교육실이라고 해서 396페이지에 내국인 2만 3,000원, 외국인 3만원 이래갖고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국인, 외국인은 뭘 갖고서 내국인, 외국인, 수당은 강사가 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강사료.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장입니다.

내국인은 우리 자체 강사를 얘기하고, 외국인은 그 우리 교수를 구분하고 있어요. 충대 교수하고 (청취불능) 교수하고 그 교수수당을 말합니다.

● 간사 이기수

그것도 내국인 아니예요? 교수도.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아니 그 사람들은 외부인이죠.

● 간사 이기수

외부인들?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예

● 간사 이기수

영어입니까 그럼?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독일어하고 프랑스어.

● 간사 이기수

3만원이면 너무 적으네요.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적습니다.

● 송진하 위원

관장님 차로 모시는 거예요?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그 양반들이 옵니다.

● 간사 이기수

여기도 도서가 있어서 학생도서가 1,000권 있어가지고서 사실 1,000만원 있는데, 여기 어느 장서를 확보하고 있나요?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저희들은 3만 6,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어떻게 부족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아직 부족하죠.

● 간사 이기수

앞으로 많이 노력하세요.

● 충북학생회관장 박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종합야영장, 그 408페이지에 야영장님, 수질검사수수료 17만 9,500원 해서 2공이라는 게 됩니까, 2공.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저희들이 거기 수도관 들어오고 지하수기 때문예요 거기 수질검사를.....

● 간사 이기수

한공 한공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예, 두 군데서, 수원 개발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리고 야영장은 그 앞에 천이 있는데 미호천, 과거에는 학생들이 좀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생각을 못하죠? 오염돼서.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외부에서 온 이용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달이 군청에서 한 수질검사를 통보받는데 2급수면은 수영장으로 쓸 수가 있는데 2급수쯤으로다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그 갈수기나 이럴 때 3급수로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데.....

● 간사 이기수

그러면 거기 야영하는 학생들은 앞에 있는 수영장을 전혀 이용을 안합니까?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예, 거기는 전혀 이용을 안시키고 있고 몇 년 후면은 그 물을 쓸 수가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그쪽 수질검사는 전혀 안하는 모양이죠?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다달이 군청에서 합니다. 군청 환경과에서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장장님, 2대 때 보면 그쪽 수질은 진천군하고 이게 거기 정화시설이 갖춰져야만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하수종말처리장오로다가 유입되는 지류가 네 군데인데, 두 군데 것은 지금 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하고 있고, 두 군데 것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흘러 내려오는데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그것이 2002년에 준공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그 야영장 앞에 흘러 내려오는 것이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종말처리장이 돼서 정화가 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예, 그럼에도 2급수가 됐는데 진천군수 견해로는 2010년에는 1급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도 2003년 쯤이면은 수영은 된다 라고 거의 확신이 됩니다. 지금에도 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야영장님, 그전에 제가 거기 감

사 나갈을 적에는 진천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해 줘야지만이 앞에 깨끗한 물로 수영할 수 있는 2급수 정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접촉을 해서 그 물이 깨끗해 가지고서 야영하면서 그 물에서도 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거기 살고 있는 어류들이 많이 살아나고 다슬기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물이 무척 호전된 걸로 보고, 중간에 있는 축산농가의 오폐수까지 지금 전부 수거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정화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2002년도에 그것이 되면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간사 이기수

장장님은 그러면 군에서 수질검사 하는 통보만 다달이 받고.....

● 학생종합야영장 이영규

예, 그것이 DOD, COD, SS 이런 기호, 이런 부류들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아무 기구나 기술이 없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다달이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월별로.

● 간사 이기수

그러시고 거기서는 또 이제 서해수련원도 하고 장장님, 직원이하 뜨거운 폭염에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건축 때문에 이

쪽은 사용을 금년에는 안하셨어요?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예, 안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그쪽의 인력은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한달에 몇번씩을 그쪽에 가서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인력이 가사 합니까?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지를 나가보고 있지만 거기 때문에 인원을 더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야영장 인원을 분산해서 근무를 시켰었는데, 지금은 현지 관리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상주하면서 거기를 보고 있어서 문제가 이때껏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 이제 서해수련원 짓게 되면 장장님이 지시는 거죠, 그렇죠?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2년간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보고 하라고 명하셔서 해 왔습니다.

● 간사 이기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한 부서에 한가지만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 하게 되면 도서관 운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6,500만원이 줄었네요?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그 줄은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에 관한 것이 줄었어요, 1억 5,000이나. 어째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도서관장 이기수입니다.

여기 2억 5,000 줄은 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 디지털 정보자료실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자도서관을 하는 그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좀 줄은 겁니다.

금년에 거의 완성이 되고 내년에는 운영비만 투자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줄은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3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장서구입비가, 아까 이기수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만 원 해서 4,000원, 이렇게 했어요. 작년보

다 이게 얼마나 늘은 거죠?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이었는데요 추경에서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해서 7,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다가.....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경에 넣는다 하면 도서는 더 사셔야죠.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제 추경에 가끔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이 책당 단가는 어떻게 규정에 돼 있습니까, 만원으로?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출기초지 이것에 따라서는 7,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2만원, 3만원짜리도 있고.....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만원이면 되겠더라.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그런데 고가적인 책을 사려면 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 이충원 위원

388페이지에 보면요 국외 정기간행물, 이게 한 종밖에 없어요. 지금 국제화시

대, 국제화시대 하는데, 그래도 대개 보면은 이게 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은 학교 도서관과 다르고, 또 교육과학도서관에 있는 도서관과도 다릅니다. 일종의 충청북도의 도서의 센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도서관은 없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외 것을 읽든지 못읽든지 간에 자료실 이니까 이것은 아마 추경에라도 더 해야 하지 않나,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하나는, 아마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도서관에 하나 여쭙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형버스 두 대 있죠?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 이충원 위원

글쎄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연도라고 그러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언제까지예요?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지금 중형버스 32인승 버스를 승용전용이 아니고 이것은 도서를 그 차안에다가 서가를 만들어 싣고 각 아파트 단지에 이동도서관도 쓰고 있는데 '92년도에 한 대는 구입했고, 한 대는 '93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저도 저쪽에 아파트 앞에서 봤거든요. 이거 금년에 좀 요구 안하셨어요? 새로 교체라든지 저기 하는거?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교체요구를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다가 하지 않고 1년을 좀더 쓰겠다 해 가지고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은 이동도서관은 사실 운행거리는 뭐 시내를 다니고 단거리 다니기 때문에 운행거리는 얼마 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엔진이 그렇게 뭐 차 그런 것이 무리가 간 것이 아닌데, 단지 오래 쓰다보니까 여름에도 아파트 단지 가 있으면 더우니까, 그 안에 딱 밀폐가 되다시피 하니까 에어컨을 안돌릴 수 없습니다. 또 겨울에는 히터를 세워놓고도 엔진은 돌아갑니다. 그래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자동차 공장이라고 그럴까 가서 한 1,2년 더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어떻게 하면은 내년 1년 정도는 이런 식은 더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1년을 더 쓰게 됐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적고 지금 보니까 제가 서울 것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아주 대형에다가 아주 에어컨이 장착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 그런 장치로 적어도 도서관, 아

니 전체 예산이 엄청 많으면 모르는데 중앙도서관이 겨우 7억이예요, 토탈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암만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중앙도서관은 마치고, 학생회관장님께 여쭙보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도 났고 먼저 교육위원회에도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또 행정절차상 그것을 뒤로 미뤘는데 학생문화관인가 학생회관 건축 계획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박 관장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미 벌써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회관 자체에서 기초자료, 뭐 타당도 이런 것을 연구를 할 연구용역비같은 게, 이게 모르니까, 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저기에서 하는 거다 라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의 부서에서 혹시 어디 연구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안보이네요.

● 학생회관장 박영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역 관서기 때문에 기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냥 의견만 제시하지, 그런 관계는 기획부서인 평체과나 기획관리과 이런 쪽에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단지는 현재 진행 정도는 저희들이 산남 3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1만 5,000명 정도를 개발계획을 저희들한테 말도록, 저희들이 교육문화단지에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한 5,000명을 구매를 하고, 만평 정도는 시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한 1만 5,000명 정도를 저희들한테 내용에 말도록, 개발계획을 바꾸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자심사위원회까지 마쳤는데 법이 뒤늦게 개정된 게 내려와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법개정이 9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법예고는 됐더라도 그 입법예고된 기간에 언제 공포를 한다든지 내용이 어떻게 수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뒤늦게 이제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일단 거기서 중지를 하고 저희들 계획으로 명년도 1회 추경쯤에 전문가의 의사를 듣는, 용역 자체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금년에 나온 게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게 있었을 때 현역 부서에서 상당히 이 스타

다가 별로 어떤 이런 게 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야영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의 건물, 가건물 건축하는 게 있네요. 2,286만원, 그렇죠?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예

● 이충원 위원

내년 여름 시즌에는 건물이 한창 건축될텐데,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야영을 할 수 있습니까?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야영장 이영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내년에는 서해를 학생 체험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 이충원 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2,28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그 건물을 철거를 한 건물을 갖다가 야영장에서 재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아까워서.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만 2,200만원이 든다?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철거와 이쪽에다 이축을 다시 하려고
그됩니다.

● 이충원 위원

왜 이축을 해요?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그것이 이제 전체 영구 건물이 들어서
면 필요없는 건물이 되는데 그것이 아까
워서, 저희들은 이쪽 학생종합야영장에서
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고 갖다가 옮겨서 세우려고
그됩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더라도 그건 필요하
다?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서해 것을 가지고 갖다가 여기 진천에
다가 옮겨서 다시 이축을 하는 겁니다.

● 이충원 위원

그것을 진천에다 옮긴다?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예

● 이충원 위원

그게 얼마 들어간 거예요?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물
값만 한 3,000만원이 조금 넘게 들은 걸
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 이충원 위원

글쎄요,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지
나간 거라 기억이 잘 안나는데 여기 들어
온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래요. 저거 한 지
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죠? 가건물인데
2년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제가 잘은 모
르지만 '아, 많이 드는구나' 했어요.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저한테
지적하라면은. 당장 1년이나 2년 후에 건
물을 지을 건데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뜯
고 그런건데, 그래서 좀 여쭙보는 겁니
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놓으실 거군요.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예

● 이충원 위원

뭐 제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딱 보기에 '아, 또 여기다가
2,000을 들이나' 이래서 여쭙보는 것입니
다.

●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버려두면 쓰레기밖에 안돼서 그것을 그
대로 옮겨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늦게 하다보니까 눈치가 보이는데 아까 저기 연수원 할 때 참석을 하셨던가요, 계셨었죠?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아까 뵈는 것도 같고 어사모사 해서, 그럼 저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그걸로 정말 잘 좀 해 달라고.

●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저희 시작부터 셋이 다.....

● 조일환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학생회관장님, 학생종합야영장장님과 관계관계서는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종합야영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

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오후 2시까지?

● 조일환 위원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이상일

아니 집행청에서 의결하는데.....

그러면 2시 30분까지.....

● 조일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거 끝내야 됩니까?

● 위원장 이상일

아닙니다.

● 조일환 위원

그건 아니죠?

● 위원장 이상일

예

● 조일환 위원

관계없어요.

● 위원장 이상일

갖다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를 조정하고.....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시 반 안에 계수를 조정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이상일

저기 속개를 해 놓고 의견이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3시쯤 해서 계수조정 끝나고, 뭐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떠세요? 아주 한 번 하고 말지 뭐. 자꾸.....

● 송진하 위원

앞으로 두시간이니까 2시 반에 하면 될 것 같아요.

● 조일환 위원

그런데 계수조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겠어요?

● 간사 이기수

그러면 3시에 하든지 그러면, 다 끝나고서 그러면 2층에서 간단히, 소회의를 간단히.....

● 위원장 이상일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의를 속개해 놓고 우리끼리 간단히 한 20분이나 얼마나 정회할 수 있으니까 너무 늦게 해와가지고 또 괜히 시간이 남으면 우두커니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조일환 위원

아니 오늘 정회하면 끝이지 뭐 끝나고 뭐 기다릴게 있어요?

● 위원장 이상일

뭐 위원님들 좋으신 대로 하세요. 시간을 몇시로?

● 조일환 위원

좋으신 대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정회하고 번거롭게 그럴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계수조정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끝나면 집행청 하고.....

● 간사 이기수

3시에 회의는 속개하고 그럼 2시부터는 만나가지고 하계끔 하죠.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3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직속기관을 끝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조정하기로 한 부분은 총무과 소관 시설비중 본관 외벽 및 창호보수공사 12억 6,050만원, 기획관리과 소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지역

교육청 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비, 규모별 기본지원비 3억원 중 1억원, 평가차등 지원비 2억원 중 1억원, 교원급여 중 기타직 보수 초등학교 교원 정원결원 기간제교사 인건비 46억 8,344만 4,000원 중 6억 747만 6,000원과 동 과목의 제경비 초등학교 교원 정원결원 기간제교사 퇴직금 3억 9,028만 7,000원 중 5,062만 3,000원, 연금부담금 2억 1,223만, 2,000원 중 2,752만 8,000원, 고용보험료 7,025만 1,000원 중 911만 2,000원, 산재보험료 2,810만원 중 364만 4,000원,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은행차입금 이자 4억 7,062만 8,000원 중 3,998만 8,000원 등 총액 21억 9,887만 1,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입하여 세입·세출예산 각각 8,868억 9,905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안

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각종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았음에도 본예산 심사에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칩과 아울러, 제5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집행청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서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시면 잠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오랫동안, 또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들 교육행정 집행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 행정집행에 참고로 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8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동현, 단재교육원장 김전원, 중앙도서관장 이기수,
학생회관장 박영하, 학생종합야영장장 이영규.

※ 부 록

- ▶ 2002년도 당초 예산안 특색사업 보고(별첨 2)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12. .

위원장 이 상 일 李相一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3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0.23. (화) 조례소위 종료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2001.10.26. (금) 14: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세부설명, 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01.10.27. (토) 10:00~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교육청 세출예산안 심사)	
2001.10.29. (월) 10:00~	[제4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안 심사) - 오전 : 청주·충주·제천·단양교육청 - 오후 : 청원·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교육청	
2001.10.30. (화) 10:00 ~	[제5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오전 : 직속기관 세출예산안 심사, 오후 : 계수조정 및 의결)	
2001.10.31. (수)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별첨 2)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보고

청주교육청의 15개 기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청주교육청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청주교육청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 보고

<청주교육청>

1. 일반현황

구 분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비고
	2002	2001	증감	2002	2001	증감	2002	2001	증감	
병설유치원	40	39	1	2,170	2,064	106	77	74	3	
초등학교	47	45	2	59,344	57,334	2,010	1,635	1,482	153	
중 학교	25	25	0	26,587	26,583	4	662	639	23	
계	112	109	3	88,101	85,981	2,120	2,374	2,195	179	

※ 개신병설유치원, 개신초등학교 : 2002.3월 신설 / 동주초등학교 : 2002.9월 신설

2.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예비비	합계
재원배분	자체수입	계	재원배분 편성	자체수입 성	계		
73,652,918	7,249	73,660,167	73,611,823	0	73,611,823	48,344	73,660,167

3. 특색사업 현황

가. 자체계획

(단위:천원)

순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1	○ 학생해외교류	○ 중학생 해외교류 - 7월중 청주방문예정 - 중학생24명,인솔교사8명	학생24명 인솔단 8명	6,160 .	461-464
2	○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서축제	○ 초등학교 독서축제 - 학생독서 만물박사전발대회 - 학생독서동아리전시회 - 학생,교직원,학부모 독서토론 대회 - 학부모 독서감상문 발표대회 ○ 중학교 독서축제 - 독서학습장 보급	4개학년 4부분 1회 1회	(7,660) 4,260 1,300 1,150 950 (6,000) 6,000	431-432 462
3	○ 초·중교과별S/W 자료 제작 지원	○ S/W자료제작 동호회 지원 - 교육청 정보자료실 이용 - 초·중 교과별 교사S/W 제작	10팀	5,000	429 445

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물 량	예산액	비 고
4	○ 영어능력 배양	○ 초등 영어 잔치 - 초등영어 경시대회 개최 - 평가테이프 200개 ○ 중등 영어청해능력인증제 - 평가테이프 160개	45교 225명 중:전학년	2,120 1,620	430 461-462
5	○ 특수장애아 재택 교육	○ 가정,복지시설 거주 중증장애 초·중학생 방문교육 -복지시설방문및재택순회	교사12명	3,200	435 449

나. 재원배분

(단위:천원)

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물 량	예산액	비 고
1	○ 학교신설	○ 초·중학교 신설 - 지암초('03.9 개교) : 시설비등 - 분평중('03.3 개교) : 시설비등 - 죽림중('03.3 개교) : 시설비등	3교	(29,921,377) 7,246,000 10,161,340 12,514,037	441 453-454
2	○ 신설학교 교재교구 구입	○ 2002~2003신설교 지원 - 복대중('01.3 개교) : 2년차 - 개신초('02.3 개교) : 1년차 - 동주초('02.9 개교) : 1년차	3교	(970,000) 256,000 357,000 357,000	453 441 441
3	○ 교육과정개편시설	○ 교실 및 계단실증축 연결복도 등 - 초 : 운천초외 6교 - 중 : 청주남중외 5교	13교	(4,880,434) 2,308,467 2,571,967	443-444 456
4	○ 교육환경개선시설	○ 난방개선,조도개선,화장실수선 채결상구입 등 - 초 : 주성초외42교 - 중 : 청주중외23교	(67교) 43교 24교	(6,886,315) 4,835,727 2,050,588	442-443 454-456

다. 학교 신설 추진현황

(단위:천원)

년도	학교명	규모	위 치	부 지	총소요예산				추진현황
					토지매입비	시설비	설계비	계	
2002.3	개신초	36학급	개신지구	11,890㎡	4,211,760	6,647,505	208,216	11,067,481	마감공사중(85%)
2002.9	동주초	36학급	용암2지구	12,509㎡	3,907,044	8,523,644	242,431	12,673,119	골조공사중(30%)
2003.9	지암초	36학급	용암2지구	12,361㎡	3,844,900	7,315,474	252,504	11,412,878	부지매입계약및설계발주
2003.3	분평중	36학급	분평지구	12,202㎡	4,427,715	8,044,996	247,238	12,719,949	설계발주
	죽림중	36학급	가경4지구	10,580㎡	5,076,284	8,036,498	232,744	13,345,526	설계발주

2002년 본예산 편성 현황

□ 총괄

(단위:천원)

세입					세출				
구분	금액		증감	비율	관별	금액		증감	편성비율
	2002	2001				2002	2001		
배분재원	73,652,918	61,946,629	11,706,289	99.9	유치원	919,642	579,890	339,752	1.3
					초등학교	30,115,332	36,303,145	△ 6,187,813	40.9
					중학교	41,944,238	24,138,477	17,805,761	56.9
자체수입	7,249	25,854	△ 18,605	0.1	교육행정	632,611	776,697	△144,086	0.9
합계	73,660,167	61,972,483	11,687,684	100	합계	73,611,823	61,798,209	11,813,614	100

□ 세출예산 증감사유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주 요 증 감 사 유
유 치 원	919,642	579,890	339,752	교육과정개발운영△4,000 연구시범학교운영 △1,000 학교급식운영 14,690 교단선진화 △32,100 학교운영기본경비 106,800 경제사정곤란자녀학비지원 234,063 기타운영비지원 47,658 학부모교육 △2,360 일반시설 △25,269
초등학교	30,115,332	36,303,145	△6,187,813	연구시범단지운영 36,000 연구시범학교운영△98,600 도서실운영 △299,600 특기적성교육활동 48,558 학예행사지원△12,320 교과서무상지원 295,542 학교급식운영 184,000 교원연수 △21,050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17,020 컴퓨터교육지원 67,140 학교전산망구축 △37,607 S/W개발및보급 △ 80,110 교단선진화 △286,400 학교운영기본경비 753,351 기타운영비지원 △39,000 교원사무보조원임용 33,305 신설학교지원 476,962 수용시설△4,091,752 수용시설(학교중개축) △ 4,886,113 일반시설 △284,833 교육환경개선시설 218,830 교육환경개편시설 2,012,107
중 학교	41,944,238	24,138,477	17,805,761	교육과정개발운영 △34,000 도서실운영 △214,000 각종체육대회지원 15,170 학교체육활동지원 △54,000 교과서무상지원 341,202 학교급식운영 △540,050 학교급식운영(시설비) △1,353,330 교원연수 △12,000 컴퓨터교육지원 △37,835컴퓨터보급 △61,746 S/W개발및보급 △38,393 교단선진화△199,900 학교운영기본경비 182,612 시설학교지원 △82,560 재정결합보조 2,017,028 수용시설 19,942,715 수용시설(학교중개축) △3,454,450 일반시설 △1,350,822 교육환경개선시설 △576,053 교육과정개편시설사업 2,571,967
지역교육청	632,611	776,697	△144,086	기관운영비(기본경비) △18,984 기타학무행정운영 △22,447 학부모교육 △1,640 교육재산관리 △8,627 교육행정업무전산화추진 42,789 기타관리행정운영 △3,655 일반직원수 4,700 일반시설 △50,104
합 계	73,611,823	61,798,209	11,813,614	

2002년도 당초예산(안) 중

충주교육청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충주교육청

I. 세입·세출 현황

1. 일반 현황

(단위: 교, 명, 학급)

구분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비고
	2001	2002	증감	2001	2002	증감	2001	2002	증감	
병설유치원	34	34	0	1,166	1,275	109	54	54	0	
초등	38	38	0	18,321	18,653	332	566	595	29	
중등	15	15	0	8,685	8,553	△132	224	228	4	
계	87	87	0	28,172	28,481	309	844	877	33	

2.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

(단위:천원)

세입			세출			예비비	합계
재원배분액	자체수입	계	재원배분편성	자체수입편성	계		
34,300,100	125,894	34,425,994	34,300,100	42,172	34,342,272	83,722	34,425,994

3.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2001년도)	증감	비고 (증감사유)
재원별	과목				
도교육청 배분재원	국고	19,337,024	4,165,220	15,171,804	
	지방비	14,963,076	21,448,268	△6,485,192	
	소계	34,300,100	25,613,488	8,686,612	
충주교육청 자체수입	재산임대수입	125,594	153,216	△27,622	폐교재산 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0	393,665	△393,665	재산매각 계획 없음
	사용료및수수료	300	300	0	도서관 사용료
	잡수입	0	269,227	△269,227	전년도 잡수입 - 위약금
	소계	125,894	816,408	△690,514	
합계		34,425,994	26,429,896	7,996,098	

4.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2001년도)	증 감	비 고 (증감사유)
장	관				
학교교육	유치원	454,048	351,533	102,515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보조교사운영 사업 신설
	초	9,866,534	13,312,063	△3,445,529	시설확충비 감액
	중	23,438,164	11,548,279	11,889,885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및 신설학 교 수용시설비 증액
	소 계	33,758,746	25,211,875	8,546,871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92,461	160,528	-68,067	도서관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감액
교육행정	지 역 교육청	461,645	524,754	△63,109	기관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감액
	교육지원 기 관	29,420	109,053	△79,633	야영장 시설비 감액
	소 계	491,065	633,807	△142,742	
세 출 합 계		34,342,272	26,006,210	8,336,062	
예 비 비		83,722	423,686	△339,964	
총 계		34,425,994	26,429,896	7,996,098	

II. 특색사업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가. 자체 편성사업	김재옥교사 기념관 및 통일다짐교실 운영	○ 대상교: 동락초 ○ 설치목적: 관내 학생들의 통일정신교육 ○ 사업내용: 통일다짐교실 운영 및 각종 교육 자료 구입·활용	1교	6,800	초등
	교과특별교실 운영	○ 외국어교실, 컴퓨터교실, 과학영재교실 운영 - 외국어교실: 초등 2과목, 중등 4과목 운영 - 컴퓨터교실: 초·중학생 각 40명씩 70시간 2회 운영 - 과학영재교실: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130 시간 운영	3회	14,250	초,중
	조리실 냉방기 보급	○ 각급 학교 조리실에 냉방기 연차적으로 보급 - 목적: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조리원 근무여건 개선 - 기지원 실적: 초등 5교, 중등 2교 - 대상: 초등 4교, 중등 2교	6교	10,200	초,중
	향토탐사대 운영	○ 향토자료집 발간, 향토탐사 보고 발표회 운영 - 향토탐사대 운영: 초·중 희망교사로 구성, 월1회 활동, 학교별 학생 향토탐사대 운영 - 향토자료집 발간: 체험학습 안내자료 및 충주 문화유적 답사 지침서 발간 - 향토탐사 보고 발표회: 교사 및 학교별 탐사 대 발표회, 탐사보고 발표회(11월) 개최	월1회	11,400	교육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나. 목적 지정사업	수영장운영	○ 삼원초 수영장 운영 - 입장료 수입을 제외한 기본운영비 지원: 8,000천원 (입장료는 학교자체 세입으로 편성)	1교	8,000	초등 (p496)																																		
	통학 버스 구 입	○ 통학버스 2대 교체 - 15인승 1대: 28,000천원 (산척초) - 34인승 1대: 40,000천원 (강천초)	2교	68,000	초등 (p494)																																		
	교원사무보 조원 임용	○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원사무보조원 임용 - 대상: 초등 17학급 이하, 중등 3학급 이하교 - 초등: 25명 (166,525천원) - 중등: 2명 (13,322천원)	27교	179,847	초,중 (p495, 506)																																		
	2003. 신설교 수용시설	○ 2003. 신설교 추진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학교명</th> <th>규모</th> <th>위치</th> <th>부지</th> <th>추진현황</th> </tr> </thead> <tbody> <tr> <td>탄금중</td> <td>30학급</td> <td>칠금동 1084</td> <td>11,469m²</td> <td>시공자 선정중</td> </tr> <tr> <td>호암중</td> <td>27학급</td> <td>칠금동 822</td> <td>11,618m²</td> <td>설계용역입찰중</td> </tr> </tbody> </table> <p>- 2003. 신설교 예산반영 현황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학교명</th> <th>총소요액</th> <th>기확보액</th> <th>추후확보액</th> <th>금회확보액</th> </tr> </thead> <tbody> <tr> <td>탄금중</td> <td>11,173,518</td> <td>3,365,932</td> <td>2,547,586</td> <td>5,260,000</td> </tr> <tr> <td>호암중</td> <td>10,589,342</td> <td>507,320</td> <td>91,883</td> <td>9,990,139</td> </tr> <tr> <td>계</td> <td>21,762,860</td> <td>3,873,252</td> <td>2,639,469</td> <td>15,250,139</td> </tr> </tbody> </table>	학교명	규모	위치	부지	추진현황	탄금중	30학급	칠금동 1084	11,469m ²	시공자 선정중	호암중	27학급	칠금동 822	11,618m ²	설계용역입찰중	학교명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후확보액	금회확보액	탄금중	11,173,518	3,365,932	2,547,586	5,260,000	호암중	10,589,342	507,320	91,883	9,990,139	계	21,762,860	3,873,252	2,639,469	15,250,139	2교	15,250,139
학교명	규모	위치	부지	추진현황																																			
탄금중	30학급	칠금동 1084	11,469m ²	시공자 선정중																																			
호암중	27학급	칠금동 822	11,618m ²	설계용역입찰중																																			
학교명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후확보액	금회확보액																																			
탄금중	11,173,518	3,365,932	2,547,586	5,260,000																																			
호암중	10,589,342	507,320	91,883	9,990,139																																			
계	21,762,860	3,873,252	2,639,469	15,250,139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천교육청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제천교육청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 보고

제천교육청

1. 학교현황

구 분	학교수	분교장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기능직
유 치 원	35 (13)		72 (40)	2,058 (1,333)	99 (66)		
초등학교	22		365	11,846	415	28	84
중 학 교	11 (1)	1	159 (18)	5,810 (733)	312 (34)	16 (2)	25 (3)
계	68 (14)	1	596 (58)	19,714 (2,066)	826 (100)	44 (2)	109 (3)

()안은 사립 : 전체수에 포함

2.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비비	합 계
재원 배분액	자체수입	계	재원배분 편성	자체수입 편성	계		
22,431,119	40,972	22,472,091	22,431,119	4,651	22,435,770	36,321	22,472,091

3. 특색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물 량	예산액	기 대 효 과
가. 자체 편성사업	급식위생기구구입	5교	37,500	위생관리 기준인 「HACCP」 적용에 따른 기구구입으로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정성 확보
	학생특별활동실운영	4종	3,210	청소년들의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함으로써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제천학생회관 추진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물량	예산액	기대효과
	학생해외교류	15명	3,600	한·일 학생이 상호교류를 통하여 역사와 문화, 경제, 풍습 등의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
	원어수업운영	300부	3,300	모든 영어교사가 항상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어식 원어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활성화
	통일교육행사	1회	700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웅변, 글짓기, 그리기대회를 실시·우수학생을 표창함으로써 통일의지 함양과 통일대비 능력 배양
	신규교사연수	30명	800	신규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교직원 확립
나. 목적 지정사업	신설학교 시설	2교	11,686,484	2003.신설학교(가칭 장락초, 제천북중) 시설비 확보로 정상적인 학교 신설 추진
	발명공작실운영	1교	50,000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 의식 제고와 체계적인 발명 프로그램 개발·적용으로 발명마인드 조성
	교원사무보조원임용	14명	93,254	일선학교에 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배치로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교도서실디지털자료실 설치	1교	42,800	학교도서실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여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보활용 능력 신장

2002년도 당초예산(안)

단양교육청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단양교육청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단양교육청

1. 현 황

(단위:명)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수	비 고
유 치 원	13	23	464	21		공립11, 사립2
초등학교	11	121	2,620	158	64	
중 학 교	7	43	1,293	104	21	
교 육 청				8	29	도서관포함
합 계	31	187	4,377	291	114	

2.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예비비	합 계
재원 배분액	자체 수입	계	재원배분 편성	자체수입 편성	계		
4,460,568	58,464	4,519,032	4,460,568	50,558	4,511,126	7,906	4,519,032

3. 특색사업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물 량	예산액	기 대 효 과
가. 자체 편성사업	1.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회과 보 조교과서' 아름다운 단양'보급	800부	8,210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내고장 교재 '아름다운 단양'발간보급으로 지역 사랑하는 향토애 및 자증 심 고취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기대효과
가. 자체 편성사업	2. 특기적성 교육활동	가야금반, 농악반 지원	3교	10,000	특기적성반 운영으로 우리 의 전통국악인 가야금과 농 악을 보급하며 방과후 교육 활동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과학영재 교실운영	100시간	3,100	기초과학 분야에 소질과 재 능을 가진 학생을 조기발굴 지도하여 우수과학인력개발 에 기여
		전통국악 합주단조 성운영	1교	6,000	단양초에 전통국악합주단을 조성하여 관광단양을 널리 알리고 전통예술에 대한 이 해 및 문화계승에 이바지
	3. 학교과학 관 운영	천문중심 과학관 운영	1교	25,600	과학관 천문대관측장비 활 용으로 기초과학진흥에 내 실을 기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제공
	4. 교과교육 연수활동 지원	교과연구 회에운 영비지원	10교과	7,000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에기 여하며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여, 연구 결과물 제작보급으로 교 수· 학습방법의 개선
	5. 교육여건 개선	노후방송 시설교체	5교	50,000	방송시설이 노후된 학교의 방송시설을 교체함으로써 3 원화 수업을 할 수 있고, 학교의 각종행사추진에 도 움을 줄 수 있음
6. 각종체육 대회지원	학교체육 활동지원		99,143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지정 종목 육성지원함으로 학교 체육의 활성화 및 꿈나무 조기발굴 양성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물 량	예산액	기 대 효 과
나. 목적 지정사업	1.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 비 지원	54명	28,134	모든 만 5세아가 집과 가까운 유치원에서 좋은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완화로 유아교육기회 확대
	2. 컴퓨터 보 급	초· 중학 교 컴퓨터 교체비 지원	135대	162,000	초· 중학교에 2005년까지 PC 1대당 5명 수준으로 보급하여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1C에 대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3. 교육환경 개선시설	책걸상 교체 및 난방개선		969,365	낡고 체형에 맞지 않은 노후 책걸상을 교체하여 주고, 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기여

2002년도 당초예산

주요(특색) 사업 보고

충청북도청원교육청

2002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 보고

충청북도청원교육청

1.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비비	합 계
재원 배분액	자체수입	계	재원배분 편성	자체수입 편성	계		
10,628,121	41,983	10,670,104	10,605,359	41,983	10,647,342	22,762	10,670,104

2. 주요사업

청원교육역사학습자료 발간 (622P)

○ 목 적 : 청원교육의 변천사 및 발전현황 등을 발굴하고 학습자료화하며 보다 나은 교육발전의 기틀 마련

○ 사업비

(단위:천원)

단위사업명	물 량	예산액	비 고
자료발간		9,000	
원 고 료		2,100	
개발수당		900	
계		12,000	

○ 사업내용

- 교육의 분야별 역사자료를 발굴하여 학습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청원교육의 변천사 및 발전현황 발굴로 교육발전의 기틀 조성
- 청원교육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고장의 변천사에 대한 접근으로 애교심 및 애향심 함양
- 교육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재평가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 인식 고취

□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620P, 621P)**

○ 목 적

- 학교 및 교육기관에의 교육정보 자료 제공
- 교육정보의 공유화를 위한 중심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사업비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물 량	예산액	비 고
인터넷 통신료	12개월	12,000	
장비 유지비		1,000	
프로그램개발제작		2,000	
계		15,000	

○ 사업내용

- 국·공립 초·중학교 현황 및 소식지, 운영사례 등 전시
- 교단선진화를 위한 교육용 전문도서 및 장학도서 전시
-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비치 및 보급

○ 기대효과

- 교육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조성
- 학교소개 및 각종 교육교재 비치로 학교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제고
-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으로 신정보 공유 및 정보 중심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달리는사랑의정보교실 운영 (622P, 623P)**

○ 목 적

- 정보활용기회가 부족한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의 정보전달 기회 제공
- 사랑의 나눔 운동 실천

○ 사업비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물 량	예산액	비 고
소프트웨어개발		1,000	
교재제작비		1,500	
전산소모품구입		2,500	
차량정비료		1,000	
버스운영여비		1,000	
계		7,000	

○ 사업내용

- 대 상 : 37교 (초28교, 중9교)
- 운영방법 : 학교별 순회 운영 (국립학교 포함)

○ 기대효과

- 학생 및 지역주민이 신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및 탑재
- 다양한 자료 탑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정보습득 기회 조성
- 벽지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에게 첨단산업기기를 대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
- 정보교실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동체 의식 함양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 사업

2001. 10. 29.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안녕하십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노성입니다.

평소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은교육청 당초예산(안) 편성 현황과 특색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편성 현황은

- 세입으로 재원배분액 49억 6,152만 3천원과
- 자체수입 6,009만 7천원으로
- 총 50억 2,162만원이며,
- 세출은 학교교육비 45억 7,490만 6천원
- 문화 및 평생교육에 6,767만 2천원
- 교육행정에 3억 7,024만 4천원
- 예비비 879만 8천원으로
- 예산 총액은 50억 2,162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1%인 19억 965만 1천원이 감소된 것은 학교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체 편성사업입니다.

보은인의 자긍심 갖기 운동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인성교육 수련실을 운영하여 3심, 4유, 5행의 실천으로 바른 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에 5,200만원을 투자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구별 학부모교육을 위하여 1,258만원을 투자하여 유아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학교에 4,1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힘쓰겠으며, 학교 급식소를 초·중 9개교에 냉방기 설치비로 1,800만원을 투자하여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하여 794만원을 투자하여, 창조적 사고력과 탐구력 증진으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영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목적지정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대를 위하여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3,925만원을 지원하고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정보화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교실수업개선 시범 연구단지 조성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시책을 확산 보급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교원 정보활용 능력 활성화를 위한 자율연수경비 942만원을 계상하고, 실습용컴퓨터 교체비 1억 5,960만원과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와 각종S/W구입비 6,484만원을 투자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6억 8,985만원을 투자하여 난방 시설, 외부환경개선, 대수선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중학교에 6,201만원을 투자하여 여학생 탈의실 설치 및 책걸상 교체로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은교육청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 특색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옥천교육청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 옥천교육청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옥천교육청

1.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비비	합 계
재원 배분액	자체수입	계	재원배분 편성	자체수입 편성	계		
6,825,695	34,212	6,859,907	6,825,695	22,211	6,847,906	12,001	6,859,907

2. 특색사업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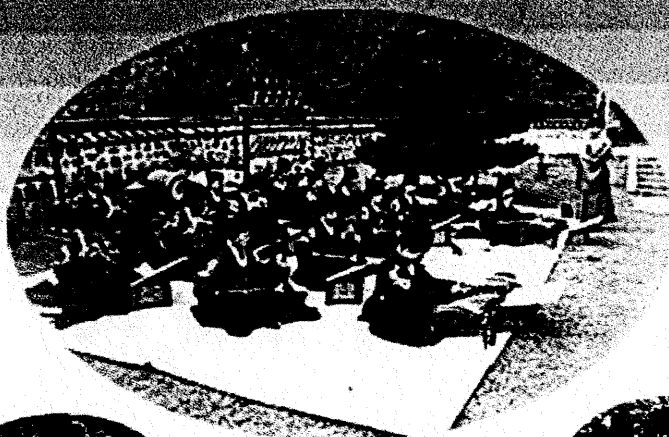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용	물 량	예산액	비고
외국어 교육강화	○조기외국어 교실운영 ○초등영어 잔치 ○외국어 경시대회	○ 목 적 : 외국어에 대한 흥미유발로 학습 동기 부여와 재능학생의 조기발 굴 및 육성 ○ 사업내용 : - 조기외국어교실운영 : 5,000 - 초등영어잔치 : 1,080 - 외국어경시대회 : 770	초1교 중2교 초3-6년 중1-3년	6,850	
민족정신 계승	○국민정신 수련관 운영 ○충청문화 답사	○ 목 적 : 옥천군내 향토자료 활용 및 충청문화 답사를 통하여 애국애족 정신을 본받아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애국심 고양 ○ 사업내용 : - 국민정신수련관 운영 : 2,000 - 충청문화답사 : 675	초1교 중1교 연1회 (45명)	2,675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옥천사랑 3사랑운동 추진	○금강사랑 사진발표회 ○중봉정신 우수사례집 발간 ○학교신문 및 문집 전시회	○ 목적 : 『중봉정신』을 통한 나라 사랑 운동, ‘지용명시 『향수』’를 통한 문화사랑 운동, 『금강보호』를 통한 자연사랑 운동으로 열린교육 및 인성교육 실천 ○ 사업내용 : - 금강사랑 사진 발표회 : 800 - 중봉정신우수사례집 발간 : 2,000 - 학교신문및문집전시회 : 1,500	연1회 연1회 연1회	4,300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사랑나눔 대화마당 ○특수학급 운영	○ 목적 : 소외계층에 대한 대화와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 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함양하고자 함. ○ 사업내용 : - 사랑나눔대화마당 : 530 - 특수학급운영비지원 : 9,040	연1회 (40명) 초5학급 중3학급	9,570	
7차교육 과정운영	○교재교구 확충 ○교육과정 연수	○ 목적 :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 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교실 수업 개선 및 교원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교재교구 : 34,000 - 교육과정연수 : 1,600	초12교 중5교 연1회 (100명)	35,600	

난계의 얼이 깃든 국악과 총절의 교장

2016년도 당초예산(안)

영동교육청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영동교육청

2002년도 당초예산(안) 특색사업 보고

영동교육청

□ 총괄

(단위 : 천원)

세입			세출			예비비	합계
재원배분	자체수입	계	재원배분	자체수입	계		
7,563,857	63,371	7,627,228	7,545,686	50,585	7,596,271	30,957	7,627,228

□ 특색사업

○ 자체편성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개요	기대효과
유아사랑 한마당운영	3,000	○대상 : 유치원 18개원(공립15, 사립3) ○내용 : 「감골유아새싹들의 축제」 개최	유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가족간의 우애와 화합 도모
학습자료 개발	4,050	○대상 : 초등 3~6학년(2,700부) ○내용 : 바른생활일기장 「마음의 거울」 기록장 제작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화 교육
제7차교육 과정운영	15,000	○대상 : 초등 6개교(7학년 이상) ○내용 : 제7차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재 교구 확충	제7차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교구 확보로 학습효과 극대화
학생향토 문화제운영	2,000	○대상 : 중학교 2개교 ○내용 : 내고장 자긍심 고취	예술활동을 통한 향토문화 계승 발전
학교급식 운영	6,000	○대상 : 중학교 1개교 ○내용 : 자체 조리교 급식기구 확충	학교 급식기구 확충으로 급식 정상화

□ 목적지정 사업

○ 교육시책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개요	예산액	비고
연구시범단지 운 영	교육청	○영역 : 교실수업개선(가정연계) ○내용 : 학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 영 및 교실수업개선으로 교육 의 질 향상	50,000	

○ 학교시설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대상교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 등	○벽체단열	38.5실	188,650	쾌적한 교육환경 구성
		○난방개선	16실	68,800	
		○전기용량 증설 및 수변전 설비	1식	54,150	
		○학생화장실 보수	4실	97,200	
		○흡통교체	118개소	16,520	
		○포 장	480m ²	26,400	
		계		451,720	
	중 등	○여학생 탈의실 개조	4실	40,000	쾌적한 교육환경 구성
		○지붕방수	5실	26,500	
		계		66,500	
일반시설 사 업	영동초 외 2교	○문닫은 학교 지붕방수	4실	21,200	교육재산의 효율 적 운영

2002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보고

충청북도진천교육청

2002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보고

1. 당초예산(안) 편성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예 비 비	합 계
재 원 배 분 액	자체수입	계	재원배분 편 성 액	자체수입 편 성	계		
5,454,161	48,603	5,502,764	5,448,946	0	5,448,946	53,818	5,502,764

2. 주요사업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물 량	예 산 액	비 고
자체사업	생거진천 『화랑』 정신 계승	충청문화 답사	1회	1,100	
		종합학습 발표회 개최 (작품 전시회)	1회	3,490	
		계		4,590	
	외국어교육 강화	영어 청해능력 급수제	2회	2,566	
		초등영어잔치	11부문	990	
		계		3,556	
	교원 전문성 신장	교과연구활동 지원	23영역	11,500	
		제 7차 교육과정 연수		2,640	
		계		14,140	
	학교체육활동 지원	지정종목 육성	21종목	21,000	
		학교간 경기대회	21교	5,980	
		계		26,980	
	과학·정보교육 진흥	과학경진대회 및 과학 작품 제작비 지원	1회	4,060	
		학생과학교실 운영	중40명	2,300	
		컴퓨터 꿈나무 축제	1회	1,390	
계			7,750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물 량	예 산 액	비 고
목적사업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체제 확립	만 5세아 무상교육비	39명	12,754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33명	7,722	
		종일반 운영비	4개원	4,000	
		종일반 보조교사 지원	4명	26,644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여비	12명	456	
		계		51,576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20교	92,847	
		특기적성교육 시범단지 운영	1단지	30,000	
		계		122,847	
	학교정보화교육 지원	교원 정보화 연수	4종	7,249	
		실습용 컴퓨터 교체	95대	114,000	
		S/W 개발·보급	20교	30,618	
		학교전산망 유지·보수	20교	48,406	
		전산보조원 및 학부모 정보화 교육비 지원	5명, 2교	18,880	
		계		219,153	
	교육환경개선 시설	대수선비	4종	391,050	
		난방 개선	77실	445,750	
		화장실 개선	3실	132,000	
		전기 개수	7실	12,950	
		여중학생 탈의실 개조	2실	20,000	
		책·걸상 교체	1,380조	42,780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29,767		
계			1,074,297		

3. 주요사업 세부설명 자료

가. 생겨진천 「화랑」 정신 계승

- 1)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화랑의 얼 계승하기 : 충청문화 답사
- 2) 「생겨진천 화랑제」 종합학습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개최
- 3) 현장체험 학습장(場)의 학습자료 제작
- 4) TEMA식 Project학습 운영자료 개발
- 5) 가치관 교육자료 : 자원인사 및 장학인력 활용

나. 외국어교육 강화

- 1) 영어 청해능력 급수자료 개발·보급
- 2) 초등영어잔치 개최 : 11개 부문

다. 교원 전문성 신장

- 1) 초·중등 교과연구활동 지원 : 23개 영역 및 교과(유1, 초9, 중12, 특수1)
- 2) 교원 연수 : 제 7차 교육과정 연수

라. 학교체육활동 지원

- 1) 지정종목 육성지원 : 21종목(초9, 중12)
- 2) 학교간 경기대회 지원 : 1인 1경기 자율체육 권장

마. 과학·정보교육 진흥

- 1) 과학경진대회 및 과학작품 제작비 지원
- 2) 학생과학교실 운영 : 중학생 영재교실 운영(중2학년 40명), 여름과학캠프 운영
- 3) 컴퓨터 꿈나무 축제 : 정보올림피아드, 홈페이지제작 경진대회, 정보검색 대회, 컴퓨터 입력대회

바.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체제 확립

- 1) 만 5세아 무상교육비 39명 및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33명 지원
- 2) 종일반 운영 및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4개원
- 3)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여비 지원 : 12명

사.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 1) 초·중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20교)
- 2)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시범단지 운영

아. 학교정보화교육 지원

- 1) 교원 연수 :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교원 정보화 직무연수, ICT활용 장학지원요원 전달연수, 교원정보화 연수
- 2) 실습용 컴퓨터 교체, S/W개발·보급, 학교전산망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지원
- 3) 전산보조원 및 학부모 정보화 교육비 지원

자. 교육환경개선 시설

- 1) 대수선 : 벽체단열 2교(48.5실), 바닥교체 1교(8.5실), 지붕방수 1교(8.5실), 연결통로 1교
- 2) 난방 개선 : 2교(77실)
- 3) 화장실 개선 : 2교(확충1실, 보수2실)
- 4) 전기 개수 : 1교 (조도개선 7실)
- 5) 여중학생 탈의실 개조 : 중 2교
- 6) 책·결상 교체 : 1,380조

2002.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當初豫算(案)

主要事業 報告

2001. 10. 29

忠清北道槐山教育廳

2002년도 당초예산(안) 주요사업 보고

충청북도괴산교육청

1. 세입·세출 총괄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예비비	합 계
재원 배분액	자체수입	계	재원배분 편성	자체수입 편성	계		
10,293,262	78,035	10,371,297	10,293,262	55,337	10,348,599	22,698	10,371,297

2. 주요사업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자체 편성사업	○ 교과연구회 지원	○ 교원 연구풍토 조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연구회 활성화 - 유치원 : 유아교육 - 초등학교 : 국어의 9교과 - 중학교 : 영어의 8교과	20교과	16,300	
	○ 학교체육활동 지원	○ 체육지정종목 육성 및 노후체육 시설 교체로 학교체육 활성화 - 초 6교, 중 7교	13교	56,000	
	○ 특수학급 운영	○ 특수학급 교재교구 확충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 - 특수학급당 1,000천원	14학급	14,000	
	○ 학교급식 운영	○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공동관리 영 양사 여비 지원	4교	22,000	
	○ 전통문화계승 학교 지원	○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올 바른 인식과 애착심 고취를 위 한 전통문화계승학교 지정 운영 - 초 1교, 중 3교	4교	8,000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 교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 쌍곡 교직원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여 도내 교직원 복지 향상	1교	4,200	
	○ 과학영재교실 운영	○ 기초과학분야에 소질과 재능을 가진 초·중학생을 조기발굴 지도하여 우수과학기술 인력 개발에 기여 - 초 5학년 40명, 중 2학년 40명	80명	4,000	
	○ 장학자료 개발 보급	○ 교육활동 우수실천사례의 일반화 및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 보급 - 유·초·중 실천중심 장학자료	7종	15,550	
	○ 기능직공무원 연수	○ 기능직공무원에게 조정, 원예 등의 직무연수 및 컴퓨터 연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122명	4,020	
목적 지정사업	○ 연구시범단지 운영	○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ICT 활용 원격교육지원시스템 운영	1기관	50,000	
	○ 발명공작실 운영	○ 청소년들에게 발명 관련 창작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명공작실 설치·운영 - 설치학교 : 괴산북중	1교	50,000	
	○ 학교 통·폐합 지원	○ 2002년도 분교장 개편교에 대한 교육여건개선비 지원 - 대상학교 : 외사초, 덕평초	2교	20,000	
	○ 교육환경 개선시설	○ 청천중학교 노후교사 전면 개축 - 시설사업 내역 · 교실개축 9.5실 · 계단실 및 현관 3실 · 교실철거 14.5실 · 벽체단열 4실 · 바닥교체 4실 · 난방개선 15.5실 · 수변전설비 1식 · 전기용량증설 1식 · 급수대 1개소 · 담 장 150m · 포 장 600m' · 배수로 400m · 교 문 1식	1교	1,155,246	

2002년도 당초예산(안)
음성교육청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음성교육청

I. 교육행정현황

1. 연혁

- 1952. 8. 4. 음성군교육청 개칭
- 1977.12.13. 현 청사로 신축이전
- 1991. 4. 1. 충청북도음성교육청 개칭
- 2001. 9. 1. 제20대 강영희 교육장 취임

2. 학교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기능직
합계	55 (7)	378 (27)	11,286 (966)	576 (63)	36 (3)	89 (6)
유치원	25 (4)	44 (8)	1,116 (210)	56 (16)		
초등	21	248	7,205	337	25	70
중등	9 (3)	86 (19)	2,965 (756)	183 (47)	11 (3)	19 (6)

※ 하단 () 안의 수는 사립학교로 전체수에 포함

3. 직원현황

구분	교육장	전문직				일반직						기타			합계
		장학관	장학사		계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	파견교사	계약직	계	
			초등	중등											
정원	1	1	4	2	7	1	4	8	6	9	28		1	1	37
현원	1	1	4	2	7	1	4	8	6	9	28	1	1	2	38

4. 사업소현황(3기관)

기관명	위 치	설립 연도	규 모				직 원 수			비 고
			대지 (m ²)	건평 (m ²)	열람 석수	장서 수	일반 직	기능 직	계	
음 성 도서관	음성읍 읍내리 209	'88.	1,540	1,317	300	31,736	3	2	5	
금 왕 도서관	금왕읍 무극리 53	'94.	3,440	836	203	24,605	2	2	4	
음성학생 야 영 장	원남면 (구.조촌 분교장	'92.	11,333	886				1	1	교육과장 겸 임

5. 200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구 성 비	비 고
학교교육	유 치 원	292,717	1.6 %	
	초등학교	12,034,828	66.7 %	
	중 학 교	5,195,687	28.8 %	
	계	17,523,232	97.1 %	
문화 및 평생교육		145,564	0.8 %	
교육행정	교 육 청	358,857	2.0 %	
	교육지원기관	17,252	0.1 %	
	계	376,109	2.1 %	
합 계		18,044,905	100 %	

II. 2001. 음성교육의 기본방향

1. 교육목표

○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

- 희망과 꿈이 있는 학생 ⇒ 학생선진화
- 연구하며 가르치는 스승 ⇒ 교사선진화
- 찾아서 도움 주는 행정 ⇒ 행정선진화

2. 음성교육 추진방향

①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강화

-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 함양
- 함께 사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 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 전개
-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음성인 육성

② 창의성 신장으로 교육력 제고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 전개
- 과학·기술·정보교육의 충실
-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대비 교육 강화

③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 확립

-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 교원 의사를 존중하는 학교 경영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

④ 사명감이 충만한 교직사회 정착

-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 전개
-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구현
- 자율연수 체제의 확립
- 교원의 사기 진작

⑤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

- 교실 현대화·교단선진화 추진
- 균형 있는 학교발전 도모
- 교육 복지시설의 확충
-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

3. 지·덕·체·예·기의 조화로운 인간

- 도덕인 육성 ⇒ 덕(德)·예(禮)
- 능력인 육성 ⇒ 지(知)·기(技)
- 건강인 육성 ⇒ 체(體)

4. 2001. 특색사업

① 특기·적성 교육활동 5품제 운영

-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수준별 운영, 학생선택제 운영
- 특기·적성교육활동 인증제 운영
 - 특기·적성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5품제 실시
- 청소년 종합예능 발표대회 개최
 - 특기·적성교육활동 경연대회 개최 : 연2회(지구별, 종합발표)

② 평생교육 학습관 이용 주민아카데미활동 전개

- 주민아카데미 강좌 개설 운영
 - 음성·금왕지역 학부모 및 주민에게 강사 초청 특강 실시
 - 주민문화교실 운영 : 음성도서관 5개종목, 금왕도서관 6개종목
- 청소년 비전 스쿨 개설 운영
 - 음성지역 : 중 3개교 120명, 금왕지역 : 초·중 희망자
 - 프로그램 : 진로지도, 성교육, 인성교육 등

③ ICT활용 교육을 통한 교원 사이버 연수체제 확립

- ICT활용 교육 기반 구축
 - 전학교의 홈페이지 제작으로 ICT활용의 정보 공유 추진
 -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사이버 윤리 정보 교육의 지속적 실시
- 동호회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자료 및 콘텐츠 개발
 - 교육정보지원센터를 통한 사이버 원격연수 실시 : 40명(7월)

④ 교육재정 효율화

- 지방자치단체(음성군) 지원금 유치
 -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 7개교 250,757천원
- 재활용 학습준비물 및 도서모으기 운동 전개 : 35,661천원 정도
- 학생이동을 고려한 학급편성으로 교육예산 절감
- 학교립 경제수목 조립으로 자체수익 증대 기반 조성

Ⅲ. 2002. 당초예산(안) 특색사업

1.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

○ 2001년도 세출예산 대비 50.6%(8,915,959천원) 감소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비비	합 계
재원배분액	자체 수입	계	재원배분 편 성	자체수 입편성	계		
9,102,320	30,431	9,132,751	9,102,320	26,626	9,128,946	3,805	9,132,751

2. 특색사업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자체 재 원	1. 교과교육 연구회 지원	○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과연구회의 활성화 화를 도모하여 교육정보교환 및 공유 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과당 1,000천원씩 지원 - 16개 교과(국어, 사회, 체육, 영어, 미 술, 음악, 유아교육 4개영역, 열린교 육, 과학, 컴퓨터, 수학, 기초학력, 교 실수업개선)	16교과	16,000	882쪽 890쪽
	2. 유치원 교재 · 교구 확충	○ 유치원 제6차교육과정시행에 따른 교 재·교구확충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유아교육환경 개선 도모 - 독립원사(4개원) : 원당 7,000천원	4개원	28,000	883쪽
	3. 사이버 도서실 운영	○ 사이버도서실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많 은 도서관련 정보를 쉽게 탐색·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비(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등 구입비) 지원	1교	10,000	884쪽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자 체 재 원	4. 교단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교육과정시행에 따른 교재·교구확충과 교단선진화 학습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첨단 기자재 확보로 교실 수업여건 조성 - 제7차교육과정 교재·교구(6교) : 교당 5,000천원 - 교단선진화 학습자료(5교) : 교당 5,000천원 	11교	55,000	891쪽
	5. 지정종목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에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육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활동비 지원 : 교당 2,400천원 	18교	43,200	887쪽 896쪽
	6. 식품위해 분석기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물품에 대한 미생물검사, 잔류농약검사, 냉동식품품질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위해 분석기를 구입하여 HACCP제도를 시행하는데 만전 - 식품위해분석기(1대) : 15,000천원 	1대	15,000	912쪽
	7. 장학자료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교육과정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활동 등을 총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실천중심 장학자료로 발간 - 장학자료발간비 : 12,000천원 	5종	12,000	913쪽
	8. 기능직공무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공무원에게 직무에 필요한 컴퓨터, 조정실습 등 기능위주의 연수를 실시하여 직무능력 제고 - 용 품 비 : 700천원 - 급 량 비 : 1,000천원 - 강사수당 : 1,200천원 		2,900	917쪽 918쪽
목 적 지 정 사 업	1. 교단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교단선진화 사업은 기본학급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과 증설학급 기본 기자재 확보 - 예산편성 : 246,700천원 · 유(21원 41학급) : 22,800천원 · 초(21교 269학급) : 172,200천원 · 중(8교 84학급) : 51,700천원 	394학급	246,700	882쪽 891쪽 901쪽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비고
목적지정사업	2. 특기·적성 교육활동시범 단지 운영	○ 초·중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효율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정책과제(국악전통)를 부여받아 중점 추진	1식	30,000	885쪽
	3. 교육환경 개선시설	○ 교원편의실 확충과 화장실 개선, 지붕방수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 - 삼성초 지붕방수의 기타시설 : 421,409천원 - 부운초 화장실 확충의 기타시설 : 330,115천원 - 음성여중 교원편의실 확충의 기타시설 : 436,580천원	3교	1,188,104	893쪽 903쪽

2002년도 당초예산(안)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 보고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2002년도 사업 보고 자료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2002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충청북도교육과학 연구원은 지난 1999년 1월1일자로 충청북도교육연구원과 충청북도과학교육원이 통합되어 출범하였으며, 1999년 10월15일 신축 개관한 이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원에서는 각종 첨단 기자재와 시설을 이용한 학교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2002년도에는 본원의 시설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과학 교육 및 교육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교육 연구와 평가 자료의 개발·보급

- 연구학교 운영 지도와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당면 과제 해결과 새로운 교육 이론 및 방법의 현장 적용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노력
-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7차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학력 제고에 기여하며, 영어듣기 평가를 통하여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을 향상

2. 기초 과학 교육 내실을 위한 체험 학습과 현장 지원 활성화

- 과학전시실과 천체관련실을 상설 개방 운영하여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
- 각종 과학관련 전람회 및 경진대회를 통하여 과학적 탐구심 고취와 연구 풍토 조성함으로써 2001년도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전국 최우수 성적을 거두는 실적을 올렸으며 2002년도에도 과학 기술 교육 진흥과 생활의 과학화를 위해 더욱 노력
- 과학 실험실을 연중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탐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과학교사 연수 및 첨단 과학 기자재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탐구활동 지도 능력 제고
- 이동과학교실을 운영하여 벽지 및 오지 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과 탐구력 신장

3. 교육 현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교육 정보 지원의 활성화

- 교육 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를 체계적·입체적으로 개발, 보급, 확보, 전시하고 교육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단 선진화 지원 기능 강화
- 교육정보자료실의 운영으로 우수 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보급하며
- 각종 컴퓨터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교육 정보 활용 능력 배양과 21세기 정보 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마인드로 첨단 교육 공학 매체와 교육 정보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기여
- 도서실 전산화 운영 및 도서 정보 공유체제를 운영함으로써 교직원 및 교육 전문직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

4. 교수·학습 방법 지도 보급과 진로 선택 적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학생진로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진로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며, 진로교육 순회특강과 진로상담담당자연찬회를 실시하여 진로상담을 활성화하며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배양
-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고학력 인력 자원을 상담 지도자로 양성하여 학교 교육 현장의 학생 상담 활동 강화
- [충북교육]의 발간 보급으로 새로운 교육 이론과 논문 및 교육의 동향, 실태 등 각종 교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참 고 : 2002년도 본원 예산

총합 : 903,382천원

- 운영비 343,885천원(38.80%)
- 사업비 559,497천원(61.20%)

2002년도 특색사업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1. 학업성취도평가

가. 사업목적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평가문항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한다.

나. 사업의 근거

초·중등학교교육과정(교육부고시제1997-15) 제1장 4-3항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개선에 활용해야 하며 교과별 평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다. 사업내용

- 평가문항 출제
 - 5개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근거한 평가 문항 제작
- 평가 실시(중1, 중2 학생 대상) - 2003년도에는 중3까지 확대
- 표집 학교 학력 분석 및 평가결과 활용 자료 보급

2. 과학전시관 운영

가. 사업의 목적

다양한 과학전시물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직접 체험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배양한다

나. 사업 내용

- 1) 과학전시관 홍보 및 이용
 - 이용 방법 홍보 및 안내
 - 전시물 및 탐구학습지 홈페이지 탑재
 - 연중 개관(월요일, 주중 공휴일 제외) - 관람예상인원 90,000명
- 2) 과학전시관 관리
 - 전시물 자체 점검 및 보수
 - 소모품 구입

3. 이동과학교실 운영

가. 사업 목표

새로운 과학정보 제공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다양한 과학 활동을 전개하여 벽지 및 오지학교 학생들에게 과학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과 탐구력을 신장한다.

나. 사업 내용

- 1) 과학교실 활동
 - 대상 : 소규모 초·중학교(초 35교, 중 10교, 계 45교)
 - 내용 : 과학공작 실습 및 과학 활동 시연
- 2) 과학 실습 교재 제작 보급
 - 초 : 멜로디 키트 조립 외 3종
 - 중 : 라디오 조립외 2종

4. ICT활용 S/W개발 보급

가. 사업 목표

충북교육정보화지원단을 조직 팀별 S/W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수업의 질 향상을 입체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S/W 개발비를 절감한다.

나. 사업 내용

- 1) 충청북도교육정보화지원단 조직
 - 규모 : 100명
 - 구조 : 5개 부서(기획, 개발, 지원, 평가, 보급부)
 - 구성원 : 교사, 전문직, 지역의 S/W 개발 전문가
 - 조직방법 : 공모제를 통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교육정보화지원단 정책과제 개발위원으로 선정
- 2) 정책과제 개발
 - 개발 계획편수 : 2,040편
 - CD-ROM 타이틀 및 WEB 자료 : 40편
 - 프리젠테이션 자료 : 2,000편
 - 우수자료 복제.보급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

2001. 10. 30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

1. 목표

21C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을 위하여

- 가. 교직원들의 투철한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
- 나.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과 인간성 배양으로 자긍심 고취

2. 운영 방침

- 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나. ICT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다.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 및 엄정한 평가 관리
- 라. 심성계발과 체험중심의 학생교육 활동

3. 예산액 : 944,454천원(전년도 예산액 : 881,618천원)
62,836천원 증액

4. 주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목적	사업내역	예산액	비고
교원 연수	교원의 자격 취득과 자질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연수 7개 과정 541명 ○ 직무연수 27개 과정 2,270명 · 출석연수 16개 과정 · 원격연수 10개 과정 · 합숙연수 1개 과정 총 34개 과정 2,811명 	519,345	
일반직 연수	일반직의 행정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연수 7개 과정 490명 · 출석연수 6개 과정 · 원격연수 1개 과정 	39,007	
학부모 교육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 봉사자의 자질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자모 500명(2회) 	13,375	
학생 교육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생 3,072명(16회) 	79,824	

5. 특색사업

가. 원격(사이버) 연수

(1) 목적

- (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격연수로 연수기회 확대
- (나)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 강의를 통해 교원 연수 활성화 유도

(2) 사업내용

구분	연 수 명	연수기간	일수	시간	인원
직무 연수	초등영어기본직무연수(1기)	'02.04.15 ~ 05.18	30	61	100
	초등영어기본직무연수(2기)	'02.10.21 ~ 11.23	30	61	100
	초등 제7차 교육과정 직무연수	'02.05.20 ~ 06.24	30	61	100
	중등 제7차 교육과정 직무연수(1기)	'02.04.15 ~ 05.18	30	61	100
	중등 제7차 교육과정 직무연수(2기)	'02.05.20 ~ 06.24	30	61	100
	중등 제7차 교육과정 직무연수(3기)	'02.09.09 ~ 10.16	30	61	100
	중등영어 직무연수	'02.06.10 ~ 07.13	30	61	100
	멀티미디어 직무연수(1기)	'02.03.18 ~ 04.22	30	61	100
	멀티미디어 직무연수(2기)	'02.09.09 ~ 10.16	30	61	100
	멀티미디어 직무연수(3기)	'02.10.21 ~ 11.23	30	61	100
	인터넷 전문과정(일반직)	'02.09.09 ~ 10.22	35	71	100
	11개 과정				1,100
재택 연수	자격연수 5개 과정	9시간씩	3	45	45
	직무연수 13개 과정	3시간씩	1	39	710
	일반직 교육 2개 과정	3시간씩	1	6	110

(3) 운영 방법

- (가) 직무연수는 평일 2시간 30일간으로 진행
- (나) 재택연수는 토요일 3시간으로 진행
- (다)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 강의, 화상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

(4) 기대효과

- (가) 출석연수로 인한 학교 수업결손 방지 및 연수 비용 절감
- (나)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회 확대
- (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 (라) 교원의 정보 활용능력 신장

나. 중등영어 심화 직무연수(영어마을 : English Village)

(1) 목적

- (가) 영어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 (나)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능력 신장

(2) 사업 내용

연 수 명	연수기간	일수	시간	인원
중등영어심화 직무연수(1기)	'02.07.22 ~ '02.08.01	10	92	40
중등영어심화 직무연수(2기)	'02.12.30 ~ '03.01.10	10	92	40

(3) 운영방법

- (가) 9박 10일(92시간) 합숙과정으로 운영
- (나) 도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운영
- (다) 영어만을 사용하는 소집단 집중화 과정으로 운영

(4) 기대효과

- (가) 영어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단기간에 신장
- (나)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확산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
- (다) 교원 및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대체 효과

2002年度 當初豫算(案)

中央圖書館 特色事業 報告

忠清北道中央圖書館

2002年度 當初豫算(案) 特色事業 報告

忠淸北道中央圖書館

1. 當初豫算(案)編成 總括

(단위 : 천원)

사업명	2002. 예산 요구액(A)	전년도 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주요증감내역)
특별활동실 운영	25,700	23,602	2,098	· 취미교실운영(운영비및수당) 2,098천원 증
평생교육지원	43,260	51,500	△8,240	· 평생교육강좌운영(운영비및수당) 2,560천원 증 · 자산취득비 10,800천원 감
기관운영비	273,728	262,799	10,929	· 일반운영비 8,589천원 증 · 여비 2,340천원 증
도서관운영	178,171	341,959	△163,788	· 일반운영비 3,174천원 감 · 도서구입비 32,000천원 감 · 디지털자료실 물품구입비 108,900천원 감 · 자산취득비 19,714천원 감
시설비	0	106,034	△106,034	· 냉동기 오바홀수리비 9,720천원 감 · 지하식당 바닥교체 5,214천원 감 · 디지털자료실설치비 91,100천원 감
합 계	520,859	785,894	△265,035	

2. 特色事業現況

□ 平生學習館 運營(382P, 383P, 384P, 385P)

○ 目的

-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독서의 생활화 도모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事業費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물량	예산액	비고
취미교실 및 평생교육강좌운영	11개강좌	37,600	
독서프로그램운영	4종	4,300	
평생교육프로그램	5종	27,060	
계		68,960	

○ 事業內容

- 서예, 묵화, 한국화, 도자기, 동화구연지도자, 선물포장전문가, 스텐실, 소규모 꽃방, 퀴트, 어학강좌 60회에서 80회 운영 및 건강교실 실시
- 독서교실 연4회,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2회, 주부독서회 및 어린이독서회 연중 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책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집, 충청북도평생교육소식지발간, 독서회 문집 발간, 평생교육종사자 연수

○ 期待效果 : 평생교육기반 구축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 디지털자료실 설치(390P)

○ 目的

-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제공
- CD-ROM등 다양한 디지털자료 열람 가능

○ 事業費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물 량	예산액	비 고
디지털자료실자료 구입(컨텐츠)	1,096점	75,000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자료실 설치예산 : 550,000천원 <input checked="" type="radio"/> 2001년도 편성금액 : 275,000천원 - 디지털자료실 : 200,000천원 - 컨텐츠 구입비 : 75,000천원 <input checked="" type="radio"/> 2002년 예산요구액 : 75,000천원 <input checked="" type="radio"/> 문화관광부 지원금 : 200,000천원

○ 事業內容

- 디지털자료실 설치 및 컨텐츠 구입
 - 2001년 추진실적 : 디지털자료실 설치공사 및 컨텐츠 구입 추진
 - 2002년 추진계획 : 컨텐츠 1,096점 구입

○ 期待效果 : 정보 및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2002년도 충북교특예산 심의
2001. 10. 30.

特 色 事 業

忠 清 北 道 學 生 會 館

特 色 事 業

1. 多國語教育室 運營

□ 目 的

-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 각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主要事業

- 다국어 교육실 운영
 -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 매주 요일별로 강좌를 개최
 - 각반별 고등학교 2학년 30명
 - 제2외국어 교사 및 원어민 교사 초빙
- 외국 문화체험 행사 개최
 - 외국의 문화체험 행사 및 종합발표회 개최
 - 각국 대사관, 외국어고, 제2외국어 교사협의회 협조

□ 期待效果

- 국제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촉진
-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이끌어갈 세계 시민으로의 능력함양
-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 및 외국어에 대한 관심 제고

2. 音樂 感想室 運營

□ 目的

- 다양한 연주형태를 통한 음악감상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음악감상인구의 저변확대 및 정서순화

□ 主要事業

- 청소년 음악감상회
 - 중·고생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개최
 - 고전음악, 전통음악, 대중음악 감상
 - 청소년의 정서순화 및 취미활동에 기여
- 작은 음악회 운영
 - 충북예술고 학생 월 2회 공연
 - 독창, 독주, 합주 등 다양한 음악 직접 감상
- 음악 감상실을 이용한 체험학습
 - 체험학습 시간을 활용한 음악감상 기회 제공
 - 교과와 연계한 특별활동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 期待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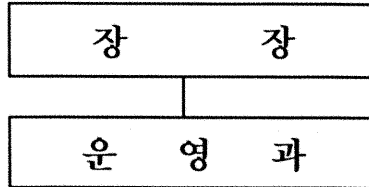
- 음악에 대한 구체적인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 육성
- 음악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의 생활화 유도
- 특기신장을 위한 학습기회 부여

2002년도 예산 심의 설명자료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I. 행정조직

1. 기 구



2. 직원현황

구분	장장	교육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
		교육 연구사	교사 (파견)	소 계	5급	6급	7급	소 계	수련지도자				
									5급	8급	소계		
정원	1	1	3	4	1	1	3	5	1	2	3	13	26
현원	1	1	3	4	1	1	3	5	1	2	3	13	26
과부족													

II. 재정현황

(단위 : 천원)

사업별	2001년도 예산 (A)	2002년도 예산 (B)	비교증감 (B-A)	비고
○학생수련운영	47,660	36,451	△11,209	
○기관운영	160,947	175,027	14,080	
○시설비	20,000	22,860	2,860	
계	228,607	234,338	5,731	

3. 기타시설

가. 야영장

구분	숙영지	운동장	모험 시설	야외 공연장	사육장	테니스장	정문
수량	2개소 19,800m ²	1개소 4,000m ²	29종38점	1개소 3,600m ²	7동 200m ²	1개소 630m ²	1개소

IV. 2001 수련실적 및 2002 수련계획

(단위 : 명)

사업별	2001. 실적 (A)					2002 계획 (B)					비교 증감 (A-B)
	초	중	고	단체 기타	계	초	중	고	단체 기타	계	
야영수련 운영	2,777	4,672	5,698	10,388	23,535	2,900	4,800	5,800	11,500	25,000	1,465
생활관운영			4,516		4,516			4,400		4,400	△116
계	2,777	4,672	10,214	10,388	28,051	2,900	4,800	10,200	11,500	29,400	1,349

(별첨 3)

서면 답변자료

1.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 OECD 기준 교육여건 현황(송진하 위원)
- 교재발간 및 여론수렴 경비 집행실적 및 계획(이충원 위원)
- 2002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편성 공문(조일환 위원)
- 교사 보수체계표(조일환)
- 2000년도 기간제교사 결산 현황(조일환)
- 학교운영기본경비 배부기준(조일환)

7. 20 교육여건개선사업 주요내용

□ 그 간의 노력

- '82년부터 교육세를 신설하여 교육여건개선에 집중투자
 - 학급증설 및 학교신설, 노후 교육시설 등 개선
 - 그 결과, 80년대에 비해 교육여건 수준은 크게 향상됨
 - 학급당 학생수 감축 : '80년 51~65명 ⇒ 2000년 35명~42명
 - 그러나, 아직도 OECD국가 중에서 평균이하의 최하위 수준

□ 우리교육의 현주소

- 교육열과 교육의 양은 세계적 수준이나 교육여건은 최하위
 - 학급 과밀현상 심화, 주거환경에도 못 미치는 교육환경
- 21세기를 대비한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곤란
 - 학습자 중심, 인성과 창의성 함양, 토론식 수업 등
- 현 상태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문제
 - 지식·정보의 고부가가치화,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이 국운을 좌우

□ 과밀학급이 미치는 영향

- 수업효과가 가장 높은 개별화 학습 불가능하고,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 수행평가 등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며,
-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결국,

교육의 질저하와 공교육불신 및 사교육범람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 2004년 이후 달라지는 우리교육 모습

○ 학급당 평균 학생수

- 전국 : 38명→32.6명

초 35.5명→31.2명 / 중 38.0명→34.1명 / 고 42.7명→34.5명

- 충북 : 33.5명→29.9명

초 31.9명→28.6명 / 중 37.7명→31.8명 / 고 39.2명→34.8명

○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 전국 : 23.6명→21.1명

초 31명→25명 / 중 22.5명→18.1명 / 고 23.1명→18.3명

- 충북 : 21.2명→19.5명

초 25.7명→23.5명 / 중 18.6명→16.9명 / 고 17.9명→16명

○ 학교 교육환경 개선

- 교실난방 및 조도개선, 수세식 화장실 설치

-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 적정규모 학급으로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수업 가능

□ OECD 국가간 비교(2000. 7월 교육인적자원부 발간자료 발췌)

○ 학급당 학생수 : 선진국보다 7~16명이 많음

한 국	일 본	프 랑 스	미 국	영 국
38명	31명	25명	23명	22명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별 현황(2000)

구 분	계	35명이하	36~40	41~45	46이상	평균
초	112,437	34,748	35,328	31,995	10,366	35.7
중·고	97,491	19,678	26,332	30,089	21,392	40.3
계 (%)	209,928 (100)	54,426 (25.9)	61,660 (29.4)	62,084 (29.5)	31,758 (15.2)	37.9

○ 교사 1인당 평균학생수 : 선진국보다 8~14명이 많음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OECD국가 평균	17.1	14.9	15.1
한 국	31.0	22.5	23.1
일 본	21.4	17.3	14.4
독 일	21.6	16.3	13.6
영 국	22.0	16.7	16.7
미 국	16.5	17.1	14.7

○ 기타 교육환경

구 분	한 국	OECD 선진국
중 양 난 방	61% 미비(23만 5천실)	기본시설로 구비
교실밝기(300룩스)	53%가 기준미달(17만 6천실)	미국 : 750룩스
강 당	13% 보유(1,399개교)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 형태로 구비
체 육 관	6.1% 보유(640개교)	
수 영 장	1.3% 보유(133개교)	

질의 · 답변서

기관명 : 중등교육과

질의요지

- 교재발간 및 여론 수렴 경비 집행실적 및 계획은?

답변내용

- 교원노동법관련 직무연수를 초·중·고 관리자(교감, 교장) 및 전문직 연수 시 마다 실시하여 교단안정과 평화적 노사관계 정립구현에 노력하고 있음(2001년 실적)
 - 『교직단체 시스템의 이해』 700부 발간 배부
 - 『교원단체 관련 법규자료집』 1,300부 발간 각급학교 배부
- 교원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으므로 교재발간 예산 확보는 긴요한 사업임.
- 교원노조관련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교섭·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의 실시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7,000천원을 계상 하였음.
 - 금년도의 경우 2001. 10. 30.부터 단체교섭이 실시되며, 교원노조의 요구에 따라 여론조사 경비를 집행 예정에 있음.

행정자치부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77-6 /전화 02-3703-4565 /전송 02-3703-5527
인사국 복지과 과장 박재혁 사무관 김가영 담당자 이윤복 lyb0946@mogaha.go.kr

문서번호 복지 12532-428

시행일자 2001.08.27 (5년)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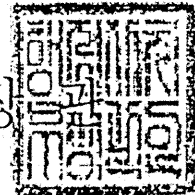
선 람	총무과장	이윤복	시 결 재	인사담당	김가영
접 수	일자	2001. 9. 10	공 람		
	시간				
	번호	3278			
	처리과	총무과			
	담당자	이윤복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2년도 대어장학금 부담금 예산편성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 대한 대학 장학금 대어에 필요한 2002년도 대어장학금 부담금 예산편성 요구내역과 그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00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02년 대어장학금부담금 예산편성 요구내역 1부.
2. 2002년 대어장학금부담금 편성기준 1부. 끝.

행정자치부



수신처 나01~07, 나10~나18, 다01~07, 다10~다18, 시·군·구

회계연도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단위: 원)

회계연도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자산	부채	순자산
2,239,793	2,239,793	0

자산	부채	순자산
2,239,793	2,239,793	0

자산	부채	순자산
2,239,793	2,239,793	0

자산	부채	순자산
2,239,793	2,239,793	0

자산	부채	순자산
2,239,793	2,239,793	0

자산	부채	순자산
2,239,793	2,239,793	0

회계연도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대여장학금 지급 및 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명)

년도	인원	대부금액	개인상환액	부담금액	부담금납부액	부담금차액
2000년	3,484	6,434,480,	5,278,351	1,156,129	1,156,129,	
2001년	3,643	6,512,060,	2,660,809	3,851,251	3,699,605,	- 151,646,
2002					3,899,605	예산요구액

※ 2000년도 개인상환액 증가는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자의 일시납

상환조건

대학졸업 후 2년거치 4년상환

충 청 북 도 교 육 청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545,400	21	1,104,500
2	564,100	22	1,148,100
3	582,800	23	1,191,600
4	601,600	24	1,235,100
5	620,500	25	1,278,500
6	639,200	26	1,322,000
7	657,900	27	1,367,500
8	676,600	28	1,413,100
9	695,500	29	1,460,500
10	716,300	30	1,508,200
11	736,800	31	1,555,800
12	757,600	32	1,603,400
13	795,500	33	1,651,800
14	833,400	34	1,700,000
15	871,400	35	1,748,400
16	909,500	36	1,796,600
17	947,200	37	1,838,700
18	986,700	38	1,880,800
19	1,026,000	39	1,922,900
20	1,065,200	40	1,965,000

비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2000년도 기타직보수 결산(기간제교사) 현황

(금액단위 : 천원)

학교급별	예산액(A) (인건비목)	집행액(B)	기타직보수 집행액(C)	집행잔액(A-C)	비고
유치원	8,474,247	8,448,878	1,131,238	25,369	월지급액 : 1,150천원 (9호봉기준고정급)
초등학교	121,437,504	121,118,258	7,301,580	319,246	
중학교	65,475,140	65,314,046	700,385	161,094	
고등학교	62,126,237	61,920,503	500,521	205,734	
특수학교	1,508,235	1,503,445	24,429	4,790	
계	259,021,363	258,305,130	9,658,153	716,233	

* 2000년도 인건비(목) 편성세목 :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비정규직보수

학교운영기본경비 배분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기준

학교급별로 교당단가, 학생당 단가를 정하여 교부기준금액 산출

본도 배분기준

단위학교별로 교당,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에 의거 산출하여 배분

붙임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운영비 교부기준 단가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기본경비 산출 단가표

2002년도 학교운영비 교부기준 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기준 단가)

(단위:천원)

학교급별	교당 단가	학생당 단가	비 고
초등학교	68,000	148	
중 학교	85,000	153	
인 문 고	105,000	232	
공 업 고	165,000	395	
실 업 고	130,000	240	
특수학교	97,000	454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545,400	21	1,104,500
2	564,100	22	1,148,100
3	582,800	23	1,191,600
4	601,600	24	1,235,100
5	620,500	25	1,278,500
6	639,200	26	1,322,000
7	657,900	27	1,367,500
8	676,600	28	1,413,100
9	695,500	29	1,460,500
10	716,300	30	1,508,200
11	736,800	31	1,555,800
12	757,600	32	1,603,400
13	795,500	33	1,651,800
14	833,400	34	1,700,000
15	871,400	35	1,748,400
16	909,500	36	1,796,600
17	947,200	37	1,838,700
18	986,700	38	1,880,800
19	1,026,000	39	1,922,900
20	1,065,200	40	1,965,000

비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2000년도 기타직보수 결산(기간제교사) 현황

(금액단위 : 천원)

학교급별	예산액(A) (인건비목)	집행액(B)	기타직보수 집행액(C)	집행잔액(A-C)	비고
유치원	8,474,247	8,448,878	1,131,238	25,369	월지급액 : 1,150천원 (9호봉기준고정급)
초등학교	121,437,504	121,118,258	7,301,580	319,246	
중학교	65,475,140	65,314,046	700,385	161,094	
고등학교	62,126,237	61,920,503	500,521	205,734	
특수학교	1,508,235	1,503,445	24,429	4,790	
계	259,021,363	258,305,130	9,658,153	716,233	

* 2000년도 인건비(목) 편성세목 :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비정규직보수

2002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산출 단가표

(단위:천원)

구 분	학급수	초등학교	중 학교	인문고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특수학교
교당단가	3학급	69,251	93,751	118,101	124,149	181,550	117,101	105,478
	4학급	71,134	95,534	120,834	133,866	193,700	122,534	107,536
	5학급	73,017	97,317	123,567	143,583	205,850	127,967	109,594
	6학급	74,900	99,100	126,300	153,300	218,000	133,400	111,652
	7학급	76,783	100,883	129,033	163,017	230,150	138,833	113,710
	8학급	78,666	102,666	131,766	172,734	242,300	144,266	115,768
	9학급	80,549	104,449	134,499	182,451	254,450	149,699	117,826
	10학급	82,432	106,232	137,232	192,168	266,600	155,132	119,884
	11학급	84,315	108,015	139,965	201,885	278,750	160,565	121,942
	12학급	86,200	109,800	142,700	211,600	290,900	166,000	124,000
	13학급	88,450	112,617	145,967	219,483	306,033	170,083	126,058
	14학급	90,700	115,434	149,234	227,366	321,166	174,166	128,116
	15학급	92,950	118,251	152,501	235,249	336,299	178,249	130,174
	16학급	95,200	121,068	155,768	243,132	351,432	182,332	132,232
	17학급	97,450	123,885	159,035	251,015	366,565	186,415	134,290
	18학급	99,700	126,700	162,300	258,900	381,700	190,500	136,348
	19학급	101,467	128,433	165,567	263,167	395,400	194,567	138,406
	20학급	103,234	130,166	168,834	267,434	409,100	198,634	140,464
	21학급	105,001	131,899	172,101	271,701	422,800	202,701	142,522
	22학급	106,768	133,632	175,368	275,968	436,500	206,768	144,580
	23학급	108,535	135,365	178,635	280,235	450,200	210,835	146,638
	24학급	110,300	137,100	181,900	284,500	463,900	214,900	148,700
	25학급	112,250	139,250	185,317	288,300	476,333	219,600	152,458
	26학급	114,200	141,400	188,734	292,100	488,766	224,300	156,216
	27학급	116,150	143,550	192,151	295,900	501,199	229,000	159,974
	28학급	118,100	145,700	195,568	299,700	513,632	233,700	163,732
	29학급	120,050	147,850	198,985	303,500	526,065	238,400	167,490
	30학급	122,000	150,000	202,400	307,300	538,500	243,100	171,248
	31학급	124,183	152,533	206,133	311,700	548,083	246,633	175,006
	32학급	126,366	155,066	209,866	316,100	557,666	250,166	178,764
	33학급	128,549	157,599	213,599	320,500	567,249	253,699	182,522
	34학급	130,732	160,132	217,332	324,900	576,832	257,232	186,280
	35학급	132,915	162,665	221,065	329,300	586,415	260,765	190,038
	36학급	135,100	165,200	224,800	333,700	596,000	264,300	193,800
	37학급	138,600	169,978	231,689	339,911	606,944	270,189	
	38학급	142,100	174,756	238,578	346,122	617,888	276,078	
	39학급	145,600	179,534	245,467	352,333	628,832	281,967	
	40학급	149,100	184,312	252,356	358,544	639,776	287,856	

구 분	학급수	초등학교	중 학교	인문고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특수학교
교당단가	41학급	152,600	189,090	259,245	364,755	650,720	293,745	
	42학급	156,100	193,868	266,134	370,966	661,664	299,634	
	43학급	159,600	198,646	273,023	377,177	672,608	305,523	
	44학급	163,100	203,424	279,912	383,388	683,552	311,412	
	45학급	166,600	208,200	286,800	389,600	694,500	317,300	
	46학급	168,080						
	47학급	169,560						
	48학급	171,040						
	49학급	172,520						
	50학급	174,000						
	51학급	175,480						
	52학급	176,960						
	53학급	178,440						
	54학급	179,920						
	55학급	181,400						
	56학급	182,880						
	57학급	184,360						
	58학급	185,840						
	59학급	187,320						
	60학급	188,800						
61학급	190,280							
62학급	191,760							
63학급	193,240							
분교당단가		37,450	49,550					
급당단가	1학급당	2,325	3,128	3,500	3,887	3,906	3,500	2,350
학생당단가	1인당	45	48	56	56	70	56	65
교원당단가	1인당	186	200	216	216	216	216	227

* 배분기준

1. 상기 배분 단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표준교육비의 단가이며 산출된 금액의 78%를 총액 배분
2. 초등학교 18학급 이상교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6,350천원 추가 지원
3. 초등학교 조리보조원 인건비를 11학급 이하교 6,350천원, 12~19학급교 12,700천원, 20학급 이상교는 19,050천원 추가 지원
4.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에서의 운영비 투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5.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는 목적사업비로 전출

2001.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학급규모별	초등학교	중 학교	인문계고	농업계고	공업계고	상업계고	특수학교
3학급	67,624	77,505	83,178			90,391	
4학급	71,676	89,825					
5학급	75,500	94,202	118,675				
6학급	80,295	97,772	112,348				
7학급	85,234	101,559					
8학급	91,915	102,665					
9학급	97,048	105,715	119,615				
10학급	99,803						
11학급		110,476					
12학급	115,610	116,485	126,152	192,933		158,493	
13학급	135,514	118,021					
14학급	129,866	129,378		216,277	293,843		
15학급	131,456	127,283	137,240		300,406		138,452
16학급	137,855	132,156	138,233				
17학급		133,425					
18학급	153,773	140,106	145,241	234,338	332,422	180,448	
19학급	158,009						
20학급		141,855			375,437		
21학급	175,438		155,471				
22학급	177,931	146,155					
23학급	183,325						
24학급	189,301	145,033	160,754				
25학급	192,389	146,577					184,500
26학급	199,465	149,148					
27학급	203,687	153,924	164,827			213,352	
28학급	209,652	155,954			446,272	202,984	
29학급	214,987	155,686		282,609			
30학급	218,030	162,501	168,216		471,852	213,740	
31학급							
32학급	230,999	169,413					
33학급	235,978	167,890					

(단위 : 천원)

학급규모별	초등학교	중 학교	인문계고	농업계고	공업계고	상업계고	특수학교
34학급	240,729						
35학급	244,309						
36학급	251,154				520,738		
37학급	257,237						
38학급	264,615						
39학급	270,788				557,317		
40학급	274,858						
41학급							
42학급	287,081						
43학급	292,355						
44학급	303,338						
45학급	308,868						
46학급							
47학급	316,692						
48학급							
49학급	323,812						
50학급	325,725						
51학급	334,737						
52학급	340,721						
53학급							
54학급							
55학급	350,919						
56학급							
57학급	363,032						
58학급	372,180						
59학급							
60학급							

※ 지원기준

1. 지원금액은 동일학급의 학교들에 대한 평균 금액임
2. 초등학교 18학급 이상교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6,350천원 추가지원비 포함
3. 초등학교 조리보조원 인건비를 11학급이하교 6,350천원, 12~19학급교 12,700천원, 20학급 이상교는 19,050천원 추가 지원비 포함
4. 중·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에서의 운영비 투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5.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는 목적사업비로 전출